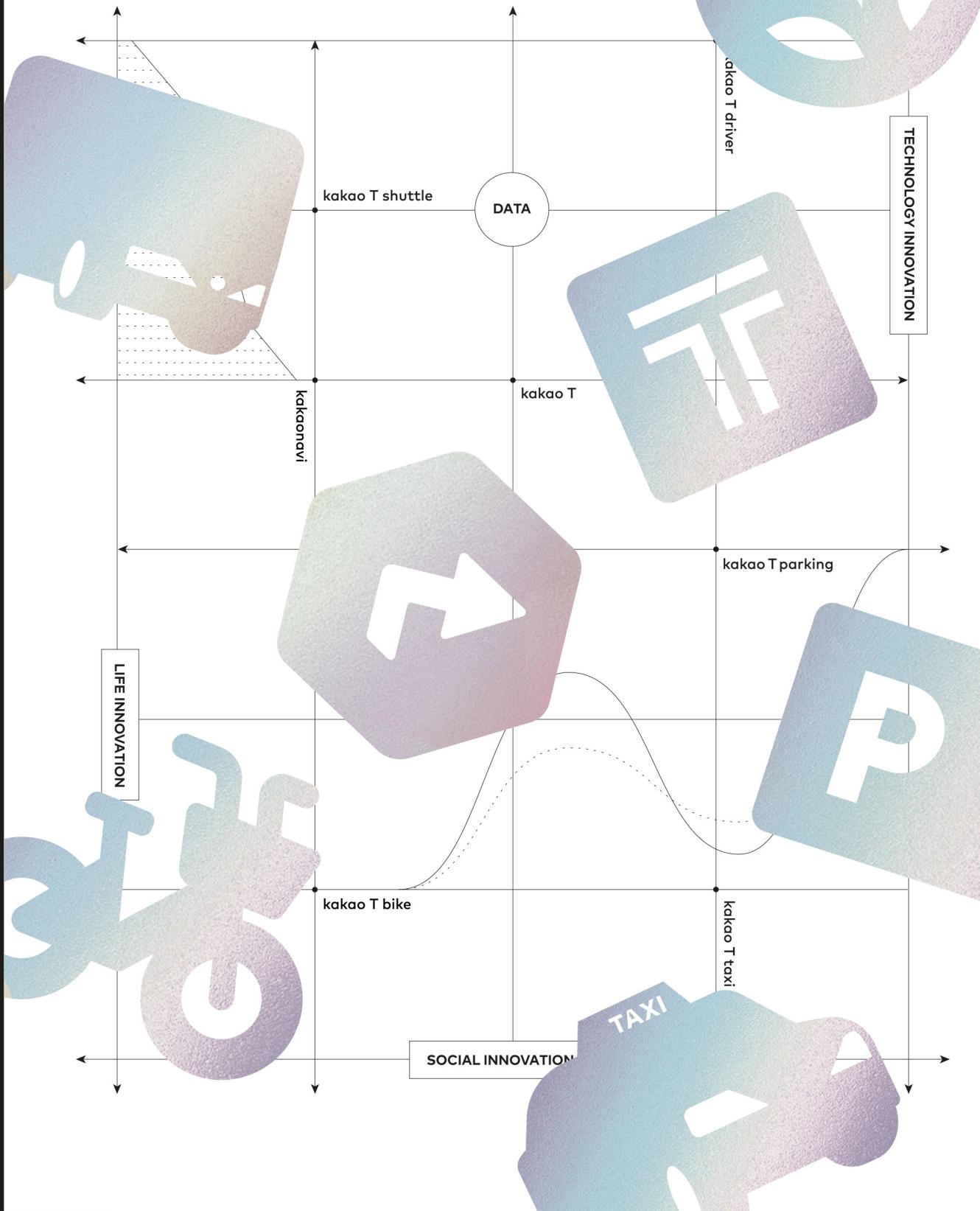


KAKAOMOBILITY
REPORT 2020

DATA DRIVEN
MOBILITY INNOVATION



we move
everyone's life
smarter and
faster.





카







발간사

2017년 카카오모빌리티의 출범 이후 매년 발간해 왔던 카카오모빌리티 리포트가 네 번째 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2015년 3월 첫 선을 보인 카카오택시는 카카오 T 블루(가맹택시), 카카오 T 블랙(고급택시), 카카오 T 벳비(대형택시) 등 다양한 이동 수요에 맞춰서 확장되었고, 대리, 내비, 주차, 바이크, 셔틀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와 함께 카카오 T 앱으로 통합되어 제공되고 있습니다. 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해서 축적된 데이터는 이동의 혁신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있으며, 본 리포트는 모빌리티 데이터를 다방면으로 분석하여 이동에 대한 다양한 통찰을 담아내어 왔습니다.

올해 전 세계에 닥친 코로나19는 세상의 변화를 앞당기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2개월 만에 2년 치의 디지털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변화의 속도가 빠릅니다. 변화하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을 꼽으라면 단연 데이터일 것입니다. 디지털 기술 기반의 새로운 소비, 업무 방식은 데이터의 활용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모빌리티 분야에 있어서도 데이터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습니다.

2020 카카오모빌리티 리포트에서는 그동안 카카오모빌리티가 집중해 왔던 '데이터 중심 이동 혁신'을 핵심 주제로 다루었습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카카오모빌리티는 다방면의 데이터 전문가를 영입하고, 고도의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해 왔습니다. 데이터를 이동의 혁신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데이터 중심의 의사결정 문화를 만들어 왔습니다. 이번 리포트는 데이터가 혁신적인 모빌리티 서비스로 이어지는 과정을 생생하고 입체적으로 담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본 결과물이 가속화되고 있는 디지털 전환의 시대를 함께 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주)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류 긍 선

카카오모빌리티 리포트 2020

카카오모빌리티 주요 서비스 소개

올해 카카오모빌리티 리포트는 데이터 중심
이동 혁신을 주제로 4개의 챕터로 구성했습니다.
기술·사회·생활을 주제로 모빌리티 데이터를 통해
바라본 이동 혁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2020년
가장 큰 이슈였던 코로나19로 인한 이동의 변화를
특집으로 다루었습니다.

먼저 제1장 기술혁신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가진
데이터의 의미를 살펴보고, 이동 혁신을 이루기 위해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활용하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담았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바탕으로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루어낸 기술적인
성과로서 택시 시장구조 변화, 내비의 FIN 기술,
대리의 수요예측시스템과 AI 추천요금에 대한 내용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제2장 사회혁신에서는 모빌리티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한 연구 및 노력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카카오 T 택시가
기존 택시의 불편함을 어떻게 해소하였는지를
살펴봤고, 서울디지털재단과 함께 연구한 도시 주차
문제 해결 방안, 대리운전기사를 위한 심야 셔틀 노선
제안에 대한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또한 사회 변화에 따라 달라진 사람들의 서비스
이용 행태를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했습니다.
교통안전공단과 협업을 통해 안전속도 5030 캠페인
사람들의 운전습관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모빌리티 데이터로 살펴봤고,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후에 음주문화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뉴욕과 서울의 택시 시장을 비교하며 앞으로
국내 모빌리티 서비스가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는지를 관찰했습니다.

제3장 생활혁신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서비스로 인해 달라진 사람들의 일상을 살펴봤습니다.
라스트마일 이동 수단으로 출시되었던 카카오 T
바이크가 실제로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기존 이동 생활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카카오 T
주차·셔틀·비즈니스 서비스가 어떠한 기능과 편의를
제공하는지를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또한 모빌리티
데이터에 남은 이동의 발자취를 따라 사람들의
일상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특집을 수록하여 코로나19 전과
후에 달라진 모빌리티 생활의 변화를 담았습니다.
사람들의 달라진 이동 패턴과 그에 따른 내비·택시
서비스의 이용 변화를 살펴봤고, 한국관광공사와의
협업을 통해 새로운 여행 트렌드를 분석하고 안전한
언택트 관광지를 선정했습니다. 또한 언택트 시대의
맞춤 서비스로서 카카오 T가 제공한 기능들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진행한 다양한 캠페인 및
활동을 함께 소개했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7년부터 리포트를 발간해
오면서 모빌리티 데이터의 사회적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꾸준히 조명했고,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며 그 가치를 더해가기를 희망해 왔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모빌리티 변화를 준비하는 데 있어
이 리포트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카카오모빌리티 리포트 2020
집필진 일동



카카오 T 택시

많은 사람들과 일상을 함께하는 카카오 T 택시는 지난 5년 동안 점차 다양해지는 택시 이용자의 이동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고자 꾸준히 서비스를 만들고 확대해왔습니다. 또한 이용자 최우선의 서비스를 지향하며, 단순히 택시와 승객을 연결해주는 서비스를 넘어 택시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올해 코로나19가 확산되었을 때는 자동결제 서비스 사용을 적극 권장해 대면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고, 가맹택시인 카카오 T 블루에는 이용자가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도록 방역을 실시, 바이러스 제로 택시로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또한 기사 및 이용자 대상으로 이동 중에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독려하는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택시기사들의 직업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들의 운행 효율성 개선을 통해 소득을 증대시키고, 인공지능 등 각종 첨단기술을 배차 프로세스에 반영하여 업무 환경을 개선시키고 있습니다.

카카오 T 택시는 신속한 서비스 확대와 첨단기술 결합을 하여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동시에, 이용자의 안전까지 생각하며 택시를 통한 이동에 있어 큰 축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카카오 T 택시는 일상 속에서 더 나은 서비스로 생활을 변화시키고, 이용자를 최우선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더불어 기사들의 업무 환경을 개선하여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돋는데 앞장서겠습니다.

- 2015.11 고급택시 서비스 카카오 T 블랙 출시
- 2018.04 인공지능 배차 시스템을 적용한 스마트 호출 출시
- 2019.03 가맹택시 서비스 카카오 T 블루 출시
- 2019.12 대형택시 서비스 카카오 T 벤티 베타 서비스 출시
- 2020.06 모범 택시호출 서비스 개편





카카오내비

카카오내비는 2016년 2월 출시된 스마트폰 기반의 내비게이션으로, 출시 이후 지속적인 성장으로 거듭하면서 월간 길 안내 시작 건수 1억 8천만 건에 이르는 국내 대표 내비게이션 서비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카카오내비 이용자뿐 아니라 카카오 T 서비스인 택시, 대리 등의 다양한 이용자들을 통해 수집되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24시간 차량 흐름을 분석, 1분 단위의 빠르고 정확한 길 안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플랫폼 지원을 위하여 안드로이드 오토, 카플레이에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꾸준한 개선을 통하여 이용자 편의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카카오내비는 3D 지도 적용, 전기차 유종 추가, 주행 UI 개편 등 다양한 이용자 니즈를 반영하고,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지속하며 스마트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중입니다. 특히 LTE 기반의 실내 측위 기술인 'FIN(Fused Indoor localizatioN, 융합 실내 측위)'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여 카카오내비에 적용, GPS가 달지 않는 터널에서도 정확하게 길안내를 받을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을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카카오내비는 길안내 이상의 혁신을 만들기 위해서도 노력합니다. 코로나19 선별 진료소와 마스크 판매 약국 정보 등을 제공하고, 응급환자의 빠르고 안전한 이송을 위한 구급차량 전용 내비게이션을 개발하는 등 내비게이션 기술이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2018.01 긴급출동 알림 서비스 국내 최초 서비스
- 2018.07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 국내 단독 탑재
- 2018.09 애플 카플레이 '카카오내비' 적용
- 2019.11 LG유플러스와 'U+카카오내비' 출시
- 2020.04 LTE 신호 기반 실내 측위 기술 'FIN' 적용





카카오 T 대리

- 2018.11 전화대리콜까지 수행하는 프로서вис 출시
- 2019.07 승차거부 없는 대리운전, 서포터즈 기사 모집
- 2019.11 대리운전 수요 예측 시스템 및 AI 추천 요금 도입
- 2020.06 카카오 T 대리 부산, 울산 지역 포인트 콜 출시
- 2020.08 카카오 T 대리 프리미엄 출시

카카오 T 대리는 2016년 5월 출시한 대리운전 앱 서비스입니다. 몇 번의 스마트폰 터치만으로 대리기사와 승객을 빠르고 편리하게 연결해주는 카카오 T 대리는 지난 약 4년간 4,400만 건의 운행완료를 기록하며, 대표적인 앱 대리운전 서비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카카오 T 대리는 쉬운 호출 방법과 빠른 기사 배정, 간편한 자동결제를 통해 기존의 전화 대리와의 차별화에 성공하며 매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치를 지도 상에 자동으로 표시하거나 자주 찾는 도착지를 저장하여 호출 시간을 줄였고, AI를 통해 최적의 요금을 추천함으로써 대부분의 이용자를 빠르게 기사와 매칭 시켜주고 있습니다. 또한 기사 배정 시 기사 얼굴과 이름, 보험사 정보를 승객에게 안내하고, 운행중에는 지인에게 안심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기능도 탑재해 안전한 서비스로 다가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하반기에는 차별화된 경험을 원하는 고객을 위한 고급 대리운전 서비스인 '카카오 T 대리 프리미엄'을 출시했습니다. 그동안 고급 대리운전 서비스는 법인 고객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었지만, 카카오 T 앱을 통해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양한 이용자 니즈에 발맞춰 서비스를 지속 확장하며, 대리운전 시장의 다각화와 이용자 접점 확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며 단속기준과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리운전에 대한 수요도 함께 높아졌습니다. 카카오 T 대리는 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대한민국 이용자 모두가 빠르고 편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카카오 T 주차

카카오 T 주차는 2017년 10월 통합 모빌리티 플랫폼 카카오 T 앱 출시와 함께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현재 서울과 경기 주요 지역 민영주차장 운영자 및 여러 지자체의 공영주차장과 제휴를 맺고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카카오 T 주차는 주차장에 ICT를 접목해 주차장을 '공유'하고 '연결'하는 '스마트 주차'를 실현함으로써 이동의 시작과 마지막을 끊김없이 연결한다는 가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은 앱(APP)에서 카카오내비를 통해 주차장까지 길안내를 받고, 실시간으로 이용 가능한 주차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제휴 주차장을 사전에 예약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동정산 서비스를 이용해 주차 요금을 모바일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비제휴 주차장의 경우, 현장 운행시간, 요금, 주차장 사진 등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받게 됩니다.

올해 코로나가 급증하면서 자차를 이용한 이동이 증가하여 주차 수요가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비대면 결제를 선호하는 이용자들의 자동정산 이용 또한 증가했습니다.

올해부터 카카오 T 주차는 TCP(T connected Parking)라는 주차관제 솔루션으로 주차 시장에서 입지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TCP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이 증가하면 주차 관련 데이터를 카카오 T 주차에 적재하게 되며, 이를 이용해 다양한 이동 예측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에버랜드, 영시티 등 대형 주차장을 직접 운영하며 얻은 카카오 T 주차만의 주차 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주차 산업의 선두주자로 발돋움해 나가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2018.11 입차 후 결제 가능한 자동정산 기능 오픈

2019.12 카카오 T 주차 관제 솔루션 출시

2020.03 카카오 T 비제휴 주차장 탐색 기능 추가

2020.04 코엑스 단지 내 주차장 운영 업무 협약 체결

2020.07 에버랜드 주차장 'IT 주차시스템' 도입





카카오 T 바이크

2019.03	경기 성남시, 인천 연수구 카카오 T 바이크 시범서비스 개시
2019.07	전북 전주시 서비스 개시
2019.09	울산 서비스 개시
2020.08	인천 서구, 서울 송파구 서비스 개시
2020.09	경기 하남시, 안산시 서비스 개시

카카오 T 바이크는 2019년 3월, 경기도 성남시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1,000대 규모로 시범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카카오 T 바이크는 자동차나 택시로 이동이 어렵고, 대중교통이 닿지 않는 중·단거리 이동을 위한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니즈가 확산되면서 서비스 출시 이후 많은 이용자들에게 사랑을 받는 서비스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 7월 전주시, 9월 울산시에도 바이크 서비스를 런칭한데 이어 더 다양한 지역으로 서비스 확대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T 바이크는 페달을 밟으면 전기 모터의 동력으로 가속에 도움을 주는 PAS(Pedal Assist System) 방식의 전기자전거라 적은 힘으로 언덕도 거뜬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한 정해진 대여소나 거치대가 없어 서비스 지역 어디서나 대여와 반납이 가능하다는 편리함이 더해져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바이크의 바구니에는 온 국민이 사랑하는 라이언, 어피치, 무지, 뉴브, 제이지 등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가 함께 탑승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T 바이크를 출퇴근시 혹은 여가활동을 위해 이용할 때 카카오 프렌즈 캐릭터와 함께 하는 재미까지 선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 한층 업그레이드된 모델로 더욱더 다양한 지역에서 카카오 T 바이크를 만나볼 수 있도록 힘쓰고 있으며, 이용자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바이크 의무 보험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바이크의 배터리를 충전하고, 수리하고, 재배치하는 전담운영팀이 24시간 체제로 현장 대응하여 만에 하나 발생하게 될 이슈들을 빠르게 처리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카카오 T 비즈니스

카카오 T 비즈니스는 일하는 사람들의 모든 이동이 간편해지도록 돋는 기업 회원 전용 서비스입니다. 2018년 2월 비즈 택시를 시작으로 플러스, 비즈 대리, 비즈 내비, 비즈 블랙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카카오 T 비즈니스는 6천여 개의 파트너 기업들과 더 똑똑한 업무 이동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카카오 T 앱의 장점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카카오 T 비즈니스는 종무팀의 수고는 덜어주고, 임직원의 편리함을 더하며, 업무상 이동에 필요한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돋고 있습니다. 종무 담당자에게는 쉽게 직원 및 예산 관리를 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과 투명한 탑승 이력 리포트를 제공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증대를, 임직원들에게는 빠르고 편안한 이동과 지갑이 필요 없는 자동결제로 손쉬운 정산을, 기업에는 회사 정책에 맞는 호출 조건 설정으로 일일이 임직원들의 사용 기준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과 함께 교통 유발 부담금 감면의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카카오 T 비즈니스는 올해 하반기 카카오 T 앱 내 '비즈니스 홈'을 오픈하여 택시·대리·내비 등 일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모든 이동 서비스를 더 편리하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비즈니스 홈을 이용하면 기업의 관리자, 마케터, 영업담당자, 또는 자영업자분들도 카카오 T의 모든 비즈니스 이동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이용 관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업의 임직원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이동이 필요한 모든 사람의 니즈를 세심하게 챙기고, 셔틀·주차·렌터카 등 다양한 이동 서비스들을 새롭게 연결하며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2018.02 카카오 T 비즈 택시 출시
- 2018.12 카카오 T 비즈 블랙 출시
- 2019.03 카카오 T 비즈 대리 출시
- 2020.04 카카오 T 비즈 내비, 카카오 T 플러스 출시
- 2020.09 비즈니스 홈 출시





카카오 T 셔틀

카카오 T 셔틀은 누구나 손쉽게 셔틀을 만들어 목적지까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셔틀 서비스입니다. 2019년 6월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코리아(Ultra Korea)의 셔틀버스를 시작으로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 멜론 뮤직 어워드(MMA), 해맞이, 겨울축제 등 다양한 행사에서 성공적인 시범서비스를 선보인 후 2020년 8월 정식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카카오 T 셔틀은 버스가 필요한 이용자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꼼꼼하게 방역을 마친 낮은 연식의 차량만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사님들 역시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 차별화된 셔틀버스 서비스를 선보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별로 가격 기준이 달라 일일이 문의하고 비교해야 했던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조건을 입력하면 곧바로 요금을 확인하고 배차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세버스를 빌리고 탄다는 것은 살면서 몇 번 없는 경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카카오 T 셔틀은 이러한 이동의 단편적인 순간도 편하고 즐거운 경험으로 만들어드리고 싶습니다. 카카오 T 택시가 전화로 호출하거나 길에서 택시를 잡던 방식을 스마트폰 앱으로 옮겨왔던 것처럼 카카오 T 셔틀 역시 불편하고 번거로웠던 전세버스 이용을 쉽고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2019.06 카카오 T 셔틀 베타 서비스 출시
- 2019.06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코리아 2019 셔틀 운행
- 2019.10 제16회 자라섬 국제 재즈 페스티벌 셔틀 운행
- 2019.11 멜론 뮤직 어워드(MMA) 2019 셔틀 운행
- 2020.01 해맞이 셔틀 및 겨울 축제 셔틀 운행
- 2020.08 카카오 T 셔틀 정식 서비스 출시



CONTENTS

1장. 기술 혁신

발간사	11
카카오모빌리티리포트 2020	12
카카오모빌리티 주요 서비스 소개	13

카카오모빌리티 데이터 A to Z

지금은 데이터 전성시대	33
데이터 중심 이동 혁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35
모빌리티 데이터의 힘	40

모빌리티 기술이 가져온 이동 혁신

택시와 데이터의 만남, 새로운 탑승 경험을 만들다	43
카카오내비는 어떻게 터널에서도 내 위치를 알까?	53
AI 추천 요금으로 더 빨라진 귀갓길	58

2장. 사회 혁신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

카카오 T가 바꾼 택시 이용의 불편함	65
데이터를 활용한 도시 주차 문제 해결	72
대리운전 기사를 위한 심야 셔틀 노선 제안	83

모빌리티 데이터로 보는 사회 변화

안전속도 5030, 속도를 낮추면 사람이 보인다	91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2년, 달라진 음주문화	99
뉴욕과 서울의 택시는 어떻게 다를까?	104

3장. 생활 혁신

모빌리티 서비스가 바꾼 일상

카카오 T 바이크 1년, 삶의 일부로 녹아들다	117
카카오 T 주차와 에버랜드가 만나면?	128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카카오 T 비즈니스	134
버스가 필요할 땐, 카카오 T 셔틀	140

데이터로 찾아낸 사람들의 일상

대한민국 택시 이동 캘린더	145
요즘 뜨는 취미, 주말서퍼 탐구생활	154
날씨와 바이크의 상관관계	160
황금 연휴를 앞두고 사람들이 향하는 곳	163

4장. 코로나19 특집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이동패턴

코로나19 팬데믹과 이동의 변화	169
카카오내비로 보는 뉴노멀 시대	173
코로나19가 택시 이용에 미친 영향	183
코로나19 시대의 달라진 여행	185

언택트 시대에 더 빛나는 카카오 T

안전한 이동을 위한 카카오 T 택시의 노력	201
위기가 가져온 변화, 카카오 T 주차의 성장	206
언택트 시대에 부응한 카카오 T 대리	208

부록

카카오내비 전국핫플레이스	212
카카오 T 택시 전국핫플레이스	220

기술 혁신

TECHNOLOGY
INNOVATION

CHAPTER 1

/ 카카오모빌리티 데이터 A to Z
/ 모빌리티 기술이 가져온 이동혁신

기술 혁신

/

카카오모빌리티 데이터 A to Z

지금은 데이터 전성시대

바야흐로 데이터의 시대다. 2020년 1월 데이터 3법 통과에 이어, 지난 7월 15일 정부에서 발표한 디지털 뉴딜 정책에서도 '데이터댐' 등 데이터 관련 정책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했다. 코로나19로 인한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 속에서 데이터에 대한 개인과 기업들의 관심도 폭증하고 있다. 데이터는 이미 우리 생활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 택시 호출, 모바일 쇼핑, 배달앱 등은 몇 시간이라도 중단되면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의 소식이 신문 기사에 등장할 만큼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이들 모바일 서비스는 데이터와 떼어놓고 생각하기 어렵다.

데이터는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것들은 가능하게 해주기도 하고, 우리 삶을 더 편리하고 윤택하게 해주는 원동력이 되기도 한다. 이동의 혁신을 기치로 출범한 카카오모빌리티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이동 경험을 만들어가고 있다. 2017년부터 발간해 오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 리포트 역시 데이터가 없었다면 세상에 선보이기 힘들었을 것이다.

데이터 시대의 역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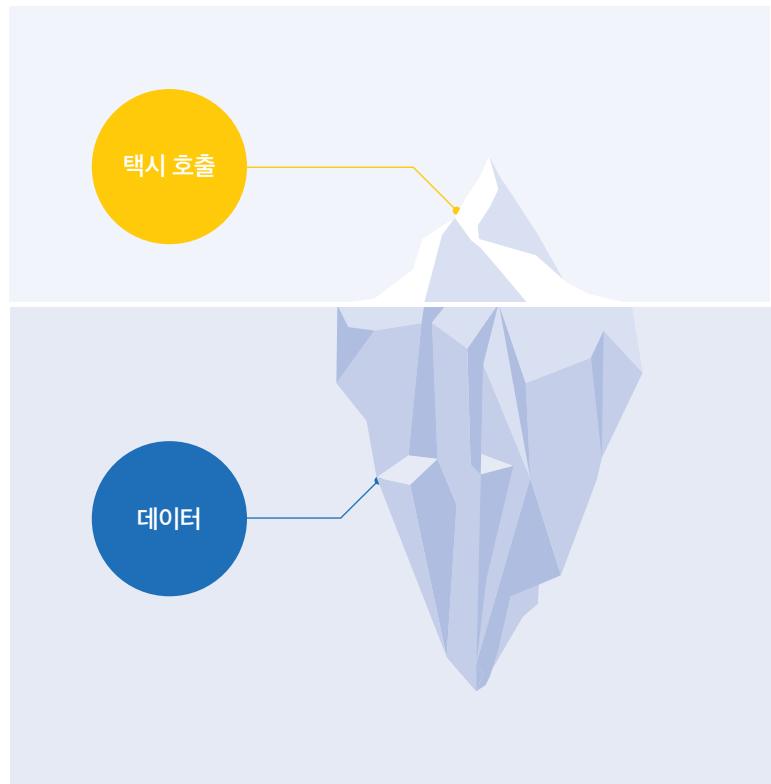
데이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낯선 존재다. 데이터가 일상에 자리 잡고, 화두로 떠올랐지만, 데이터가 실제로 어떻게 만들어지고, 활용되는지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무형의 존재인 데이터를 직접 눈으로 보거나 손으로 만질 수 없는 탓도 있지만, 소비자들이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이용한다고 하더라도 데이터를 직접 체험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이다.

데이터는 서비스의 이면에 숨어 있다. SF소설 거장 아서 클라크가 "충분히 발달한 과학 기술은 미법과 구별할 수 없다"라고 말한 대로다. 데이터에 기반한 혁신적 서비스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과정에는 고도의 데이터 인프라와 숙련된 인재,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문화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나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과정보다는 결과인 서비스다.

데이터의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종종 오해가 생기기도 한다. 택시 호출 앱이 대표적이다. 전화 콜택시에 익숙했던 사람들 중에는 앱으로 택시를 호출하는 것에 무슨 특별한 변화가 있는지 의아해하는 경우가 많다. 외견상 전화로 택시를 호출하는 것이 모바일 앱으로 바뀐 정도의 변화만 관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콜택시와 택시앱 사이에는 거대한 간극이 존재한다. 마치 빙산의 일각처럼 겉으로 보이는 서비스의 이면에는 거대한 데이터의 힘이 자리 잡고 있다. 콜택시는 서비스가 끝나면 데이터가 그대로 증발해 버린다. 반면, 택시앱은 데이터가 축적되고, 축적된 데이터가 서비스 개선에 적극 반영된다. 데이터에 기반한 혁신의 잠재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고, 이것이 쌓이면 모빌리티 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로 연결될 수 있다. 카카오 T 택시로 시작했던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동의 혁신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데이터의 중요성은 간과할 수 없다. 다음에 이어지는 글을 통해서 데이터가 어떤 차이를 만들어 내는지 상세히 살펴볼 것이다.

빙산의 일각



데이터 중심 이동 혁신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We move everyone's life smarter and faster'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동을 보다 빠르고 스마트하게 만드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탄생했다. 이러한 목표로 가는 여정 속에서 혁신을 지속하기 위해서 고민하고 있다. 그 중심에는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 자리 잡고 있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은 서비스를 어떤 형태, 어떤 지역, 어떤 방식으로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데이터에 기반하여 내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혁신적인 서비스를 기획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시장에 대한 오랜 경험에서 얻어지는 직관이나 영감도 그중 하나이다.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은 경우 사람의 경험은 혁신의 중요한 원천이다. 최근 들어서는 사람의 경험 위에 데이터가 추가되고 있다. 데이터는 주관적 판단과 결정을 객관적인 사실 기반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실리콘밸리의 테크 기업을 비롯하여 디지털 전환의 선두에 있는 기업들은 중요한 의사결정에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보편화되었다. 카카오모빌리티 역시 모빌리티 데이터를 비롯하여 평점 등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의사결정과 서비스 운영에 활용하고 있다. 데이터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추구하는 이동 혁신의 한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구슬이 서말이어도 뛰어야 보배"란 속담이 있듯이 데이터가 아무리 많아도 활용할 수 없으면 소용이 없다. 더 나은 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해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처리하며,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필수적이다. 기술적 역량은 일하는 방식, 조직 문화 등의 소프트 역량의 유기적인 뒷받침 속에서 의사결정으로 연결된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을까?

카카오모빌리티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위한 기술적 역량 확보에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해왔다. 다음 그림은 카카오모빌리티에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 및 서비스 운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도식화한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 서비스를 통해서 생성된 데이터가 의사결정에 반영되기까지 수집, 정제, 분석 등의 여정을 거치며, 데이터 전문가들의 협업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및 서비스 운영체계



데이터 수집 자동화 체계 구축을 담당하는 백엔드 엔지니어

데이터 수집은 '백엔드 엔지니어(Back-end engineer)'가 담당한다. 데이터는 택시에서 대리, 바이크, 주차, 내비에 이르기까지 카카오모빌리티의 서비스를 통해 24시간 365일 끊임없이 생성된다. 각각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백엔드 엔지니어는 서비스가 끊김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서버를 구축함과 동시에 서비스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고 혁신의 원재료가 될 수 있도록 데이터 수집을 자동화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백엔드 엔지니어 Flo

백엔드 엔지니어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서비스의 안정성과 확장성을 책임지는 개발자입니다. 개발 외에도 효율적인 데이터 관리, 에러 모니터링, 로그 관리 등 폭넓은 기술을 겸유한 후 서비스에 도입해서 완성도 높은 서비스를 만듭니다.

데이터 정제 및 재가공을 담당하는 데이터 엔지니어

백엔드 엔지니어의 노력으로 수집된 데이터는 데이터 엔지니어에 의해서 가공된다. 데이터 엔지니어(Data Engineer)들은 수집된 미가공 데이터(Raw Data)를 정제하는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작업은 ETL, 즉, 추출(Extract), 변환(Transform), 적재(Load) 작업을 통해서 내부 구성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된다.



데이터 엔지니어 Curry

데이터 엔지니어는 카카오모빌리티의 모든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방대한 양의 이동 데이터의 흐름을 잘 관리하고 적절히 적재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데이터들이 이동의 질을 높이는데 쓰일 수 있도록 재가공하여 제공하는 대용량 & 실시간 분산처리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합니다.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과학자를 통해
의사결정에 활용**

정제된 데이터는 데이터 분석가, 데이터 과학자, ML 모델러(Machine Learning Modeler) 등 다방면의 데이터 전문가들을 통해서 의사결정의 기반으로 활용된다. 이들 데이터 전문가들은 통계, 데이터마이닝 및 머신러닝 등 다양한 데이터 분석 방법을 사용해 데이터에 부가가치를 더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물들은 서비스 개발 및 운영에 직접 반영될 뿐만 아니라 경영진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뒷받침하는 자료로도 활용된다. 이를 통해서 개선되거나 새롭게 출시된 서비스는 새로운 데이터를 생성하게 되고, 이렇게 만들어진 데이터는 앞서 언급한 수집, 정제, 분석 등의 과정을 거치며 새로운 가치의 원천으로 활용된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Dominic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머신러닝, 통계, 네트워크 분석 등 다양한 방법론을 사용하여 방대한 데이터로부터 가치있는 결과를 도출하는 역할을 합니다.

위와 같은 일련의 여정을 거친 데이터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제공하는 서비스 곳곳에 녹아 들어가 있다.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여 만들어진 머신러닝 모델이 모빌리티 플랫폼의 핵심 기능인 배차, 요금 결정, 속도 예측 등에 활용되고 있는 것이 대표적이다. 카카오 T 택시에는 기사들이 선호하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이용자를 매칭 해주는 배차시스템에 머신러닝이 도입되어 있다. 더 많은 대리 이용자들이 목적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입한 AI 추천 요금제는 또 다른 예다. 카카오내비에서 목적지까지 소요시간을 예측하는 모델에도 머신러닝이 활용되고 있다.



데이터 분석가 Lia

데이터 분석가는 흩어진 데이터를 모아 다양한 가설로 탐구하고 실험하며, 여러 서비스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폭넓게 분석해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과 비즈니스의 성공을 컨설팅하는 역할을 합니다.

**데이터 중심의 혁신은
개발 도구와
인프라도 중요**

데이터 중심의 혁신을 지속하기 위해서 개발 도구와 인프라에 대한 많은 투자도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앞서 언급한 머신러닝 모델 기반 기능들이 보다 나은 성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자체적으로 구축한 모델 학습 및 배포 플랫폼은 이러한 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

또한 ETL, 머신러닝 모델학습 등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는 연산량이 많은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물리적인 컴퓨팅 장비들, 서버군이 필요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보다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비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지만, 카카오모빌리티의 엔지니어들은 그 속에서도 효과적으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여 서비스 운영의 효율을 높이고 있다.

통계 및 데이터마이닝 기반의 분석을 진행하기 위해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한다. 대용량 데이터에 대한 질의에도 빠르게 응답하기 위해서 임팔라와 같은 메모리 기반 데이터베이스를 적용했으며, 분석의 재사용성 및 공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Zeppelin, Jupyter Notebook과 같은 반응형 분석 도구들을 도입하고 있다. 시공간 데이터 시각화를 위해서는 카카오모빌리티 서비스에 맞게 새로 개발하거나 수정한 도구들을 사용하고 있다. 빠르게 변하는 기술적 흐름을 사업 과정에 접목한 다양한 노력과 성과들은 카카오 공동체 소속 개발자들이 준비하는 [if 카카오 개발자 컨퍼런스] 등을 통해서 공유하고 있기도 하다.

데이터의 시대는 도처에서 확인되고 있지만, 정작 데이터는 걸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컴퓨터의 시대는 도처에서 확인되고 있지만 생산성통계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라는 1980년대 솔로우 역설이 재현되는 것만 같다. 데이터는 기업의 인프라와 인재, 문화에 의해 소비자들이 이용한 서비스의 이면에 녹아서 개인의 일상을 더 편리하게 바꾸고, 이전보다 더 나은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한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동의 혁신을 위해서 내놓는 서비스에도 걸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이 동반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데이터 중심의 이동 혁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술적 역량을 축적해 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세계적인 모빌리티 기업들과 어깨를 나란히하게 될 것이다.

모빌리티 데이터의 힘

카카오모빌리티가 이동의 혁신을 위해서 활용하고 있는 데이터는 다양하다. 모빌리티 플랫폼의 다양한 이용자들이 만들어내는 평점 데이터, 자동결제 서비스 등에서 발생하는 지급결제 데이터 등 여타 인터넷 서비스들이 활용하는 데이터들도 다양한 맥락에서 다루고 있다. 다양한 데이터 중에서도 카카오모빌리티만의 차별적인 가치를 만드는 원천이라고 한다면 모빌리티 데이터를 빼놓을 수 없다.

이동은 인간의 모든 행위에 동반된다

사람의 행위를 파악하고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가 있음에도 모빌리티 데이터가 주목받는 이유는 이동의 중요성 때문이다. 이동은 시간과 경제적 비용이 요구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꾸준히 이동한다. 코로나19로 봉쇄된 도시의 가장 상징적인 모습이 텅 빈 거리나 한산한 버스인 것처럼 이동 없는 일상은 비정상적인 상황에서나 가능하다. 출퇴근과 같은 일상의 이동이나 여행과 같은 일상을 벗어난 이동이나에 관계없이 사람은 꾸준히 이동하고 이를 통해 각자의 삶을 표현한다. 아래 표는 사람들의 생활을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 형태를 보여준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사람들의 실제 이동 혹은 관심을 가지는 분야를 알아낼 수 있는 데이터라는 점에서 높은 가치를 가진다. 특히, 데이터 수집이 자동화되어 데이터의 양이 방대하고 즉각적인 분석이 가능한 형태라는 점에서 더욱 높은 가치를 가진다.

모빌리티 데이터와 비모빌리티 데이터의 특징

데이터	장점	단점
비모빌리티 데이터	금융 결제 데이터	정확한 행위 파악 가능 이동 경로, 결제가 없는 행위 유추 불가
	검색 데이터	관심사 파악 가능, 행위 예측 가능 실제 행위 여부 파악 불가
모빌리티 데이터	휴대폰 위치 데이터	지속적으로 정확한 위치 파악 가능 사용자 방문지, 혹은 행위 유추가 어려움
	대중교통 승하차 데이터	이동 경로 및 시간 정확히 파악 가능 행위 유추 및 최종 목적지 확인 불가
모빌리티 서비스 이동 데이터	이동 경로 및 시간, 비결제를 포함한 행위 파악 가능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가 존재

모빌리티 데이터 vs. 금융, 검색 데이터

데이터 중 생활 패턴과 연관된 대표적인 데이터들이 금융 데이터와 검색 데이터이다. 이중 금융 데이터는 이용자의 정확한 행위를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 검색 데이터는 다수 이용자들의 관심사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제 행위가 없는 행위나 실제 이동이 없는 행위, 그리고 경로 등을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만으로 사람들의 생활 패턴을 완벽하게 유추하기는 어렵다.

반면, 모빌리티 데이터들은 다수의 이용자들이 남긴 이동의 흔적을 통해서 사람들의 일상과 사회 변화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다. 휴대폰 위치 데이터는 이용자의 이동 내역을 지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대중교통 승하차 데이터는 수집이 용이하기 때문에 다양한 의사결정에 사용되고 있다. 다만, 이 데이터들은 이용자가 실제로 방문한 장소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공통적인 단점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다수의 장소들이 한 건물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은 경우에는 단순 위치 정보를 가지고 이용자들이 방문한 장소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찾아본 맛집과 직접 가본 맛집 정보의 가치는 질적으로 다르다

이러한 한계점을 일정 부분 해결해 줄 수 있는 데이터가 바로 모빌리티 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데이터이다. 모빌리티 서비스 데이터는 출발지, 도착지 및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차별점이 있다. 이동의 목적을 보다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고 결제가 동반되지 않는 장소에 대한 정보 또한 확인할 수 있다. 경로 정보 수집 시에도 이동 수단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동 수단 별로 스마트한 이동 서비스 제공으로 연결도 가능하다.

카카오모빌리티의 데이터는 몇 가지 추가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각 장소(POI, Point of Interest)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대표적인 지도앱인 카카오맵 등과 함께 지속적으로 POI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높은 수준으로 이동의 목적을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 천만명 이상의 이용자를 가지고 있는 서비스라는 것도 큰 장점이다. 아무리 양질의 데이터라 하더라도 데이터의 양이 전체 집단을 대표할 만큼 충분하지 않다면 데이터의 신뢰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카카오모빌리티 대부분의 서비스는 이러한 점에서 자유롭다. 더불어 카카오모빌리티의 데이터는 높은 수준의 데이터 관련 기술을 적용하여 분석 가능한 형태로 변환되어 있고 다양한 데이터 전문가들이 빠른 시간에 분석이 가능하다.

이렇듯 카카오모빌리티의 데이터는 언제 왜 특정 장소에 사람이 몰리는지에서 사람들의 생활과 사회의 변화를 읽을 수 있는 힘이 있다. 여타 모빌리티 데이터 혹은 비모빌리티 데이터와 달리 실제 이동 여부와 목적지를 알 수 있다는 점은 차별적인 가치를 가진다. 요컨대, 찾아본 맛집과 직접 가본 맛집 정보의 가치는 질적으로 다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다양한 고품질 모빌리티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용자들이 모빌리티 혁신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서비스 고도화를 이루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 리포트 2020에서는 데이터와 기술을 기반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혁신을 기술혁신, 사회혁신, 생활혁신의 측면에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기술 혁신

/

모빌리티 기술이 가져온 이동 혁신

택시와 데이터의 만남,
새로운 탑승 경험을 만들다

데이터는 오랜 기간 규제로 유지되어 왔던 택시 시장에 변화를 만들고 있다. 도시의 점과 점을 연결해 주던 택시에 모빌리티 플랫폼이 더해지면서부터다. 제도와 기술의 상호작용 속에서 탄생한 택시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 카카오 T 택시는 세계적으로 부상한 모빌리티 혁신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이동에 기술을 입히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택시는 기술과 제도의 역사적 산물이다. 택시라는 말 자체가 1891년 독일의 빌헬름 브룬이 발명한 '택시미터(taximeter)'라는 당대의 신기술에서 유래했다. 최초의 기계식 미터기는 1980년대 전자식 미터기로 서서히 대체되었지만, 자동차 바퀴의 회전수로 주행거리를 측정하고 요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다. 최근에는 기술의 도입이 한걸음 더 나아가 GPS에 기반한 앱미터기의 확산이 가속화되고 있다. 택시의 탄생에는 기술의 역할이 컸지만, 택시 시장이 100년 이상 이어져 올 수 있었던 것에는 제도의 역할도 적지 않았다. 총량 규제, 가격 규제, 품질 규제 등의 다양한 제도적 개입으로 택시 시장은 붕괴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 정부가 택시 요금을 승인하고, 택시 면허 발급량을 관리하고, 승차거부 등을 단속하여 택시 서비스 품질을 관리해 왔던 것들이 택시 시장의 실패를 막기 위한 규제의 대표적 사례들이었다.

택시 시장은
레몬 시장이자
얇은 시장

택시 시장은 어떤 문제들을 안고 있었기에 제도적 보완이 필요했을까?
우선, 택시 서비스는 사전에 서비스의 품질을 알기 어려운 속성을 가진다. 이른바 경험재(experience goods)라고 불리는 특징을 가지는 것이다. 택시 서비스에 대한 평가는 탑승을 마친 후에 가능하다. 불특정 택시를 마주하는 이용자는 항상 서비스 품질의 불확실성에 노출되어 있었다.

이렇게 공급자와 이용자 사이에 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보 비대칭이 존재하는 시장을 흔히 레몬 시장(Market for Lemons)이라고 부른다. 2001년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조지 애컬로프의 유명한 논문에서 유래한 용어이다. 레몬 시장에서는 좋은 서비스는 사라지고, 나쁜 서비스만이 시장에 남게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기도 한다. 택시 시장에서 정부가 미터기와 요금을 엄격하게 관리하거나 불친절 기사 신고 제도 운영 등 서비스 기준 관리에 적극 개입해 왔던 것은 바가지요금이나 불친절한 서비스 등으로부터 택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편이었다.

택시 시장은 얇은 시장이다. 얇은 시장(thin market)은 수요와 공급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매칭이 어려운 시장을 말한다. 대개의 시장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한 장소에 모여서 거래를 하는데 반해서, 택시 시장은 한 곳에 모이기 힘들다. 거래 상대방을 찾기가 쉽지 않고, 가격 흥정이 쉽지 않은 구조다. 택시 수요는 이용자의 위치에 따라 지리적으로 분산되어 있고, 택시의 주된 영업방식인 배회영업은 운전 중인 택시 기사의 시야에 이용자가 들어와야지만 수요와 공급의 매칭이 가능했다. 호출영업의 경우에도 콜센터 직원이 대응할 수 있는 하루 호출량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었다. 얇고 넓게 퍼져 있는 이용자를 찾기 위해서는 오랜 연륜을 가진 택시 기사의 감이 중요했다.

얇은 시장은 공급이 지나치게 늘어날 경우 서비스 품질이 악화되고, 급기야 시장이 붕괴될 수도 있다. 택시 시장에 공급이 늘어난 만큼 택시 수요가 늘지 않으면, 수익성이 좋은 지역이나 경로의 이용자를 가려 받거나 무리한 운행이 반복될 수 있다. 결국, 악화된 서비스 품질로 인해서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고 공급 과잉이 심화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전통적으로 택시 시장은 정부에서 발급하는 면허의 수를 제한함으로써 공급 과잉을 방지해 왔다. 또한 가격 흥정이 어려운 여건을 반영하여 요금도 사전에 정부에서 정하였다.

모빌리티 플랫폼의 등장, 제도의 한계를 기술이 보완

2010년대 이후 모빌리티 플랫폼의 등장과 함께 택시 시장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규제가 보완해 주던 택시 시장의 한계를 기술이 보완해 주기 시작하였고, 새로운 수요도 충족시키면서 시장의 성장 잠재력도 커졌다. 택시 제도의 틀 속에 있던 택시 시장은 기존의 틀을 깨고 모빌리티라는 새로운 시장의 하나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모빌리티 플랫폼은 데이터를 통해서 제도의 보완이 필요했던 택시 시장의 속성을 바꾼다. 먼저 평가데이터는 경험재의 성격을 바꾼다. 이전에는 불친절한 택시 기사로 인한 불쾌한 경험을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으로 대응해야만 했다. 하지만 다수의 이용자들은 항의조차 못하고 불쾌한 경험을 속으로 삼아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평가 데이터가 쌓이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이용자의 경험을 통해서 쌓이는 평점, 리뷰 데이터는 경험재인 택시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한다. 데이터가 쌓이면 불쾌한 경험을 양산하는 기사를 친절한 기사와 분별해 낼 수 있다. 얼마나 자주, 얼마나 심각한 수준의 불쾌한 경험을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가능해짐에 따라 기사 재교육, 제재 등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지리적, 물리적으로 제약되어 있던 수요와 공급의 매칭을 온라인 공간을 통해서 보완함으로써 얇은 시장을 두꺼운 시장으로 바꾼다. 탄력요금제를 비롯하여 다양한 요금 체계가 도입될 수 있어서 다양한 서비스가 경쟁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될 수 있다. 카카오 T 택시가 데이터를 활용하여 택시 시장 구조를 어떻게 바꾸어 나가고 있는지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자.

카카오 T 택시, 데이터로 택시 시장 구조를 바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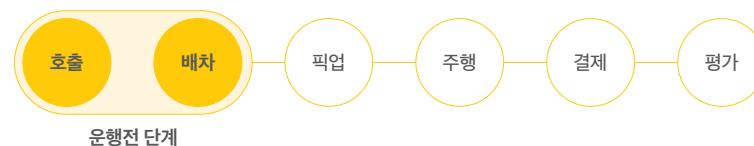
카카오 T 택시는 데이터가 택시 시장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다. 카카오 T 택시 이용자가 호출하고, 하차하는 모든 과정에 데이터가 활용되고 있다. 카카오 T 택시 이용 과정은 호출-배차-픽업-주행-결제-평가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과정은 크게 택시의 운행 기준으로 운행전 단계, 운행중 단계, 운행후 단계로 묶어 볼 수 있다. 운행전, 운행중, 운행후 모든 단계를 거쳐 데이터가 기술적 진전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다.

카카오 T 택시 운행 과정별 기술적 진전과 활용 데이터

운행단계	과정	기술 기반 혁신	활용 데이터
운행전 단계	호출	이용자 니즈 분석에 기반한 다양한 서비스	예상 요금, 호출 가능 차량 데이터 등
	배차	인공지능 기반 배차 알고리즘	기사평가, 기사 배차 수락율, 기사 운행 패턴, 택시 수공급비, 실시간 교통상황, 최근 운행 분포, ETA (예상 소요 시간) 등
운행중 단계	픽업	GPS 기반 이용자 위치 및 목적지 확인, 기사 프로필 확인	이용자 / 기사 위치 데이터, 기사 / 차량 데이터 (성별, 사진, 차량정보, 위치, 연락처 등), 소요시간, 이동거리, 도로정보 등
	주행	최적 경로 산정, 앱미터기 기반 요금 산정	교통정보, 실시간 위치 데이터, 요금정보 (기본 요금, 시간 요금, 거리 요금, 시간거리 병산 요금, 할증요금) 등
운행후 단계	결제	자동결제, 다양한 요금제	이용자 인증 데이터, 결제 매체 데이터 등
	평가	택시 품질 평가, 이용자 평가	이동경로, 친절 태그 데이터 등

택시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한 다양한 호출

운행 전 단계에서는 이용자의 호출과 기사의 배차가 이루어진다. 우선 호출 과정에서 이용자는 카카오 T 앱의 택시 호출 화면에서 다양한 택시 서비스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호출할 수 있다. 2020년 8월 현재 이용할 수 있는 택시 서비스로는 택시 일반호출, 스마트호출, 모범택시 호출, 가맹택시 호출(카카오 T 블루), 고급택시 호출(카카오 T 블랙), 넓고 쾌적한 다인승 차량 호출(카카오 T 벤티) 등이 있다.



다양한 이동의 맥락에 있는 이용자의 니즈를 맞추기 위해서는 이용자 경험을 측정하고, 개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카카오모빌리티의 서비스 기획 담당자들은 이용자 테스트(UT), 집단 심층 인터뷰(FGI), 이용자여정지도(Customer Journey Map) 등 다양한 이용자 경험 분석 방법론과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서 차량, 배차방식, 가격 등을 세분화하여 제공함으로써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있다.

얇은 시장을 두꺼운 시장으로 만들어 주는 인공지능 배차

이용자가 택시 서비스를 선택하여 호출하게 되면 인공지능에 기반한 배차 알고리즘이 작동한다. 배차 알고리즘은 이용자와 택시의 최적 매칭을 위해서 다양하고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한다. 기본적으로 택시가 이용자에게 도착하는데 걸리는 예상 도착 시간(ETA)이 고려된다. 이용자를 중심으로 빠른 시간 안에 도착할 수 있는 반경 내의 택시가 배차 후보가 되는 것이다. 단순히 거리만 고려되는 것은 아니다. 조금 떨어져 있어도 실시간 교통량 등의 다양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가장 빠르게 도착할 수 있는 택시가 있을 경우 해당 차량이 배차된다. 이용자들 입장에서 가까운 택시란 단순히 거리가 가깝다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이용자의 시간을 절약해줄 수 있느냐에 가깝기 때문이다.

배차에 고려되는 요소는 기사와 승객의 위치뿐만이 아니다. 배차 알고리즘이 분석하는 데이터에는 기사에 대한 정량적 데이터도 있다. 이용자가 남긴 기사에 대한 평가, 기사의 배차 수락률, 기사 운행 패턴, 최근 운행 분포 등 여러 경우의 수들이 분석 대상에 포함된다. 배차 성공 확률이 더 높은 기사를 매칭 하는 것은 물론, 서비스 품질도 간과할 수 없기에 같은 반경 내에 있다면 더 친절하고 평가가 좋은 기사를 이용자와 매칭 하기 위함이다. 이와 더불어 택시 수요와 공급 비율 등도 최적의 매칭을 위해서 분석되어 활용된다. 이를 통해서 이용자는 단순히 빠르게 이동하는 것이라 보다 기분 좋은 이동이 가능할 수 있다.

배차 시스템은 모빌리티 플랫폼의 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루에 쓰나지는 수백만 개의 호출을 이용자와 기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빠르게 매칭 시킬 수 있는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끊임없는 기술 고도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고도의 배차 시스템을 통해서 기존에는 배회영업 중심의 얇은 시장이었던 택시 시장이 플랫폼 기반으로 두꺼운 시장으로 성공적으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된다. 택시 시장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용자가 택시를 탈 수 있을 확률은 높아진다. 마찬가지로 기사가 이용자를 만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진다. 수백만 개의 호출을 사람이 일일이 배차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인공지능에 기반한 배차 시스템이 문제없이 처리해 준 덕분이다.

AI 기반 배차 알고리즘 개요



위치측정 기술로 편리해진 픽업과 주행

이용자가 호출하여 배차에 성공하면 픽업과 주행의 단계로 넘어간다. 픽업은 택시가 이용자가 있는 위치까지 이동하는 과정, 주행은 승차 지점에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용자와 기사가 약속한 장소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이용자와 기사의 위치를 정확하게 측정하여 최적의 경로를 산정하는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이용자는 택시 요금을 미리 예상할 수 있고, 목적지로 가는 길을 일일이 설명할 필요도 사라진다. 기사도 이용자의 탑승 위치와 목적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들이는 수고를 덜 수 있다.

픽업과 주행 과정에서 사용되는 GPS 기반 위치측정 기술은 택시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인 요금 산정에도 활용된다. 택시 요금 산정은 기계식에서 전자식으로 업그레이드된 미터기가 담당하고 있었으나 GPS 기반 앱미터기가 점차 대체해 나가고 있다.

카카오 T 블루는 2020년 7월 24일 중형택시로는 국내에서 최초로 '앱미터기' 서비스를 시작했다. 2019년 9월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임시허가를 받은데 이어 올해 7월 국토교통부의 앱미터기 임시 검정 기준안을 업계 최초로 통과함으로써 중형택시 운행에 도입하게 된 것이다. 앱미터기를 쓰는 택시는 유료 도로 비용이나 시외 할증 비용이 앱에서 자동 계산되며, 탄력요금제, 사전확정요금제와 같은 다양한 요금제 적용도 가능해진다. 이용자도 기존에는 앞좌석에 달린 미터기로만 확인 가능했던 요금을 이용자 본인의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새로운 택시 서비스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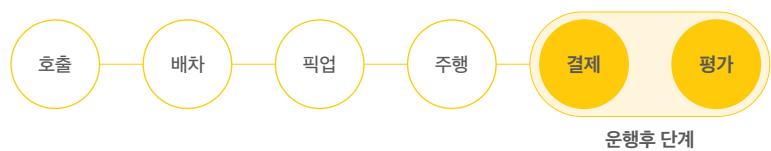


결제는 편하게, 평가는 소중하게

택시가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도착하게 되면 결제와 평가 과정이 이어진다. 택시 요금 결제는 현금이나 카드 등 실물 결제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지만, 카카오 T 택시는 앱을 이용해서 자동결제가 가능하다. 결제 이후에도 출발지, 목적지, 운행 시간, 운행정보, 택시정보, 요금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언택트 소비가 중요해지면서 카카오 T 택시의 자동결제 사용도 급증하고 있다.

카카오 T 택시의 최종 단계는 기사와 이용자의 상호 평가 단계이다. 배달앱, 모바일 쇼핑 등 대부분의 인터넷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이용자가 남기는 평점과 후기는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는 핵심 데이터로 활용된다. 특히, 경험재의 특징을 가지는 택시 서비스에 있어서 평가 데이터의 존재는 매우 중요하다.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미리 가늠해 봄으로써 이용자들이 감수해야만 했던 불확실성이 크게 낮아질 수 있다. 택시 시장에 존재하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크게 완화될 수 있는 것이다.

누적된 평가 데이터는 배차 알고리즘에 반영되어 택시 서비스 품질 개선에도 영향을 미친다. 기존에는 비정기적인 단속이나 이용자의 신고로 관리되고 있었던 승차거부, 불친절, 난폭운전 등을 데이터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택시 시장 전체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평가 데이터는 기사의 서비스 교육에서도 활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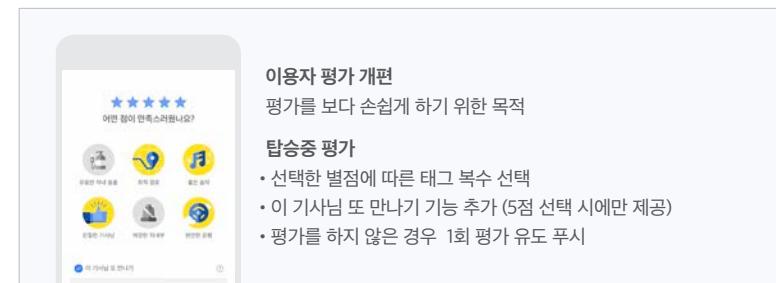


평가 데이터로 택시 품질 평가 가능한가?

많은 서비스가 그렇듯 카카오 T 택시도 이용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고민한다. 수많은 이용자와 기사 사이에 제공되는 택시 서비스 특성상 품질에 대해서는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다. 이용자 다수가 만족하는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카카오 T 택시는 데이터로 이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다.

카카오 T 택시는 올해 5월 말부터 기사 평가 시스템을 고도화하였다. 기존에도 서비스 평점을 매길 수 있었지만, 개편된 평가 시스템은 택시 승차와 동시에 평점과 서비스에 대한 태그를 복수 선택할 수 있다. 개편 이후 6~7월 두 달 사이에만 약 700만 개에 가까운 이용자 평점 태그가 수집되었다.

카카오 T 택시 이용자 평가 개편 내용



좋은
택시 서비스는
ooo이다.

개편된 평가 시스템을 통해서 수집된 데이터는 이용자가 기대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먼저, 5점으로 평가한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상위 5개 태그는 '친절한 기사님(31%)', '편안한 운행(24%)', '최적 경로(20%)', '깨끗한 차내부(17%)', '좋은 음악(6%)'으로 나타났다. 이용자들이 기대하는 가장 좋은 택시 서비스는 '친절한 기사님이 좋은 음악이 나오는 깨끗한 차량으로 편안하고 빠르게 이동해 주는 것'으로 재구성해 볼 수 있다.

반면, 택시 서비스에 불만족한 이용자들이 남긴 태그는 상반된다. 1점으로 평가한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태그는 '기사님 서비스(25%)', '운행 경로(15%)', '운전 습관(14%)', '불필요한 대화(11%)', '부당요금(7%)' 순으로 나타났다. 5점 상위 평점 태그와 많은 부분 대비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용자들이 가장 불쾌감을 느끼는 택시 서비스는 '불친절한 기사님이 좋은 음악 대신 불필요한 대화를 거는 동시에 나쁜 운전 습관과 함께 기사의 주관적 판단에 따른 경로로 운행하고, 요금은 과도하게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데이터는 택시 이용자가 원하거나 기피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가능하게 해 준다. 이를 바탕으로 좋은 택시 서비스가 나쁜 택시 서비스를 시장에서 몰아내는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평점별 평가 태그 순위

순위	평점 1점	평점 2점	평점 3점	평점 4점	평점 5점
1위	기사님 서비스 25%	기사님서비스 25%	운전습관 24%	운행 경로 25%	친절한 기사님 31%
2위	운행 경로 15%	운전 습관 23%	기사님 서비스 22%	운전 습관 22%	편안한 운행 24%
3위	운전 습관 14%	운행 경로 18%	운행 경로 18%	기사님 서비스 20%	최적 경로 20%
4위	불필요한 대화 11%	불필요한 대화 10%	차량 청결/냄새 13%	차량 청결/냄새 13%	깨끗한 차내부 17%
5위	부당요금 7%	차량 청결/냄새 8%	불필요한 대화 9%	불필요한 대화없음 10%	좋은 음악 6%

· 평점별 평가 태그 순위 | 2020년 6월~7월 기준

카카오 T 택시가 그리는 선순환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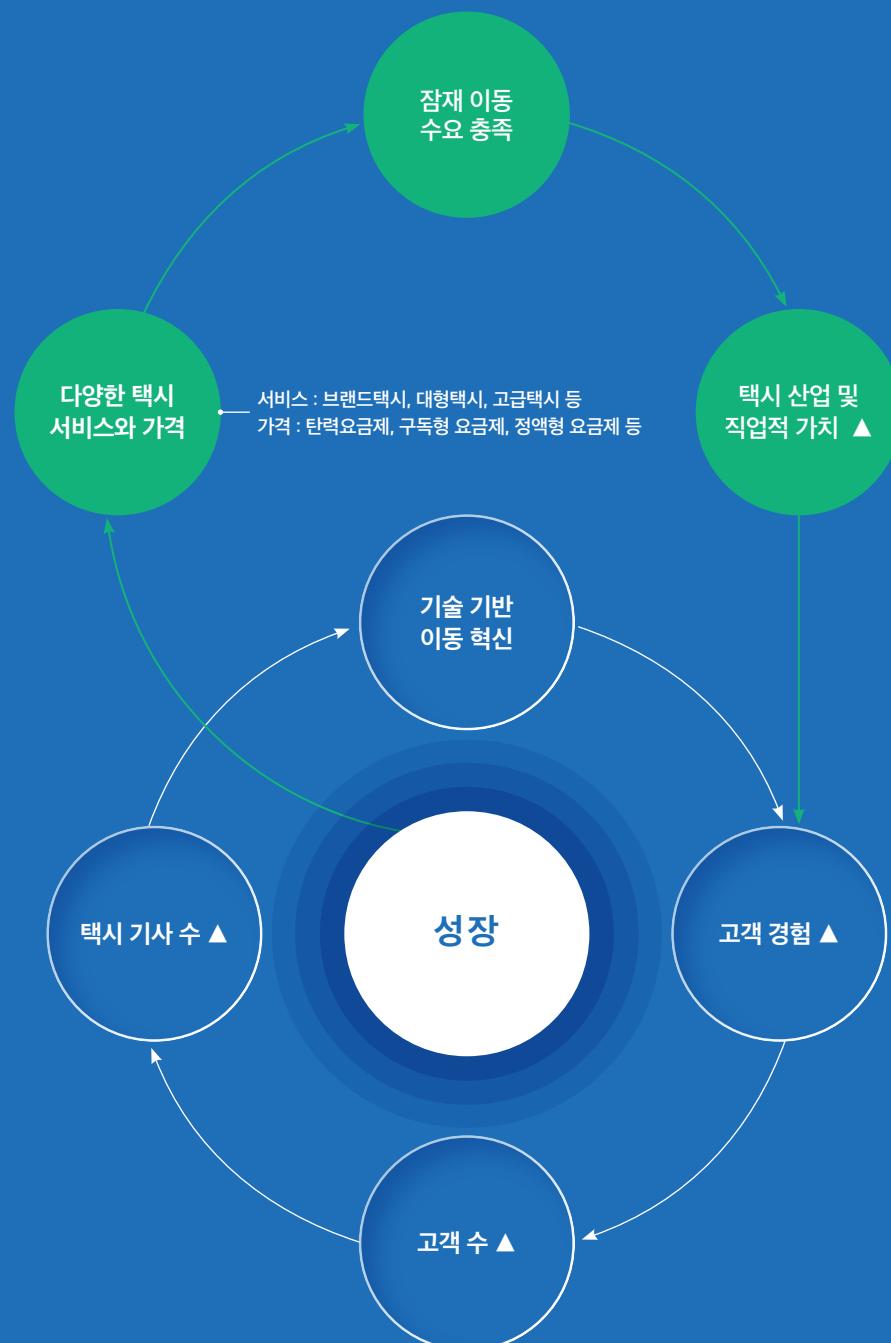
우리나라 택시 시장은 교통수단의 발전 속에서 서서히 악순환 구조에 빠졌다. 택시는 1980년대 중반에만 하더라도 수송 분담률이 서울시 기준 18%가 넘어서며 지하철(1985년 기준 15.6%), 승용차(13.2%)보다 더 많은 시민의 이동을 담당하고 있었다. 그러나 자가용 이용 증가, 대중교통체계의 개선 등 택시를 대체하는 교통수단의 증가 속에서 서울 택시의 수송 분담률은 지난 30여 년간 지속 하락하여 2018년에는 6.3%까지 떨어졌다. 택시의 영업 환경 악화는 택시 운전자 근로여건의 악화와 택시 가동률 저하로 연결되었다. 이러한 공급 여건 속에서 불친절, 승차거부, 난폭운전 등 택시 서비스의 고질적 문제가 이어지면서 이용자의 외면을 받는 악순환이 지속되어 왔다.

악순환에 빠진 택시 시장은 새로운 혁신을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다. 전통적으로 택시가 담당해 왔던 도시의 지점 간 이동 분야에서 승차공유를 중심으로 전 세계적으로 모빌리티 혁신이 시작되었고, 자가용 승용차로 인한 교통 체증 등 도시의 교통 문제를 위한 솔루션으로 모빌리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하는 MaaS(Mobility as a Service)가 대두되고 있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온전히 실행되기가 어려운 환경이 계속되었다.

카카오 T 택시는 택시 시장의 악순환 구조를 선순환 구조로 바꾸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기술에 기반한 다양한 택시 서비스를 만들어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것이 시작이었다. 차별화된 고객 경험은 택시를 기피하던 이용자를 다시 택시 시장으로 모으고, 시장이 성장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들이 창출되어 더 많은 인재들이 택시 시장에 진입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올해 3월 운송 플랫폼 사업의 제도화를 골자로 하는 여객법 개정으로 그동안 번번이 마주해야 했던 택시 업계의 갈등과 법적 장벽들도 완화됨에 따라 택시 시장을 혁신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고 있다.

카카오 T 택시의 양적, 질적 성장 선순환

- 기술 기반 양적 성장
- 기술 및 서비스 기반 질적 성장



스타벅스 같은 브랜드 택시를 꿈꾼다

카카오 T 블루는 이러한 선순환 과정을 빠르게 실행하기 위해서 탄생하게 된 브랜드 택시다. 소비자들이 어떤 도시에 가서든 안심하고 스타벅스 커피를 마시는 것처럼 택시 이용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택시 서비스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전 세계에 있는 수많은 스타벅스 매장들의 커피맛과 서비스 수준이 천차만별이면 오늘날의 스타벅스가 존재하기 힘들 것이다. 마찬가지로 브랜드 택시는 택시 이용자들이 믿고 찾을 수 있는 이동 서비스가 되는 것이 존재의 이유가 된다.

카카오 T 블루는 차별화되면서도 높은 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오랜 관행 속에 형성되어 있는 택시 생태계를 한 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이용자가 호출할 경우 자동배차가 이루어지게 하여 승차거부의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고 택시 시장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었던 사납금 제도에서 벗어나 월급제를 선도적으로 도입해 나가는 등 한 걸음씩 천천히 변화를 일궈 나가고 있다.

카카오 T 블루의 시도 중 주목할 것은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품질 개선 시도다. 카카오 T 블루는 매달 이용자의 누적 평가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사별 평점을 산정하고 있다. 누적된 평점 데이터를 바탕으로 기사별 서비스 품질을 꾸준히 모니터링함으로써 브랜드 택시 기사의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용자가 만족한 서비스를 제공한 택시 기사에게는 보상의 근거를 마련하고, 이용자의 불만은 서비스 개선을 위한 피드백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이용자의 목소리가 서비스 품질에 직접적으로 반영될 경로가 생김으로써 기존에 택시 이용자들이 감내해야 했던 불편들이 사라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

사실 평점 시스템은 온라인 플랫폼에는 이미 일반화되었다. 카카오 T 택시도 평점 데이터를 꾸준히 축적해 왔다. 다만,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데이터를 기사의 서비스 품질에 반영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종개 플랫폼 입장에서 개별 택시 사업자의 품질에 개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았기 때문이다. 브랜드 택시는 이러한 구도를 바꾼다. 브랜드의 존립을 위해서는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가맹점의 행위를 적극 막아야 하는 유인구조를 가지기 때문이다. 브랜드 택시는 그 자체로 시장의 선순환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 정체된 택시 시장에 '메기 효과'를 일으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택시 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자리 잡게 되면 시장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자가용, 대중교통에 밀려났던 택시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회복되면서 잠재했던 수요들이 택시 시장에 유입될 수 있다. 택시 시장의 파이가 커지면, 기사 처우 개선의 여건이 형성되면서 양질의 일자리들이 더 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 카카오 T 블루는 이용자들이 믿을 수 있는 브랜드가 되기 위해서 데이터에 기반한 서비스 혁신 노력을 지속하여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

카카오내비는 어떻게 터널에서도 내 위치를 알까?

내비게이션이 보편화되었지만, 터널에서는 여전히 길을 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GPS 신호는 터널 안에서 수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도로 중에는 터널이 끝나자마자 갈림길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터널을 지나면서도 제한속도를 지켜야 하는 경우도 있다. 내비만 믿고 터널을 지나다가는 갈림길에 빠지는 것을 놓칠 수도 있고, 과속으로 과태료를 내야 하는 낭패를 경험할 수도 있는 것이다.

터널 통과 직후에 갈림길이 나타나는 사례 (강남순환로 봉천터널, 수서방면)



터널에서도 정확한 길안내를 받을 수 있는 FIN 기술

카카오내비는 전 국민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LTE 신호에서 해결책을 찾았다. GPS 신호가 닿지 않는 곳에서도 LTE 신호는 잡히기 때문이다. LTE는 터널을 포함하여 건물 내부, 지하 등 신호가 미치지 않는 곳이 거의 없다. 다만, LTE는 GPS와 같이 위치 측정을 위해서 나온 기술은 아니기에 LTE 신호만 있다고 바로 길안내가 가능한 것은 아니다. LTE 신호를 위치 측정에 활용할 수 있는 별도의 기술이 필요하다.

카카오내비에 적용한 LTE 신호 기반의 실내 측위 기술이 바로 'FIN'이다. 'FIN(Fused Indoor localizatioN, 융합 실내 측위)'은 LTE 신호 패턴을 비교 분석해 정확한 위치를 찾을 수 있도록 구현된 기술이다. LTE 신호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뒤, 사용자 스마트폰의 LTE 신호 패턴을 비교 분석해 위치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기존의 내비들이 운전자의 GPS 신호가 잡히지 않는 터널에서는 시간에 따른 가상의 예측 값을 사용하는 것과 대비된다. 카카오내비는 터널 속에서도 '진짜' 위치를 실시간으로 계산하여 정확한 길안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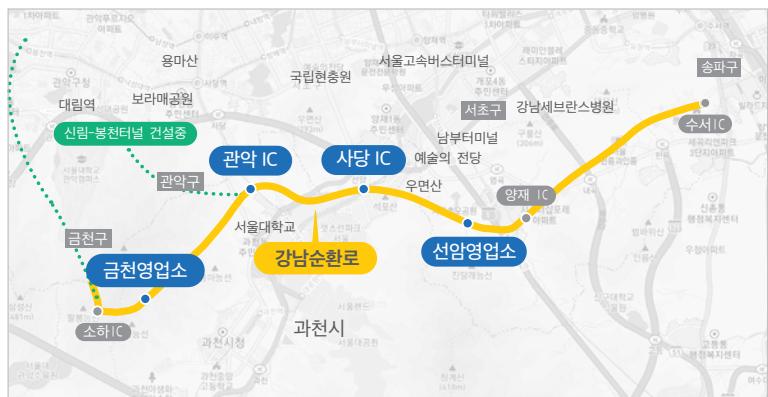
• 자료: 카카오맵

강남순환로 3개 터널에서 시범서비스 최초 시작

FIN 기술이 적용된 카카오내비 시범서비스는 강남순환로 터널 3곳(관악터널, 봉천터널, 서초터널)에서 올해 4월부터 시작되었다. 강남순환로는 전체 구간의 절반에 가까운 11km가량이 터널로 건설되었다. 터널 주행 중에 갈림길로 빠져야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여 터널 내 길안내에 대한 이용자 요구가 높은 곳이다. 터널 안에서부터 미리 정확한 차선을 택해야 하고, 길을 잘못 들어서면 경우에 따라 10km 이상 길을 돌아가야 하는 것이 비일비재했다.

FIN 도입으로 강남순환로를 이용하는 운전자들의 상당수가 분기 지점에서의 긴장과 불편함에서 해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FIN 기술의 적용 전과 후의 내비 데이터 비교해 보면, '경로 재탐색' 비율이 10% 가량이나 줄었다. 2019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7만 대 이상의 차량이 오가는 도로임을 감안하면 적어도 연간 200만 번 이상의 경로 이탈을 막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경로를 이탈할 경우 10km 이상 길을 돌아가야 하는 것까지 감안한다면, FIN으로 인해서 절약되는 시간과 연료의 경제적 가치는 쉽게 산정하기 힘든 수준이다. FIN은 스마트폰 외에 별도의 기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도 가진다. 스마트폰이 데이터 통신을 위해서 기지국과 주고받는 신호의 세기 값을 이용하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에서 GPS를 활용하듯 LTE 신호를 활용하기 때문에 신호 활용에 따른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측위 개선을 위한 비용은 적게 들면서도 막대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것이다.

강남순환로 노선도



향후 전국의 모든 터널 적용 및 지하주차장 내 위치 확인까지 확대 목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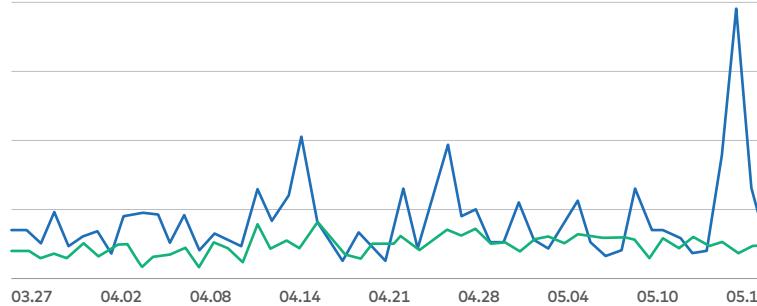
현재 FIN 시범서비스는 강남순환로, 남산터널, 내부순환도로 등 서울의 주요 터널에 도입되었다. 향후 시범서비스에서 축적된 위치 데이터와 측위 기술을 기반으로 고도화가 지속되고, 도입 지역이 확대되면 GPS 음영지역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는 과거의 일이 될 것이다. 또한, 무선이동통신 신호가 실내나 지하에서도 수신되는 것을 감안한다면 FIN 활용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도로의 자동차뿐만 아니라 지하 주차시설, 대형 쇼핑몰, 공장 등에서 활용될 자율주행 로봇을 위한 전천후 측위 기술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FIN 적용 여부에 따른 이탈률 비교 (2020년)

- Fin 미적용시 이탈률
- Fin 적용시 이탈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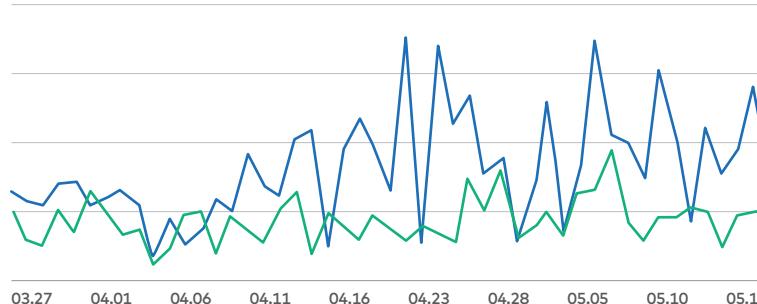
강남 순환로 사당IC 방면

사용자 경로 이탈 건수



강남 순환로 신림로 출구 방면

사용자 경로 이탈 건수



• FIN 적용 여부에 따른 이탈률 비교 | 2020년 3월 27일~5월 17일, 카카오내비 이용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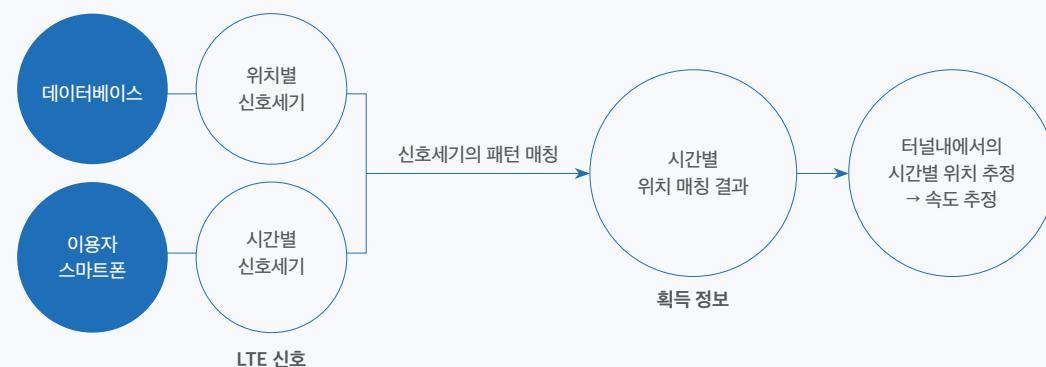
FIN이 터널에서 길을 찾는 것은 퍼즐 맞추기?

FIN은 조금 쉽게 이해해보기 위해서 가상의 터널이 있다고 해보자. 터널 길이는 1,000m이고, 터널 100m 지점마다 스피커가 설치되어 있다. 스피커들이 소리를 내는 패턴은 다음과 같다. 터널 입구로부터 100m 지점의 첫 번째 스피커는 '하나', 200m 지점의 두 번째 스피커는 '둘', 300m 지점의 세 번째 스피커는 '셋'이라고 외치는 방식으로 총 아홉 개의 스피커에서 각각의 숫자를 외치는 소리가 반복해서 나온다. 이제 운전자가 이 터널을 지난다고 생각해 보면, 터널 입구로부터 100m 지점에 가까워지면 '하나'가 들리고, 500m 저점은 '다섯'이, 터널 통과 100m를 앞두고는 '아홉'이 들릴 것이다. 운전자는 GPS가 없더라도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로 현재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소리의 패턴에 익숙해지면, '넷'과 '다섯'이 비슷하게 들리는 지점은 터널 입구에서 450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예측할 수도 있다.

FIN은 위 가상의 사례에서 '스피커의 소리' 대신 '이동통신 중계기의 LTE 신호'의 패턴을 분석하여 운전자의 위치를 측정하는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중계기마다 발생하는 고유의 LTE 신호 패턴을 중계기의 위치별로 저장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일종의 LTE 신호 지도를 구축하는 것이다.

LTE 신호를 통해서 위치를 측정하는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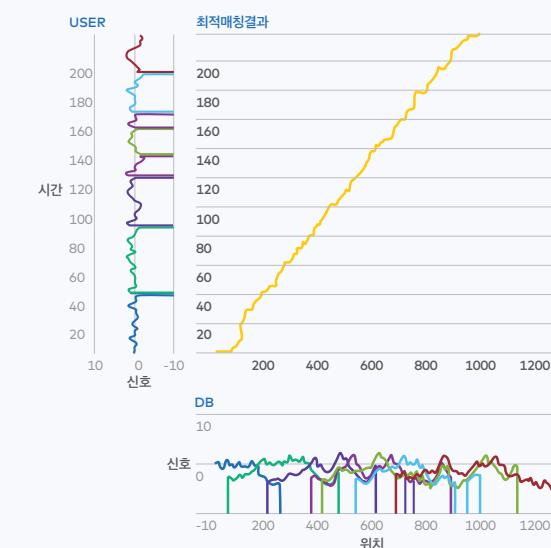
이렇게 구축한 데이터베이스(DB)를 토대로 카카오내비 이용자가 터널을 지나면서 수신한 LTE 신호를 분석한다. 먼저, DB에 저장된 LTE 신호와 이용자 스마트폰에 수신된 LTE 신호 패턴을 비교한다. 이어서 LTE 신호가 일치하는 시점의 중계기 위치와 이용자의 이동 시간을 매칭 한다. 이렇게 구한 위치와 시간 정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터널 내에서의 차량 속도를 구해낼 수 있다.

이론은 쉽지만 현실에서 길안내 서비스에 적용한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다. 가상의 터널과 달리 현실의 터널에서 발생하는 LTE 신호는 간단한 숫자를 반복해서 외치는 것처럼 단순한 패턴도 아니고, 동일한 간격으로 발생하지도 않는다. 사람은 쉽게 판별하기 어려운 LTE 신호들이 중첩되어 나타난다. 또한 LTE 신호를 수신하는 스마트폰은 빠르게 움직이는 자동차 실내에 있다는 점도 가상과 현실의 큰 차이다. FIN이 빛이 밟는 지점은 바로 이론에만 그치지 않고, 기술을 상용화하여 현실에 적용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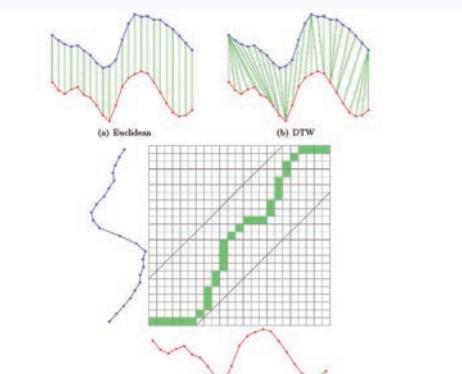
FIN이 위치를 찾는 방법은 패턴 매칭에 기반한다. 이는 퍼즐 맞추기에 비유할 수 있다. 전체 퍼즐 그림에서 퍼즐 조각의 위치를 찾아내는 것이다. 만약 연속된 몇 개의 퍼즐 조각이 있다면 정확한 위치를 찾아낼 확률이 높아진다. 중계기 신호들은 위치에 따라서 여러 신호들이 연속적으로 중첩되어 있는데, 이러한 신호들의 조각을 통해서 위치를 찾아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은 DTW(Dynamic time warping)라고 불리는 시계열 데이터의 유사도를 측정하는 방법을 활용한 것이다.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18년 10월부터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과 공동연구를 통해서 FIN을 개발하였다. 전체 퍼즐 그림 구축 기술에 해당하는 LTE 신호 지도의 위치 기반 데이터 구축 기술을 개발하여 카카오내비에 적용했다.

터널 내에서 신호 패턴 매칭 예시



DTW 매칭 이론을 설명한 논문



- 터널 내에서 신호 패턴 매칭 예시 | 좌상단: 시간별 신호 패턴(사용자), 우하단: 위치별 신호 패턴(DB) 우상단: 최적매칭결과
- DTW 매칭 이론을 설명한 논문 | Zheng Zhang et al.(2015), "Dynamic time warping under pointwise shape context"

AI 추천요금으로 더 빨라진 귀갓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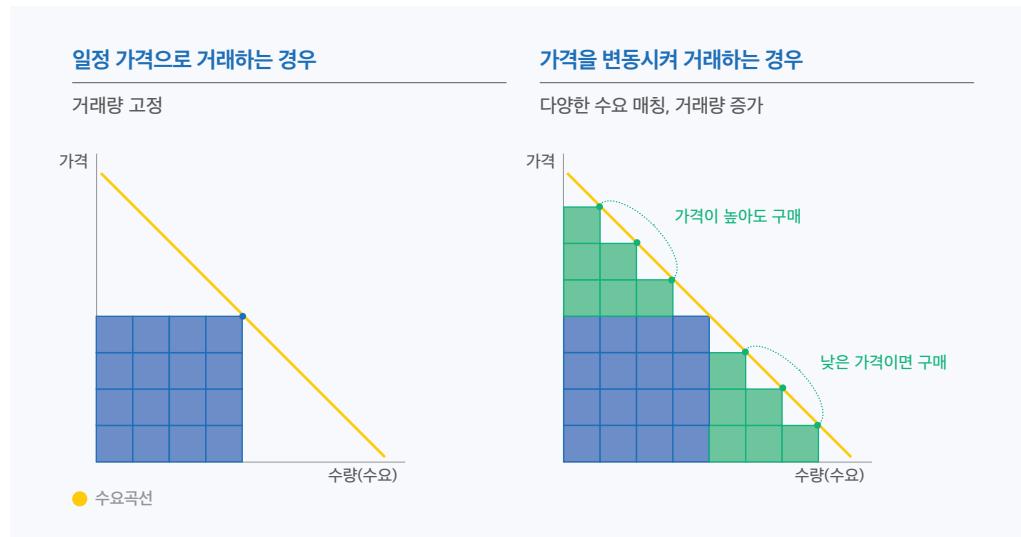
다이내믹 프라이싱(dynamic pricing)은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화시키는 가격 정책을 말한다. 주식시장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주식시장에서는 매수자와 매도자의 실시간 호가에 따라서 동일한 주식의 가격이 매 순간 요동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백화점이나 마트에서도 다이내믹 프라이싱을 만날 수 있다. 매장 문을 닫을 시간이 다가오면, 식품 코너에서 '마감 세일', '떨어진 상품' 등의 가격 할인 이벤트를 실시하는 것이 다이내믹 프라이싱의 친숙한 사례이다. 가격이 떨어지면 그만큼 더 많은 소비자들을 유인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영업 마감 후에 폐기했을 식품을 소비자들에게 판매할 수 있게 된다.

탄력적인 가격은 더 많은 수요와 공급의 매칭을 만들어줘

가격이 바뀔 수 있다면 더 많은 거래가 일어날 수 있다.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은 언제나 더 비싸게 팔고 싶은 사람과 더 싸게 사고 싶은 사람 간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이어진다. 가격이 변화하지 않으면 거래 당사자는 가격 이외의 조건이 바뀔 때까지 거래를 미룬다. 그러나 다이내믹 프라이싱이 도입되면, 가격이 높을 때는 더 많은 공급이 시장으로 유입되고, 가격이 낮아지면 더 많은 수요를 유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가격이 고정된 상황보다 수요와 공급이 매칭 될 확률이 높아지면서 더 많은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

금융시장과 달리 현실에서는 가격을 실시간으로 조정하는 것이 힘들었다. 당장 실시간으로 가격표를 바꾸는데만 상당한 메뉴 비용(menu cost)이 발생한다.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거래가 확산되면서 다이내믹 프라이싱으로 거래되는 제품과 서비스도 일상에 자리 잡고 있다. 전자상거래, 온라인 티켓팅, O2O 서비스 등에서는 다이내믹 프라이싱을 쉽게 접할 수 있다.

다이내믹 프라이싱이 확산되는 배경에는 인터넷이 자리 잡고 있다. 인터넷의 대중화로 실시간으로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해진 덕분에 구매자의 의향과 판매자의 의향을 상호 일치시키기 위한 비용이 크게 줄어든 덕이 크다.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오프라인에서만 거래되던 많은 상품과 서비스들도 점점 더 온라인으로 거래되고 있다.



실시간
수요와 공급이
반영되는
AI 추천요금

AI 추천요금은 카카오 T 대리가 대리운전 시장에 도입한 다이내믹 프라이싱이다. AI 추천요금은 수요, 공급, 경로 특성을 반영하여 가장 빠르게 귀가할 수 있는 최적의 요금을 인공지능이 분석하여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다. 귀갓길에 곤란을 겪는 대리운전 서비스 이용자들의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서 AI가 문제 해결사로 도입된 것이다.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음주를 곁들인 모임이 끝난 후 대리 운전이 잘 잡히지 않으면 그만큼 고로운 것도 없다. 특히, 비 오는 날처럼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절실히 수록 집에 보내줄 대리기사는 없는 경우가 많다. 비 오는 날 대리가 유독 잡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궂은 날씨에는 출근하는 기사의 수가 평소에 비해 적기 때문에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용자가 더 절실히 상황을 대리기사는 기피하는 상황일 가능성이 높은 경우가 많고, 자연스레 귀가할 수 있는 확률도 낮아지는 것이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경우에 무사히 귀가하기 위해서는 평소의 대리운전 요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문제는 얼마나 더 높은 요금을 지불해야 집에 갈 수 있는지 알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대리운전 서비스는 이용자가 호출하는 매 순간 새롭게 만들어지는 상품에 가깝기 때문에 가격을 매기는 것이 쉽지 않다.

AI 추천요금은 바로 이러한 어려움에 빠진 이용자를 위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최적의 요금을 분석하여 이용자에게 추천해 준다. AI 추천요금은 실시간성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의 기사와 호출 현황이 가격에 곧바로 반영된다. 동일한 경로라도 수요와 공급이 실시간으로 요동치는 상황에 따라 AI 추천요금도 달라질 수 있게 된다.

AI가 해결하는 문제는 무엇?

모든 거래가 그렇듯 대리운전 서비스도 이용자가 생각하는 요금과 기사가 생각하는 요금이 일치할 때 거래가 이루어진다. 가격이 너무 비싸면 대리운전 이용자는 싼 가격의 대리운전기사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차를 두고 버스, 택시 등 다른 이동 수단을 이용할 것이다. 반대로 가격이 너무 싸면 대리운전기사는 더 비싼 요금을 지불할 이용자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아예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버릴 수도 있다. 카카오 T 대리가 도입한 AI 추천요금은 최적의 가격 수준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는 머신러닝 모델에 기반한다.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기사와 이용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최적의 가격은 얼마인가를 예측해 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기사와 이용자 각각의 수락률을 계산하는 모델을 만들었다. 기사 수락률 계산 모델은 경로, 시간, 가격, 주변 현황 등 20가지 이상의 요인을 고려하여 만들어졌다. 이용자 수락률 계산 모델은 이동거리, 예상 가격 등을 고려했다.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한 기사 및 이용자의 모델을 통해서 이용자의 출발지와 목적지를 입력되는 순간 AI 추천요금이 계산되어 앱에 표시된다.

대리운전 시장에 도입된 다이내믹 프라이싱이 특별한 이유

다이내믹 프라이싱이 일상적으로 자리 잡은 또 다른 서비스로는 항공권 예매 서비스가 있다. 항공권은 성수기와 비수기의 가격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동일한 일정과 노선, 좌석의 가격이 매일매일 달라지기도 한다. 어떤 웹사이트를 통해서 항공권을 검색했는지에 따라서도 가격이 천차만별인 경우도 흔하다. 항공권은 다양한 가격을 통해서 다양한 선호와 지불 의향을 가진 소비자를 충족시켜 나가고 있다.

대리운전 시장은 항공권 예매 시장에 비해서 다이내믹 프라이싱 도입이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수요, 공급, 상품 특성 등 많은 면에서 상대적으로 고도의 기술을 요구한다. 하나씩 뜯어서 살펴보면, 우선 수요의 변화의 주기 차이가 크다. 항공권 예매 시장은 성수기, 비수기와 같이 계절적 주기를 가지고 수요가 변화한다. 반면, 대리 운전 시장은 짧은 시간 동안에도 변화가 크게 일어난다. 그만큼 수요와 공급의 매칭이 쉽지 않다.

대리운전 시장의 공급도 매우 유동적이고, 예측의 난이도가 높다. 항공권 예매 시장은 공급자인 항공사의 계획에 따라 사전에 노선, 일정, 좌석수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상품의 수가 제한적이고, 공급의 예측 가능성 높다. 반면, 대리운전 시장은 지역별, 시간별로 대리운전기사의 공급이 바뀌어서 예측이 쉽지 않다. 뿐만 아니라 상품의 수도 대리운전은 이용자의 위치와 목적지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새로운 상품이 만들어진다. 상품의 수가 사실상 무제한에 가깝고, 따라서 고정된 가격이 존재하기 힘들다.

대리운전 시장 vs. 항공권 예매 시장

대리 운전 시장	항공권 예매 시장
수요 특징	수요-공급의 변화가 짧은 시간동안 크게 일어남 (성수기-비수기)를 가지고 나타남
공급 특징	공급이 유동적 (예측 어려움)
상품의 특징	상품이 무한함 (이용자의 위치와 목적지에 따라서 실시간으로 상품이 만들어짐)

AI 추천요금은 얼마나 잘 보내줄까?

카카오 T 대리의 AI 추천요금은 2019년 10월 도입되었다. AI 추천요금은 대리운전 시장에 어떤 효과를 발휘했을까? 도입 한 달 이후인 2019년 11월부터 2020년 6월까지 8개월 동안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이용자가 기사를 배정받을 확률이 도입 이전 대비 21%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호출 이후 기사 배정이 완료되기까지의 시간도 22% 빨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AI 추천요금으로 8개월 동안에만 1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귀갓길이 더 빨라질 수 있었다.

AI기반의 대리운전 서비스 혁신은 이제 시작이다. 더 많은 이용 데이터는 더 나은 AI로 이어질 것이다. 좋은 대리운전 서비스를 향한 카카오 T 대리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사회 혁신

SOCIAL
INNOVATION

CHAPTER 2

/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
/ 모빌리티 데이터로 보는 사회변화

사회 혁신

/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

카카오 T가 바꾼 택시 이용의 불편함

대한민국 택시는 1919년에 최초로 운행을 시작했다. 10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갖고 꾸준히 진화해 왔지만, 여전히 고질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다. 불편과 위험을 감수하고 대로변으로 택시를 잡아 타러 나가야 한다거나, 단거리 이동은 승차거부를 당한다거나, 출퇴근 시간 혹은 심야 시간에는 택시를 타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문제들이 대표적이다. 오랜 기간 문제로 지적되어 왔지만, 뚜렷한 해결책은 찾지 못하고 있었다.

카카오 T 택시는 택시 시장의 케케묵은 문제를 고품질 데이터와 높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정면 돌파하고 있다. 앞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배차 등에 고도의 데이터 기술을 접목하여 꾸준한 서비스 개선을 이뤄왔다. 또한 특화된 택시 호출 서비스 출시를 통해 수요, 공급 측면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도 계속하고 있다. 이용자에게는 빠르고 편리한 택시 이용의 부가가치를 누릴 수 있는 선택지를 추가 제공하여 만족도를 상승시키고, 기사 또는 사업자에게는 더 좋은 서비스 제공과 함께 새로운 소득 창출이 가능할 수 있는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기 위함이다. 머신러닝 기반의 인공지능으로 배차 성공 확률이 높은 택시를 연결하는 스마트호출(2018.4), 승차거부 없는 자동배차 시스템의 카카오 T 블루(2019.3) 등 다양한 이동수요를 만족시키는 서비스를 시장에 순차적으로 내놓았다.

지금까지 카카오 T 택시의 노력은 우리의 택시 이동 생활을 어떻게 바꿨을까? 데이터를 통해 카카오 T 택시가 바꾼 우리 일상의 모습에 대해 보다 자세히 살펴보자.

쉽고 편리한 탑승

오랫동안 택시는 '잡는다'라는 표현이 어울리는 이동 수단이었다. 도로에 나가서 지나가는 빈 택시를 발견하면, 손을 흔들어 택시를 세우는 것이 택시를 타는 익숙한 방법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택시 이용자는 언제, 어느 곳에서 택시를 잡아야 하는지에 대한 불안을 늘 안고 있어야 했다. 날씨가 안 좋거나, 어두운 밤 중이면 택시 잡기 경쟁은 더 불이 붙는다. 특히, 도시의 유흥가에서는 심야시간에 귀가를 위한 택시 잡기 경쟁이 여전히 반복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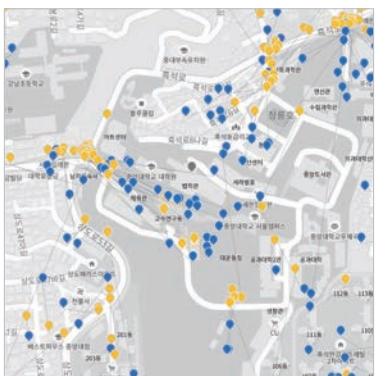
잡는 택시'에서 '부르는 택시'로

카카오 T 택시는 택시와 어울리는 동사를 '잡는다'에서 '부른다'로 바꾸고 있다. 필요할 때 어디서든 택시를 쉽게 호출하는 것을 경험한 이용자들은 길거리에서 택시를 잡는 것이 오히려 불안하고, 불편한 일이 되었다. 카카오 T 택시에 익숙한 이용자들에게 있어서 택시는 이미 '부르는 것'이 되었다. 2015년 카카오 T 택시가 첫 선을 보인 이후 이용자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택시 이용 문화도 빠르게 변화해 왔다.

택시 이용 문화가 바뀌는 배경에는 기술이 자리 잡고 있다. GPS로 위치를 자동적으로 확인하고 경로를 안내하는 것은 기본이다. 올해 3월에는 기사와 이용자가 보다 쉽게 만날 수 있도록 예상 탑승위치 추천 기능을 추가하였다. 아파트 단지나 대학교, 대형 시장 등은 진입 도로가 입구에서 막혀 있거나 건물이 복잡하여 GPS로 위치를 찍어도 추가적으로 소통이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용자의 호출 위치와 실제 픽업 위치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개선점을 도출하였고, 차량 아이콘으로 접근 가능한 도로 위에 차량의 진행 방향을 표시하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였다.

호출 위치와 탑승 위치 분석 예시

- 탑승위치
- 호출위치



차량 아이콘으로 탑승위치 지정



'잡는 택시'와 '부르는 택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강남구청역 인근에서 배회 택시를 잡아 탄 경우와 카카오 T 택시를 호출한 경우의 탑승 위치를 비교해 보았다. 탑승 위치는 크게 대로변, 이면도로, 건물인근, 기타 등 4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집계하였다.

배회 택시의 탑승 위치는 대로변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가 자주 오고 가는 대로변에서 택시를 잡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체 승차 위치에서 대로변의 비중은 53%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반면, 카카오 T 택시를 호출한 경우 탑승 위치의 분포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났다. 대로변뿐만 아니라 골목 구석구석까지 탑승 위치가 분포해 있다. 과거에는 충족시키지 못했던 이동 수요들이 충족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택시 호출 이용자가 탑승한 위치에서 대로변의 비중은 23%로 배회 택시에 비해서 30%p나 낮아졌다. 대신에 이면도로(47%), 건물인근(14%)의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앱을 통한 호출 서비스는 시공간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준다. 과거에는 택시를 찾아서 이용자가 이동해야 했다면, 택시 호출 서비스의 확산은 이러한 구도를 완전히 바꾸고 있다. 이용자가 위치한 이면도로나 아파트 단지, 사무실까지 쉽게 택시를 부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용자의 위치를 구구절절이 설명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택시를 부를 수 있게 된 영향이 크다.

강남구청역 인근 택시 탑승 위치 분포

배회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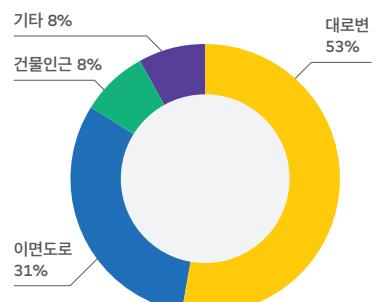


카카오 T 택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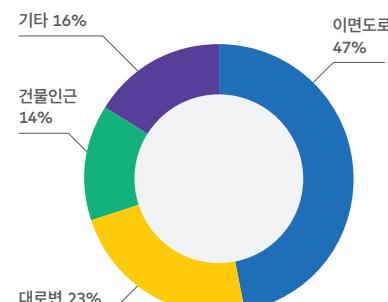


택시 탑승 위치의 카테고리별 현황

배회택시



카카오 T 택시



- 기맹택시의 배회 영업과 호출 영업(카카오 T 택시 호출), 2020년 6월 기준
- 건물 인근 | 건물, 아파트 단지 등, 대로변 | 왕복 2차선 이상인 도로 혹은 대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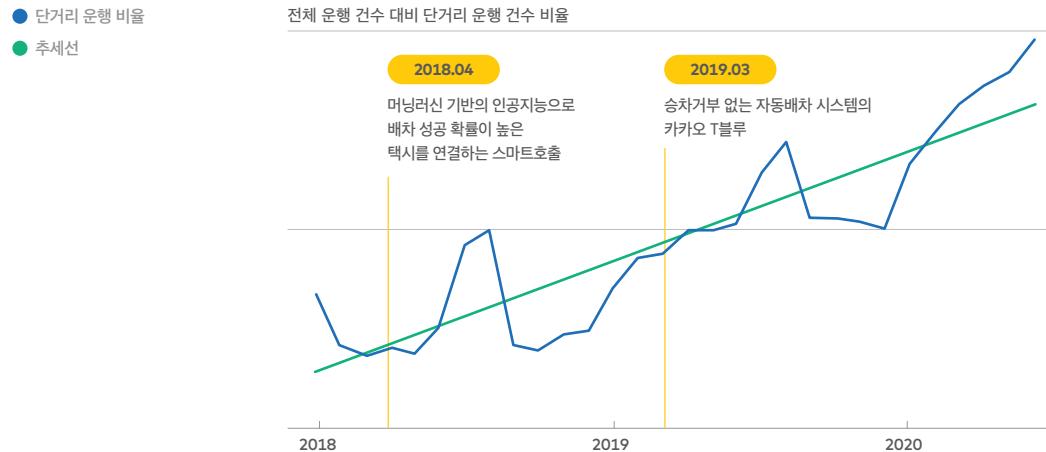
단거리 승차거부 감소

택시를 통한 이동 생활에서 또 다른 아쉬움은 바로 단거리 승차거부다. 택시 이용자들의 이동 거리는 단거리 비중이 항상 높았다. 반면, 기사의 경우에는 다양한 이유로 단거리를 선호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장거리 운행이 일반적으로 단거리 운행에 비해 수익이 좋고, 단거리 운행의 경우 택시 이용자를 계속 찾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단거리를 선호하는 수요와 단거리를 기피하는 공급이 구조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단거리 호출은 승차거부의 주 대상이 되기도 했다.

카카오 T 택시는 기술로 단거리 승차거부 문제를 꾸준히 해소해 왔다. 배차 로직, 자동배차 등 카카오 T 택시가 기술에 기반하여 새롭게 내놓고 있는 서비스가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최근 3년간 단거리 운행 데이터, 즉, 카카오 T 택시로 운행을 완료한 이동 중 운행거리 5km 미만의 단거리 운행은 어떻게 변해왔을까?

먼저, 단거리 운행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자. 2018년 카카오 T 택시 전체 운행완료 건수 중 운행거리 5km 미만의 단거리 운행건수는 45%를 차지하였는데, 2020년(상반기 기준)에는 50%로 3년간 5%p가 증가하였다. 이용자들의 높은 선호에 비해서 기사들은 상대적으로 기피하였던 단거리 운행이 카카오 T 택시의 등장 이후 꾸준히 증가해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카카오 T 택시의 단거리 운행 비율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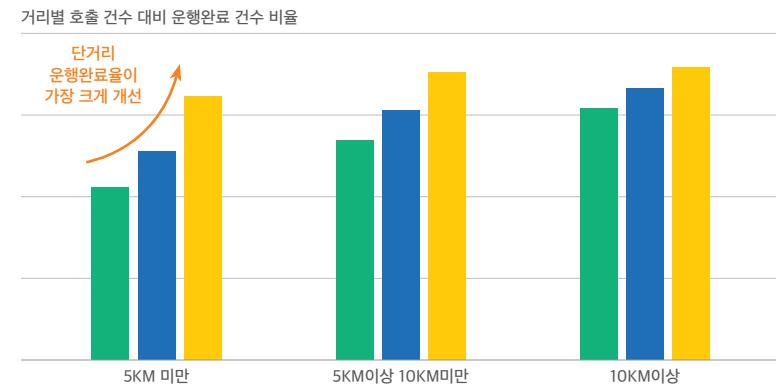


• 카카오 T 택시의 단거리 운행 비율 변화 | 운행 거리 5km 미만, 전국, 운행완료 기준

특히, 단거리 배차 실패로 크게 불편을 겪는 서울지역에서 단거리 운행 여건이 개선되고 있다. 2020년 상반기 서울 택시의 기사별 운행완료 건수 중 단거리 운행이 차지하는 비율은 일반 택시가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카카오 T 블루는 31%로 4%p 더 높게 나타났다. 서울은 자동배차 방식을 적용한 카카오 T 블루가 가장 먼저 진출한 지역이다. 2020년 현재 도입 2년 차를 맞은 카카오 T 블루가 앞으로 더 자리 잡게 된다면, 서울의 단거리 운행 비율도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단거리 운행의 운행완료율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동 거리별로 운행완료율, 즉, 이용자의 호출에 대해서 기사가 운행을 완료한 비율을 운행거리별로 살펴보면, 최근 3년간 단거리 운행완료율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장거리 운행 선호의 영향으로 이동거리별 운행완료율은 장거리가 항상 높은 수준을 보여왔는데, 단거리 운행완료율이 빠르게 개선되어 운행 거리별 격차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다. 인공지능으로 배차 수락 확률을 높여주는 스마트호출, 자동배차를 적용한 카카오 T 블루 도입이 단거리 운행완료율 개선에도 기여하고

카카오 T 택시의 운행 거리별 운행완료율 변화



• 카카오 T 택시의 운행 거리별 운행완료율 변화 | 2018~2020년(2020년은 상반기 기준), 전국, 운행완료 기준

피크시간 이동 증가

택시 이용에 있어서 풀리지 않은 마지막 숙제는 '피크시간 수요초과' 문제일 것이다. 출퇴근 시간과 심야시간은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수요는 넘치지만, 택시 공급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한다. 우선 운행 가능한 차량수를 탄력적으로 늘리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이용자가 원하는 목적지와 기사가 원하는 목적지가 엇갈리는 경우도 자주 발생한다. 특히, 교통정체로 인해서 순회가 어려운 지역은 운행 시간 대비 수입이 낮아 기사 입장에서 운행을 기피하는 경우도 있다. 수요가 상대적으로 많은 피크시간의 경우 승차거부가 발생할 확률도 높다.

카카오 T 택시 서비스는 수요/공급량 조절에 유용한 다양한 호출 상품 출시를 통해 이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했다. 지난 3년간 얼마나 수공급 문제 해결에 기여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세한 데이터를 살펴보자.

분석 대상 지역은 피크시간대 승차난으로 악명 높은 종로 1~4동, 여의도동, 역삼 1동, 이태원 1동 등 4개 지역을 선정하였다. 4개 지역의 특화된 택시 호출 서비스(스마트 호출, 카카오 T 블루)의 시간대별 호출량을 비교 분석해 보았다. 분석 결과 해를 거듭할수록 특화된 택시 호출 서비스의 이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택시 잡기가 힘든 피크타임에 이용 증가가 두드러졌다.

분석 대상 4개 지역의 특화된 택시 호출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의 변화를 보면 공통적으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는 추세가 관찰된다. 특히, 퇴근, 심야시간의 트렌드가 두드러진다. 아무래도 퇴근, 심야시간에는 단거리 이동이 많아 질 뿐만 아니라 가려는 목적지가 업무, 유통시설 등 인구 밀집이 많은 지역으로 손꼽히는 곳들이기 때문이다. 특히, 이태원은 자정 이후의 스마트호출, 카카오 T 블루 호출이 급증한다. 한편, 출근 시간대에는 강남구 역삼 1동이 두드러진다. 이 곳은 강남역과 선릉역을 우아르고 있는 지역으로 업무, 쇼핑, 유통 지구도 포함하고 있지만 주거 지역도 다수 분포하고 있다. 회사에 지각할까 발을 동동 구르던 출근길에 환영을 받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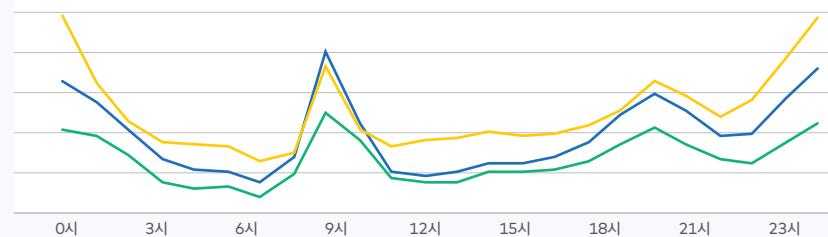
이렇듯 다양한 카카오 T 택시의 호출 서비스는 피크시간대 택시 초과 수요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승차난으로 택시 못 타는 이용자가 없는 그날을 위해 카카오 T 택시는 오늘도 열심히 달린다!

특화된 택시 호출 서비스의 이용 비율 변화

● 2020
● 2019
●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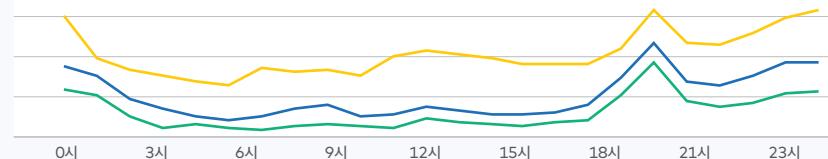
강남구 역삼 1동

이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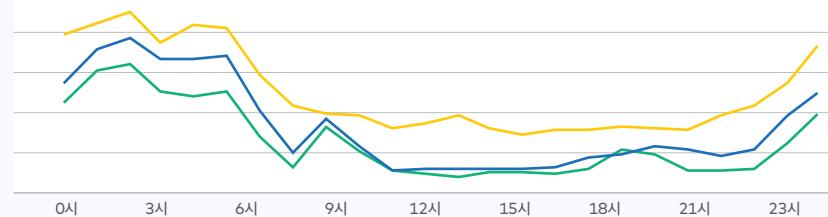
영등포구 여의동

이용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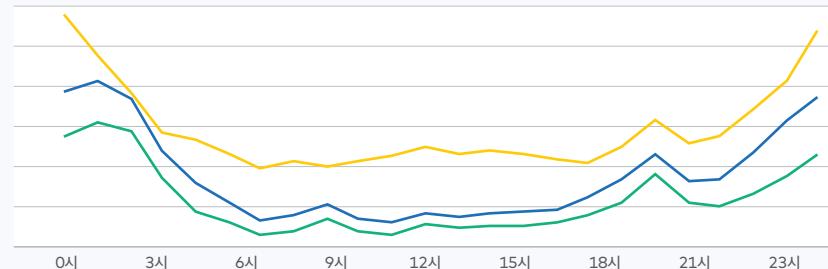
용산구 이태원 1동

이용 비율



종로구 1,2,3,4동

이용 비율



• 특화된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 비율 변화 | 시간대별 전체 운행완료 중 스마트호출, 카카오 T 블루 비율 추이, 2020년 상반기 기준

데이터를 활용한 도시 주차 문제 해결

주차는 도시 교통 문제의 숨은 복병이다. 도시의 교통 문제라고 하면 흔히 도로 위의 정체를 연상하게 되지만, 도시 교통 문제의 다수는 주차가 차지한다. 운전의 시작과 끝에는 항상 주차가 동반되고, 자동차는 생애의 95%를 도로가 아닌 곳에서 주차된 상태로 머무른다. 도심에서는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한 대기, 배회 차량으로 인해서 교통 정체가 유발되기도 한다.

주차는 'Parking Pain(주차 고통)'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 미국 교통전문 회사 INRIX Research에 따르면 미국 운전자는 1년에 평균 17시간을 주차장을 찾는데 쓰고 있으며, 뉴욕, LA 등의 대도시는 주차 공간을 찾는데만 연간 80시간 이상을 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미국에서 주차가 야기하는 경제적 비용은 운전자 1인당 연간 454달러로 나타나고 있으며, 비용의 4분의 3 이상은 주차 공간 탐색을 위해서 배회하거나 대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주차 문제도 심각하다. 서울시에서는 주차를 위해 배회하고 대기하는 차량으로 인한 상습적인 정체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에 따르면, 주차 공간 확보에 실패한 운전자가 불법 주정차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서울에서만 연간 4조 89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도심은
효율적인
공간 활용 중요

도시의 다양한 주차 문제 중에서도 도심의 주차 문제는 특히 해결이 쉽지 않다. 도심 지역은 토지 가격이 높고 주차장으로 이용 가능한 여유 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주차장 공급이 쉽지 않다. 반면, 주차 수요는 유동 인구가 많다는 특성으로 인해서 매우 가변적이다. 도심 지역은 상주 인구 보다는 유동 인구가 많고, 피크 타임에 특히 많은 유동 인구가 쏠린다. 만약 막대한 예산으로 주차장 확보를 하더라도 유동 인구가 빠져나간 시간에는 빈 주차장이 남는 위험도 상존하고 있다.

도심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울시를 비롯한 전세계 주요 도시에서는 주차 수요 억제 정책을 도입하였다. 이전까지 도입했던 주차장 공급 확대 정책이 한계에 달하자, 도심에 주차장 공급을 억제하여 주차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 것이었다. 그러나 도심 상업 시설에 대한 운전자의 이동 수요를 완벽하게 차단하기는 어려웠다. 평일 출퇴근 시간에는 도심을 오가는 차량들로 오피스 빌딩의 주차장은 혼잡을 반복했고, 주말에는 대형 쇼핑몰을 중심으로 주차를 위한 만성적인 대기행렬이 반복되기도 하였다.

주차 공간 확보의 기회비용이 높고, 유동 인구의 비율이 높은 도심의 주차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카카오모빌리티는 서울디지털재단과 함께 데이터를 이용한 서울 도심 주차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서울디지털재단은 서울이 처한 도시문제 해결에 첨단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는 서울시의 싱크탱크다. 양사는 2019년 서울의 심야교통 문제 해결책에 대한 공동 연구를 수행한데 이어 올해는 서울의 도심 주차 문제 해결책에 대해서 머리를 맞댔다.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데이터에 있었다. 도심의 주차 수요가 어떻게 발생하고 있는지를 데이터로 파악함으로써 도심의 빌딩마다 분산되어 있는 주차장을 연결하고, 공유하는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카카오내비, 카카오 T 주차의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주차 수요와 공급의 시간, 공간상 미스매칭을 완화할 방안을 검토해 보았다.

서울의 주차 패턴은 여가형, 업무형, 생활형으로 나타나

데이터 분석 결과 서울시 전체 POI(Point of Interest, 관심 지점)의 주차 수요 패턴은 여가형, 업무형, 생활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해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여가형 주차 수요 패턴(타입1)은 평일에는 첨두시간이 저녁 시간대로 나타나며, 주말에는 평일보다 높은 수요가 나타나고, 점심과 저녁 시간대에 동시에 주차 수요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입1에 해당하는 주요 POIs는 주거시설, 지하철역, 스포츠 및 레저시설, 공원, 숙박시설, 음식점, 대중교통시설 등으로 나타난다. 다음으로 업무형 주차 수요 패턴(타입2)은 평일 출근과 점심 시간에 첨두시간이 나타나며, 주말에는 평일대비 수요가 급격히 감소한다. 타입2에 해당하는 POIs는 업무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등 업무 목적의 방문지로 나타났다. 끝으로 생활형 주차 수요 패턴(타입3)은 평일에는 점심시간을 중심으로 첨두시간이 나타났다. 주말에는 점심시간대 첨두 시간이 형성되며, 평일보다 주차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타입3에 해당하는 POIs는 대형 쇼핑몰, 교육시설, 공공기관, 여행시설 등이 해당된다.

데이터 개요

데이터 소스	카카오내비 길안내 출도착 데이터
데이터 대상	도착지가 서울에 위치한 데이터 (출발지 : 전국)
데이터 기간	2019년 1월~2019년 12월
데이터 건수	1억 4719만건
출/도착지 POI분류	대분류 14개 카테고리, 중분류 193개 카테고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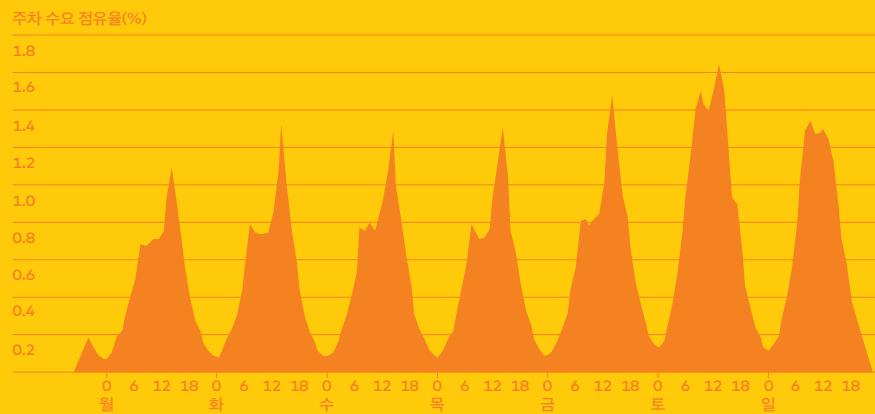
유형별 주차 수요 패턴

• 주간 시간대별 주차수요 점유율, 2019년 1월~2019년 12월, 각 유형별 POI 평균 기준

TYPE 1. 여가형

피크타임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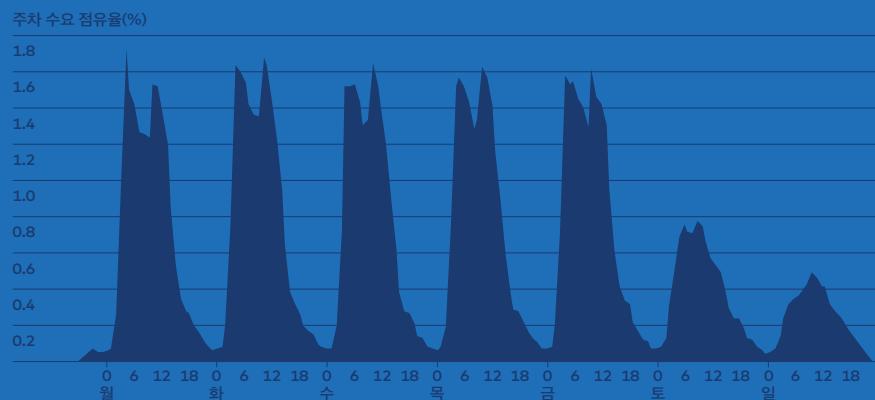
- 평일 : 저녁
- 주말 : 점심/저녁



TYPE 2. 업무형

피크타임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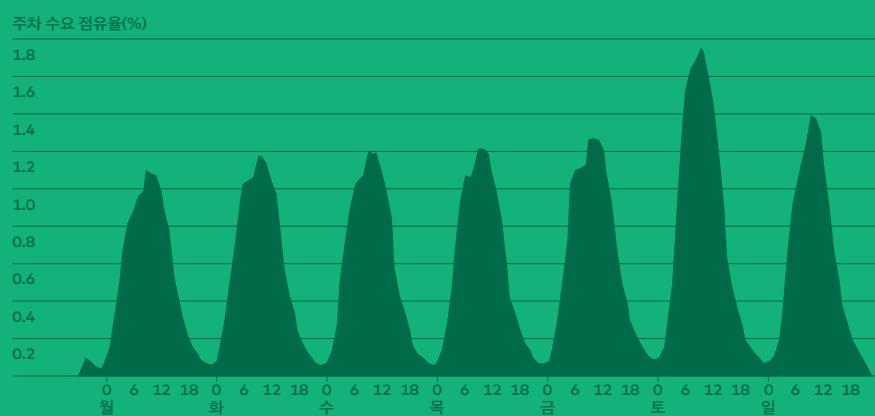
- 평일 : 아침/점심
- 주말 : 이용 감소



TYPE 3. 생활형

피크타임 특징

- 평일 : 점심
- 주말 : 이용 증가



주차 수요의 공간적 분산 가능성 검토

주차 수요의 공간적 분산 가능성을 검토해 보기위해서 도보로 5분 내외가 소요되는 500m를 한계기준으로 설정하고, 랜드마크 반경 250m, 500m를 대상으로 주차 수요 분포를 분석했다. 반경 250m와 500m는 서울시에서 정의하고 있는 1차 역세권, 2차 역세권의 반경 기준이며, 도보로 이동이 용이한 거리를 대표한다. 랜드마크를 기준으로 도보로 이동이 가능한 거리에 주차 수요 분산이 가능한 목적지가 얼마나 분포하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주차 수요의 공간적 분산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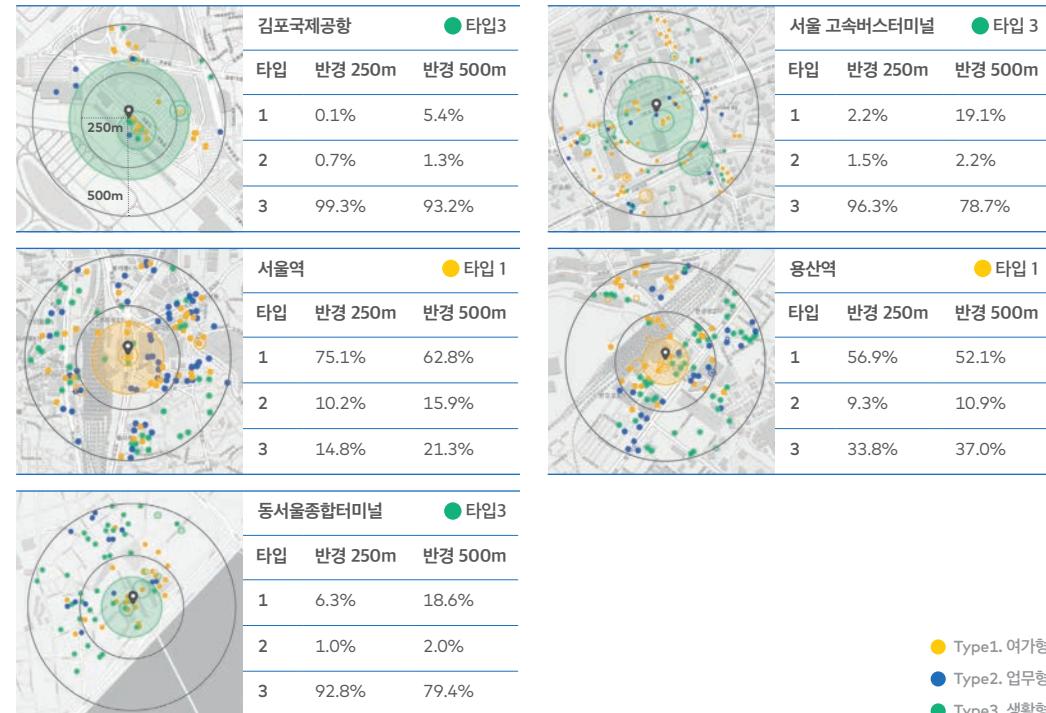
주차 수요 패턴 타입별로 평일 중 주차 수요 분산이 가능한 목적지의 조합과 주말 중에 주차 수요 분산이 가능한 목적지의 조합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주차 수요 패턴 타입별 공간적 분포 그림에서 중심원은 랜드마크 기준 반경 250m와 500m에 해당하는 영역을 나타낸다. 랜드마크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POI들의 주차 수요 패턴 타입은 각각 노란색(타입1), 파란색(타입2), 녹색(타입3)로 표시했으며, 해당 POI의 상대적 방문 빈도에 따라서 원의 크기가 달라진다.

광역 교통시설 주차 수요의 공간적 분포

광역 교통시설은 랜드마크의 위치와 성격에 따라 랜드마크의 주차 수요 타입이 다르게 나타났다. 공항, 버스터미널은 주차 수요 패턴이 타입3, 기차역은 타입1으로 나타났다. 광역 교통시설은 기본적으로 해당 랜드마크가 인근 주차 수요의 과반 이상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주차 수요 분산 여건이 좋지 않았다.

특히, 김포공항의 경우 반경 250m 뿐만 아니라 반경 500m 이내에서도 랜드마크의 주차 수요 타입이 90% 이상의 점유율을 보여주었다. 공항의 경우에는 자체적인 주차 공간을 확보해서 주차 수요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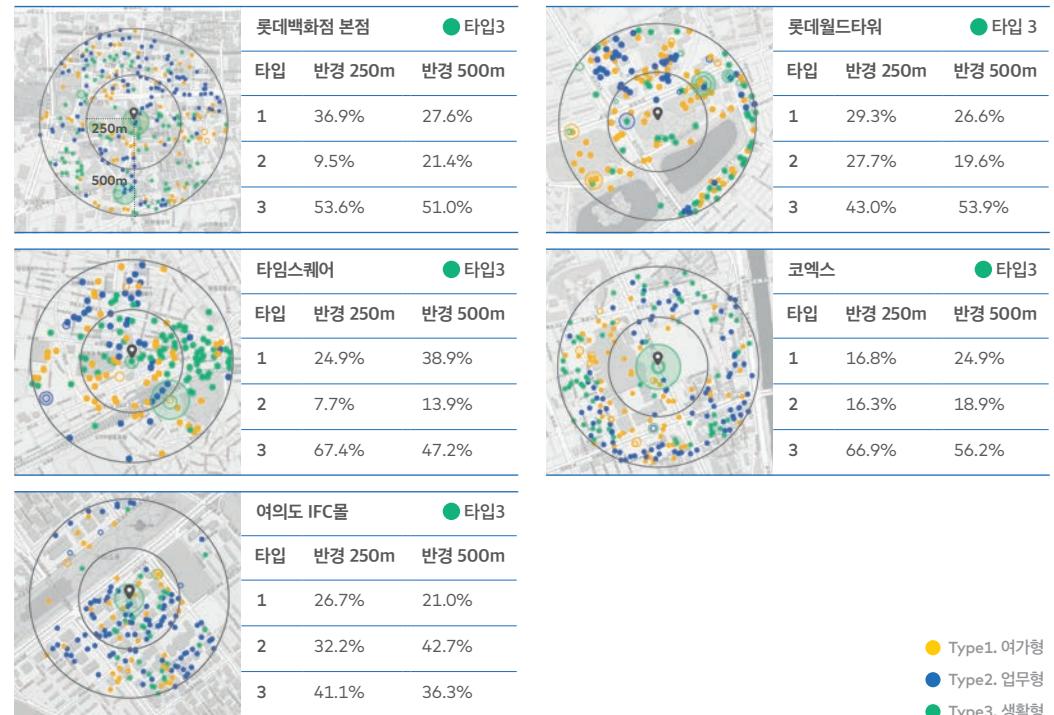
광역 교통시설 주차 수요의 공간적 분포와 타입별 점유율



대형 쇼핑몰 주차 수요의 공간적 분포

대형 쇼핑몰은 랜드마크의 주차 수요 패턴이 모두 타입3로 나타난다. 대형 쇼핑몰은 광역 교통시설과는 달리 인근에 업무용 빌딩, 주거시설 등이 위치해 있어서 상대적으로 랜드마크 인근에 다양한 주차 수요 패턴이 관찰된다. 도심의 경우 반경 250m 거리에서도 랜드마크와 다른 타입의 주차 수요 패턴 존재하는 특징이다. 도심 랜드마크의 경우 인근에 주차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주차 공간이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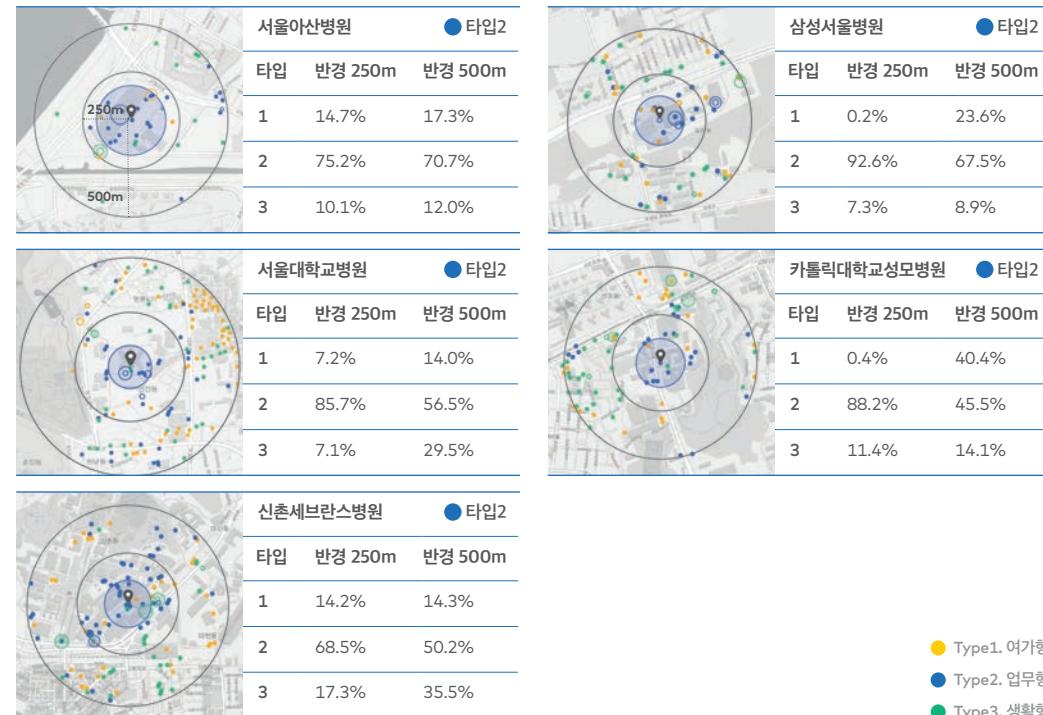
대형 쇼핑몰 주차 수요의 공간적 분포와 타입별 점유율



대학병원 주차 수요의 공간적 분포

대학병원은 랜드마크의 주차 수요 패턴이 타입2로 업무형 형태를 나타낸다. 도심에 가까운 카톨릭대학교서울성모병원을 제외하면 랜드마크의 주차 수요 점유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대학병원의 경우에도 광역교통시설과 마찬가지로 반경 250m나 반경 500m 거리에 랜드마크와 다른 주차 수요 패턴의 빈도가 낮은 것이 특징이다.

대학병원 주차 수요의 공간적 분포와 타입별 점유율



랜드마크별

주차 수요

분산 가능성 탐구

주차 수요 분산은 각 타입별 수요 점유율이 비슷한 수준일 때 더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정 타입의 수요가 압도적으로 나타나는 경우 타입별 수요 분포가 서로 다르더라도 주차 수요를 감당하는 주차면의 한계로 수요 분산의 효과가 미비할 가능성이 높다. 주차 수요의 공간적 분포와 각 유형별 수요 점유율을 통해서 주차 수요 분산이 불가능한 랜드마크를 걸러낼 수 있다.

김포국제공항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공항의 경우에는 반경 250m 뿐만 아니라 500m까지 범위를 확대하더라도 주변에 주차를 분산할 수 있는 POI가 절대적으로 적다. 공항이 도심보다는 시외곽에 위치해 있고, 인근에 고층빌딩 등도 들어서기 힘든 조건인 영향이 크다. 반면, 도심에 위치한 기차역이나 버스터미널의 경우 공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차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POI들이 인근에 많이 위치해 있다.

대학병원의 경우에도 지리적 입지가 주차 수요 분산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5개 대학병원 중에서도 시외곽에 가까운 서울아산병원이나 삼성서울병원보다는 도심에 가까운 대학병원 인근에 주차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POI들이 많이 분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심에 가까운 서울대학교병원,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연세대학교 신촌세브란스병원의 경우 평일보다 주말에 주차수요가 낮게 나타난다. 평일에는 다른 타입의 주차장으로 수요를 분산하고, 주말에는 랜드마크의 여유 주차장을 다른 타입의 주차 수요를 위해서 제공해 주는 방향의 주차 수요 분산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형 쇼핑몰의 경우에는 주차 수요의 공간적 분포 뿐만 아니라 시간적 분포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대형 쇼핑몰은 주로 도심에 위치하여 공간적으로 주차 수요 분산 가능성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대형 쇼핑몰은 주말 피크시간처럼 특정 시간대에 주차 수요의 쏠림이 높기 때문에 주차 수요의 시간적 분포를 살펴보는 것이 주차 수요 분산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대형 쇼핑몰은 랜드마크의 주차 수요 패턴인 타입3가 평일 보다 주말에 수요가 높게 나타나는 특징이다. 반면, 평일보다 주말에 수요가 낮은 타입2 주차 수요가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 또한 평일 오전에는 타입1, 평일 저녁에는 타입2의 주차 수요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랜드마크의 주차 수요의 공간, 시간적 분포를 살펴보았을 때, 광역 교통시설, 대학병원 보다는 대형쇼핑몰이 주차 수요 분산 가능성이 높다. 대형 쇼핑몰은 기본적으로 업무형(타입2)-생활형(타입3)의 주말 주차 수요가 상반되어 주말에 주차장을 공유할 경우 수요 분산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다. 평일의 경우에도 여가형(타입1)-업무형(타입2) 사이에 평일 오전 및 저녁에 주차 수요가 상반되어 평일에 주차장을 공유할 경우 수요 분산 가능성도 존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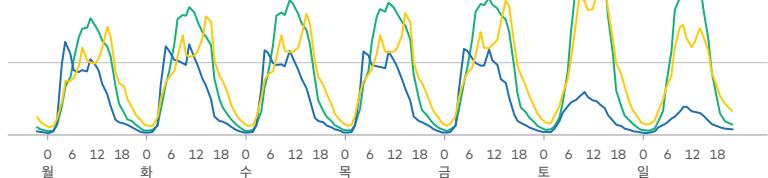
대형 쇼핑몰 중에서도 IFC몰, 롯데백화점본점, 타임스퀘어, 코엑스 등이 주차 수요 분산에 있어서 우선 순위가 높은 곳으로 파악되었다. 주차 정보화를 바탕으로 주차 수요 패턴이 다른 시설간에 주차장을 연계할 경우 주차 수요 분산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롯데월드타워의 경우에도 타입별 수요 분산 가능성은 높으나 인근의 아파트 주차장이 타입1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주차장 개방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였다. 주차장을 연계하고 개방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의 이해관계자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신뢰도 높은 주차장 관리와 정책적 인센티브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대형 쇼핑몰 주차수요의 시간적 분포

롯데백화점 본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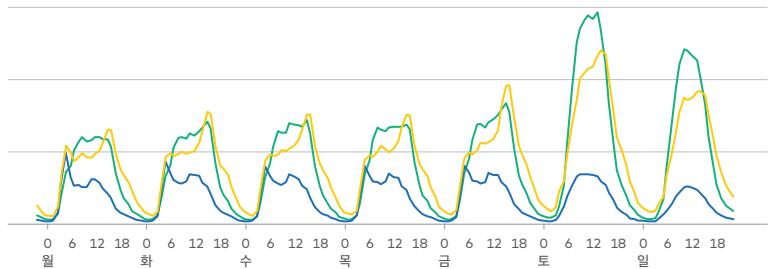
주차 수요 점유율(%)

- Type1. 여가형
- Type2. 업무형
- Type3. 생활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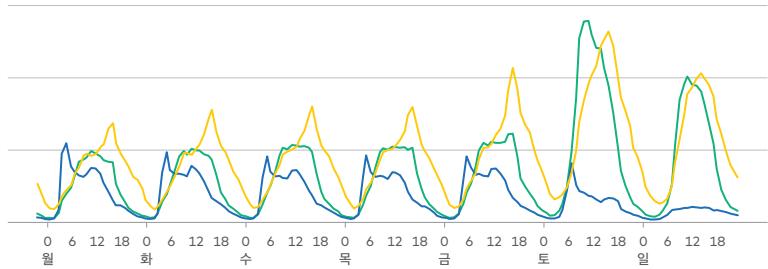
롯데월드타워

주차 수요 점유율(%)



타임스퀘어

주차 수요 점유율(%)



대리운전 기사를 위한 심야 셔틀 노선 제안



대리운전 베테랑 기사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능력 중 하나는 바로 콜연계일 것이다. 콜연계라는 말은 도착지를 보고 콜(호출)을 잡는다는 대리운전 업계 용어인데, 대리운전 피크타임은 4시간 정도로 해당 시간에 최대한 많은 콜을 잡기 위한 방법으로 생겨났다. 이동시간이 길어질수록 콜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 짧아져 그만큼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좋은 도착지는 어디일까? 대리기사들은 콜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 가까운 곳을 선호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기 출발지와 인기 도착지는 대부분 거리가 있는 게 현실이다. 대중교통이 다니는 시간에는 비인기 도착지 콜을 잡아도 빠르게 원하는 장소로 이동할 수 있지만, 대중교통이 끊기는 시간에는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기사들은 인기 출발지와 거리가 먼 도착지의 콜을 외면한다.

대리기사가 선호하는 인기 출발지와 도착지

동별로 나누어 봤을 때 가장 호출이 많은 지역은 수원시 인계동, 구별로 봤을 때는 서울시 강남구였다. 주로 오피스가와 상권가가 몰려있는 지역이고 실제로 해당 지역에서 대리기사들이 콜을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 인기 도착지는 경기도 광주, 화성, 용인, 수원 등 서울 주변 신도시들이 많았다. 인기 출발지와 도착지는 대부분 지하철 보다는 광역버스 등과 같은 대중교통으로 이어져 있는데, 자정 이후로는 택시 외에는 출발지로 돌아오는 방법이 전무해 기사들이 기피하고 있었다.

그렇다면 대중교통이 끊긴 시간에도 두 지점을 빠르게 연결해 줄 수 있는 셔틀이 있다면 어떨까? 더 많은 이용자들이 대리운전을 이용할 수 있고, 대리기사들은 더 많은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를 위해 출발지의 호출 점유율과 지점간 거리를 통해 가장 효율적인 대리 운전 셔틀 노선도를 찾아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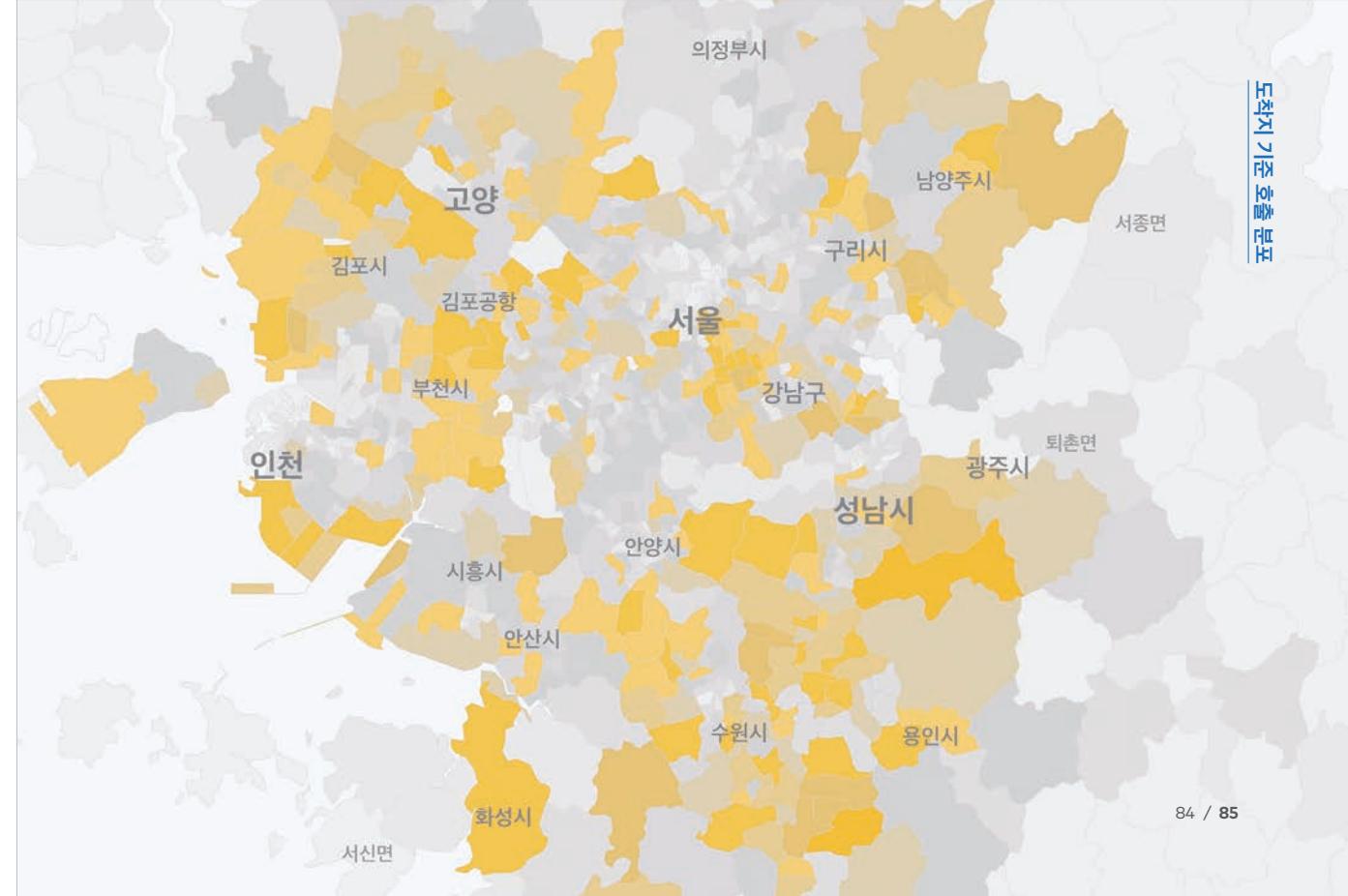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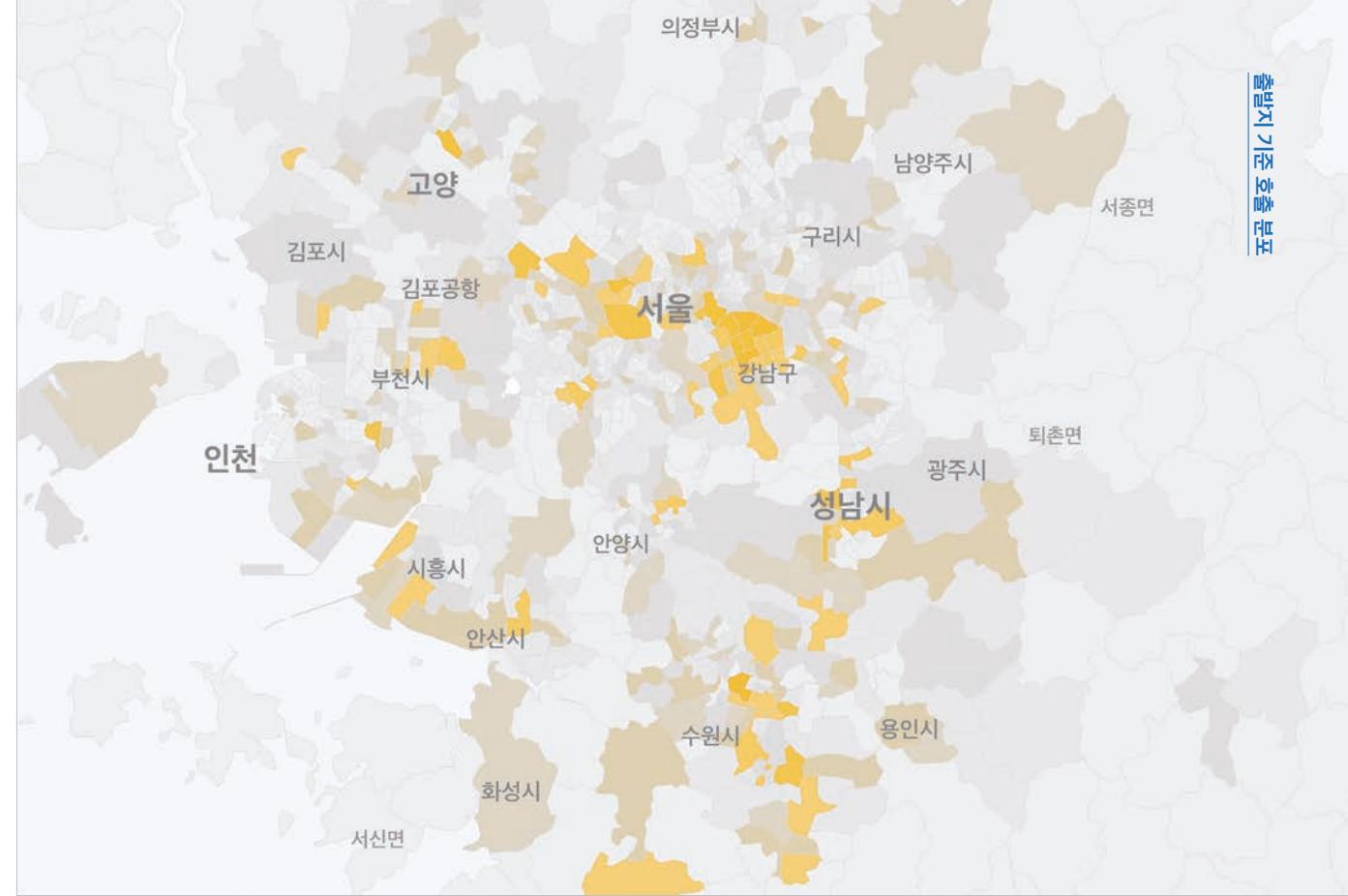
카카오 T 대리 수도권 인기 출발지

순위	지역1	지역2	지역3
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1동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4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5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2동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7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2동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신사동
10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1동
11	경기도	화성시	동탄1동
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
13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1동
1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3동
1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삼평동
1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1동
17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3동
18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1동
1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3동
20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2동

카카오 T 대리 수도권 인기 도착지

순위	지역1	지역2	지역3
1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2	경기도	화성시	동탄6동
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4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1동
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1동
6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1동
7	경기도	시흥시	배곧동
8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9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10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11	경기도	하남시	미사2동
12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1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
14	경기도	김포시	운양동
15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16	경기도	광주시	광남동
17	경기도	하남시	미사1동
18	경기도	화성시	동탄5동
19	경기도	화성시	동탄4동
20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2동

• 카카오 T 대리 수도권 인기 출발지, 도착지 | 2019년, 0시~6시, 호출 기준



노선 제안 ①
성남 > 광주 오포

성남에서 출발하는 콜 도착지 1위는 광주 오포다. 광주 오포는 일자리가 많은 분당, 판교 지역으로 연결되는 대중교통이 불편한 반면, 지리적으로는 상대적으로 가까운 편이기 때문에 자가용으로 출퇴근하기가 용이하다. 분당과 판교 지역의 직장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것으로 보이며, 신규 아파트 입주도 계속되고 있어 인구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지리적으로 가까우면서도 대중교통은 열악하여 자가용 운행 비중이 높은 성남-오포 노선을 셔틀 노선 1순위로 제안한다.

노선제안 1. 성남 > 광주오포



카카오 T 대리 성남시 호출의 목적지 순위

순위	지역1	지역2	지역3
1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2	경기도	광주시	광남동
3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4	경기도	광주시	송정동
5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동천동
6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1동
7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
8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9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
1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11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구성동
1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운중동
13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4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1동
15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16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1동
17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1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동
19	경기도	광주시	경안동
20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노선 제안 ②
수원 > 화성

수원에서 출발하는 콜 도착지 1위는 화성시다. 성남 오포 노선과 마찬가지로 삼성전자와 같은 대규모 일자리가 풍부한 수원은 화성시와 물리적으로 가깝지만 지하철 교통이 불편하다. 화성의 대규모 신도시인 동탄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자가용을 이용하여 수원으로 출퇴근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수원-화성을 잇는 셔틀 노선도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노선제안 2. 수원 > 화성



카카오 T 대리 수원시 호출의 목적지 순위

순위	지역1	지역2	지역3
1	경기도	화성시	동탄6동
2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1동
4	경기도	화성시	진안동
5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6	경기도	화성시	동탄5동
7	경기도	화성시	동탄4동
8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	경기도	화성시	동탄3동
10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평동
11	경기도	화성시	동탄7동
12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3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14	경기도	화성시	동탄1동
15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6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2동
1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2동
18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19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
20	경기도	오산시	세마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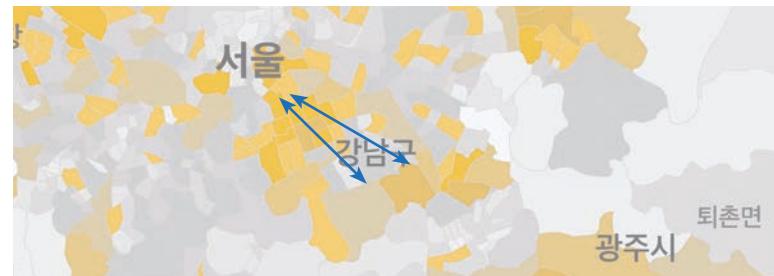
• 노선 제안 1, 2 | 2019년, 0시~6시, 호출 기준

노선 제안 ③
강남 > 세곡, 위례

강남지역에서는 강남지역으로 이동하는 콜이 가장 많았다. 강남지역은 강남역, 역삼역이 주요 호출 지역이지만, 도곡, 반포, 압구정 등과 같이 주거지역도 많을 뿐더러 술자리 1차를 마치고, 2차로 이동하는 수요도 다수 발생한다. 강남지역 외에는 위례, 광주, 세곡 지역의 호출이 많았다. 인구가 집중된 신도시이면서도, 지하철 등 대중교통이 열악하여 자가용을 이용한 출퇴근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생각된다. 강남에서는 물리적으로 거리가 먼 광주 지역보다는 강남-위례, 강남-세곡 노선이 더 효율적인 노선이라 생각한다.

대중교통이 끊기는 심야시간에 셔틀은 대리운전기사를 위한 좋은 이동 수단이 될 수 있다. 대리운전기사의 이동이 편리해지는 만큼 대리운전 이용자들도 더 좋은 대리운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음주운전이 줄어들고, 더 안전하고 편리한 세상으로 한걸음 전진할 수 있을 것이다.

노선제안 3. 강남 > 세곡, 위례



카카오 T 대리 서울 강남구 호출의 목적지 순위

순위	지역1	지역2	지역3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1동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
3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4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5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
6	경기도	하남시	미사2동
7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2동
8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1동
9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2동
10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
11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2동
12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1동
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2동
14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수동
15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1동
16	경기도	하남시	미사1동
1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18	경기도	하남시	위례동
1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4동
20	서울특별시	강남구	압구정동

· 노선 제안 3 | 2019년, 0시~6시, 호출 기준

사회 혁신

/

모빌리티 데이터로 보는 사회 변화

카카오모빌리티
X
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속도 5030,
속도를 낮추면
사람이 보인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발간한 교통사고 통계 보고서(2017년 기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사망자 비중은 40.0%로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원국 평균(18.6%)의 두 배를 넘는 수치이다. 운전대를 놓고 차에서 내리면 우리 모두 보행자가 된다. 보행자 교통사고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해답은 차량속도다. 가해차량의 주행속도가 높을수록 사고를 당한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속도별 보행자 충돌시험 결과, 충돌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10km만 줄여도 보행자의 중상 가능성이 20%p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 중 보행 사망자 비중이 낮은 나라는 수십 년 전부터 도시지역 제한속도를 줄인 나라들이다. 아이슬란드 0%, 노르웨이 9.4%, 슬로베니아 9.6%, 뉴질랜드 10.3%, 핀란드 11.3%로 우리나라의 절반 이하다.

안전속도 5030,
2021년 전국 시행

2016년 처음 시작된 안전속도 5030 정책은 2021년 4월 전국에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도시지역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60km에서 50km로 낮추고 주택가 도로 등 생활도로는 30km로 지정해 교통사고 심각도를 낮추어 보행사망자를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 카카오내비는 도로별 제한속도 정보를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안전운행에 기여하고 있다.

"제한속도를 낮추면 정말로 사고가 줄어들까?"
"사고가 줄어드는 대신 차가 막히지 않을까?"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을 카카오내비 운전자들의 주행속도 정보를 통해 찾아보았다.

카카오모빌리티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머리를 맞댄 이유

카카오내비는 전국 대부분 도로의 속도를 구간 별로 측정하고 있다. 특히, 속도 검출 센서가 설치되지 않은 모든 도로에 대한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점과 전국을 24시간 누비고 있는 카카오 T 택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할 수 있다는 점은 카카오내비가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도로 사정을 파악할 수 있게 한다. 최근에는 카카오 T 주차를 비롯한 다양한 서비스에서 보다 짧은 시간과 구간에 대한 정확한 속도를 측정해야 하는 요구에 따라 카카오내비 속도 측정 방식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다. 이는 '안전속도 5030' 시행 효과의 정밀한 분석에도 활용할 수 있는 토대가 되었고, 보다 안전한 이동에 대해서 고민해 왔던 카카오모빌리티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으로 이어졌다.



제한속도를 낮췄는데 더 빨리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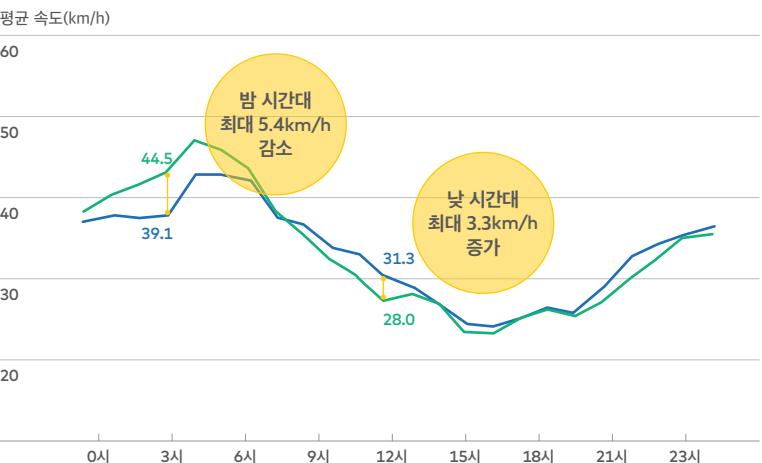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의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로 줄였더니 교통흐름이 더 좋아졌다고 한다. 제한속도를 낮췄는데 교통흐름이 더 좋아진다는 사실은 얼핏 이해가 가지 않는다. 교통정책은 왜 발생할까?

사고도 없고 차로가 감소하지도 않는데 차가 밀리는 현상을 '유령정체'라고 한다. 앞차가 차로를 바꿔서 뒤차가 속도를 줄일 때나 달리던 차가 신호에 걸려 멈쳤다가 다시 출발할 때 운전자의 반응시간으로 인해 지체시간이 발생한다. 이와 같이 앞에서 발생한 지체시간이 뒤로 갈수록 쌓이면서 교통정책이 발생한다. 다시 말해 제한속도를 낮춰도 다같이 불필요한 차로 변경을 줄이고 제한속도를 지켜 비슷한 속도로 주행하게 되면 교통정책은 최소화된다. 제한속도를 낮췄는데 더 빨리 가는 마법같은 상황, 과연 현실일까? 서울 종로의 통행속도 분석을 통해 확인해보았다.

2018년 3월 속도하향을 시행한 서울 종로의 평균속도를 전·후 비교한 결과, 시속 37.5km에서 37.2km로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그럼 5030을 시행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었던 걸까? 아니다.

제한속도 하향에 따라 비교적 차량이 적고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심야시간에는 평균속도가 최대 5.4km/h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차량이 많아 정체가 발생하는 오전 8~11시, 오후 7~11시에는 시행 전보다 차량 소통이 좋아지면서 평균속도가 최대 3.3km/h 증가했다.

서울 종로 시간대별 평균속도 5030 시행 전·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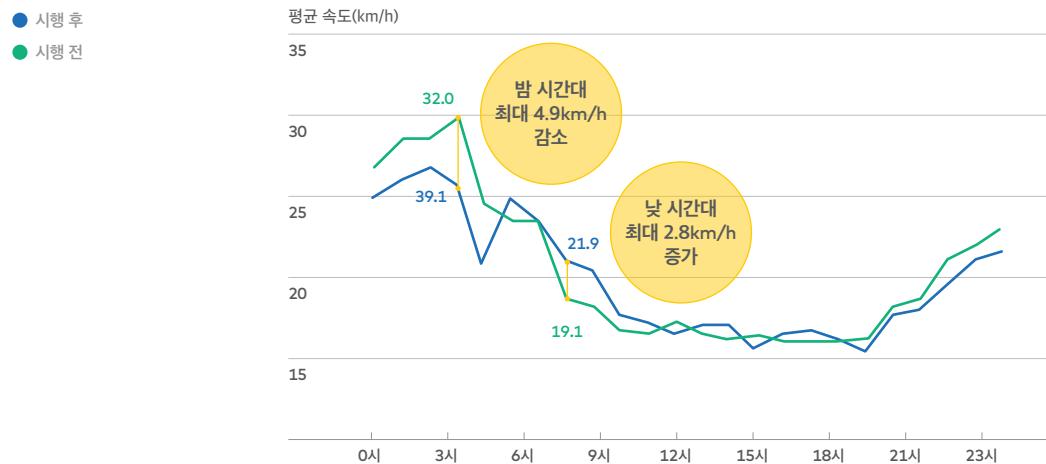


•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5030 시행 구간 중 상행 (세종대로→동대문역 방면)

• 시행 전 분석기간 2017.12.27~2018.01.03, 시행 후 분석기간 2018.12.26~2019.01.02, 주행속도 7km/h 미만 제외

2019년 2월 속도하향을 시행한 서울 중구 마른내로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확인했다. 마른내로의 평균속도를 전·후 비교한 결과, 시속 22.7km에서 22.3km로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제한속도 하향에 따라 비교적 차량이 적고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심야시간에는 평균속도를 최대 4.9km/h 감소했다. 반면, 차량이 많아 정체가 발생하는 오전 7~10시에는 차량 소통이 좋아지면서 평균속도가 최대 2.8km/h 증가했다.

서울 중구 마른내로 시간대별 평균속도 5030 시행 전·후 비교



그래서 교통사고가 줄긴 줄었을까?

"속도를 낮추라고 해서 낮췄는데, 사고가 줄긴 줄었습니까?" 5030 시행 전후 교통사고를 비교해보니 사고가 줄었다. 특히, 보행자 사고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서울 종로의 전체 교통사고는 5030 시행 전에 비해 사고건수는 6.2%, 보행자 사고건수는 24.1% 줄었다. 사망자수는 3명에서 1명으로, 중상자수는 24명에서 18명으로 줄었다. 사망사고는 중상사고로, 중상사고는 경상사고로 심각도 또한 낮아졌다. 보행자 사고 감소는 전국 각지에서 확인된다. 섬 전체에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한 부산시 영도구 사례도 분석해보았다. 영도구 내 주요 도로인 태종로와 해양로는 속도를 시속 60km에서 50km으로 낮춘 이후 보행사고가 각각 3건에서 0건으로 감소하여 '보행사고 제로'를 달성하였다. 전라북도 전주역앞 명품 가로숲길인 첫마중길은 시속 60km에서 40km로 낮춘 이후 중상자수가 4명에서 1명으로 75% 줄었다.

5030 시행 전·후 보행자 사고 비교

도로명		속도	사고건수	사망자수	중상자
서울 종로구 종로	전	60	54	3	24
	후	50	41	1	18
서울 중구 을지로	전	60	5	1	2
	후	50	5	0	3
부산 영도구 태종로	전	60	3	3	0
	후	50	0	0	0
부산 영도구 해양로	전	60	3	3	0
	후	50	0	0	0
전북 전주시 첫마중길	전	60	5	0	4
	후	40	1	0	1

- 서울특별시 중구 마른내로 5030 시행 구간 중 하행 (광희동사거리 → 명동성당 교차로 방면)
 - 시행 전 분석기간 2018.11.30~2018.12.07
 - 시행 후 분석기간 2019.11.29~2019.12.06
 - 주행속도 7km/h 미만 제외

- 서울 종로 세종대로사거리~동대문역
 - 시행 전 분석기간 2017.09.27~2018.09.26 (1년간), 시행 후 분석기간 2018.09.27~2019.09.26 (1년간)
- 서울 을지로 사청역~동대문역사공원역
 - 시행 전 분석기간 2018.05.01~2018.10.31 (6개월간), 시행 후 분석기간 2019.05.01~2019.10.31 (6개월간)
- 부산 태종로 영도대교남단~태종대앞교차로
 - 시행 전 분석기간 2016.09.01~2017.08.31 (1년간), 시행 후 분석기간 2017.09.01~2018.08.31 (1년간)
- 부산 해양로 부산저유소삼거리~해양대삼거리
 - 시행 전 분석기간 2016.09.01~2017.08.31 (1년간), 시행 후 분석기간 2017.09.01~2018.08.31 (1년간)
- 전주시 첫마중길 명주골네거리~역전광장교차로
 - 시행 전 분석기간 2016.05.24~2017.05.23 (1년간), 시행 후 분석기간 2017.05.24~2018.05.23 (1년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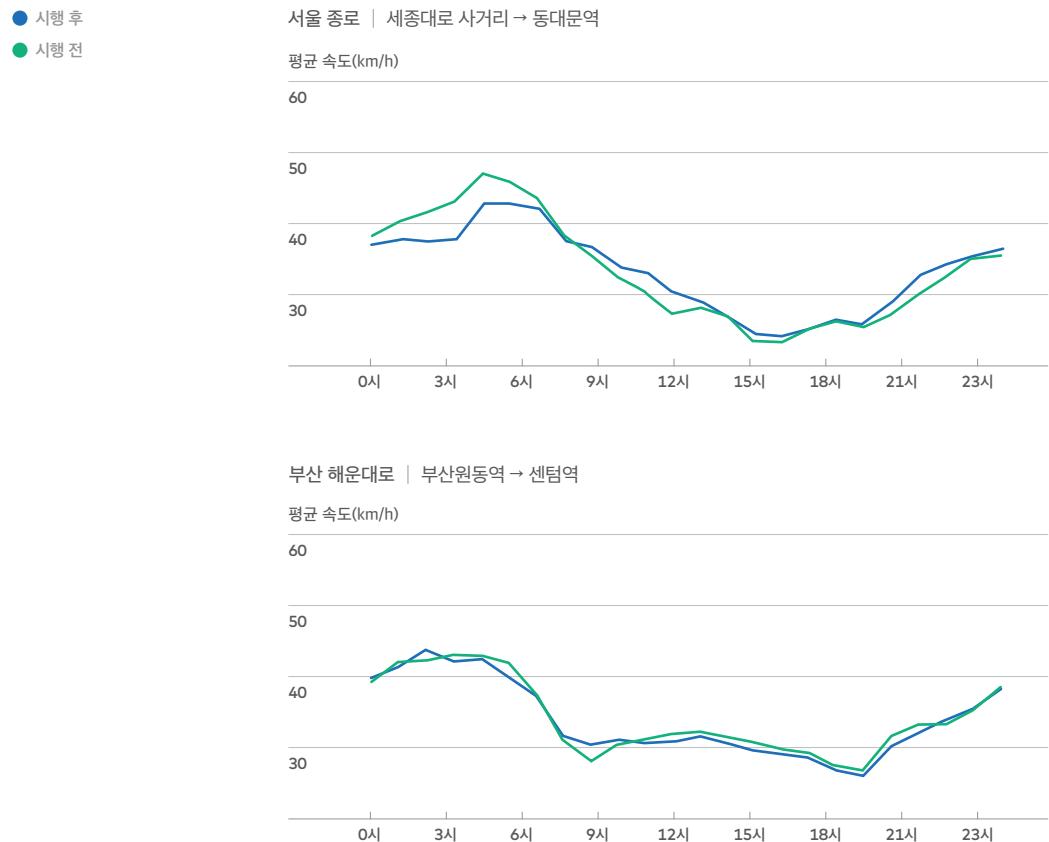
무엇이 우리에게 제한속도를 지키게 하는가?

사실 5030을 시행한 모든 구간에서 보행자 사고가 감소한 것은 아니다. 모든 운전자들이 제한속도를 지키지도 않았다. 운전자들은 제한속도를 왜 안 지켰을까? 속도를 낮추기엔 도로가 좋아서, 신호가 좋아서, 그리고 과속 단속카메라가 없어서 등등의 다양한 이유가 존재한다.

과속 단속카메라가 있고 없고가 속도를 지키는데 정말로 영향을 주는지, 조건이 비슷한 두 도로(서울 종로, 부산 해운대로)를 각각 비교해보았다. 종로의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동대문역 방향으로는 2개의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해운대로의 원동역에서 센텀역 방향은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과속단속카메라가 없어도 속도하향 효과가 나타났을까?

시간대별 평균속도 분석 결과, 자정부터 오전 7시까지 종로의 평균속도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새벽 3시의 평균속도가 최대 5.4km/h까지 감소했다. 해운대로의 평균속도는 전과 크게 변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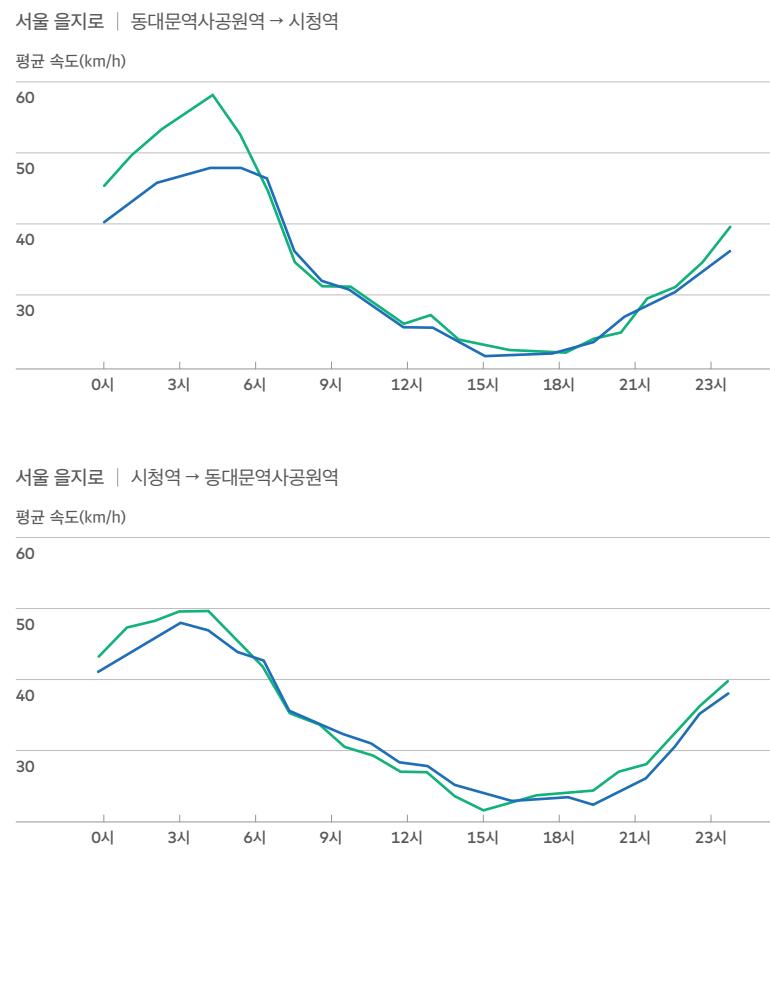
서울 종로와 부산 해운대로의 시간대별 평균속도 5030 시행 전·후 비교



종로와 해운대로의 평균속도 차이가 정말 과속단속카메라 때문일까? 서울과 부산의 지역적 차이 때문은 아닐까? 이번에는 서울 을지로와 양 방향을 비교해보겠다. 같은 도로에 제한속도 하향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다만 을지로 동대문역사공원역에서 시청역 방향으로는 1개의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고, 시청역에서 동대문역사공원역 방향은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

시간대별 평균속도 분석 결과,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된 시청 방면은 심야시간 평균속도가 최대 8.6km/h까지 감소했다. 반면, 과속단속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은 동대문역사공원역 방면은 평균속도가 3.2km/h 감소하는데 그쳤다.

서울 을지로의 방향별 시간대별 평균속도 5030 시행 전·후 비교



• 시행 전 분석기간 2017.12.27~2018.01.03(1주일간), 시행 후 분석기간 2018.12.26~2019.01.02(1주일간)

• 시행 전 분석기간 2019.05.13~2019.05.20(1주일간), 시행 후 분석기간 2020.05.11~2020.05.18(1주일간)

내비가 없으면
제한속도를
어떻게 지킬까?

내비가 없던 시절, 차에는 지도책을 구비했고 운전 중에는 지도를 보며 길을 찾았다. 도로 이정표지를 확인하면서 제대로 가고 있구나, 가슴을 쓸어내렸다. 초행길을 갈 때에는 모르는 사람을 불들고 길을 묻는 일도 다반사였다.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함께 카카오내비와 같은 모바일 내비게이션 전성시대가 열렸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 결과, 운전자들은 74%가 카카오내비와 같은 모바일 내비게이션을 통해 운전경로를 파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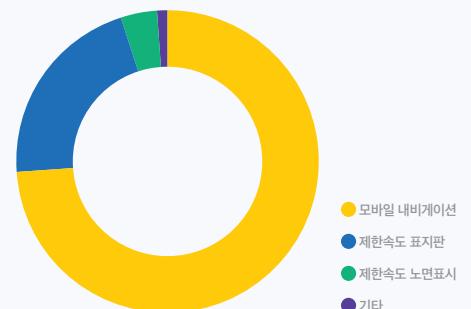
제한속도를 확인하는 방법을 묻는 질문에 운전자의 74%가 내비게이션의 화면 및 음성안내라고 대답했다. 표지판과 노면표시를 통해 제한속도를 확인하는 운전자는 불과 25%에 그쳤다.

차량 경로 및 제한속도 확인 방법

귀하께서는 평소 차량의 경로를 어떻게 파악하시나요?
(복수선택 가능)

모바일 내비게이션
차량 내장형/거치형 내비게이션
도로표지판(이정표)
지도(종이, 모바일)
기타

귀하께서는 다음 중 운전시 차량의 속도 선택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	응답수	비율
모바일 내비게이션	2,909	74%
차량 내장형/ 거치형 내비게이션	1,951	50%
도로표지판(이정표)	906	23%
지도(종이, 모바일)	346	9%
기타	17	0%

응답	응답수	비율
내비게이션 화면 또는 음성 안내	2,898	74%
제한속도 표지판	819	21%
제한속도 노면표시	170	4%
기타	35	1%

• 2020.7.15.~2020.7.26.(총 12일간), 정기적/비정기적으로 운전을 하는 운전자 3,922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 시행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 2년, 달라진 음주문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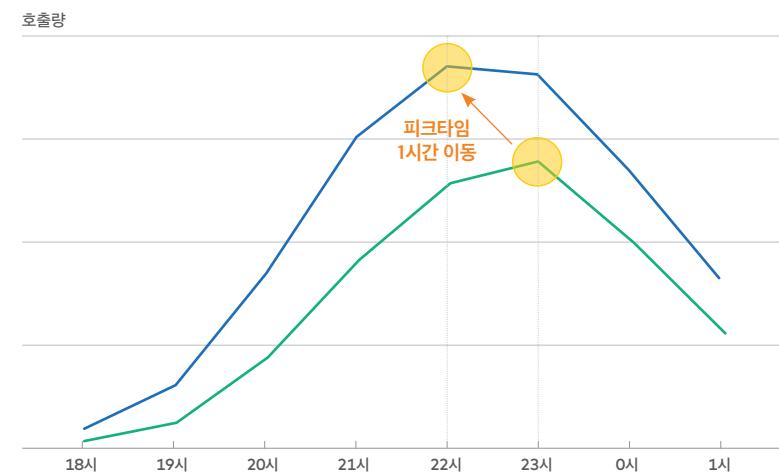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된 지 2년이 흘렀다. 직장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당연시되었던 야근 문화, 싫지만 억지로 자리 채워야 했던 회식 문화가 있었던 것만은 확실하다. 직장인들에게 찾아온 낯설지만 반가운 저녁 있는 삶. 그 변화는 사람들의 음주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을까? 카카오 T 대리 호출 트렌드로 그 변화를 살펴보자.

빨라진 대리호출 시간

● 2019
● 2017

'회식은 119' 대부분의 기업들이 강조했던 슬로건이다. 1가지의 술로, 1차에서, 9시 이전에 회식을 끝낸다. 과거 밤새 부어라, 마셔라 하는 회식은 미덕으로 삼던 문화는 이제 많이 사라졌다. 그 영향이었을까? 가장 많은 대리운전 호출 시간이 17년 대비 11시에서 10시로 1시간 정도 빨라졌다.

카카오 T 대리 시간대별 호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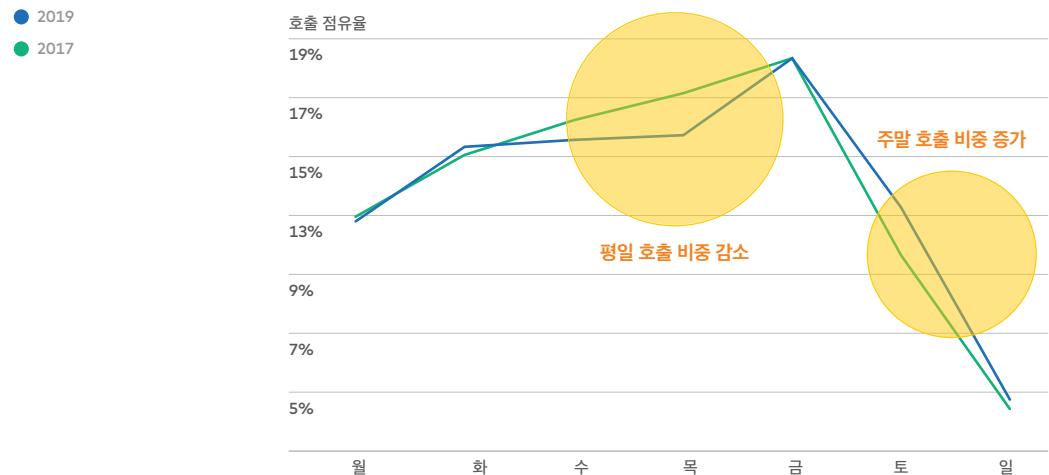


• 카카오 T 대리 시간대별 호출 추이 | 카카오 T 대리 호출 기준

평일보단 주말에 마신다

대리운전 호출이 가장 많은 요일은 언제일까?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바로 금요일이고 그 뒤를 목요일이 바짝 쫓고 있다. 술 약속하면 목요일과, 금요일이 생각나는 게 일반적이고, 어느 조사에 따르면 회식이 가장 많은 날로도 목요일, 금요일이 뽑혔다고 하니, 대한민국에서 가장 술 약속이 많은 날은 목, 금요일이라고 말해도 과언은 아니다. 대리 호출량에서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목, 금의 호출 양이 한 주간 가장 많다.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 트렌드의 변화가 관찰된다. 목요일의 호출량 점유비가 점차 하락 19년에는 17년 대비 1.5%p가 하락했다. 반대로 개인 약속이 집중되어 있는 주말(금토일) 호출량은 2.0%p 증가했다. 가장 회식하기 좋은 날 중 하나였던 목요일에 호출량이 예전 같지 않은 이유가 52시간 근무제의 도입의 영향이었을까? 코로나19 여파로 일상에 큰 변화도 있었기에 앞으로는 어떤 추이를 보일지 더욱 주목된다.

카카오 T 대리 요일별 호출 추이



• 호출 피크타임 변화 (요일 기준) | 카카오 T 대리 호출 기준

대리 호출로 알아보는 서울 술자리 지도 변화

“집 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는 말이 있다. 상권도 마찬가지다. 작년에 자주 갔던 곳을 옮기는 웬지 모르게 덜 갈 때가 있다. 뜨는 상권과 지는 상권이 해마다 달라진다. 카카오 T 대리가 출시된 지 어느덧 4년이 되었다. 그 동안 축적된 대리 호출 데이터를 통해 서울시 술자리 상권 지도의 변화를 알아보자.

카카오 T 대리 서울 상위 호출지역 변화

순위	2017년	2019년	순위변동
1	역삼1동	역삼1동	-
2	여의동	청담동	+1
3	청담동	여의동	-1
4	논현2동	압구정동	+2
5	서교동	논현2동	-1
6	압구정동	서교동	-1
7	서초3동	한남동	+3
8	논현1동	논현1동	-
9	신사동	신사동	-
10	한남동	삼성1동	+2
11	양재2동	서초3동	-4
12	삼성1동	가양1동	New
13	가산동	양재2동	-2
14	종로1.2.3.4가동	종로1.2.3.4가동	-
15	양재1동	가산동	-2
16	서초2동	상암동	+4
17	구로3동	삼성2동	+1
18	삼성2동	서초2동	-2
19	명동	문정2동	New
20	상암동	양재1동	-5

다시 또는 압구정, 고즈넉한 분위기 한남동 90년대 후반 오렌지족은 외제차를 타고 압구정 로데오 길을 누볐다.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뭉개 힙한 곳, 멋진 사람들이 모인 곳의 대표 상권은 압구정이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 침체 후 급격히 침체가 되어 '힙플'의 타이틀을 다른 곳에 내어주게 된다. 그랬던 압구정이 다시 돌아왔다. 지역 상인회의 노력과 유니크한 감성을 가진 카페 주점들이 들어서며 다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다. 이를 증명이라도 하듯 호출 순위가 17년 6위에서 4위로 상승했다. 서울의 전통 부촌 한남. 특유의 고즈넉한 분위기와 고급스러움은 한남동 아니면 경험할 수 없다. 최근 금호, 옥수로 이어지는 독서당로까지 새로운 바와 주점들이 생겨나 사람들이 더욱 모이고 있다. 호출 순위는 10위에서 7위로 3계단 상승했다.

대기업 입주 마곡신도시

2018년부터 시작한 마곡 신도시의 대기업 입주에 따라 마곡 신도시 주변인 가양 1동과 상암동의 대리 호출 양이 급격히 증가했다. 역시 회사와 술자리는 떼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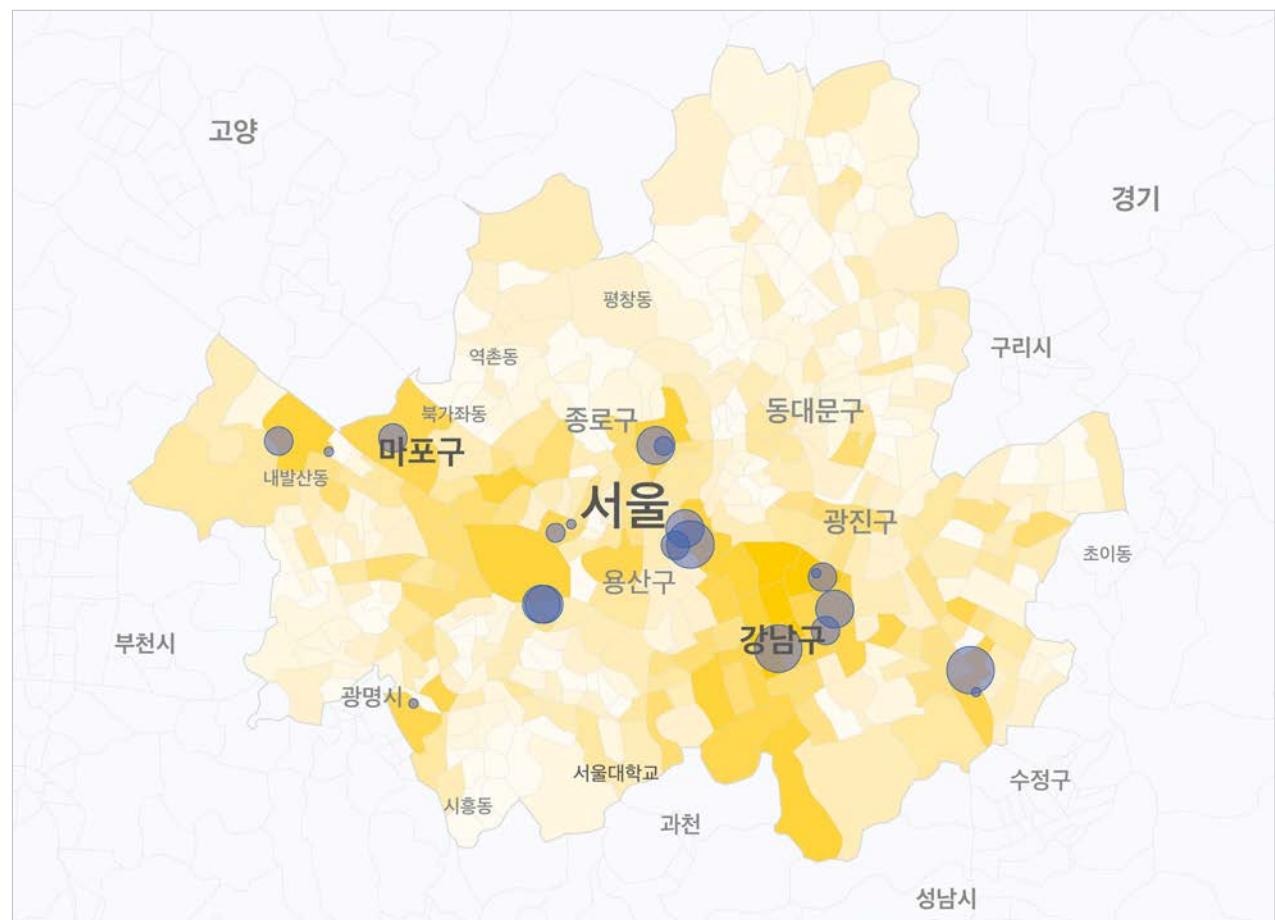
• 호출지역 TOP 20 | 카카오 T 대리 호출 기준

2019년
서울시
술자리 지도

카카오 T 대리 호출 데이터를 통해서 서울의 술자리 지도를 그려 보았다. 강남, 종로, 여의도 등 전통적 업무 지구에서의 대리 호출이 두드러졌다. 이태원, 홍대 등도 유흥의 중심지답게 호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20개 인기 출발지도 뽑아 보았다. '술자리 힙플'이 어디인지 한눈에 들어온다. 1위는 이태원에 위치한 한남동공영주차장으로 나타났다. 그랜드하얏트 서울(6위), 해밀턴 호텔(12위) 등도 상위권에 포진해 있어, 이태원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회센터도 눈에 띄었다. 5위권 안에 가락몰 회센터, 노량진수산시장 주차장 등 횟집 밀집 지역이 상위권에 위치해 있었다. 강남이나 명동 등 도심 지역에서도 인기 출발지가 다수 나왔지만, 강서구의 가양1동에서도 2개의 출발지가 상위 20위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흥미로운 결과였다.

서울 지역별 대리 호출 분포



카카오 T 대리 핫플레이스 서울 TOP 20

순위	출발지	지역
1	한남동공영주차장	용산구 한남동
2	가락몰 회센터	송파구 가락1동
3	강남 파이낸스센터빌딩	강남구 역삼1동
4	노량진수산시장 주차장	동작구 노량진2동
5	노량진 수산물도매시장	동작구 노량진2동
6	그랜드하얏트 서울	용산구 한남동
7	미래에셋센터터원빌딩	중구 명동
8	아셈타워	강남구 삼성1동
9	서울 마포구 상암동 495	마포구 상암동
10	호텔리베라 청담	강남구 청담동
11	포스코센터	강남구 대치4동
12	해밀톤호텔	용산구 이태원1동
13	두산더랜드파크	강서구 가양1동
14	시그니처타워	중구 명동
15	마포공영주차장	마포구 용강동
16	도화동주민센터	마포구 도화동
17	강서한강자이타워	강서구 가양1동
18	대릉포스트타워6차	금천구 가산동
19	문정 현대지식산업센터	송파구 문정2동
20	새벽집 청담점	강남구 청담동

· 서울 지역별 대리 호출 분포 | 카카오 T 대리 호출, 출발지, 2019년 기준

· 카카오 T 대리 핫플레이스 서울 TOP 20 | 카카오 T 대리 호출, 출발지, 2019년 기준

뉴욕과 서울의 택시는 어떻게 다를까?

모빌리티 산업은 각 국가별 제도적 환경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택시는 지역별 다양한 발전 양상을 대표하는 여객 운송 사업이다. 도시의 지점간 운송(point to point transport) 혹은 구역 운송 사업을 대표해 왔던 택시는 지역에 관계없이 온디맨드 기반의 모빌리티 플랫폼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세부적인 발전 경로는 도시에 따라 다양하게 관찰되고 있다.

모빌리티 시장의 다양성과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 뉴욕과 서울을 전격 비교해 보았다. 뉴욕은 현대 택시 시장의 '원조'이면서, 우버, 리프트 등 대표적 TNC 또는 승차공유(ride-sharing) 기업의 최대 시장 중 하나이다. 올해 3월 여객법 개정안의 통과로 향후 성장이 예상되는 운송플랫폼사업의 플랫폼운송사업(타입1)이 미국의 TNC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 뉴욕은 우리나라 모빌리티 산업의 미래 발전 방향을 가늠해보는 것에도 도움이 된다. 모빌리티 데이터로 살펴 본 뉴욕시와 서울시는 어떤 모습일까?

미국 북동부에 위치한 뉴욕시(이하 뉴욕)는 뉴욕주에 속하며 세계 경제의 중심 도시다. 뉴욕은 맨해튼, 브루클린, 브롱스, 퀸스, 스탠퍼드아일랜드 등 5개 자치구(boroughs)로 이루어져 있으며, 면적은 793.8km²이다. 뉴욕의 인구는 2020년 기준 855만명으로 미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이다. 서울시(이하 서울)의 면적과 인구가 각각 605.2Km², 1,001만명(내국인 973만명, 외국인 28만명)인 것과 비교하면 면적은 뉴욕이 서울보다 30% 더 크고, 인구는 뉴욕이 서울보다 15% 적다.

뉴욕은 현대 택시제도가 확립된 도시다. 뉴욕시 당국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불ugi 직전에 이를 택시 시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신규 택시면허 발급 중단, 요금규제 등을 골자로 하는 강력한 택시규제를 도입했다. 뉴욕의 택시 규제체계는 품질 규제, 총량 규제, 가격 규제를 포함하는 QQE(Quality, Quantity & Economic Control) Framework로 발전했는데, 서울을 비롯한 전세계 주요 도시 택시규제의 표준으로 자리잡아 왔다.



서울 Seoul

인구 1,001만명 (외국인 포함)

면적 605.2Km²

인구밀도 16,546 명 / km²



뉴욕 New York

인구 855만명

면적 793.8km²

인구밀도 10,910 명 / km²

승차공유 중심의
뉴욕,
중형택시 중심의
서울

뉴욕의 택시 시장은 일반적인 택시와 FHV(For-hire vehicle, 영업용 차량)로 이루어져 있다. 뉴욕의 택시는 우리나라의 중형택시와 같이 미터기가 설치되어 있고, 배회영업이 가능한 여객 운송 서비스이다. 뉴욕에는 2종의 택시가 있는데 노란색 외관의 엘로우 캡(Yellow Cab)이 오랜기간 뉴욕을 상징하는 택시로 자리잡아 왔다. 2013년에는 맨해튼 북부 일부 지역과 외곽의 자치구(boroughs)에서만 영업이 가능한 보로 택시(boro taxi)가 새롭게 도입되었다. 보로 택시는 외관이 애플 그린(apple green) 색이어서 그린 캡(Green Cab)이라고도 부른다. 2019년 기준으로 엘로우 캡은 13,587대, 그린 캡은 3,004대가 뉴욕에서 운행 중이다. 엘로우 캡과 그린 캡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전화나 앱으로도 호출이 가능하다.

FHV는 호출이나 예약으로만 택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영업용 차량을 지칭한다. 영업용 차량이지만, 택시처럼 색상으로 외관을 구분하지는 않는다. FHV에 해당하는 택시 서비스로는 Black Car(법인 콜택시), Livery(지역 커뮤니티용 콜택시), Luxury Limousine(고급 리무진 택시) 등이 있다. FHV는 배회영업이 금지되어 있으며, 미터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사전에 약정한 요금이나 정액 요금을 지불한다.

뉴욕과 서울 주요 택시 종류

뉴욕



서울



뉴욕에서 영업 중인 FHV의 다수는 우버 등 승차공유 차량이 차지하고 있다. 2010년 약 4만대였던 FHV는 2019년 기준 116,449대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승차공유 서비스가 급격하게 확장된 영향이 크다. 뉴욕에서 우버 등 승차공유 차량은 콜택시 기관업체나 콜택시 조합 소속으로 차량을 등록할 때 사용하는 Black Car로 규제되고 있다. 2019년 기준 FHV에 등록된 차량의 88.7%는 Black Car가 차지하고 있다.

우버, 리프트 등 승차공유 서비스 업체는 HVFHS(High Volume For-hire Services)로 영업 면허를 받고 운영하고 있다. HVFHS는 하루에 1만개 이상의 호출을 받아 차량을 배차하는 대규모 FHV 관제센터(FHV base)를 별도로 규제하기 위해서 뉴욕시 당국이 2018년에 신규로 도입했다. 뉴욕주를 포함하여 미국 대부분의 주와 도시에서 TNC(Transportation Network Company)라는 새로운 운송서비스 형태를 신설하여 승차공유 서비스를 합법화한 것과 대조적이다. 뉴욕시는 주법(New York State law)의 예외를 인정 받아서 기존 택시 규제의 큰 틀에 승차공유 서비스를 편입하였다.

인구대비 택시수,
뉴욕이 서울보다
사실상 2배 이상 많아

뉴욕은 전통적인 택시보다 승차공유 차량 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배회영업을 중심으로 하는 중형택시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서울과 대조적이다. 뉴욕의 배회영업 택시 차량은 엘로우 캡과 그린 캡을 합하더라도 16,591대(2019년 기준)에 불과하다. 중형과 모범 택시를 합하여 67,432대인 서울의 4분의 1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나 우버, 리프트 차량을 포함하고 있는 FHV를 고려하면 뉴욕에서 영업 중인 호출영업 택시는 116,449대로 딜한다. 서울의 호출영업 택시(고급, 대형승용, 대형승합) 922대보다 70배 이상 많다. 배회영업과 호출영업 전체 택시 수(2019년 기준)는 인구 1000명당 뉴욕이 15.6대, 서울이 6.8대로 뉴욕이 서울 보다 2배 이상 많다.

뉴욕과 서울의 영업 형태별 택시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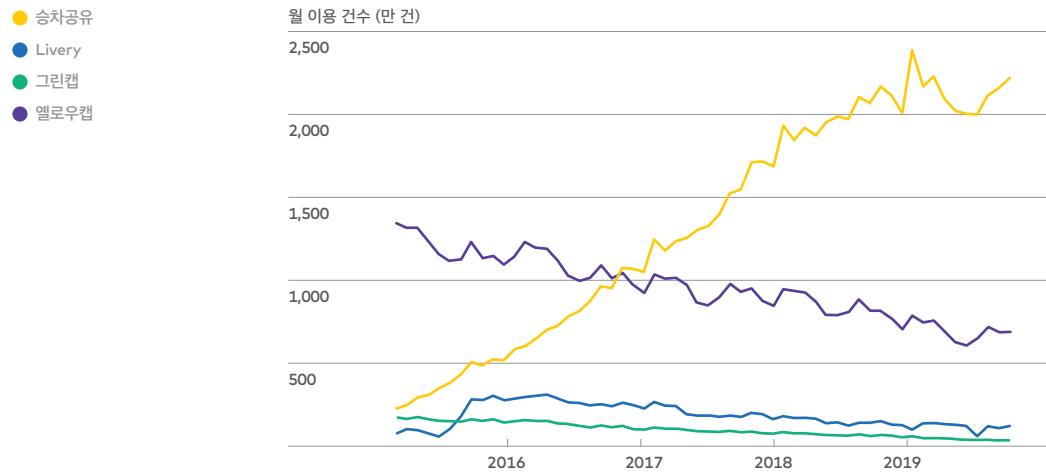
	뉴욕	서울
배회영업	16,591	67,432
호출영업	116,449	922
총 택시수 (FHV 포함)	133,040	68,354
인구 1000명당 택시수	15.6	6.8

• 뉴욕과 서울의 영업 형태별 택시 수 |
배회영업 뉴욕은 엘로우캡과 그린캡의 합, 서울은 배회영업 중심인 중형택시와 모범택시의 합,
호출영업 뉴욕은 FHV 차량수, 서울은 호출영업 중심인 고급, 대형승용, 대형승합 택시의 합

뉴욕, 우버와 리프트가 대세로 자리잡아

뉴욕은 승차공유 서비스가 택시 시장의 대세로 자리잡은지 오래되었다. 201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한 승차공유 서비스는 2016년 12월 엘로우 캡의 이용 횟수(월 기준)를 뛰어넘은 이후로 격차를 꾸준히 벌려왔다. 100년 전통의 엘로우 캡이 출시된지 불과 10년도 되지 않는 서비스에 역전된 것이다. 코로나19의 영향을 받기 전인 2019년 12월 기준으로 뉴욕의 승차공유 서비스 이용 건수는 2,224만건으로 684만건에 그친 엘로우 캡의 3배 이상을 기록했다.

뉴욕 택시 및 승차공유 서비스 유형별 이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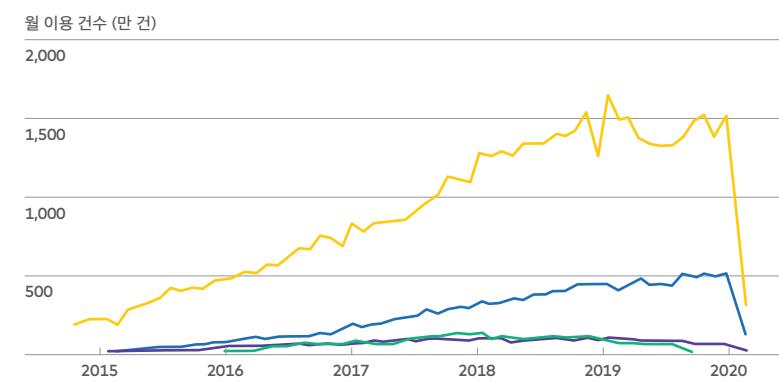


뉴욕의 승차공유 서비스 시장은 우버가 앞서가는 가운데 2위업체 리프트가 쫓는 양상이다. 2019년 12월 기준으로 우버가 시장점유율 약 72.4%를 차지하고 있고, 리프트가 24.4%, 3위업체 비아(Via)가 약 3.2%를 차지하고 있다. 주노(Juno)라는 업체도 있었으나 2019년 11월 주노의 모회사 Gett가 2위 업체 리프트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으면서 뉴욕 시장에서 철수했다.

뉴욕의 승차공유 업체는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후 회복 중이다. 2020년 2월까지만 하더라도 뉴욕의 우버와 리프트 이용건수는 일평균 각각 54.3만건, 18.4만건이었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선언과 봉쇄조치가 단행된 후인 4월에는 각각 10.3만건, 3.8만건까지 급락했다. 5월 이후 경제가 재개되기 시작하면서 뉴욕의 승차공유 이용 건수도 4월을 저점으로 회복 중이지만, 코로나19의 재확산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회복세가 지속될지는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 뉴욕 택시 및 승차공유 서비스 유형별 이용 추이 | 자료 : NYC Taxi & Limousine Commission, 월간 이용 건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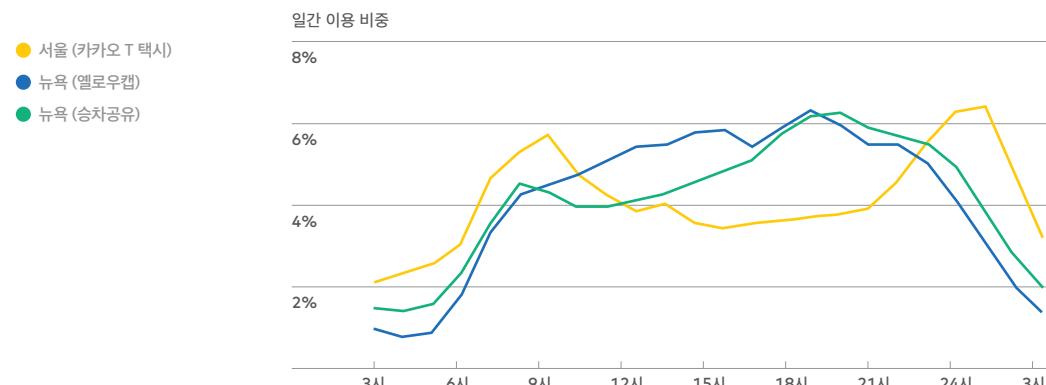
승차공유 업체별 이용 추이



뉴욕과 서울의 택시 피크타임은 다르다.

뉴욕과 서울의 택시 이용 패턴은 크게 차이가 난다. 서울은 뉴욕보다 밤~새벽 시간대 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뉴욕은 낮~저녁 시간대 이용이 두드러졌다. 서울의 경우 택시 이용량이 높은 시간대는 오전에는 평일 오전 8시, 주말 오전 9시로 나타나고, 밤시간에는 평일과 주말 모두 자정으로 나타났다. 뉴욕은 승차공유의 피크타임이 오전 8시에 한차례 형성되기는 하지만, 이용량이 가장 많이 쏠리는 시간은 저녁 7시로 나타났다. 엘로우 캡의 경우에는 출근 시간대 보다는 오후 4시에 한차례 피크타임이 나타났다가, 퇴근시간대인 저녁 6시에 가장 많은 이용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은 세계 금융의 중심지인 만큼 증권시장의 개장에 앞서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고, 장 마감 직후인 오후 4시경에 맨하튼 중심가에서 집중적으로 배회영업을 하는 엘로우 캡 이용자들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경우 밤늦게까지 놀거나 야근하는 사람들이 뉴욕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뉴욕의 택시 이용 패턴 비교



• 승차공유 업체별 이용 추이 | 자료 : NYC Taxi & Limousine Commission, 월간 이용 건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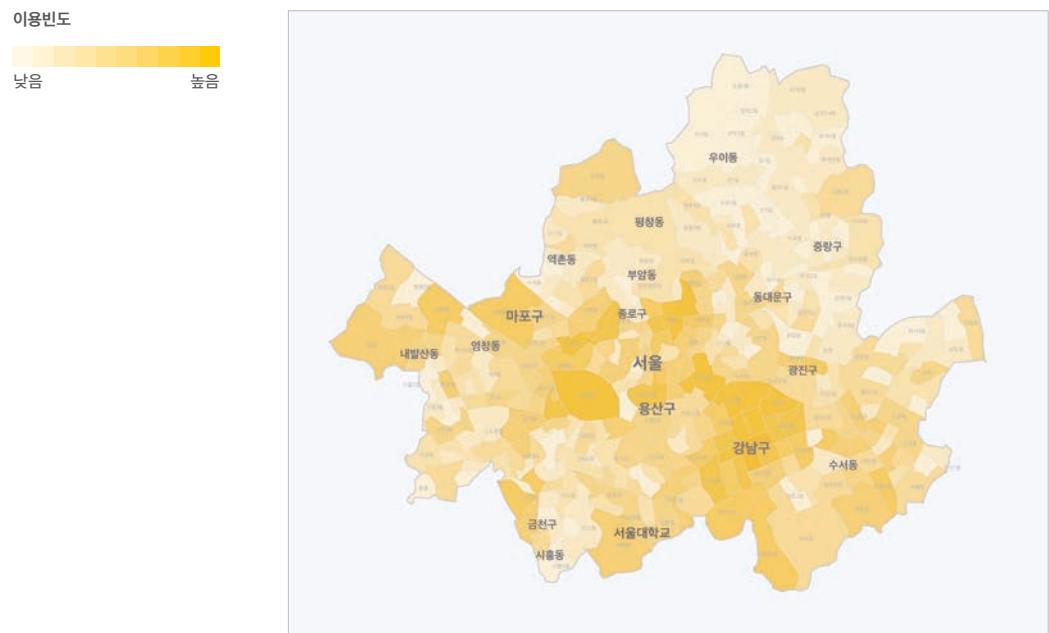
• 서울과 뉴욕의 택시 이용 패턴 비교 | 자료 : 카카오모빌리티, NYC Taxi & Limousine Commission, 2019년 12월 기준

**서울과 뉴욕 모두
도심에 택시 이용 집중,
승차공유는
도시 외곽 지역
접근성 개선**

택시 이용은 도시를 불문하고 도심의 중요한 이동 수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종로구와 종로구 일대의 중심업무지구, 여의도, 강남 등 3대 업무지구와 야간에 택시 호출이 집중되는 이태원과 홍대 일대에 택시 수요가 몰려 있다. 뉴욕의 택시와 승차공유 승차 위치를 보면, 맨해튼 도심의 이용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맨해튼 외곽에서는 라과디아 공항, JFK 공항 등 뉴욕에 위치한 공항에서의 이용량이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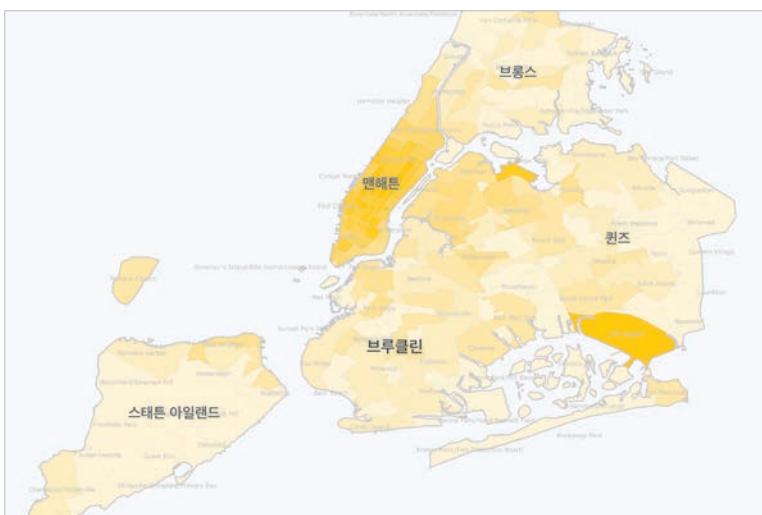
한편, 뉴욕의 승차공유 승차지점 분포는 택시와는 사뭇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엘로우캡은 승차 지점이 맨해튼에 집중되어 나타나는데 반해서 승차공유는 맨해튼 외곽의 자치구에서도 비교적 이용량이 높게 나타난다. 배회영업 중심인 엘로우캡의 경우 승객이 많은 도심이 영업의 중심인데 반해서, 호출에 기반하는 승차공유는 상대적으로 수요의 분포가 넓게 분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13년 뉴욕시 당국에서는 맨해튼 외곽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린캡'을 새롭게 도입하였지만, 사실상 승차공유가 맨해튼 외곽의 이동 수요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서울의 택시 승차 위치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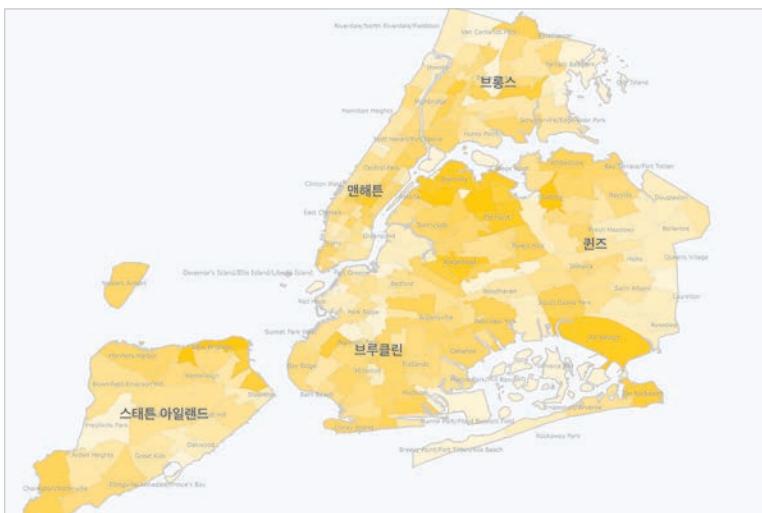


뉴욕의 택시 및 승차공유 서비스 승차 위치 분포

뉴욕 | 택시 및 승차공유 전체 이용 기준



뉴욕 | 승차공유 이용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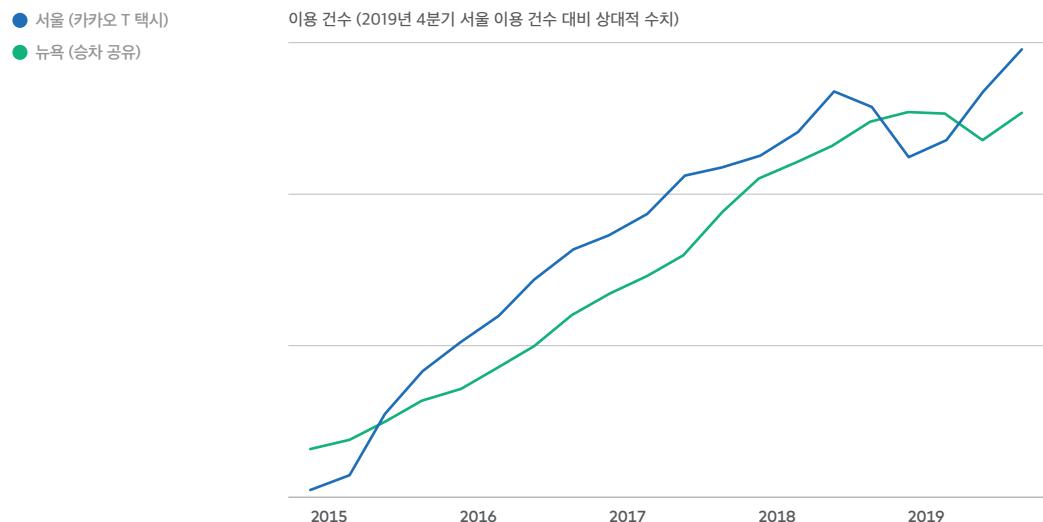
• 서울의 택시 승차 위치 분포, 뉴욕의 택시 및 승차공유 서비스 승차 위치 분포 | 2019년 12월 기준

**서울 택시 호출이
뉴욕의 승차공유
이용 건수를 넘어서**

뉴욕은 승차공유 서비스가 발전한 반면, 서울은 카카오 T 택시와 같은 택시 호출 서비스가 자리잡았다. 서울의 택시 호출 이용건수(카카오 T 택시 기준)는 뉴욕 승차공유 서비스 이용건수를 넘어섰다. 카카오 T 택시 출시 초기 몇달과 2019년 상반기 택시 요금 인상 등으로 택시 수요가 주춤했던 시기를 제외하면 서울이 뉴욕보다 신규 모빌리티 서비스의 성장 속도가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모빌리티 시장 성장 잠재력이 뉴욕 못지않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결과다.

뉴욕은 승차공유 서비스의 제도권 편입 이후 안정적으로 성장했다. 2013년 캘리포니아를 필두로 TNC가 합법화되기 시작하면서 승차공유 서비스는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시민들의 주요 이동 수단으로 자리잡았다. TNC 합법화가 시작된지 불과 3년만에 뉴욕의 승차공유 시장은 100년 전통의 택시 시장 규모를 넘어섰다. 최근 Type1(플랫폼운송사업), Type2(플랫폼가맹사업), Type3(플랫폼중개사업) 등 운송 플랫폼 사업을 제도화한 우리나라로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의 등장을 통한 이동 서비스의 질적, 양적 성장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서울과 뉴욕의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 추이



· 서울과 뉴욕의 모빌리티 서비스 이용 추이 | 분기별 이용 건수 기준

생활 혁신

LIFE
INNOVATION

CHAPTER 3

/ 모빌리티 서비스가 바꾼 일상
/ 데이터로 찾아낸 사람들의 일상

생활 혁신

/

모빌리티 서비스가 바꾼 일상

카카오 T 바이크 1년,
삶의 일부로
녹아들다.

카카오 T 바이크는 올해 3월 첫돌을 맞은 신생 서비스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을 최근에야 완전히 경험했다. 서비스 지역은 초기 2개 지역에서 시작하여 4개 지역으로 늘어났고, 새로운 이동수단에 목마른 시민들과 지자체의 관심속에 서비스 지역 추가 확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출시 2년차 카카오 T 바이크는 10년차 서비스도 겪지 못할 숱한 기록과 에피소드로 가득하다.

2020년은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와 함께 시작했다. 생활 속 거리 두기가 유지되는 가운데 맛은 여름은 역대급 장마가 닥쳤다. 불행 중 다행인 점은 모두가 악재는 아니었다는 점이고, 향후 서비스 확장을 위한 소중한 경험으로 쌓이고 있다는 점이다.

코로나19로 불어닥친 바이크 열풍

코로나19는 많은 사람들의 이동을 멈추게 했다. 매일 아침 학교와 회사로 향하던 발걸음은 한동안 집에서 머물러 있었다. 전례 없는 바이러스 사태를 맞아 사람들이 선택한 것은 안전한 집에서 머무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동을 영원히 멈출 수는 없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을 의미하는 신조어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나왔듯이 집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이 되었다. 사람들은 새로운 이동방법을 모색했다.

사람들의 필요는 곧 새로운 수요로 나타났다. 오랜기간 우리 곁에 있었지만, 새롭게 바라보게 된 자전거다. 거리두기를 하면서 이동할 수 있으면서도, 집에서 쌓인 답답함을 날릴 수 있는 이동수단으로 자전거를 다시 보는 사람들이 많그대로 폭증했다. 자전거나 전동킥보드를 직접 구입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당장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 전동 바이크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엄청난 속도로 늘어났다. 카카오 T 바이크 이용자수 역시 빠르게 늘어났다.

카카오 T 바이크를 이용하는 횟수는 지역을 불문하고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3개월 즉, 올해 4월~7월 간 전년 동기 대비 가용기기 1대당 이용 횟수는 월 평균 약 27%, 이용완료 이용자수는 월 평균 약 3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히 배치한 바이크 수를 늘려서 나타난 결과가 아니라 모든 바이크가 작년보다 쉼없이 움직인 결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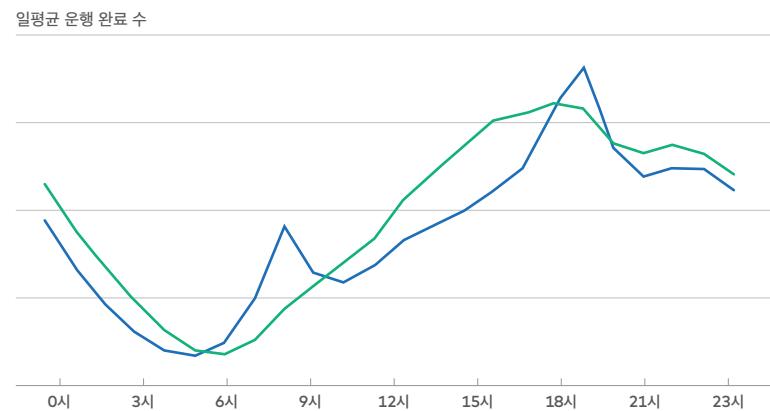


2020년 4월~2020년 7월, 전년대비, 운행완료 기준

일상 속에 녹아든 카카오 T 바이크

폭발적인 관심 속에 일상으로 녹아들고 있는 카카오 T 바이크는 어떻게 이용되고 있을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하루 이용 패턴은 동일하게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일에는 오전 7~9시 출근시간대 한차례 피크타임이 나타났고, 오후 5~7시 퇴근시간대에도 피크타임이 형성되었다. 주말에 오후 3~4시에 한차례 피크타임이 형성되는 것도 작년과 변함없이 이어졌다. 자정을 전후한 심야시간에도 비교적 높은 이용률이 지속되고 있다.

카카오 T 바이크 평일 & 휴일 시간대별 운행 패턴



• 카카오 T 바이크 평일 & 휴일 시간대별 운행 패턴 | 운행완료 기준

라스트 마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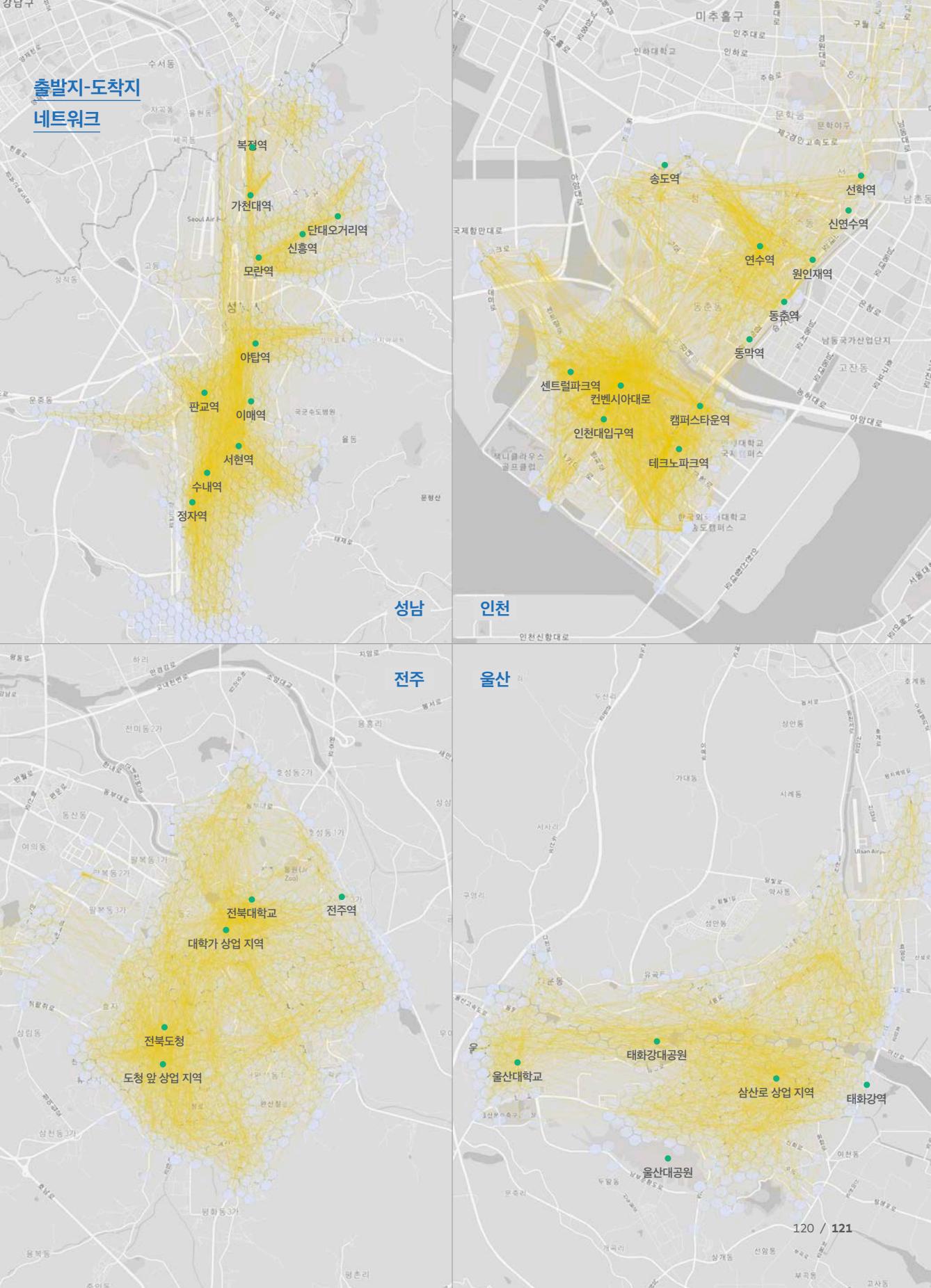
vs

'저스트' 마일

카카오 T 바이크와 같은 퍼스널 모빌리티(개인형 이동수단)는 자동차 또는 전철로부터 최종 목적지를 연결해 주는 '라스트 마일(last mile)' 이동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카카오 T 바이크가 진출한 지역에 따라서는 새로운 양상이 관찰된다. 단순히 라스트 마일로 규정하기에는 어려운 형태의 이용 패턴이다.

카카오 T 바이크는 기존의 성남, 인천광역시에 이어 2019년 7월과 9월에 전주시와 울산광역시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우선, 성남, 인천광역시는 촘촘하게 엮인 수도권 지하철 노선이 존재하는데, 바이크 서비스는 지하철 역까지의 이동수단으로 이를 보조하는 라스트마일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성남과 인천의 이동 네트워크를 보면 지하철역 주변과 자전거길(탄천 등)을 주요 거점으로 바이크 이용이 집중됨을 볼 수 있었다.

반면, 추가로 서비스를 시작한 전주와 울산은 조금 다른 양상이 보였다. 지하철이 운행되지 않는 전주와 울산은 대학교 및 주요 행정/업무/상업지구를 연결하는 이동 네트워크가 도시 전역에 걸쳐 펼쳐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들 지역에서는 카카오 T 바이크가 단순히 기존 교통수단을 보완하거나 보조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일부 시민들에게는 주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대중교통이 상대적으로 미비한 비수도권 지역은 카카오 T 바이크와 같은 공유 기반의 개인 이동수단이 도시 이동 문제 해결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총성도 높은 이용자가

두드러지는

카카오 T 바이크

바이크 이용은 계절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춥고 길이 얼어붙은 계절에 바람을 맞으며 바이크를 이용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크를 일상의 일부로 받아들이고 꾸준히 이용하는 고객들이 상당히 많다. 특히, 따뜻한 봄 바람이 찾아오면 겨우내 잠시 떠났던 분들도 다시 돌아와 잔류율이 거꾸로 상승하는 놀라운 사례가 데이터로 관찰되기도 한다.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가 그렇듯 고객 획득 뿐만 아니라 유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상당히 고무적이다.

카카오 T 바이크는 출시 1년 만에 강력한 팬덤이 형성되고 있다. 상위 10% 이용자가 총 이용금액의 51%를 차지할 정도로 총성도 높은 이용자의 이용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그먼트별 이용자의 비중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출근, 퇴근, 새벽 세그먼트에 속하는 이용자의 경우 이용금액 상위 10%에 속할 가능성이 기대값의 약 2~3배가 넘을 정도로 높은 편이며, 주말 세그먼트 이용자의 경우 규모는 제일 큰 편이지만 이용금액 상위 10%에 속할 가능성은 기대값 정도로 다른 세그먼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이 결과는 이용자들의 이용 강도를 생각해볼 수 있게 해준다. 주말 이용자는 비교적 가볍게 이용하는 반면, 평일 출퇴근 및 새벽시간 이용자는 일상 속에서 이미 카카오 T와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카카오 T 바이크의
업그레이드는
계속 된다

지난 2019년 3월 일반 전기자전거에 잠금장치(스마트락)를 부착하여 카카오 T 바이크 1세대 모델이 세상에 나왔다. 카카오 T 바이크는 1년 4계절에 걸친 비바람과 눈보라 등을 견뎌내며 노후화된 1세대 모델을 대체할 새로운 기기를 물색하였고, 고객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2세대 모델을 올해 8월부터 새롭게 선보이기 시작하였다.

1세대 모델과 2세대 모델의 특징을 비교하면, 크게 디자인, 주행거리, 스마트락, 승차감 개선으로 나눠 볼 수 있다. 2세대 모델은 다양한 부분들이 개선되었고, 카카오모빌리티의 바이크팀의 경험과 기술력이 더해져 완전히 새로운 모델로 탄생하게 되었다. 우선, 2세대 모델은 카카오프렌즈 캐릭터의 사용이 확대되어 친숙함이 배가 되었고, 배터리의 용량이 증대됨에 따라 유저들이 다양한 캐릭터의 바이크를 더 오래 탈수 있게 되었다. 안정성 측면에서도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었다. 바이크의 잠금장치에 장착된 GPS의 정확도도 고도화 시켰다. 2~3m의 짧은 거리에도 담벼락, 기둥 하나 사이로 못찾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번 업그레이드를 통해 보다 많은 유저들이 카카오 T 바이크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바이크를 운영하는 직원들의 운영 효율화를 위해 beep음을 통해 숨겨진 카카오 T 바이크를 보다 손쉽게 찾도록 했으며, 체인, 안장, 타이어 모두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어 카카오 T 바이크에 더 안정된 승차감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1세대



디자인 카카오프렌즈 2종라이언, 어피치

주행거리 원충 시 3시간 내외 운행 가능
(주행조건에 따라 변동)

스마트락 운영자를 위한 별도 기능 없음

안장, 체인 기본 안장 사용
타이어 높은 경도의 타이어

2세대



디자인 카카오리틀프렌즈 5종라이언,
어피치, 무지, 뮤즈, 제이지

주행거리 원충 시 4시간 내외 운행 가능
(주행조건에 따라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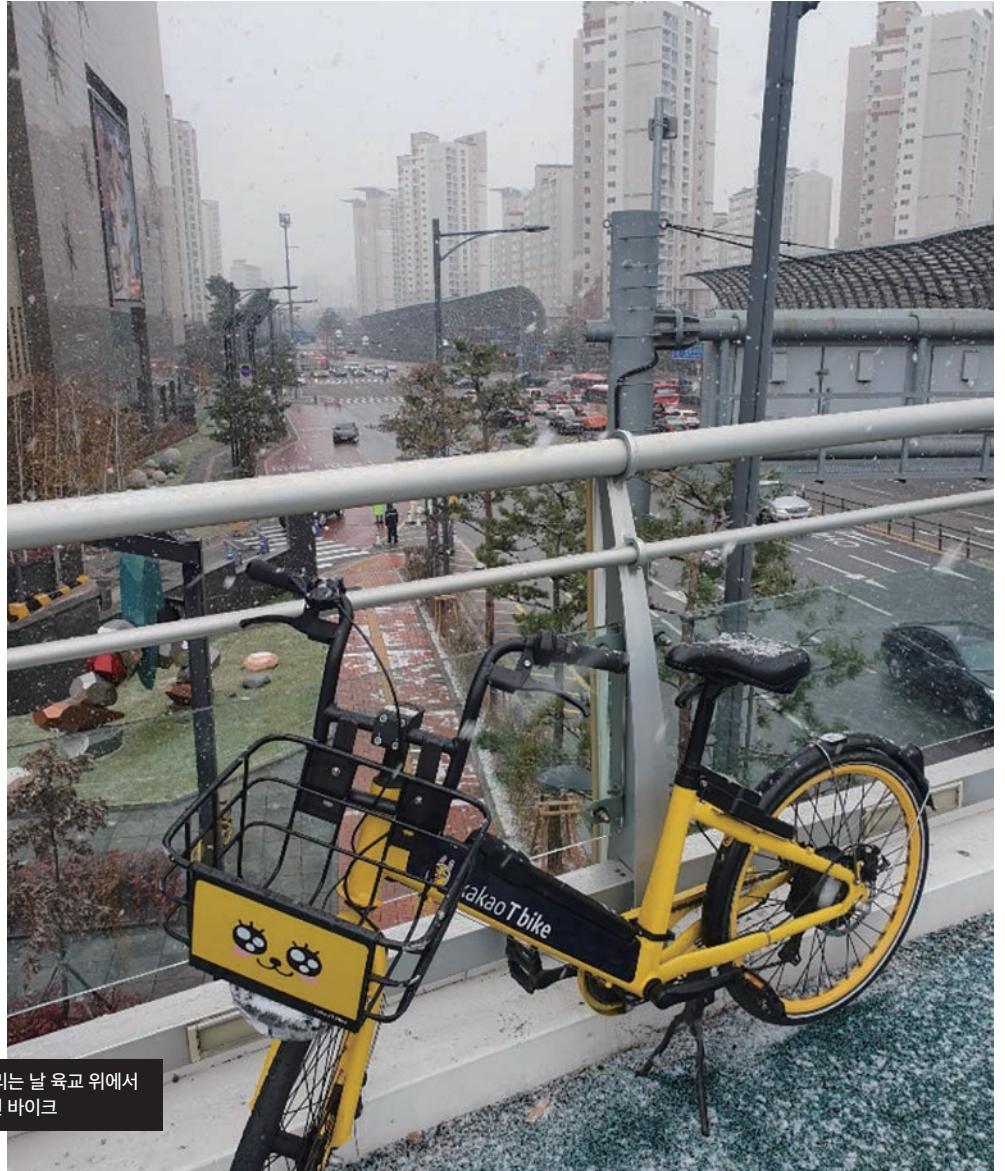
스마트락 GPS 측위 정확도 향상
스마트락 비프음을 이용해 바이크 위치
탐색 (운행 효율 향상)

안장, 체인 체인 이탈 구조적으로 방지
타이어 스프링 안장을 사용으로 승차감 향상
내구성이 뛰어나고 승차감이 좋은
타이어로 업그레이드

카카오 T 바이크
서비스 이용자 분석 및
운영 에피소드

카카오 T 바이크가 단기간에 많은 사랑을 받는 서비스로 성장한 만큼 다양한 이야기거리들도 쌓였다. 특히, 카카오 T 바이크 운행 담당자들이 겪었던 소위 웃기면서도 슬픈 에피소드들이 많다. 기상천외한 장소들에서 발견되었던 카카오 T 바이크의 대표적 장면들을 모아 보았다.

무더운 여름 날 아파트 18층에서
발견된 바이크 (아파트 옥상들이 보인다.)





수풀에서 발견된 바이크
(풍경 사진이 아니다. 잘 찾아 보시길..)



경기도 연천 군부대 부근에서 발견된 바이크
최초 발견을 한 연천 파출소 경찰분이 우리
보다 더 놀랐던 기억이 난다

카카오 T 주차와 에버랜드가 만나면?

2020년 7월, 에버랜드에 카카오 T 주차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카카오 T 주차와 에버랜드의 협업으로 기존에 에버랜드가 겪고 있던 주차 인프라 문제, 입출차 동선 문제, 주차면 부족 문제 등이 해결되고 있다. 이용자들은 카카오 T 앱을 활용해 모바일로 편리하게 주차요금을 결제할 수 있게 되었다. 더불어, 카카오라는 긍정적인 브랜드 이미지는 이용자의 주차 경험에 신뢰감을 더해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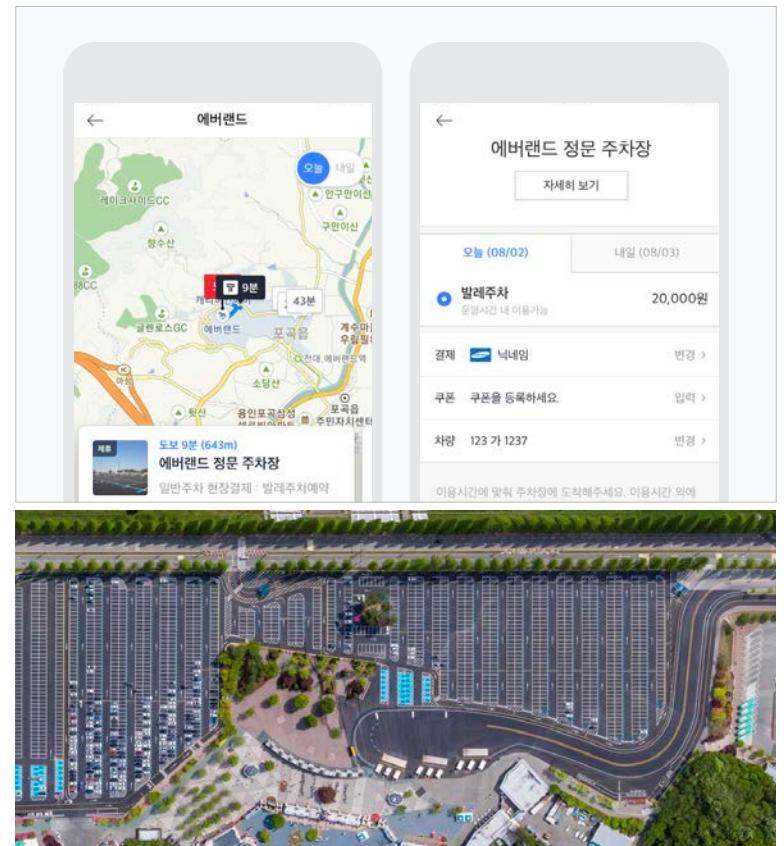


• 에버랜드 정문 주차장 TCP 장비 (사진제공 : 에버랜드)

카카오 T 주차와 만나서 새로워진 에버랜드 주차장

카카오 T 주차는 어떻게 주차 및 교통 문제를 개선했을까? 먼저, 에버랜드와 협력하여 셔틀버스 동선 변경과 함께 분리되어 있던 주차장을 통합함으로써 주차장 내 동선을 순환형으로 개선하고, 기존 약 1,800면의 주차면에 추가 200면의 주차면을 추가로 확장하여 전반적인 주차 환경을 개선했다. 그리고 카카오내비의 안내 경로를 주차장 동선 정책에 맞게 최적화하여 이용자들이 입구부로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정문 주차장의 밸레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는 카카오 T 앱으로 미리 예약만 하면 된다. 예약 차량이 정문 주차장에 입차하면 밸레 차량이라는 사실이 인지되기 때문에 별도의 요금 정산이나 신청 과정 없이 밸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모빌리티의 AI 기술로 고도화된 주차 정보를 제공해준다. '대안목적지 추천 기능'은 실시간 주차 현황 데이터를 수집하여 카카오내비앱에서 가장 빠르게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으로 이용자를 안내한다. 머신러닝으로 도출한 만차 예측 그래프 및 최적의 출발 시간을 알려주는 AI 추천 출발시간도 올해 안에 카카오 T 앱과 카카오내비 앱에서 제공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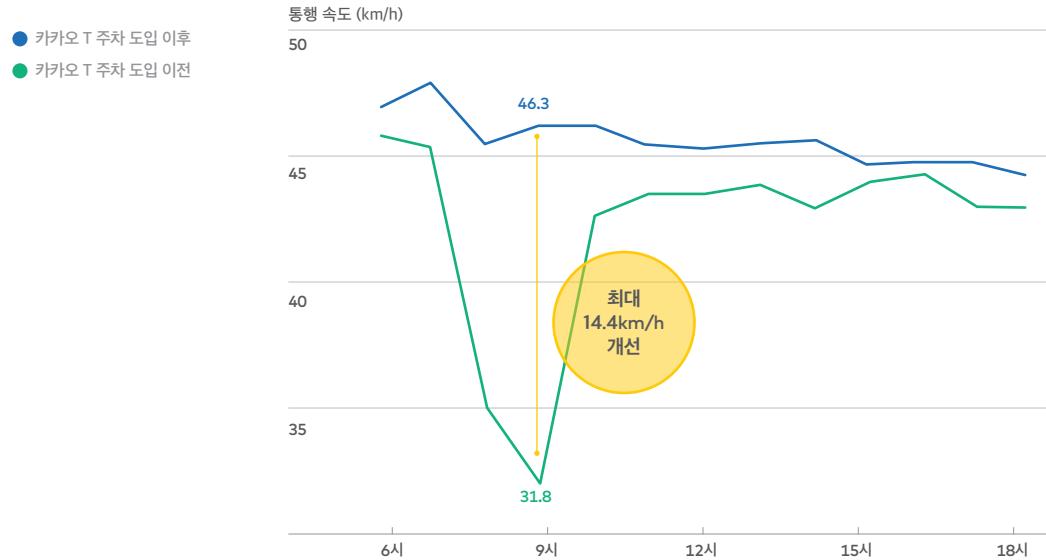
• 에버랜드 정문 주차장 (사진제공 : 에버랜드)

**카카오 T 주차
도입으로
주차장 진입로
통행속도
최대 14.4km/h 개선**

카카오 T 주차 도입은 에버랜드 주차장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마성 IC에서 에버랜드 정문으로 가는 경로에 있는 '에버랜드로'의 통행속도를 카카오내비 데이터로 분석해 보았다. 비교 대상은 카카오 T 주차가 도입된 전후의 통행속도이다. 분석 기간은 2020년 7월 4주간과 도입 1년 전인 2019년 7월 4주간이며, 차량이 많이 몰리는 주말과 휴일의 오전 6시~오후 6시까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카카오 T 주차 도입 이후 통행속도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오전 6시 ~ 오후 6시 사이 12시간 동안 모든 시간대에 대해서 평균 통행속도가 개선되었으며, 평균 통행속도는 시속 42.3km에서 45.7km로 3.4km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버랜드 개장시간 직전의 통행속도 개선이 두드러진다. 에버랜드는 10시 개장을 앞두고 1~2시간 이전부터 주차장이 가득 차기 시작하는데, 차량이 가장 많이 몰리는 오전 9시 통행속도는 이전에 비해서 시속 14.4km나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카카오 T 주차 도입 이후 주차장 혼잡이 완화되면서 주차장 진입 과정에서의 정체도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에버랜드, 카카오 T 주차 도입 전후 통행 속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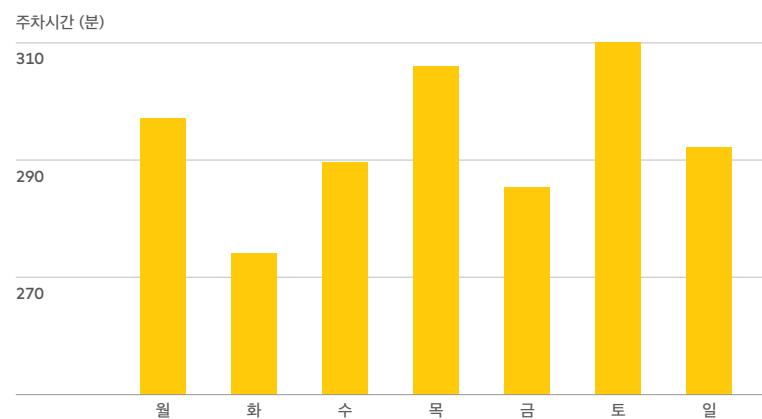


• 에버랜드, 카카오 T 주차 도입 전후 통행 속도 비교 | 분석기간 도입 이전 -2019년 07월 03일~2019년 07월 31일,
도입 이후 - 2020년 07월 01일~2020년 07월 29일, 주말 및 휴일 - 오전 6~18시

**에버랜드의
주차 패턴을
분석해보니**

카카오 T 주차에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에버랜드 주차장 이용자들의 주차 패턴을 살펴보았다. 에버랜드의 평균 주차 시간은 4시간 54분으로 나타났다. 에버랜드 방문자들은 평균적으로 5시간 정도 머무르는 것이다. 카카오 T 주차를 통해서 파악한 대형 쇼핑센터(서울 용산)의 평균 주차 시간이 3시간인 것과 비교하면, 테마파크에 머무르는 시간이 대형 쇼핑몰에 비해서 2시간 정도 길다. 반면, 오피스 밀집 지역에 위치한 주차장에 비해서는 에버랜드의 주차 시간이 짧게 나타났다. 출퇴근 이용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교 공영 주차장의 경우 평일 평균 주차 시간이 에버랜드의 2배를 넘어선 9시간 51분에 달했다.

에버랜드 요일별 평균 주차시간



• 에버랜드 요일별 평균 주차시간 | 분석기간 2020년 07월 01일~2020년 07월 14일

에버랜드 주차장 이용자가 특히 많을 때

에버랜드 주차장 이용자의 주차 시간을 구간별로 나누어 분석해보았다. 평일과 주말을 비교해서 살펴보면 0~3시간 미만 구간에서 평일 우세, 3~8시간 미만은 주말 우세. 8시간 이상은 평일, 주말에 관계없이 비슷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4~6시간 머무는 이용자가 전체 이용자의 20% 중반대를 차지하고 있으며, 8시간 이상 주차하는 이용자는 약 19% 정도이다. 에버랜드에 종일 머무는 이용자도 상당수를 차지하지만 반일 정도의 시간을 보내고 출차하는 이용자가 가장 많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에버랜드 주차 시간별 이용자 비중

구분	평일	주말
1시간 미만	23.6%	20.3%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4.7%	2.9%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5.8%	5.1%
3시간 이상 4시간 미만	8.3%	9.1%
4시간 이상 5시간 미만	10.8%	11.4%
5시간 이상 6시간 미만	10.7%	12.3%
6시간 이상 7시간 미만	8.7%	10.9%
7시간 이상 8시간 미만	6.7%	8.2%
8시간 이상	19.9%	19.3%

에버랜드에서 입차량이 가장 많은 시간대는 에버랜드의 가장 시간이기도 한 '오전 10시'다. 입차 피크 시간대는 평일/주말 관계없이 동일하다. 다만, 오전 10시의 절대적인 입차량은 주말이 평일 대비 약 2배 가량 많다. 오전 10시 이후 두 번째 입차 피크 시각은 오후 5시이다. 야간권으로 입장하려는 이용자들이 입차하는 시점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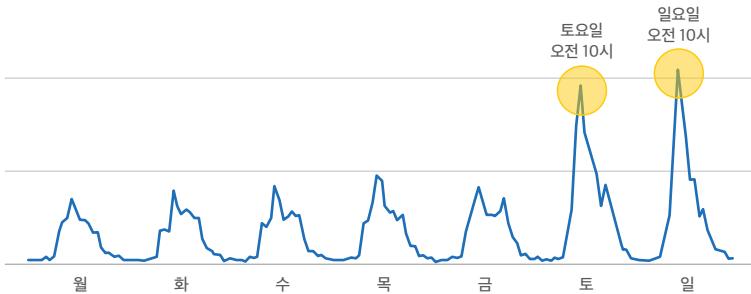
출차 피크 시각은 저녁 9시다. 에버랜드의 명물인 퍼레이드가 8시 시작이기 때문에 퍼레이드를 관람하고 나오는 시각과 출차 시각이 맞물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이한 점은 일요일은 오후 4시에도 출차 피크가 발생하고 있다. 다른 날 대비 이른 시각에 귀가하는 이용자들이 많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자동정산 신청 시점은 대부분 출차 1시간 내에 이루어진다. 주차요금 정산은 일반적으로 출차 시점에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주차 이용자들이 기존 주차장 유/무인 정산기에서 요금을 정산하던 패턴에 익숙해졌기 때문이라고 보여진다. 하지만 카카오 T 주차가 도입됨으로써 입차 후 언제든 요금 정산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원하는 시점에 모바일에서 자유롭게 실시간 요금을 확인하고 빠르게 출차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주차 생활이 더욱 편리해지기를 기대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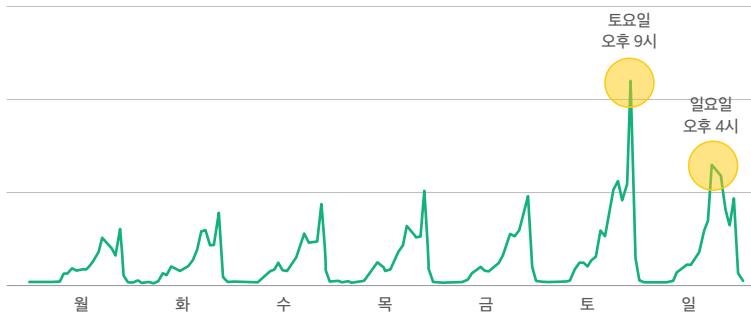


에버랜드 요일별 입출차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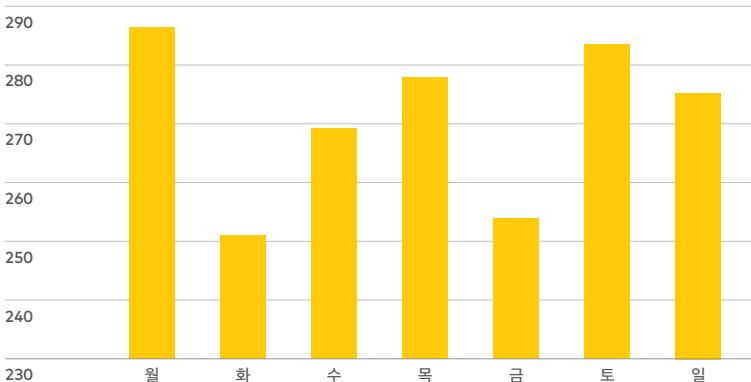
입차 피크타임



출차 피크타임



입차 후 자동정산 신청 시점 (분)



• 에버랜드 요일별 입출차 패턴, 입차 후 자동정산 신청 시점 | 분석기간 2020년 07월 01일~2020년 07월 14일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모빌리티 플랫폼, 카카오 T 비즈니스

"외근이나 출장, 야근으로 택시를 이용할 때마다 영수증을 챙겨 종이에 풀로 붙이고, 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해 줄 수 없을까?" 카카오 T 비즈니스는 이러한 불편을 해결하고자 출시된 카카오모빌리티의 비즈니스 이동 서비스이다. 출시된 지 2년째인 2020년 현재, 100여 곳의 공공기관과 공기업 등을 비롯하여 총 6,000여 개의 기업이 카카오 T 비즈니스를 통해 새로운 기업의 이동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비즈니스 이동의 불편함을 없애다

카카오 T 비즈니스는 카카오 T 앱 그대로 사용할 수 있어, 새로운 앱을 깔거나 사용법을 익힐 필요 없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카카오 T 앱의 비즈니스 탭에서 이용하고자 하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결제도 자동으로 이뤄지니 지갑을 따로 챙길 필요가 없으며, 이용내역도 자동으로 전송되니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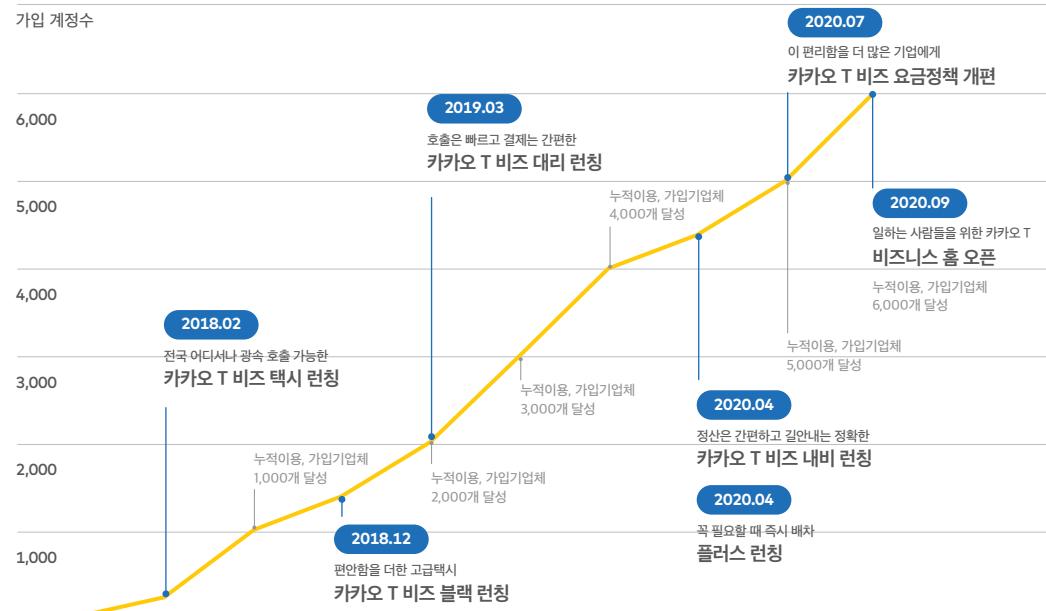
카카오 T 비즈니스는 업무 이동을 관리하는 관리자에게는 편리한 관리시스템을 제공한다. 관리자는 관리시스템을 통해 간편하게 직원을 대량으로 등록하고 부서, 직군, 이용 목적 등 원하는 기준별 그룹으로 묶을 수 있다. 또한, 직원들이 카카오 T를 이용할 때마다 출발·도착하는지와 호출 시간, 기사님 정보, 이용 사유 등 투명한 이력 리포트가 자동으로 정리되어, 기존 영수증을 일일이 확인해야 했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편리하고 투명한 관리로 업무 생산성 향상

카카오 T 비즈니스는 그룹별로 이용할 수 있는 요일과 시간, 출발지와 도착지까지 회사별 호출 정책에 맞게 조건 설정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회사 정책에 맞지 않는 임직원들의 부정 사용을 막을 수 있으며, 또한 카카오 T 비즈 택시를 이용할 시 교통유발부담금(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에 대한 세금 절감을 받을 수 있어서 비용 관리에 더 효과적이다.

카카오 T 비즈니스는 2020년 하반기부터 업무로 이동이 필요한 모든 사람에게 간편 등록 서비스를 제공한다. 카카오 T 앱 하단의 '비즈니스 홈'에 접속하여 업무용 이메일을 등록하면, 매월 교통비 지출 내역을 편리하게 증빙할 수 있도록 이용내역과 영수증을 보내준다.

카카오 T 비즈니스가 걸어온 길



카카오 T 비즈니스 관리자 페이지 예시

The screenshot displays the Kakao T for business management interface. On the left, there's a sidebar with navigation links like '카카오T for business', '카카오모빌리티 홈페이지 운영담당자', '설정', and '로그아웃'. The main area has several sections: '최근 이용내역' (Recent Usage History) showing calls from 08/09 to 08/11; '등록 현황' (Registration Status) showing 5개 카드 and 45개 그룹; '직원 개별등록' (Employee Individual Registration), '직원 대량등록' (Employee Bulk Registration), '운영담당자 초대' (Administrator Invitation), and '그룹 등록' (Group Registration); '카카오 T for business 직원 이용 가이드 다운로드' (Download Guide); and '카카오 T 비즈 고객센터' (Customer Service Center) with contact information: 1644 - 8830 and 월일 09시~09시 (주말/공휴일 제외).

**비즈니스를 위한
모든 이동을 담다**

카카오 T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이동의 파트너가 되기 위해서 해마다 업그레이드되고 있다. 비즈니스 이동의 시작부터 끝까지, 지갑과 영수증을 챙길 필요 없는 카카오 T 비즈니스의 서비스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난해 소개된 비즈 택시 이외에 새롭게 추가된 다양한 서비스를 소개하고자 한다.

**비즈니스 이동의 파트너,
비즈니스 흄**

카카오 T 비즈니스 흄은 기업별 맞춤 화면설정과 비즈니스 전용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카오 T의 비즈니스용 흄 화면이다. 카카오 T 앱 하단의 비즈니스 탭을 통해 접근할 수 있으며, 가입 기업의 직원인 경우 기업명과 기업 로고, 기업별 맞춤 메시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카카오 T 비즈니스에 가입하지 않은 기업의 직원도 업무용 이메일을 등록하면 회사에 간편하게 증빙할 수 있도록 매월 이용내역과 영수증을 등록한 이메일로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

**미팅 갈 땐 비즈 택시,
늦었을 땐 플러스로
광속배차**

카카오 T 비즈 택시는 전국 어디서나 빠른 호출이 가능한 비즈니스용 택시 서비스이다. 23만 명의 전국 최대 택시 기사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카카오 T 택시는 언제나 높은 배차율로 믿고 이용할 수 있다. 2020년 4월에 출시한 '플러스'는 카카오 T 비즈니스 이용자만이 사용할 수 있는 택시 호출 상품으로, AI가 실시간으로 가장 적합한 요금을 설정하여 언제 어디서든 택시를 더 빠르게 배차받을 수 있다. 예상 배차확률이 낮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플러스는 일반 호출 대비 평균 18% 이상 배차 성공률을 상승시켜 실패 없는 택시 이동을 보장한다.

**업무 목적으로
대리운전이 필요할 때,
비즈 대리**

카카오 T 비즈 대리는 호출은 빠르고 결제는 간편한 비즈니스용 대리운전 서비스이다. 일일이 전화로 상담원과 이야기하여 대리를 호출하고 현금으로 결제해야 하던 대리운전에서, 간편하게 앱으로 호출하고 카드가 필요 없는 자동결제로 임직원 및 거래처 이용자의 쾌적한 이동을 지원한다. 또한, 여러 대 동시 호출 역시 가능하고, 이용 내역은 바로 관리시스템으로 전송되기 때문에 별도의 영수증이나 증빙 내역을 챙길 필요가 없이 간편하다. 2020년 하반기에는 고급 정장 대리 서비스를 오픈하여 품격있는 이동까지 책임질 예정이다.

**출장 갈 때
내비만 켜고 달리면
유류비 정산 끝,
비즈 내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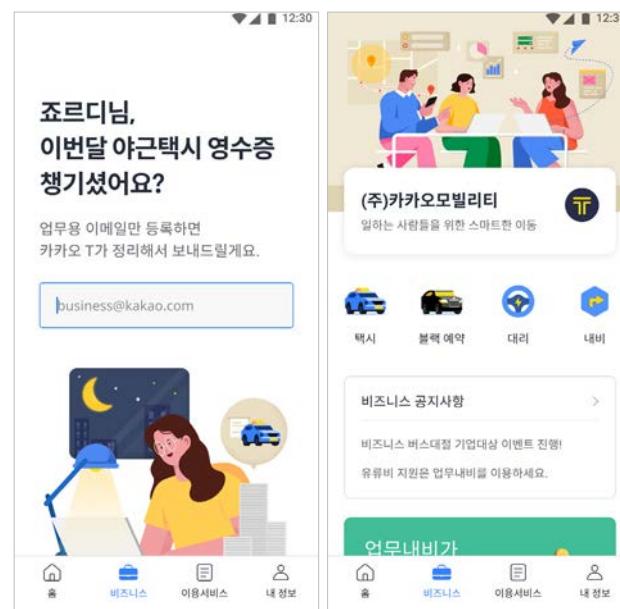
카카오 T 비즈 내비는 길안내와 교통비 증빙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비즈니스 전용 내비게이션 서비스이다. 업무 이동 시 내비를 켜면 예상 유류비와 통행료가 포함된 교통비와 주행 내역이 자동으로 관리시스템에 전송되며, 직접 정리된 내역을 이메일로 받아볼 수도 있다. 관리시스템에서는 직접 유류비와 연비를 설정하거나, 한국 석유공사의 평균가격과 1종 보통 차량의 평균 연비로 자동 계산을 설정할 수 있다. 자차를 이용한 출장이나 외근 때마다 일일이 통행료 영수증을 챙기고 지도에서 직접 거리를 재서 유류비를 계산하느라 업무시간을 뺏긴 경험이 있다면, 이제 유류비부터 통행료까지 자동정산되는 카카오 T 비즈 내비를 이용해보시길 추천한다.

**중요한 손님,
비즈 블랙으로
시간 대절, 의전
모두 OK**

카카오 T 비즈 블랙은 비즈니스 이동에 프리미엄을 더한 고급택시 예약 서비스이다. 예약 웹을 통해 간단히 예약할 수 있는 카카오 T 비즈 블랙은 2,800cc 이상의 고급 차량과 VIP 수행에 필요한 품격을 높여줄 기사님들로 구성되어 VIP 의전 및 비즈니스 이동, 공항/골프장 픽업 등 맞춤형 고급택시 서비스를 제공한다. 편도, 왕복, 시간 대절 등 각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 요금을 선택할 수 있으며 서울을 비롯한 경기, 인천, 부산, 경남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250여 대의 차량을 동시에 예약해서 기업 행사나 단체 의전에 활용할 수도 있는데, 최근 명품 브랜드의 신상품 출시 행사에서 VIP 의전 차량으로 '카카오 T 블랙'을 사용하여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2018년 비즈 택시부터 비즈 대리, 비즈 내비, 비즈 블랙까지, 카카오 T 비즈니스는 업무에 관련된 모든 이동을 담을 수 있는 비즈니스 이동의 마스(MaaS·Mobility as a Service) 표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마스란 택시, 대리 등 모든 이동수단을 연결해 경로 검색과 예약, 결제를 하나의 앱으로 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지칭하는데, 카카오 T 비즈니스도 20년 하반기 프리미엄 대리 서비스를 시작으로 주차, 셔틀, 렌터카 등 일하는 모든 사람이 필요로 하는 이동 서비스들을 계속해서 연결해나갈 예정이다.

카카오 T 비즈니스 흄 예시



카카오 T 비즈니스가 만들어가는 똑똑한 업무 이동 문화

가입기업 6,000여개, 260만 건의 이동 출시된지 2년이 지난 카카오 T 비즈니스의 기록이다. 2018년 출시 이후 카카오 T 비즈니스가 바꾼 기업의 이동문화는 어떨까? 카카오 T 비즈니스를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Q. 오늘은 카카오 T 비즈니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모셔 이야기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카카오 T 비즈니스를 어떻게 알게 되셨고, 어떤 서비스가 가장 좋으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A1. A사 총무팀 윤00

안녕하세요, 저는 A사 총무팀에서 일하는 윤00라고 합니다. 회사 내 직원들의 강력한 추천을 통해 카카오 T 비즈니스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다들 바쁘신 와중에 월말마다 종이에 택시나, 대리 영수증을 분류해서 종이 붙이는 작업이 너무 힘들다는 걸 잘 알고 있고, 저희도 그걸 일일이 받아서 하나하나 검토하는 게 정말 힘들었거든요. (웃음) 영수증을 잃어버리셨다는 분, 왜 탔는지 기억이 안 나신다는 분, 회사 정책 시간 외에 탑승하셨던 분들과 함께 증빙하는 것도 일이었습니다. 총무팀은 특히 월말, 월초에 일이 몰려있거든요. (웃음) 카카오 T 비즈니스를 쓰고 나서는 회사 정책에 맞게 호출 시간을 정해놓을 수 있어서 불명확한 사용을 방지할 수 있고, 이용 사유나 타고 내린 시간까지 리포트로 전부 받아볼 수 있어 너무 편해져서 회사분들에게 칭찬 아닌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잘 도입했다고요. (웃음) 아, 깜빡할 뻔했는데 교통유발부담금이라고 하는 세금도 카카오 T 비즈니스를 쓰면 많이 감면되어서 회사에서도 잘 도입했다고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A2. D사 컨설턴트 김00

맞아요, 제가 있는 회사도 월말만 되면 서랍에서 모아놨던 택시 영수증들을 잔뜩 꺼내서 A4용지에 풀칠하는 게 일이었거든요. 택시 탈 때마다 기사님께 따로 영수증을 부탁드리는 것도 번거롭고, 깜빡하거나 잃어버려도 방법이 없어서 그냥 넘어갈 때도 있었어요. (웃음) 앱으로 부르기만 했는데 자동으로 내역 전송과 증빙까지 되니까 완전 편해요! 저는 특히 플러스 기능을 완전 칭찬하고 싶은데요. 예전에는 외부 미팅을 나갈 때 택시가 안 잡혀서 밭을 동동 구를 때가 많았어요. 중요한 미팅이라 절대 지각하면 안 되는데, 제가 있는 곳이 원체 택시가 잘 안 오는 곳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플러스를 도입하고 나서는 빠르게 배차가 되니까, 최고예요. 컨설팅 일을 하는지라 외부 미팅 뿐만 아니라 야근도 찾은데, 이제 부르면 올까? 가 아니라 부르면 온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게 제일 좋아요.

A3. H사 영업팀 정00

저는 업무 특성상 출장이나 잣아 카카오 T 비즈 내비 서비스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회사 근처, 멀리는 지방까지 자주 가는 출장에 자차를 가지고 자주 이동하는데 매번 출장을 마치고 나서 인터넷 맵에서 제가 갔던 일정을 찍어서 유류비를 따로 청구하는 게 너무 힘들었습니다. 출발·도착지를 지도에서 찍어도, 제가 갔던 길대로 안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고속도로를 탈 때마다 따로 통행료 영수증 챙기는 것도 운전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어디다 뒀는지 매번 잊어버리곤 했습니다. 그런데 카카오 T 비즈 내비를 쓰면 출발할 때 내비를 켜고 도착해서 내비를 끄기만 하면 끝이니까 너무 신기합니다. 유류비랑 통행료까지 계산되니까 그냥 출장 다녀오기만 하면 알아서 다 처리되니까요. 총무팀에 친한 동기가 있어서 들었는데, 전국 주유소 평균가격으로 자동 계산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A4. K사 영업팀 박00

저는 다른 회사 분들과 업무적인 술자리가 잣아 카카오 T 대리 서비스를 잘 쓰고 있습니다. 제가 탈 때도 많은데, 다른 분들을 태워드릴 때가 더 많은데요. 일반 전화 대리운전을 썼을 때는 전화해서 출발지랑 목적지를 설명하고 대리기사님 분이 배정될 때까지 하염없이 기다려야 했고, 기사님이 오시면 제가 계산하고 영수증 처리를 다 해야 해서 너무 불편했습니다. 여러 대를 부르려면 이걸 몇 번이나 반복해야 하고요. 그런데 카카오 T 비즈 대리는 여러 대 동시 호출도 되고, 자동결제에 증빙도 필요 없어서 따로 현금을 안 챙겨도 되니까 너무 편한 것 같습니다. 또, 친절한 기사님들이 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예전에는 불러드리고도 기사님들이 불친절해서 제가 안 좋은 소리를 들을 때가 많았거든요. 카카오 T 비즈 대리는 좋은 기사님들만 오셔서 마음이 한결 편합니다. 제가 집에 갈 때도 직접 애용하고 있고요. 올해 나온다던 프리미엄 대리도 너무 기대됩니다.

A5. P사 비서팀 이00

다들 직접 이동하실 때 카카오 T 비즈니스를 쓰시는 것 같은데, 저는 다른 분들을 위해 카카오 T 비즈니스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비서팀에서 일하고 있거든요. 회사에 손님분들이 오시거나, 임원분들이 다른 곳을 방문하셔야 하는 경우에 카카오 T 비즈 블랙으로 차량을 예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고급차량에 정장을 입으신 기사분들이 예약한 시간에 미리 도착해서 기다려주시니까 다들 만족하시면서 쓰고 계시고, 저도 일이 편해져서 만족스럽습니다. 특히 본사가 해외에 있는 외국계 기업이라, 본사 임원분들이나 해외 손님들이 한국에 자주 방문을 하십니다. 공항에서 한국어를 잘 못 하셔서 일반 택시를 타시는 데 어려움을 많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고 회사에서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카카오 T 비즈 블랙에 공항 서비스도 있어서 너무 편하게 쓰고 있습니다. 따로 부탁드리면 공항 게이트 앞에서 기다려주시고, 회사 앞까지 모셔다드린다면 방문하신 모든 분들에게 너무 훌륭하다는 평을 주시고 저는 이제 카카오 T 비즈 블랙이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한답니다. (웃음)

A6. N사 사업개발팀 박00

저는 앞서 다른 분들이 너무 잘 설명해주셔서 따로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네요. (웃음) 저는 카카오 T 비즈니스를 처음 출시했을 때부터 사용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다른 교통수단들도 추가되어 카카오 T 앱 하나로 다 쓸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전에는 대리업체 따로, 택시 업체 따로, 유류비 정산은 또 회사에서 지정해준 지도만 써야 했거든요. 회사에서는 편의를 도와주려고 하나씩 따로 도입하는 건데, 다들 사용법이 달라서 너무 복잡한데다 업체가 바뀌면 또 새로운 절차를 외워야 하니까 너무 번거롭더라고요. 그런데 카카오 T 비즈니스는 원래 제가 쓰던 앱 그대로 쓰니까 헷갈릴 것도 없고 업체별로 영수증 분류 안 해도 돼서 너무 편합니다. (웃음)

버스가 필요할 땐, 카카오 T 셔틀

카카오 T 셔틀은 누구나 버스가 필요할 때, 손쉽게 셔틀을 만들어 목적지까지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돋는 카카오모빌리티의 셔틀 서비스이다. 2019년 06월, 울트라 뮤직 페스티벌 코리아(Ultra Korea)의 셔틀버스로 베타 서비스를 시작하여 2020년 8월 정식 서비스로 세상에 나왔다.

이제는 버스 대절도 카카오 T에서

번거롭게 일일이 업체마다 견적들을 비교하고, 함께 갈 사람들의 입금을 하나씩 확인하다 지치는 것은 버스를 빌렸던 사람들이 종종 겪는 불편함이다. 심지어, 막상 도착한 버스가 낡은 데다 기사님이 불친절하기까지 하다면 기대에 가득 찼던 기분은 쉽게 상하고 만다. 카카오 T 셔틀은 버스가 필요할 때 겪는 번거롭고도 불편한 경험을 합리적인 가격, 쉽고 간편한 예약, 깔끔한 차량과 친절한 기사님을 통해 즐거운 경험으로 바꾸고자 한다.

카카오 T 셔틀은 24시간, 일주일 내내 쉬지 않는다. 이용자들은 언제든지 버스가 필요할 때 카카오 T 앱과 예약 웹에서 버스를 빌릴 수 있다. 견적을 기다리고 비교할 필요 없이, 원하는 날짜와 장소를 입력하면 바로 요금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카카오 T 앱에 등록된 카드로 결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어 번거롭게 계좌이체를 하거나 카드번호를 알려줄 필요도 없다.

즐겁고 편안한 이용자의 여정을 위해, 카카오 T 셔틀은 꼼꼼하게 버스의 여러 사항들을 미리 체크한다. 방역이 완벽하게 되어있는지, 낮은 연식의 깔끔한 차량인지, 보험이 잘 되어있어 안전한지, 합법적인 직영 버스인지, 모두 교육을 받은 친절한 기사님인지, 가격은 합리적인지. 버스를 이용할 사람이라면 궁금해하고 걱정되는 사항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카카오 T 셔틀은 이용자 모두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만족스러운 탑승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카카오톡 오픈 채팅처럼 내가 만드는 셔틀, 오픈 셔틀

카카오톡에는 "오픈 카톡"이라고도 불리는 오픈 채팅 기능이 있다. 원하는 주제로 카톡방을 만들고 초대 링크를 이용해 여러 사람과 편하게 채팅할 수 있는 기능이다. 이러한 오픈 카톡처럼 내가 원하는 주제로 셔틀을 만들고, 초대 링크를 통해 관심사가 같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함께 떠날 수 있다면 어떨까?

'같이 탈 사람 모집하기'

오픈 셔틀의 '같이 탈 사람 모집하기'는 내가 가고 싶은 곳과 날짜를 골라 직접 셔틀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셔틀 링크를 공유할 수 있는 기능이다. 공유된 링크를 통해 카카오 T 셔틀에 들어오면, 모두가 개별 요금 결제부터 좌석 선택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다. 예전처럼 버스를 통째로 빌리고 일일이 공지해서 한 명씩 계좌로 입금을 확인받을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어디로 가고 싶은지 몰라 셔틀은 못 만들었다면, 다른 사람들이 만든 셔틀들을 검색해보거나 예약해볼 수도 있다. 나의 최애가 이번에 콘서트를 하는데 어떻게 버스를 빌리고 다른 팬들과 함께 직관하려 갈지 모르겠다면, 동호회에서 함께 서핑이나 등산을 하러 가는데 일일이 입금을 확인하고 자리를 배치해주는 게 힘들다면, 카카오 T 셔틀의 '같이 탈 사람 모집하기'가 해결책이 될 것이다.

'통째로 빌리기'

결혼식 때문에 하객용 버스가 필요하거나, 회사에서 워크샵을 가기 위해 전세버스가 필요하다면 오픈 셔틀의 '통째로 빌리기'를 통해 전세버스 한 대를 통째로 빌려보는 것이 어떨까. 번거롭게 여러 업체에 전화해서 견적을 기다릴 필요 없이, 카카오 T 셔틀에서 요금 확인과 결제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다.

카카오 T 셔틀 탑승권 예시



내가 만드는 셔틀, 오픈 셔틀 이용 방법

어디론가 떠나고 싶을 때는 카카오 T 셔틀

이번 주말에 어디론가 떠나고 싶지만, 어디로 가고 싶은지 모르겠다면 카카오 T 셔틀을 들어와 보는 것은 어떨까? 카카오 T 셔틀에 들어오면, '같이 탈 사람 모집하기'를 통해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셔틀들을 간편하게 검색하고 예약할 수 있다. 양양 서핑부터 딸기청 만들기, 원정 직관, 콘서트와 페스티벌까지. 교통이 불편하고 운전을 할 줄 몰라서 못 갔던 곳들이 이제는 셔틀을 통해 가볼 수 있게 되었다. 2020년 하반기에는 카카오 T 셔틀이 직접 국내 여러 가지 장소로 셔틀을 만들어 추천해주는 'T 셔틀'도 오픈할 예정이다.

Q. 카카오 T 셔틀을 어떻게 이용하게 되셨나요?

A. 평소처럼 카카오 T 앱으로 택시를 부르려고 했는데, 못 보던 버스 아이콘이 새로 있는 게 보이더라고요. 호기심에 한 번 눌러보았는데 가보고 싶었던 새해 일출 해맞이 셔틀이 있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매년 가족들과 새해 첫 일출을 보러 자주 갔었는데, 독립을 하고 나서는 가는 교통편도 막땅치 않고 제가 운전을 할 줄도 몰라서 쭉 가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Q. 카카오 T 셔틀을 사용하고 어떤 점이 좋았나요?

A. 직접 이용을 해보기 전에는 '카카오 T'에서 한다고 해서 내심 기대를 많이 했기도 했고 또 예전에 버스들을 이용하면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기도 해서 우려도 있었습니다. 예전에 동호회에서 버스를 빌렸을 때, 낡고 더러운 실내랑 불친절한 기사님 때문에 버스는 별로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타본 카카오 T 셔틀은 완전 대만족이었어요. 버스는 깔끔해서 쾌적했고, 기사님은 정말 친절하셨어요. 함께 나눠준 토퍼도 너무 예뻐서 새해 일출 사진 찍을 때 인생샷을 남기기도 했습니다(웃음). 앱과 메시지로 탑승을 확인하는 것도 너무 편했고요. 아, 그리고 정류장이 집 근처여서 너무 좋았어요.

Q. 카카오 T 셔틀에 기대하시는 것들이 있으실까요?

A. 올해 8월에 전세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카카오 T 셔틀 서비스가 정식으로 나온다고 들었어요.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되는 게, 제가 이번 11월에 결혼하게 되면서 지방에 계신 분들을 어떻게 모셔올까라고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하객용으로 전세버스를 알아보는데 업체마다 가격은 전부 다르고, 차는 어떤지 기사님은 친절한 분인지 아예 알 수가 없다 보니 너무 걱정되더라고요.



카카오 T 셔틀이라면 믿고 대절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마음이 놓여요. 그리고 제가 액티비티를 좋아해서 평소에는 등산을 자주 가고 여름에는 서핑이랑 다이빙, 겨울에는 보드 타리 자주 가요. 지방에 있는 산을 가려면 대중교통도 없고 자차도 없어서 매번 불편했는데 이제 동호회 친구들이랑 바로 버스 빌려서 가려고요. (웃음)
아, 기대하는 건 그냥 앞으로도 쭉 서비스를 계속해주시는 거예요! (큰 웃음)

생활 혁신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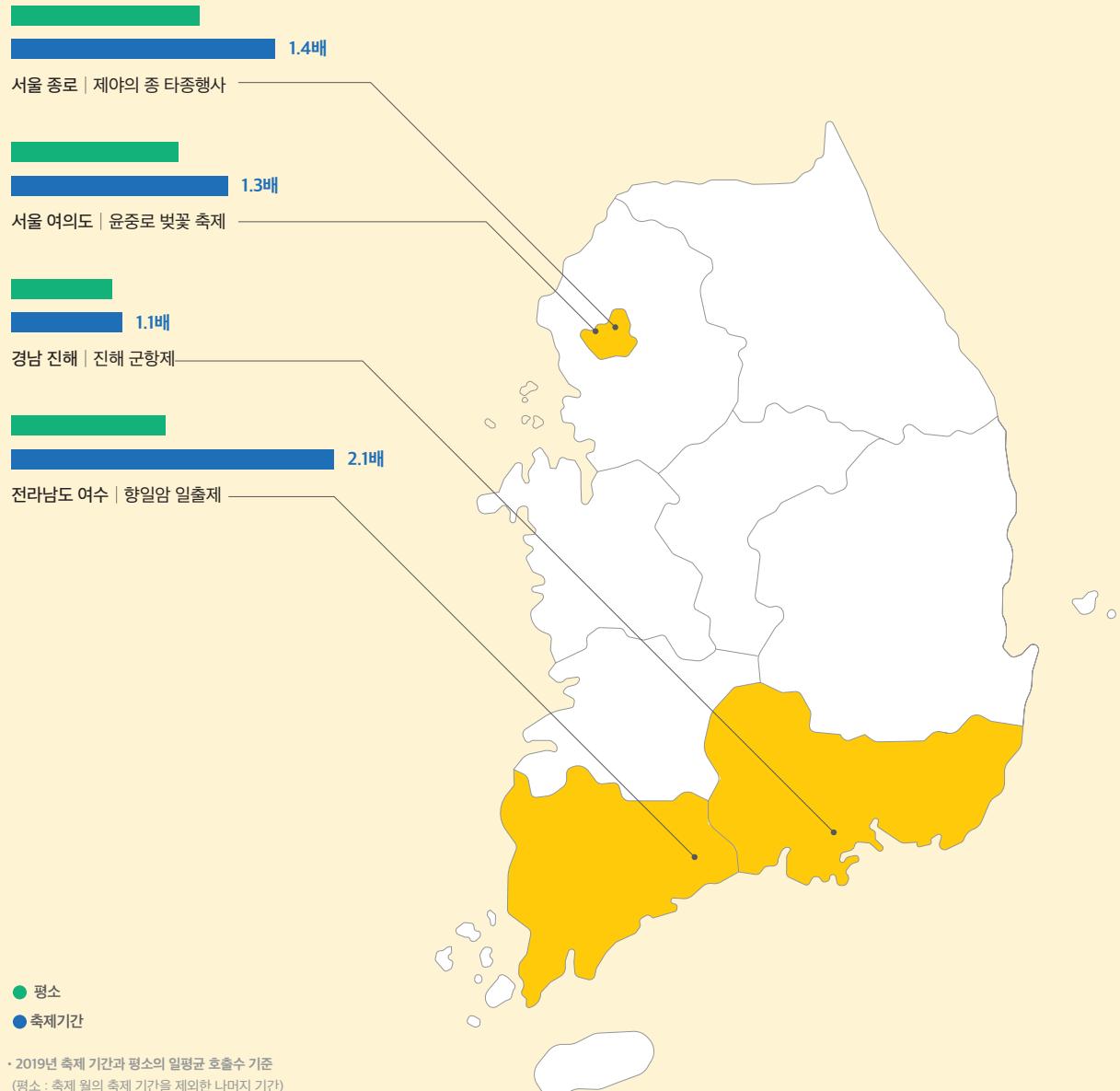
데이터로 찾아낸 사람들의 일상

대한민국
택시 이동
캘린더

이동은 우리 생활의 많은 모습을 투영한다. 이동이란 공간과 공간 사이의 단순히 물리적인 위치 변화를 넘어, 여행이자 탐험이고 여정이다. 이에 착안하여 우리는 평상시 대비 택시의 호출수 변화가 큰 지역과 시기를 조사하여, 택시를 타고 많이 이동을 하는 대한민국의 365일 축제 캘린더를 만들어보았다. 지금부터 함께 대한민국 1년 365일, 즐거운 여정을 떠나보자!

시작을 알리는 1월~4월

축제가 가져온 택시 일평균 호출량의 변화



제야의 종 타종행사

1월 | 서울 종로

매년 12월 31일 자정 새해를 맞이하는 의미로 보신각종을 33번 타종하는 행사이다. 타종 전후로도 인기가수 공연, 조명쇼 등 다채로운 기념 공연이 준비되어 있다. 이 덕분에 매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8만~10만명에 이르는 수많은 인파가 몰린다.



사진 제공 : 클립아트 코리아

향일암 일출제

1월 | 전라남도 여수

국내 최고의 해돋이 명소인 여수 돌산도 향일암 (向日庵)에서 새해의 안녕과 번성을 기원하는 행사이다. 향일암은 전국 4대 관음기도처 중 한 곳으로써 이곳에서 기도를 하면 소원이 이뤄진다고 한다. 일출 외에도 불꽃쇼, 소원성취 퍼레이드 등 다양한 행사를 즐길 수 있다.



사진 제공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김지호)

윤중로 벚꽃축제

4월 | 서울 여의도

매년 4월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춰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개최하는 행사로, 벚꽃의 만발을 감상하고 즐길 수 있는 행사이다. 국회의사당 둘레길을 따라 흐드러지게 핀 왕벚나무와 개나리, 조팝나무, 진달래 등 다양한 봄꽃의 향연을 감상할 수 있다.



사진 제공 :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이범수)

진해 군항제

4월 | 경상남도 진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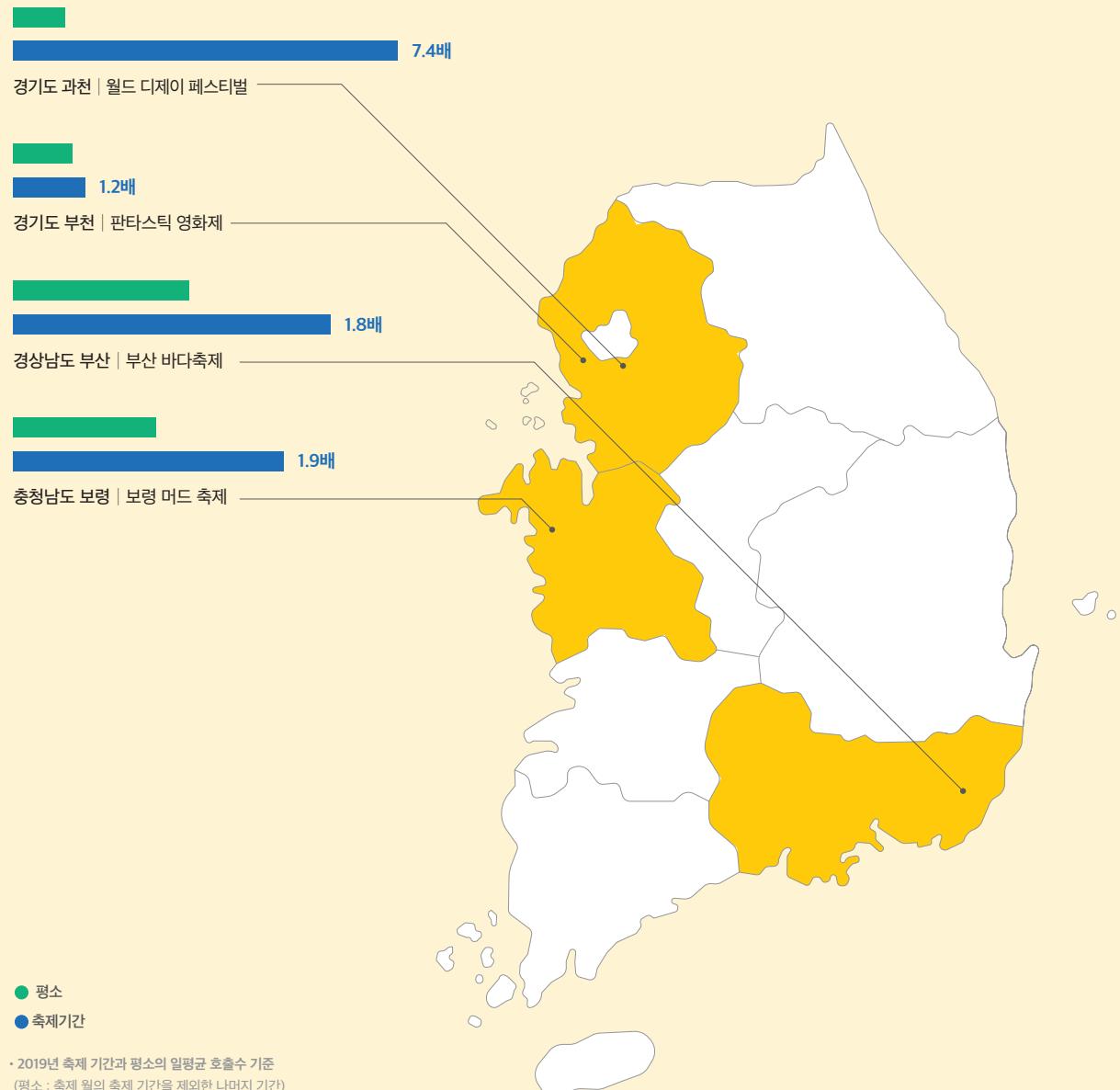
여의도 벚꽃축제와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벚꽃축제 중 하나이자, 충무공 이순신 장군에 대한 주모제이다. 진해는 단위 면적당 벚꽃이 가장 많은 곳으로 방문객들은 시내 전체에서 만개한 벚꽃을 즐길 수 있다.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에 꼽힌 여좌천 로망스 다리, 군항도시의 특성을 살린 군악의장 페스티벌 등이 대표적인 볼거리이다.



사진 제공 : 한국관광공사 (라이브스튜디오)

온몸으로 즐기는 6월~7월

축제가 가져온 택시 일평균 호출량의 변화



월드 디제이 페스티벌

6월 | 경기도 과천

월디페스티벌로 불리며, 매년 5월에 열리는 대한민국 최초 EDM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 뮤직 페스티벌이다. 세계적인 디제이들의 공연, 레이저 쇼와 하늘을 수놓는 폭죽 등이 이색적인 볼거리로 꼽히며, 지난 13년간 약 80만명이 방문한 명실공히 국내 대표 일렉트로닉 뮤직 페스티벌이다.



사진 제공 : 월드 디제이 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

판타스틱 영화제

6월 | 경기도 부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장르 영화제로서 1997년을 시작으로 매년 경기도 부천시에서 개최되고 있다. 수십여 국가에서 온 200여편의 다양한 장르 영화를 감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시민참여형 행사, 공연, 전시 등을 즐길 수 있다.



사진 제공 : 부천국제 판타스틱영화제 공식 홈페이지

보령 머드 축제

7월 | 충청남도 보령

대천해수욕장을 기반으로 개최되는 지역 축제로, 해수욕과 더불어 청정갯벌에서 채취한 양질의 머드 분말을 이용한 다양한 머드 관련 행사를 즐길 수 있다. 머드 분수, 머드 마사지, 머드탕, 머드풀 슬라이드 등 다채로운 즐거움은 국내는 물론 국외에서도 관광객의 발길을 이끈다.



사진 제공 : 한국관광공사 (정성주)

부산 바다축제

7월 | 경상남도 부산

대한민국 바다 도시하면 단번에 떠오르는 부산! 매년 여름마다 부산시내 5개 해수욕장, 해운대, 광안리, 다대포, 송도, 송정해수욕장에서 열리는 여름 대표 축제인 부산 바다축제. 방문객들은 음악회, 비치페스티벌, 바다예술제 등 수많은 볼거리와 윈드서핑, 비치발리볼 대회 등 다양한 워터스포츠를 즐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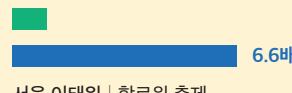
사진 제공 : 부산문화관광축제조직위원회 홈페이지

젊음이 넘치는 8월~10월

축제가 가져온 택시 일평균 호출량의 변화



서울 신촌 | 신촌 맥주 축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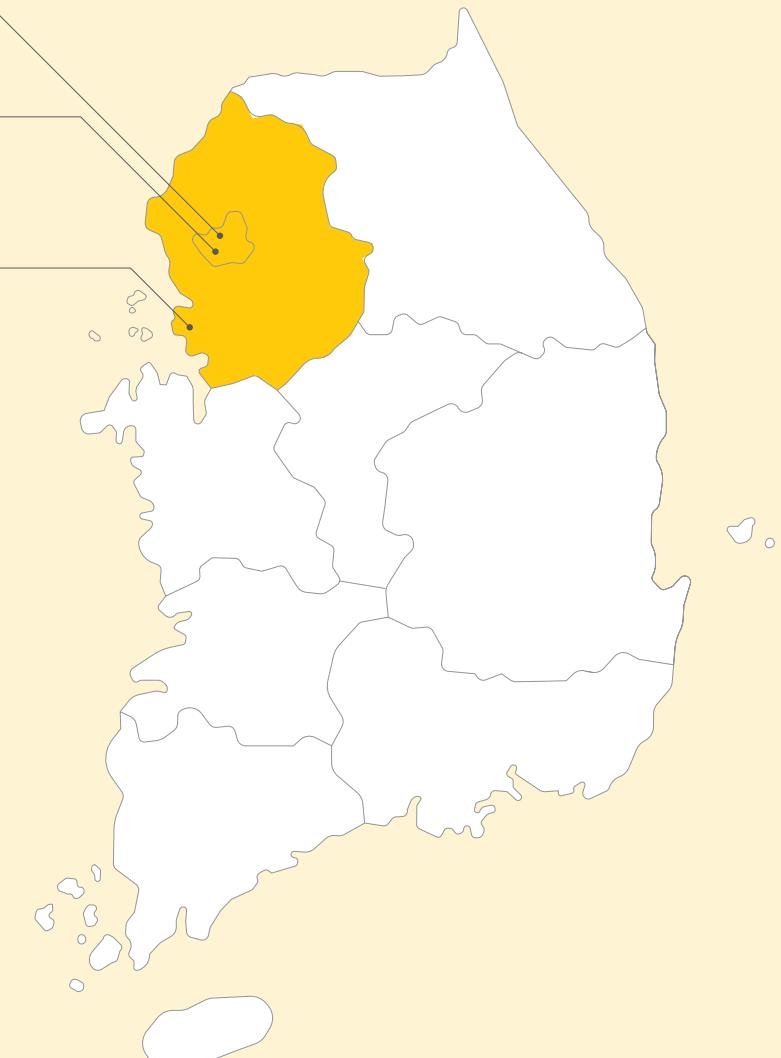
서울 이태원 | 할로윈 축제



인천 송도 |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 평소
● 축제기간

· 2019년 축제 기간과 평소의 일평균 호출수 기준
(평소 : 축제 월의 축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8월 | 인천 송도

국내외 유명 뮤지션들이 참가하는 국내 대표 록 페스티벌로 매년 가을에 인천 송도 달빛 축제 공원을 주 무대로 도심지에서 열리는 축제이다. 8월의 뜨거운 태양과 핫한 라인업이 더해져 더욱 열기를 더할 락 페스티벌에서 가슴속 랑스피릿을 마음껏 뿐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말고 즐겨보자!



사진 제공 : 인천 펜타포트 락 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

신촌 맥주 축제

9월 | 서울 신촌

가을밤에 즐기는 시원한 맥주한잔, 게다가 도심에서 다양한 먹거리와 볼거리, 즐길 거리가 함께라면? 도심 속 이색적이고 활기찬 분위기로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는 신촌 맥주축제를 소개한다. 9월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신촌 연세로 일대에서 맥주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는 맥주 축제는 수제 맥주와 글로벌 푸드, EDM 파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 된다.



사진 제공 : 신촌 맥주축제 공식 홈페이지

할로윈 축제

10월 | 서울 이태원

영미권에서 시작해 매년 10월 31일에 벌어지는 축제 할로윈. 특이한 의상과 분장으로 다채로운 글로벌 문화를 체험 할 수 있는 신나는 축제이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주류 문화로 자리잡아,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곳은 주말과 할로윈 당일 북새통을 이룬다. 그 중 이태원은 할로윈 축제의 대표주자라 할 수 있으니, 진정한 k-할로윈파티를 즐기고 싶다면 이태원으로 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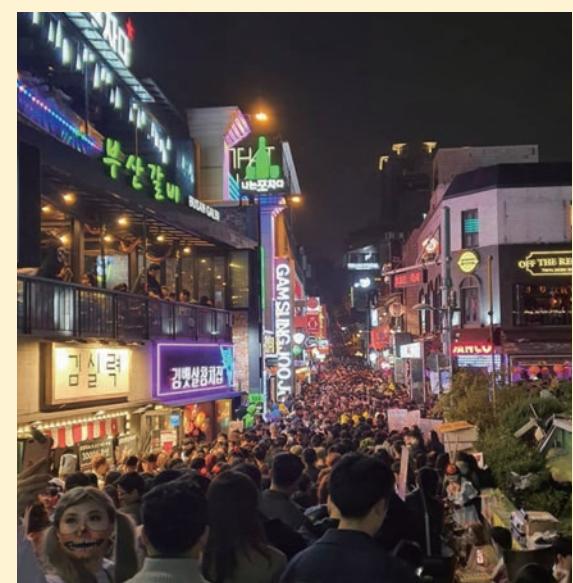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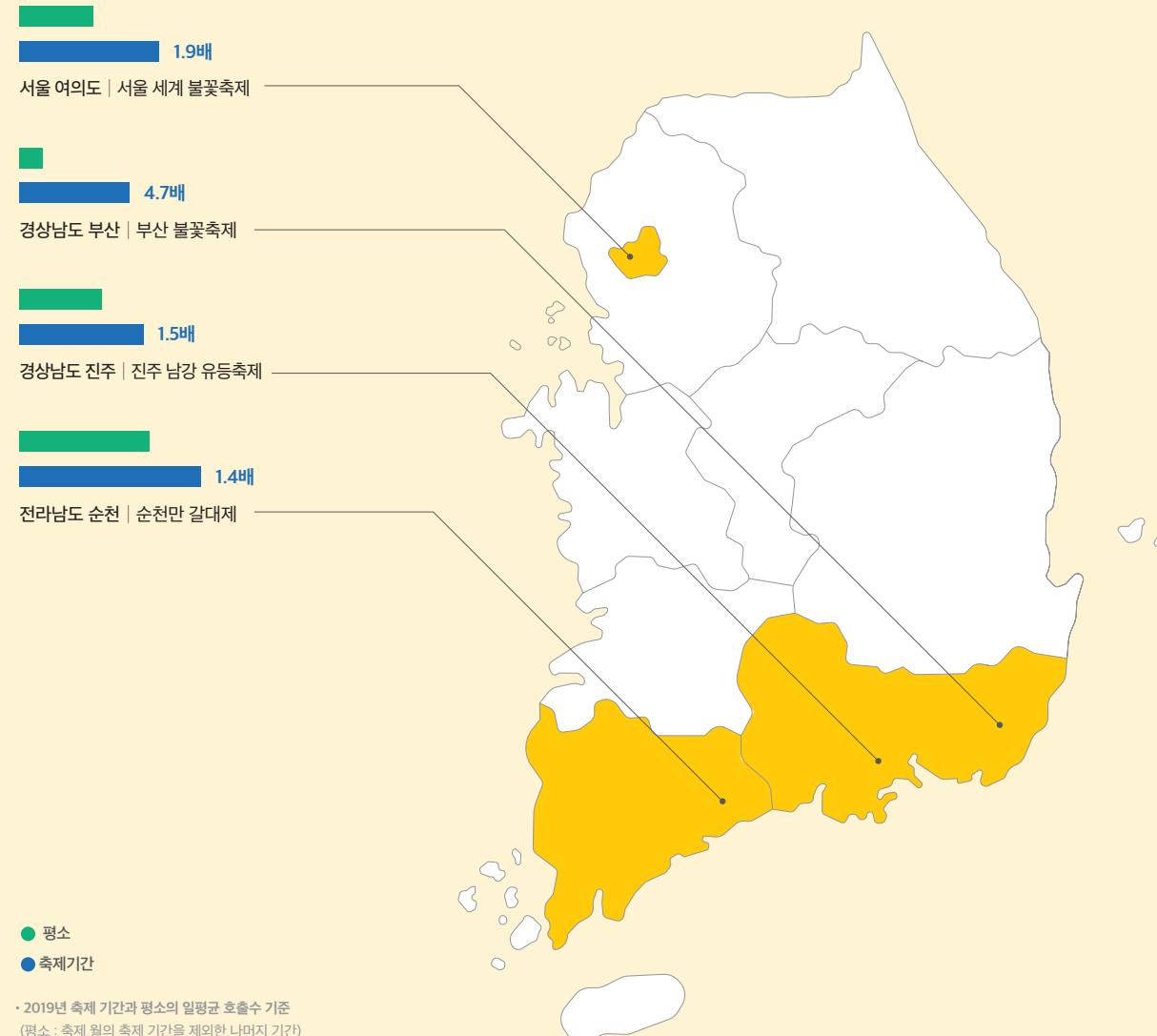


사진 제공 : 인스타그램 @si_y_im

화려한 불거리가 눈을 즐겁게 하는 10월~11월

축제가 가져온 택시 일평균 호출량의 변화



서울 세계 불꽃축제

10월 | 서울 여의도

매년 9월 말에서 10월 사이에 여의도 한강 시민 공원과 한강변 일대에서 약 10만발의 불꽃이 화려하게 하늘에 수를 놓 듯 펼쳐지는 서울 세계 불꽃축제. 매년 100만명 이상의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서울 대표 축제이며, 불꽃이 터지는 모습이 서울의 야경과 어우러져 절경을 이룬다.



사진 제공 : 한국관광공사 (IR 스튜디오)

순천만 갈대제

10월 | 전라남도 순천

가을에 도심지를 벗어나 뻣 뚫린 자연을 보며 기분전환을 하고 싶다면 곧바로 순천으로 가자. 광활한 토지 위에 펼쳐지는 황금빛 갈대 물결과 수많은 철새를 감상할 수 있는 순천만은 시간에 따라 달라지는 풍경이 장관이며,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가을에 꼭 가봐야 할 필수 관광지 중의 첫 번째로 손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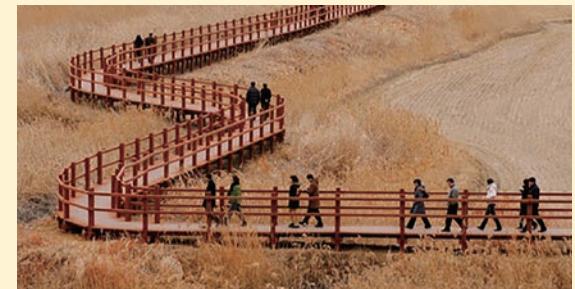


사진 제공 : 한국관광공사 (IR 스튜디오)

진주 남강 유등축제

10월 | 경상남도 진주

임진왜란 때 진주성전투에서 왜군이 강을 건너는 것을 저지하고 가족에게 안부를 전하기 위해 남강에 유등을 띄운 데에서 유래된 역사적인 의미가 있는 축제이다. 형형색색의 다양한 모습의 유등이 남강에 비쳐 더욱 화려함을 더하며, 참여객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체험 행사들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어 재미를 가미하였고, 5년 연속 대한민국 글로벌 육성축제로 선정되어 해외로 진출하는 축제이다.



사진 제공 : 한국관광공사 (김성철)

부산 불꽃축제

11월 | 경상남도 부산 해운대

밤하늘을 수놓는 불빛, 부산 광안리 바다와 함께라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부산 지역만의 축제가 아닌 전국 대표 불꽃 축제로 자리매김한 부산 불꽃 축제는 테마에 맞는 불꽃 연출이 돋보이는 행사이다. 알찬 구성과 다양한 진행으로 전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이에 더해 문화예술, 거리 공연, 전야제 행사도 본 행사의 분위기를 한껏 고취 시킨다.



사진 제공 : 한국관광공사 (한국 사진기자 협동조합 윤민호)

요즘 뜨는 취미, 주말서퍼 탐구생활

해외 영화나 노래방 배경화면에서나 봤았던 서핑이 어느새 우리나라에서도 자리를 잡았다. 강원도 양양, 부산, 제주도는 국내 3대 서핑 스팟으로 각광받고 있다. 서퍼들이 즐겨찾는 유명한 해변에는 해수욕보다 파도타기를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다. 강원도 양양군은 국내 서핑의 중심지다. 양양군 내에서만 남애, 인구, 죽도, 동산, 기사문(38해변), 하조대(서피비치), 동호, 설악 등 서퍼들이 즐겨찾는 해변이 즐비하다. 강원도는 급성장하는 서핑 수요에 대응하고자 지난해부터 양양 주요 해변을 서핑 특화지구로 지정하여 조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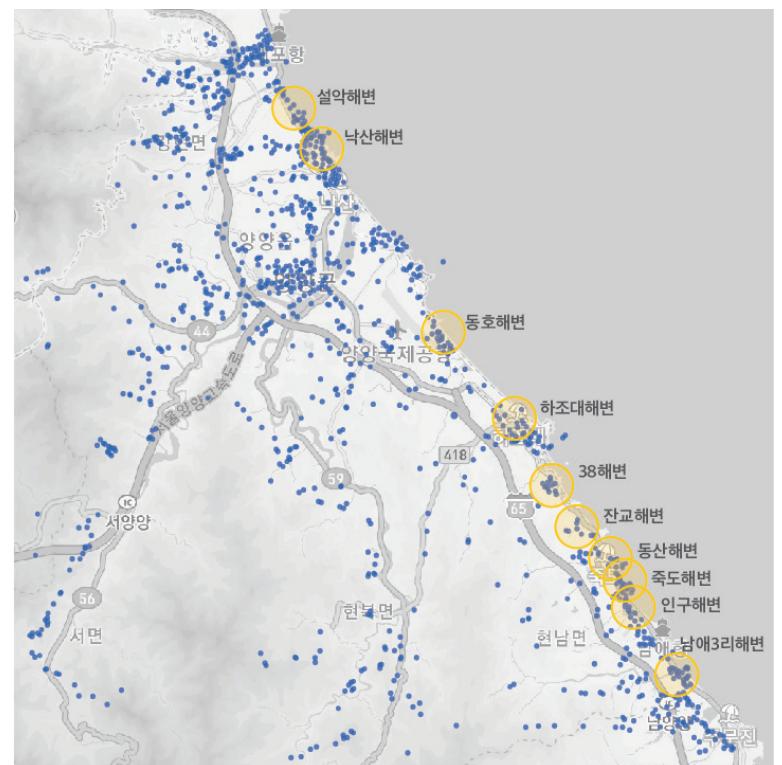


양양,
수도권 주말서퍼의
집결지

평일에는 열일하고 주말에 서핑을 즐기는 사람들을 흔히 '주말서퍼'라 부른다.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서퍼의 다수는 주말에 양양으로 집결한다. 수도권 주말서퍼들은 지리적으로 가까운 서해보다 서핑에 용이한 자연환경을 갖춘 동해 바다를 선호한다. 2017년 6월 서울양양고속도로의 완전 개통으로 수도권과 양양의 접근성이 개선되면서 주말에 양양을 찾는 수도권의 서퍼들이 매년 늘고 있다.

수도권 주말서퍼들이 방문하는 곳은 양양의 핫스팟과 일치한다. 아래 그림은 카카오내비를 이용해서 양양을 방문한 수도권 운전자의 목적지 분포다. 양양읍내와 낙산사 일대를 제외하면 목적지의 대부분은 해안의 서핑 스팟에 몰려있다. 양양에서도 서핑의 성지로 불리는 죽도해변을 비롯하여, 서핑샵과 게스트하우스, 맛집, 카페들이 모여 만들어진 '양리단길'(양양판 경리단길)이 있는 인구해변, 민간인 출입이 통제되던 군사제한구역을 서핑전용 해변으로 탈바꿈 시킨 하조대해변의 '서피비치'가 수도권 서퍼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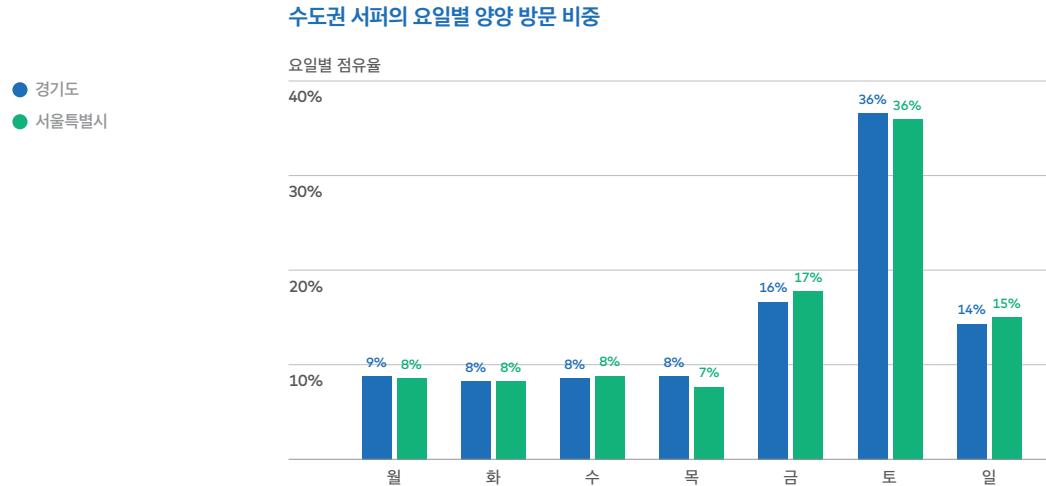
양양 목적지 분포와 주요 서핑 스팟 (수도권 출발 이용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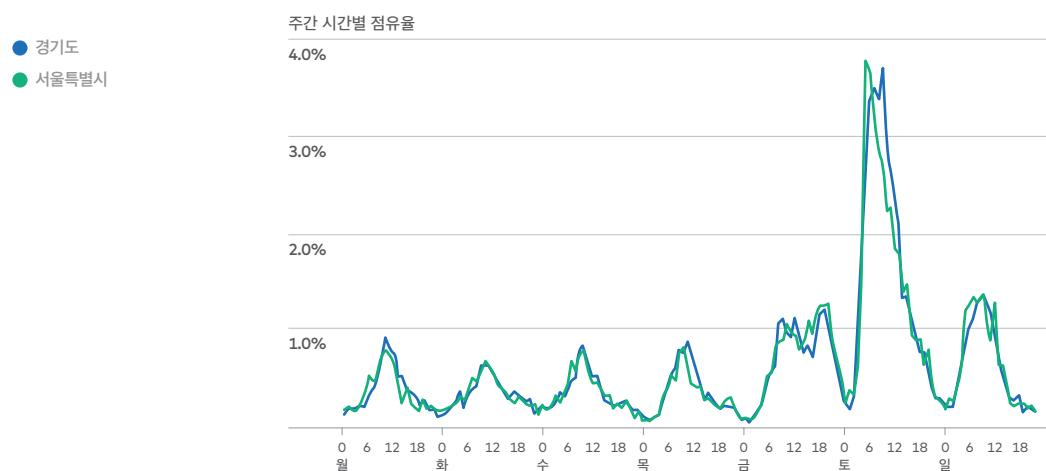
· 양양 목적지 분포와 주요 서핑 스팟 | 2019년 1월~2020년 6월, 카카오내비 길안내시작 기준

주말서퍼 비중이
압도적,
금요일엔 일끝나고
바로 출발!

수도권의 '주말서퍼'들은 언제 양양을 찾고 있을까? 카카오내비를 이용하여 서울시와 경기도에서 출발하여 양양의 서핑 스팟을 방문하는 패턴을 분석해 보았다. 양양을 가장 많이 찾는 요일은 토요일, 금요일, 일요일 순으로 나타났다. 서울과 경기 서퍼의 약 70%가 금~일요일 사이 양양의 서핑 스팟으로 출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서퍼'란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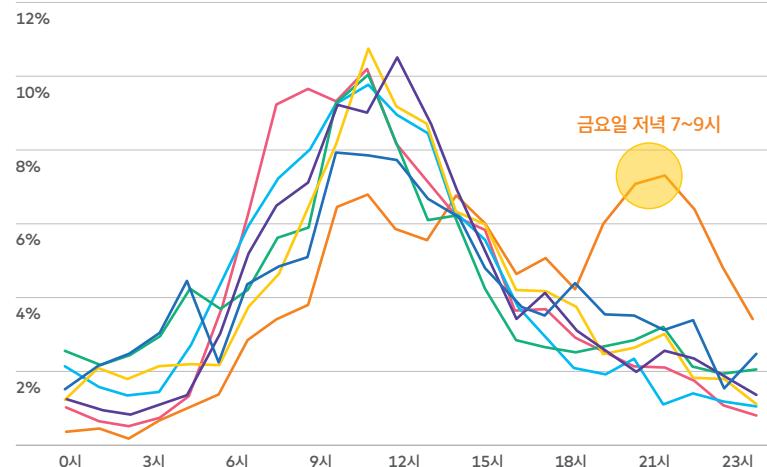


요일별 방문 데이터를 시간으로 한번 더 쪼개서 살펴보자. 수도권 주말서퍼가 양양의 서핑 스팟으로 가장 많이 출발하는 시간대는 토요일 오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주일 중 토요일 아침시간(오전 6시~정오) 양양으로 출발하는 서퍼의 비중은 서울 21%, 경기 22%를 차지할 정도로 서퍼들의 출발시간이 집중되어 있었다.



조금 더 마음이 급한 서퍼들은 금요일 퇴근 후에 바로 양양을 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일별 출발시간의 분포를 보면 피크타임이 대부분 오전에 위치하고 있지만, 금요일에는 피크타임이 저녁 7~9시로 나타난다. 서울과 경기 가릴 것 없이 주말의 시작을 양양의 해변에서 바로 시작하려는 주말서퍼들이 적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도권 서퍼의 요일별-시간대별 양양 방문 패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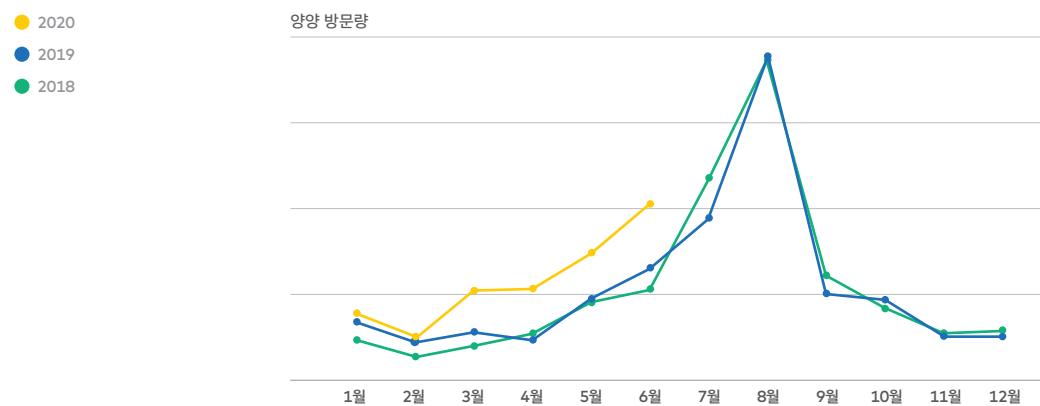
- 수도권 서피의 요일별 양양 방문 비중 | 2019년 1월~2020년 6월, 카카오내비 운행시작 기준
 - 수도권 서피의 요일별 양양 방문 비중[일간 시간별 상세 비중] | 2019년 1월~2020년 6월, 카카오내비 운행시작 기준
 - 수도권 서피의 요일별, 시간별별 양양 방문 비중 | 2019년 1월~2020년 6월, 카카오내비 운행시작 기준

코로나19로
상반기 양양 방문
급증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3월 이후 수도권에서 양양을 찾는 서퍼들이 급증하고 있다. 2020년 6월말까지 양양을 방문한 수도권 서퍼는 전년 동기대비 약 6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3월과 4월에는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2018년과 2019년 수도권 서퍼의 월별 양양 방문 패턴이 크게 변함이 없는 것과 대조적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해외여행이 제한되면서 양양 서핑 스팟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좋은 파도가 예고되는 주말이면 더 많은 수도권 서퍼들이 양양을 찾을 것이다.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비슷한 시간대, 비슷한 곳으로 향한다면, 카카오 T 셔틀의 [오픈셔틀]이 좋은 이동 수단이 될 수 있다. '같이 탈 사람 모집하기'로 경로와 날짜를 직접 만들고 링크를 공유하여 함께 양양의 해변으로 이동할 서퍼들을 모집해 보면 어떨까? 운전의 피로와 통행료, 기름값 부담은 덜고, 서퍼들끼리 편안하게 서핑을 이야기하며 양양 해변으로 갈 수 있을 것이다.

최근 3년간 수도권 서퍼의 양양 방문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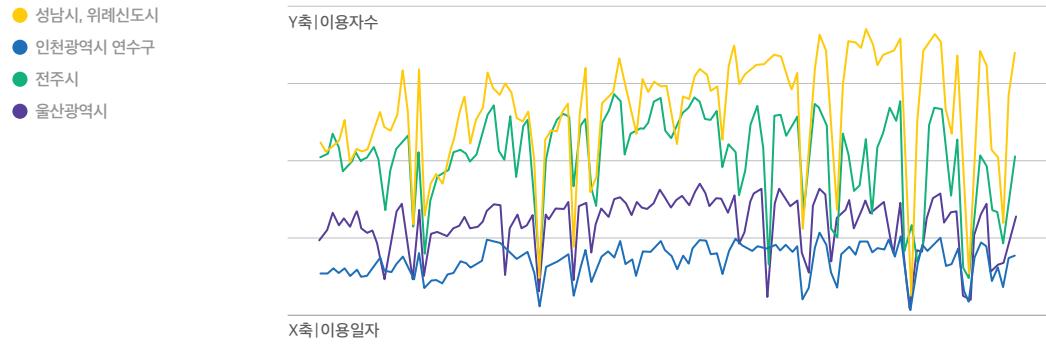


• 최근 3년간 수도권 서퍼의 양양 방문 추이 | 2019년 1월~2020년 6월, 카카오내비 길안내시작 기준, 2020년 1월 100 기준



날씨와 바이크의 상관관계

일자 & 지역별 이용자



[질문] 위 그래프에서 비가 온 날은 언제일까?

위 그래프는 카카오 T 바이크의 지역별 이용 현황을 그린 것이다. 쉽게 짐작할 수 있는대로 그래프가 아래로 꺼진 지점들이 비가 온 날이다. 강수량이 많고, 하루종일 비가 오는 날이면 그래프의 골도 깊어진다. 자동차와 달리 비를 피하기 힘든 전기자전거의 구조가 이용 패턴에도 나타난다. 사업 준비 단계에서 충분히 예상한 바와 같다.

그러나 비가 온다고 모두가 바이크를 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앞서 카카오 T 바이크는 충성도가 높은 서비스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카카오 T 바이크 이용자 중에는 폭우와 태풍이 부는 날에도 어김없이 카카오 T 바이크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부분은 서비스 오픈 이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이용 패턴이다. 악천후 상황에서 서비스를 언제 중단하고 재개할 지에 대해서 카카오 T 바이크 담당자들은 고민하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다.

역대급 장마 속에서도
계속 성장 중인
카카오 T 바이크

카카오 T 바이크 이용은 역대급 장마를 맞아 잠시 주춤하였으나, 성장세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6월 3~4주차에 시작된 장마가 중부지방에는 8월 중순까지 이어졌다. 제주도, 중부지방까지 역대 장마 기록을 갈아치웠다. 카카오 T 바이크 이용도 역대급 장마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순 없었다. 그러나 기기 1대당 이용 횟수는 역대급 폭우가 집중된 8월 1주차를 제외하면 전년대비 두 자리수 이상의 성장률을 지속하고 있다.

역대급 장마 기록

제주도

2020.6.24~8.16 54

2013.6.17~8.6 49

중부지방

2020.6.10~7.28 49

1998.6.12~7.20 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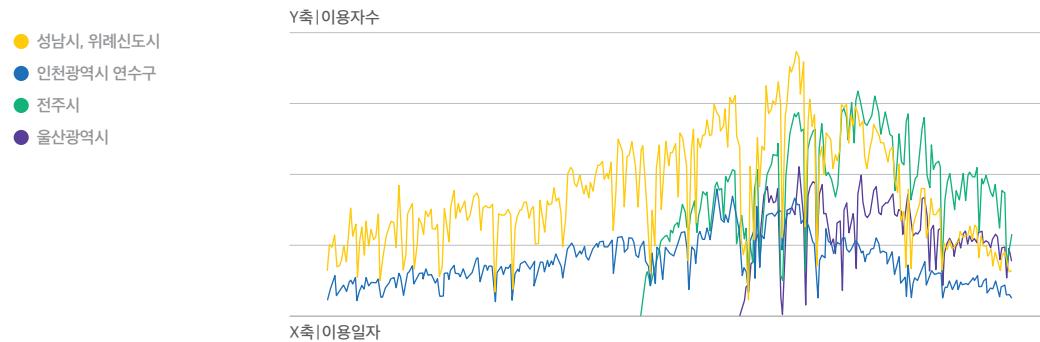
40 44 48 52 56

• 역대급 장마 기록 | 자료: 기상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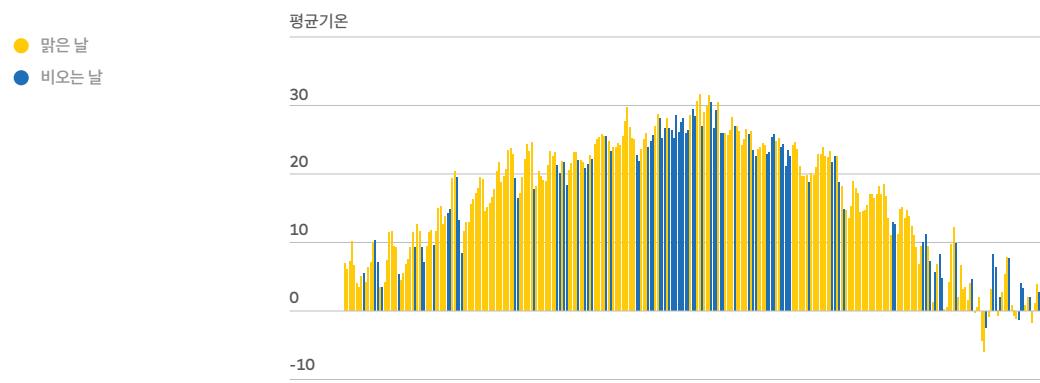
무더위도 이겨낸
카카오 T 바이크의 인기

카카오 T 바이크의 계절별 이용 패턴도 당초의 기대를 넘어서고 있다. 카카오 T 바이크 사업 준비 단계에서는 날씨가 무더운 6~8월을 바이크 비수기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기우였다는 것이 금방 드러났다. 서비스 오픈 이후 결과를 보니 무더운 날씨에도 사람들은 오히려 바이크를 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온이 높으면 땅바닥 아래에서 땀을 흘리며 걷기보다는 페달만 한번 밟으면 모터가 작동하여 '축지법'을 발휘할 수 있는 전동 바이크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자 & 지역별 이용자 2019년 추이



일자별 기온 및 강우여부 2019 추이



• 일자 & 지역별 이용자 2019년 추이, 일자별 기온 및 강우여부 2019 추이 | 자료: 기상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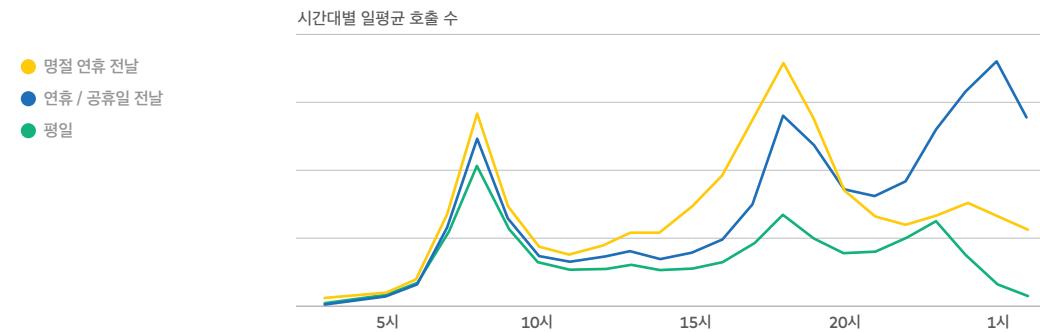
황금 연휴를 앞두고 사람들이 향하는 곳

평일/명절/황금연휴
달라지는 이동 패턴

1년 중 몇 번 없는 '황금 연휴'를 얼마나 설레며 기다렸던가. 긴 연휴를 앞둔 저녁의 활기찬 모습을 택시 이동 데이터를 통해 엿보자 한다. 통상 연휴 전날에는 택시 호출수가 증가하게 되는데, 명절을 앞둔 날인지, 연휴를 앞둔 날인지에 따라서도 이동 패턴이 달라진다고 하니 함께 살펴 보도록 하자.

전국 카카오 T 택시 호출 건수를 기준으로 이용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보통 이동 수요는 출근 시간인 오전 8시, 퇴근 시간인 18시, 이후 심야시간이 피크시간이고 대부분 완만한 모습을 보인다. 한편 황금 연휴의 전날은 평일과 퇴근 시간 이후 호출의 패턴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명절연휴 전날의 경우에는 귀향 수요로 인해 상대적으로 증가세가 퇴근 시간 이전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올라오다가 다소 이른 시간인 20시에 잣아드는 반면, 연휴/공휴일 전날은 18시 기점으로 지속 상승하고 잠시 잣아들다가, 밤이 깊어갈수록 급증하며 심야시간에 최대치를 기록한다. 황금 연휴를 앞두고 늦게까지 평소 만나지 못했던 지인들과 회포를 풀며, 직장에서의 스트레스와 긴장을 던지고 밤시간의 자유를 만끽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카카오 T 택시 명절, 연휴 및 공휴일, 평일별 이용패턴



• 시간대별 일평균 호출 수 | 2019년 1월~2020년 6월 당일 3시 ~ 익일 3시 기준 시간대별 일평균 호출수

명절에는 고향으로 연휴에는 핫플레이스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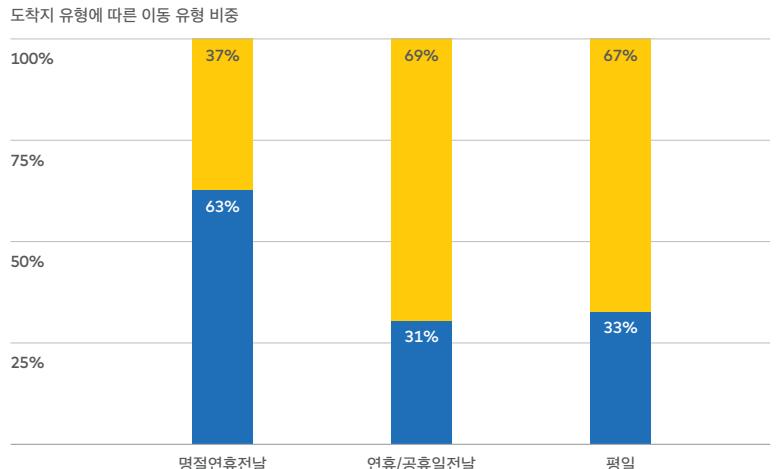
좀 더 자세히 주로 이동하는 목적지를 살펴보면 퇴근 이후 시간의 평일과 명절/연휴 전날의 이동 패턴 차이를 확실히 확인 해 볼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바쁜 도시를 꼽자면 단연코 서울을 떠올릴 것이다. 서울에서 가장 많은 호출이 향하는 도착지 Top 20개를 살펴보면, 황금 연휴 전날에는 기본적으로 평일에 비해 이동수요가 최대 3배까지 급증할뿐만 아니라, 명절 전날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목적지에 확연한 차이가 난다.

명절 연휴 전날은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돌아가기 위해 역이나 버스 터미널 등 교통수단 탑승지로의 택시 이동이 63%인데, 평일이나 일반 연휴가 30%대에 그치는 데 비하면 2배 이상이 되는 수치이다. Top 20개 중 11개의 장소가 역, 버스터미널이며, 이 곳들로 향하는 호출은 평일의 5배 가까이 증가하게 된다. 택시가 장거리 이동하는 귀성객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여러 교통수단 간의 매개체 역할을 톡톡히 수행하는 것이다. 한편 황금 연휴 전날은 평일과 비슷한 패턴으로 쇼핑, 유흥, 대학가 등 핫플레이스로 향하는 비중이 전체 중 69%나 된다. 평일에 비해 2배 넘는 이동 수요가 밤시간대의 여유를 만끽하기 위해 빠르게 이동한다.

이 외에도 흥미로운 사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이유를 불문하고 이태원과 서울역은 택시 이용자들이 가장 많이 향하는 목적지의 Top 3 안에 드는 곳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용하는 택시의 목적지, 이용 시간을 통해서도 그 날 밤 당시의 분위기나 상황을 떠올려 볼 수 있다.

카카오 T 택시 명절, 연휴 및 공휴일, 평일별 이동 유형 비교

- 모임 및 여가 목적
- 이동 목적



· 카카오 T 택시 명절, 연휴 및 공휴일, 평일별 이동 유형 비교 | 2019년 1월~2020년 6월 당일 3시 ~ 익일 3시 기준,
시간대별 일평균 호출수

서울 기준 퇴근시간 이후 도착지 TOP 20

시간대별 일평균 호출수,
2019년 1월 ~ 2020년 6월

연휴/공휴일 전날

순위	지역	도착지명
1	서울 용산구	서울역
2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경부)
3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6호선
4	서울 광진구	동서울종합터미널
5	서울 서초구	센트럴시티터미널(호남)
6	서울 강남구	수서역
7	서울 용산구	용산역
8	서울 강남구	강남역 2호선
9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2호선
10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11	서울 서초구	서울남부터미널
12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2호선
13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14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2호선
15	서울 종구	서울역 서부역
16	서울 관악구	신림역 2호선
17	서울 노원구	노원역 4호선
18	경기 광명시	광명역
19	서울 용산구	해밀顿호텔
20	서울 송파구	방이동먹자골목

평일

순위	지역	도착지명
1	서울 용산구	서울역
2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6호선
3	서울 강남구	강남역 2호선
4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경부)
5	서울 강남구	수서역
6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2호선
7	서울 중구	디오토패션도매상가
8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9	서울 관악구	신림역 2호선
10	서울 용산구	용산역
11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2호선
12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2호선
13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2호선
14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15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입구역 4호선
16	서울 관악구	사당역 2호선
17	서울 노원구	노원역 4호선
18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2호선
19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3호선
20	서울 강북구	수유역 4호선

명절 연휴 전날

순위	지역	도착지명
1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6호선
2	서울 용산구	서울역
3	서울 강남구	강남역 2호선
4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경부)
5	서울 관악구	신림역 2호선
6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역
7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역 2호선
8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2호선
9	서울 강남구	수서역
10	서울 용산구	용산역
11	서울 관악구	사당역 2호선
12	서울 강서구	강서구청
13	서울 광진구	건대입구역 2호선
14	서울 용산구	해밀顿호텔
15	서울 관악구	서울대입구역 2호선
16	서울 서대문구	신촌역 2호선
17	서울 서초구	신논현역 9호선
18	서울 성북구	성신여대입구역 4호선
19	서울 중구	디오토패션도매상가
20	서울 송파구	방이동먹자골목

코로나 19 특집

COVID-19

/ 코로나 19 이후 달라진 이동패턴
/ 언택트 시대에 더 빛나는 카카오 T

코로나19 특집

/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이동패턴

코로나19 팬데믹과 이동의 변화

오랜 세월 멈추지 않고 이어져 온 이동이 신종 감염병 앞에서 무기력하게 멈추었다. 그러나 사태의 장기화 속에서 새로운 패턴의 이동이 빠르게 재개되기 시작하였다. 모빌리티 데이터를 통해서 코로나19 이후 이동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이동은 어떻게 변해갈까?

코로나19 팬데믹이 선언된 2020년 3월 이동 데이터는 전례없는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동 수단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코로나19 이전 대비 최고 10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전세계 국제선 항공 이용객수는 2020년 3월에 전년대비 47% 감소하며 반토막이 났고, 팬데믹 효과가 온전히 나타난 4월에는 92%까지 감소하였다. 우리나라 2월 대구지역 집단감염 이후 이동이 얼어붙으면서 3월 들어 출국자와 입국자수는 전년대비 각각 94%와 95% 감소하였다. 국내 철도 이용객수는 3월에 전년대비 66% 감소하였고, 고속/시외버스 이용객수는 65% 감소하였다. 수도권 전철, 시내버스, 택시(서울, 3월 1주차 기준) 이용객수는 3월에 각각 43%, 35%, 34% 감소하였다. 전국 고속도로 통행량은 3월에 13% 줄었다. 통계청이 통신사의 빅데이터로 집계한 인구 이동은 2020년 3월(매주 토요일 평균)에 전년대비 29%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와 국가 사이의 이동, 도시 사이의 이동, 도시 안에서의 이동 등 이동 형태를 가리지 않고 모든 이동이 급감한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이동 수단별 변화

2020년 3월 전년대비

이동량 증감률

-4.7% (3월 기준)

철도 이용객 -66%

고속 시외버스 -65%

전철 (수도권) -43%

시내버스 -35%
택시 (서울) -34%

인구이동 -29%
고속도로 통행량 -13%

-25%

-50%

-75%

-100%

우리나라 입국자 수 -95%

우리나라 출국자 수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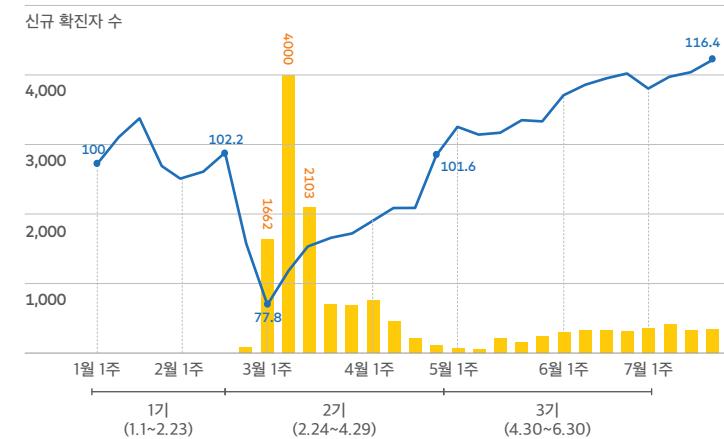
국제선 항공 이용객 -92%

코로나19 이후의 이동의 변화는?

코로나19 사태는 확진자의 급증과 함께 실제 이동의 중단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동의 중단은 그렇게 오래가지 않았다. 급격한 중단 이후 빠른 회복세가 이어졌다. 카카오내비 데이터를 바탕으로 만든 모빌리티 인덱스는 이러한 추세를 잘 보여준다. 모빌리티 인덱스는 2020년 1주차 카카오내비 이용건수를 100으로 두고 주간 이동건수 변화를 계산한 것이다.

모빌리티 인덱스는 크게 3개의 기간으로 구분된다. 1기는 중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되고, 국내 첫 확진자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이동의 변화가 크게 없었던 1월 1주차~2월 3주차까지의 기간이다. 2기는 대구 지역감염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이동이 급감한 이후 빠르게 회복한 시기다. 이동은 2월 4주에 급격히 하락하기 시작하여 3월 1주에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이후 빠른 회복세를 보이다 5월 1주에는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을 회복하였다. 3기는 생활 속 거리두기의 시행 이후 이태원 클럽, 물류센터 등 수도권 집단 감염이 발발하면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가 본격화된 시기다. 3기에서 모빌리티 인덱스는 꾸준히 회복세를 보였지만, 회복 속도는 2기의 저점 이후 회복 속도보다는 느려진 모습을 나타내었다. 다음 글에서 카카오내비, 카카오 T 택시 데이터를 이용하여 코로나19 이후의 이동을 자세히 살펴볼 것이다. 아울러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한 여행 패턴 변화를 살펴본 결과도 소개한다.

카카오내비 데이터 기반의 모빌리티 인덱스 추이와 코로나19 신규확진자수



· 카카오내비 데이터 기반의 모빌리티 인덱스 추이와 코로나19 신규확진자수 | 모빌리티 인덱스는 2020년 1월 1주차 100 기준, 신규 확진자 수는 주간 합계

카카오내비로 보는 뉴노멀 시대

카카오내비 데이터로 구성한 모빌리티 인덱스의 특징



카카오내비는 다양한 맥락에서 발생하는 이동 패턴을 포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카카오내비 이용자 구성율을 보면 단순히 카카오내비 앱을 설치한 이용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카카오 T 택시, 카카오 T 대리 등 다양한 모빌리티 서비스의 길안내도 카카오내비가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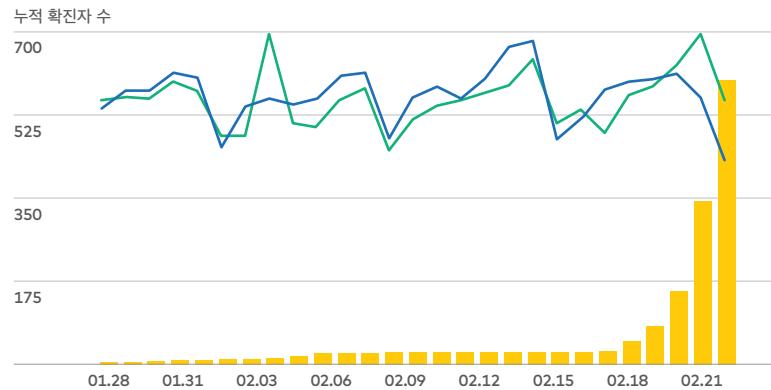
더 다양한 이용자에게 길안내를 제공할 수 있도록 LG유플러스와 제휴를 통해 U+카카오내비를 출시하였으며, 국내 최초로 구글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에 서드파티 내비게이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내비의 데이터는 일반적인 내비가 포착하지 못하는 다양한 이동 맥락을 담고 있고, 이용자 커버리지도 넓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이후 이동의 변화를 살펴보는데 차별적인 인사이트를 제공해 준다.

1기.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상향하기 전

우리나라는 2020년 1월 20일에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이동트렌드는 전년과 비슷한 상황이 계속되었다.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정부에서는 감염병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했지만, 1월 말 설 연휴에도 예년과 다름없이 대규모 이동이 나타났다.

2020년 2월 23일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면서, 이동에도 변화가 감지되기 시작하였다. 변화는 위기 경보 격상 직전 금요일부터 관찰되기 시작하였다. 평소라면 길안내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금요일(2월 21일)이었지만, 전날 누적 확진자가 100명을 넘어가면서 주말을 앞두고서도 길안내가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코로나19 확진자 추이와 카카오내비 이용 추이 (1기 기간, 설연휴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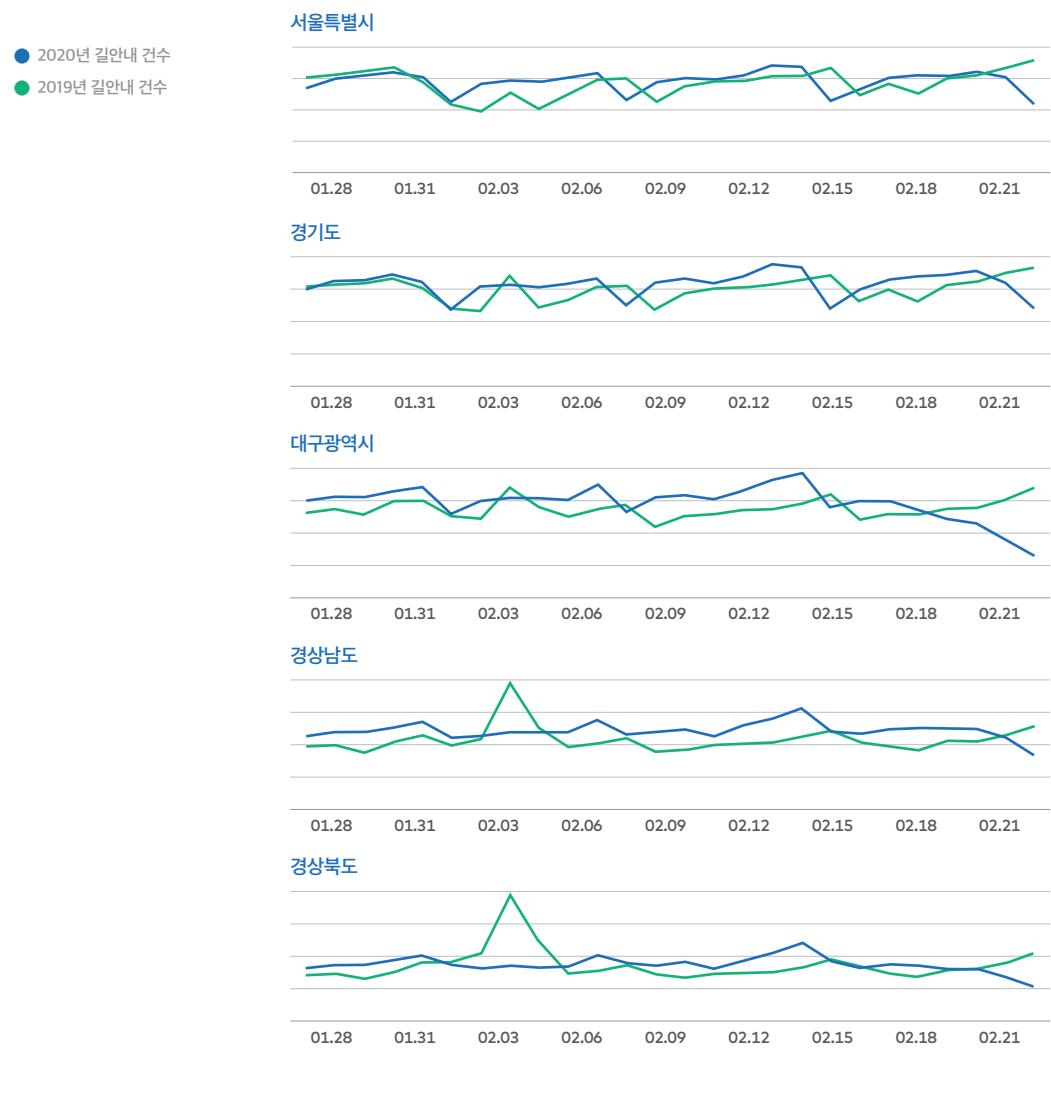
• 코로나19 확진자 추이와 카카오내비 이용 추이 (1기 기간, 설연휴 이후) | 카카오내비 일간 길안내 시작, 전국 기준, 전년도 동일 주차와 비교, 자료: 질병관리본부

점차 줄어드는 사람들의 이동

전국적인 길안내 감소 양상은 지역별로 보아도 동일한 패턴을 보이는 데, 각 지역별로 감소하는 시점은 조금씩 다른 것을 볼 수 있다. 가장 먼저 길안내가 감소하기 시작한 대구는 전국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는 21일로부터 3일 전인 18일부터 이동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아마도 가장 먼저 지역 감염이 급증하기 시작한 지역으로 타 지역보다 먼저 이동을 제한했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후 대구의 주변지역인 경북, 이어서 수도권으로 차차 코로나로 인한 이동의 감소가 진행되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정부가 감염병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상향한 23일, 대구는 기존의 1/3수준의 길안내를 한것으로 보이며 그 외 지역들은 2/3수준의 길안내를 한것으로 보인다. 이후 이동의 감소는 한동안 지속 된다.

지역별 카카오내비 이용 추이 (1기 기간, 설연휴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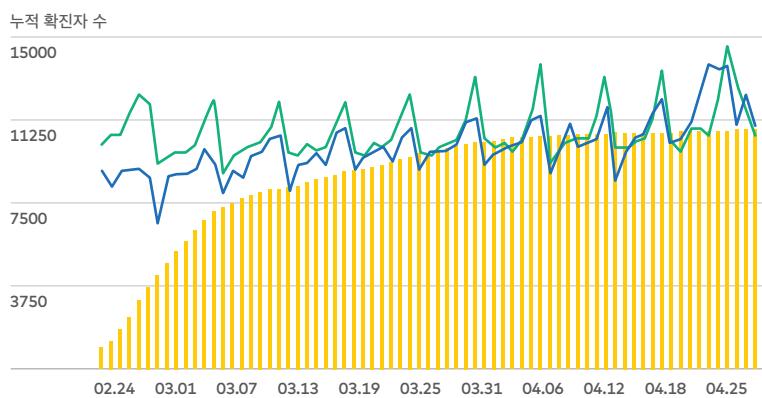
• 카카오내비 일간 길안내 시작 기준, 전년도 동일 주차와 비교

2기. 줄어드는 유동인구. 필요한 경우에만 이동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급증하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쓰기 시작하는 2월 24일 이후 사람들은 이동을 자제하기 시작했다. 카카오내비 길안내 시작트렌드를 보면 해당 기간 중,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는 시기에 사람들은 전년도 대비 일간 최대 28.9%까지 이동성이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 일일 확진자수가 한자리가 되는 4월 말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주요 카테고리로의 이동량을 1기와 비교하면 2기에서는 주요 실내 시설들로의 길안내 시작이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다. 기간이 길기 때문에, 범위를 축소하여 2월 23일 기점으로 전후 3주를 비교해 보면 실내 카테고리인 도서/ 복합쇼핑몰/ 백화점/ 영화,영상/ 문화시설/ 종교는 1기말에 비해 이동량이 하락했으며 특히 문화시설/ 영화,영상/ 종교는 40%이상 하락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대부분의 이동을 줄여나갔으며 그나마 카페 정도만을 방문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코로나19 확진자 추이와 카카오내비 이용 추이 (2기 기간)



주요 목적지 카테고리별 이동량 변화 (3월 기준)

카테고리	증감률 (전월대비)
음식점 카페	22.3
음식점 간식	4.9
여행 관광,명소	3.6
문화,예술 도서	-14.1
가정,생활 복합쇼핑몰	-19.3
가정,생활 백화점	-27.2
문화,예술 영화,영상	-30.7
문화,예술 문화시설	-46.5
문화,예술 종교	-54.5

• 카카오내비 일간 길안내 시작 기준, 전년도 동일 주차와 비교, 자료: 질병관리본부

코로나가 두려운 사람들이 향한 곳은

1기와 2기 사이의 주요 목적지별 방문 순위 변화를 살펴보면 코로나19로 이동이 급감한 시기의 이동 변화를 더 자세히 관찰할 수 있다. 백화점, 공항, 영화관 같은 밀집지역들은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전부 하락했다. 그러나 주말에 top100 POI를 살펴보면 1기에서는 없었던 을왕리해수욕장(25위), 소래포구종합어시장(34위) 두울머리(36위), 속초관광수산시장(39위), 대천해수욕장(47위), 여의도한강공원(48위), 광교호수공원(56위) 등의 야외 관광지역들이 상위권에 노출되며 사람들은 밀집지역을 피하여 주말에는 야외로 이동하는 패턴을 보였다. 이와 더불어 특이점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IBK기업은행 등 금융지원을 받기 위한 사람들의 이동도 포착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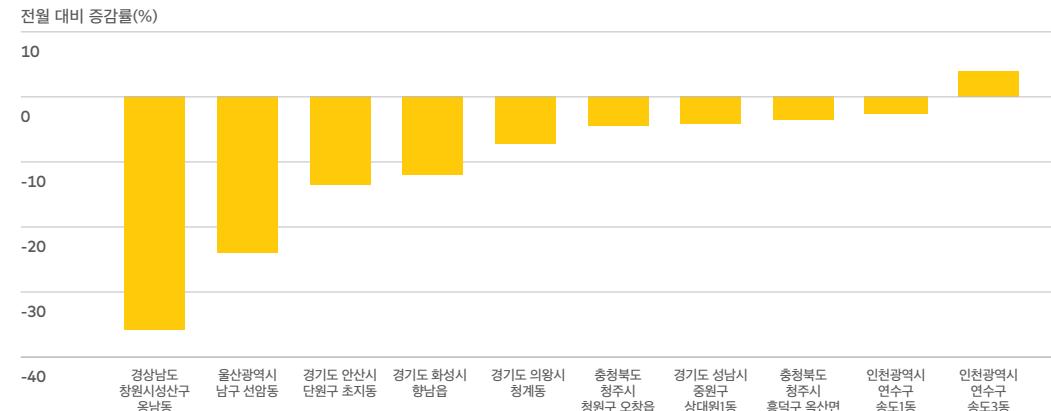
1기와 2기의 주요 목적지 방문 순위 변화

주말	주중					
	목적지명	1기 순위	2기 순위	목적지명	1기 순위	2기 순위
롯데백화점	4	7	롯데백화점	6	9	
현대백화점	10	12	현대백화점	12	13	
신세계백화점	11	14	신세계백화점	18	20	
인천국제공항	9	26	인천국제공항	5	30	
CGV	8	20	CGV	14	31	
롯데시네마	21	40	롯데시네마	38	51	
메가박스	22	51	메가박스	41	64	

근무 형태에도 영향을 미친 코로나

2기의 기간 중, 재택근무, 순환근무, 자율출근제는 화두가 되었고 이는 내비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했다. 행정구역 별로 특정 카테고리를 목적지로 설정한 길안내 건수로 비교해보았다. 출근 시간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간은 2월 24일 전후로 3주간의 주간 오전(7~10)의 길안내 도착건수를 비교했으며, 그 결과를 산업군별로 비교할 수 있었다. 주요 공장지역은 코로나로 인한 가동 중단 또는 기존과 비슷한 출근 패턴을 보였다. 읍면동 기준으로 카테고리가 공장인 목적지로 출근한 이용 건수 Top10 지역을 보면 크게 감소하거나, 큰 차이 없었다. 초지동(경기 안산), 상대원1동(경기 성남), 청계동(경기 의왕), 송도1동(인천), 송도3동(인천), 오창읍(충북 청주)은 10% 이내의 감소 또는 오히려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반면에 용남동(경남 창원), 선암동(울산)은 20~30%의 길안내 감소를 보이며 해당 시기에 코로나가 크게 퍼진 남부 지역들은 코로나로 인한 타격을 크게 받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전국 주요 공장 지역 이동량 변화 (2020년 3월 기준)



IT기업이 밀집된 판교의 재택 근무 비중 높아

분석 대상을 공장뿐만 아니라 상업 및 오피스 지역까지 확대하여 전국 주요 업무지구의 이동량 변화도 살펴 보았다. 이를 통해서 재택근무가 산업별로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IT 기업이 많은 판교(성남시 분당구 삼평동)와 강남(강남구 역삼 1동)은 코로나19가 심각한 지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이동량 감소가 확인되었다. 반면, 공단이 밀집된 구로, 시흥, 수원, 화성 등은 상대적으로 적은 폭의 이동량 감소가 나타났다.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된 3월에는 IT 기업의 재택근무가 두드러졌다. 반면, 장기간 중단이 힘든 공장이 많은 공단 지역은 평상시와 근무 패턴이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전국 주요 업무지구 이동량 변화 (2020년 3월 기준)



• 1기와 2기의 주요 목적지 방문 순위 변화 | 카카오내비 길안내 시작 기준, 1기는 연초~설연휴 기간 분석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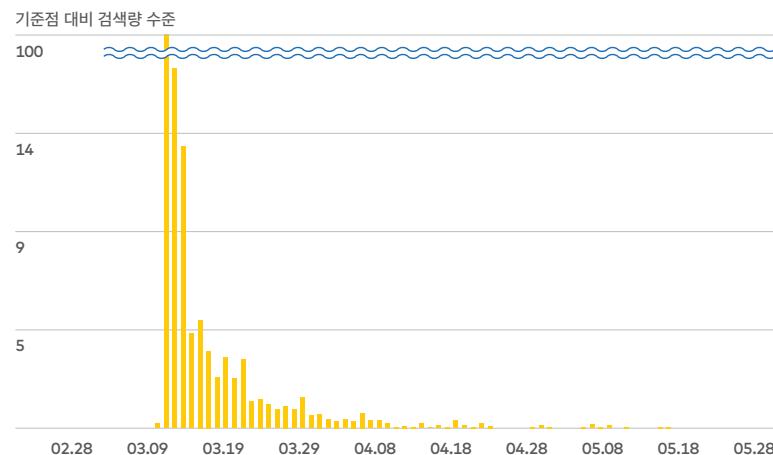
• 전국 주요 공장 지역 이동량 변화 | 공장 카테고리 기준, 카카오내비 일간 길안내 시작 기준

• 전국 주요 업무지구 지역 이동량 변화(2020년 3월 기준) | 서비스·산업 카테고리(공장 포함) 기준, 카카오내비 일간 길안내 시작 기준

공적마스크 판매처
검색량 급증

카카오내비에서는 카카오맵과 함께 공적마스크 판매처와 실시간 재고 안내를 3월 11일부터 진행했다. 3월 11일 검색 건수를 100으로 보았을 때, 아래와 같은 추세 보였다. 오픈 초반 공적마스크 판매처에 대한 검색이 주로 이루어졌고 사람들이 어느정도 주변의 공적마스크 판매처를 인지하면서 검색 빈도는 줄어들었으나 마스크 구매제한이 확대되는 4월 27일까지 꾸준히 검색 되었다.

카카오내비 '공적마스크' 검색어 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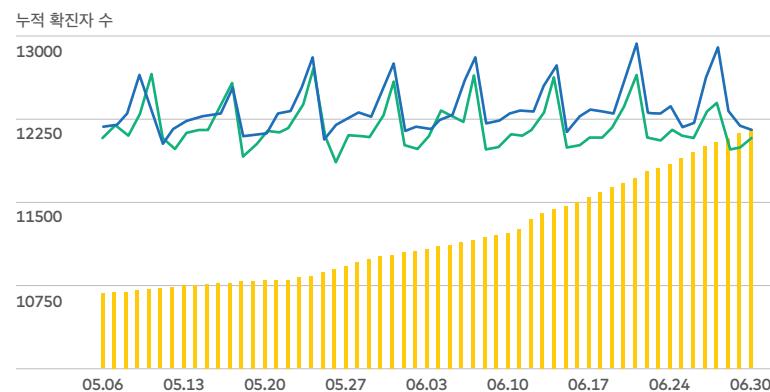


• 카카오내비 '공적마스크' 검색 건수 | 카카오내비 검색 기준, 기준점: 3월 11일

3기.
뉴노멀을 맞이하는
이동패턴

4월 30일부터 5월 5일까지의 긴 휴가를 마무리한 사람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일상에 되돌아갈 준비를 시작했다. 작년과 길안내 건수를 비교했을 때, 5월 6일부터 비슷한 패턴을 보였고 이는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코로나 이전의 활동성을 회복했다고 볼 수도 있으나, 이를 깊게 들여다 보면 코로나 이전과 다른 뉴노멀의 패턴이 보인다.

코로나19 확진자 추이와 카카오내비 이용 추이(3기 기간)



• 코로나19 확진자 추이와 카카오내비 이용 추이(3기 기간) | 카카오내비 일간 길안내 시작, 전국 기준, 전년도 동일 주차와 비교, 3기에서 첫 5일(4월 30일~5월 5일)은 연휴에 따른 이동량 급증 기간으로 분석에서 제외, 자료: 질병관리본부

줄어든 실내 이동, 늘어난 국내 여행

백화점, 쇼핑몰, 도서는 1기때 감소율을 상회하는 비율로 증가했다. 이는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기간 동안 돌아다니지 못했던 곳들을 코로나가 완화되면서 이전보다 더 방문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여 국내여행으로 눈길을 돌린 사람들로 인하여 문화시설, 관광지의 수요 또한 1기보다 2기에 증가했다. 하지만 도서, 문화, 종교시설의 이동량은 줄어들어 1기 정도의 회복은 되었으나 작년 대비하여 큰 회복은 보이지 않았다. 영화시설의 경우는 2기때와 마찬가지로 3기에도 하락을 했고, 작년 대비 67%의 감소했다.

주요 목적지 카테고리별 이동량 변화 (기간별 변화)

카테고리	2기 증감률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1기 대비 증감률	2기 대비 증감률	
가정,생활 백화점	-17.1	32.1	-5.6
가정,생활 복합쇼핑몰	-6.3	22.5	-8.7
문화,예술 도서	-7.1	14.6	-11.6
문화,예술 문화시설	-43.8	129.3	-25.6
문화,예술 영화,영상	-45.2	-17.8	-67.9
문화,예술 종교	-21.8	36.5	-18.8
여행 관광,명소	23.8	17.9	-0.9
음식점 간식	33.8	25.6	0.1
음식점 카페	6.5	-11.9	-2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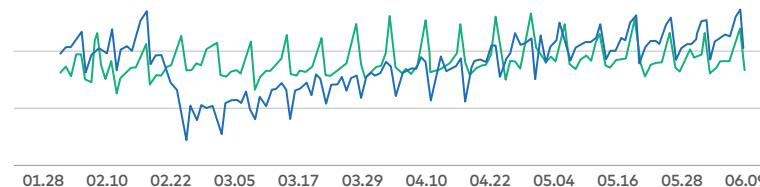
코로나로 부터 회복 중인 대구

대구는 이번 코로나로 많은 일들을 겪었다. 1,2,3기 간 대구에서 출발한 길안내 건수를 그래프로 그려보면, 2기 초반에 특히 많은 감소가 있었으며 2기 후반에는 주말에 작년과 많은 차이를 볼 수 있었다. 3기를 봐도 경기도 등 다른 지역은 작년에 비하여 활동성이 많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구는 전년정도의 회복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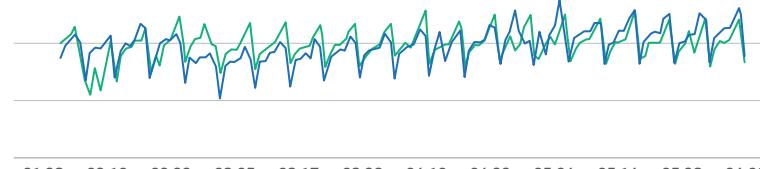
- 2020년 길안내 건수
- 2019년 길안내 건수

지역별 카카오내비 이용 추이

대구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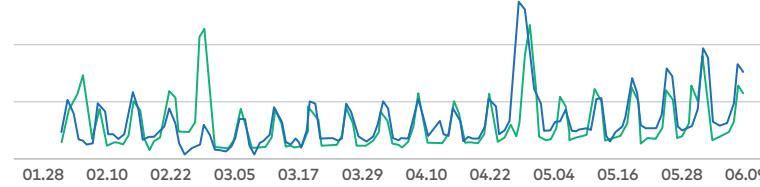
서울특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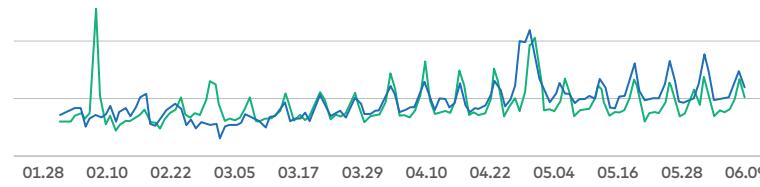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도



• 주요 목적지 카테고리별 이동량 변화(기간별 변화) | 카카오내비 일간 길안내 시작, 전국 기준, 1기는 연초~설연휴 기간
분석에서 제외, 3기에서 첫 5일(4월 30일~5월 5일)은 연휴에 따른 이동량 급증 기간으로 분석에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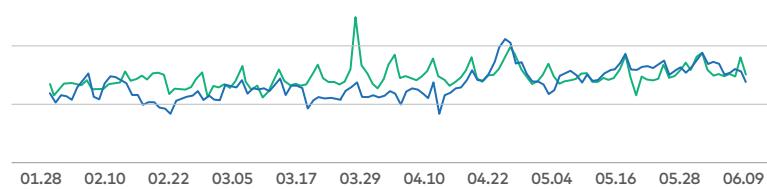
• 지역별 카카오내비 이용 추이 | 카카오내비 일간 길안내 시작 기준, 전년도 동일 주차와 비교

여름이 오고 날이 풀리면서 사람들은 여행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고, 국내여행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 이동의 모습은 지역별 도착 이동량과 POI 순위로 확인할 수 있는데, 국내 대표여행지인 제주도와 부산광역시를 도착지로 길안내를 시작한 건수를 살펴보면 3기때 많은 증가가 있었고 특히 평일의 이동량이 작년의 패턴에 비하여 많은 증가가 있으므로, 지역내 이동 뿐 아니라, 전반적인 여행객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카카오내비 이용 추이

제주특별자치도

- 2020년 길안내 건수
- 2019년 길안내 건수



부산광역시



POI 순위를 보더라도 2019년에는 3위였던 인천국제공항이 65위로 떨어졌으며 김포국제공항이 인천국제공항보다도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반면, 여의도한강공원과 을왕리해수욕장은 코로나19 이후 수도권 나들이객이 몰리면서 순위가 크게 높아졌다.

주요 공항 및 관광지 길안내 순위 변동 (3기 기준)

목적지	2019	2020	순위변동
인천국제공항	3위	65위	-62
김포국제공항	16위	28위	-12
제주국제공항	66위	66위	-
여의도한강공원	220위	159위	+61
을왕리해수욕장	228위	160위	+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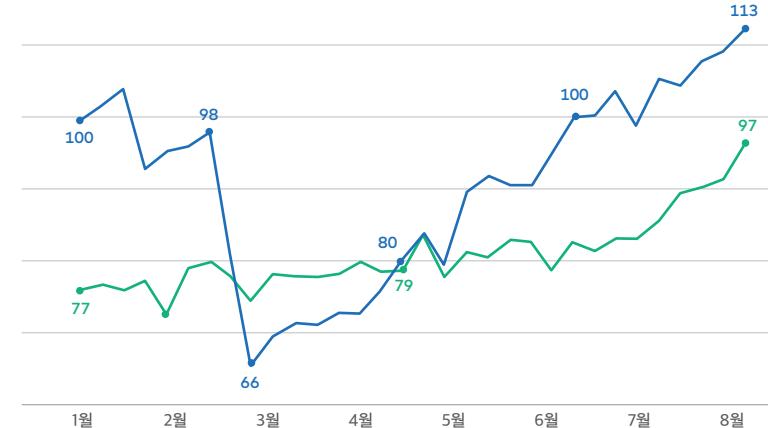
- 지역별 카카오내비 이용 추이 | 카카오내비 일간 길안내 시작 기준, 전년도 동일 주차와 비교
- 주요 공항 및 관광지 길안내 순위 변화 | 카카오내비 일간 길안내 시작, 3기에서 첫 5일(4월 30일~5월 5일)은 연휴에 따른 이동량 급증 기간으로 분석에서 제외

코로나19가 택시 이용에 미친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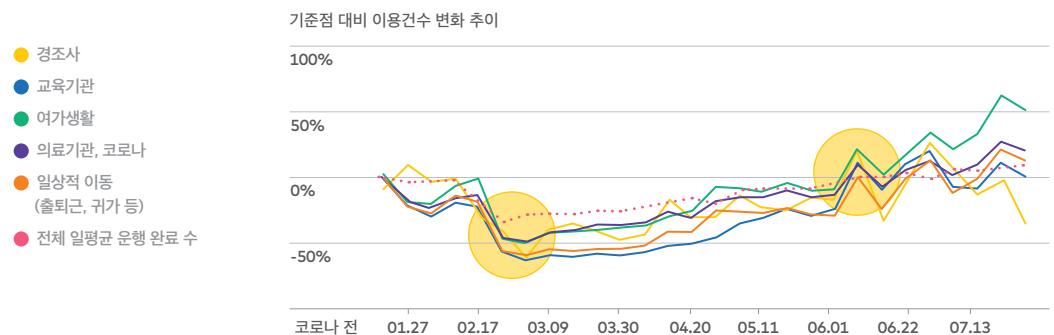
코로나19는 택시 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2019년과 2020년 카카오 T 택시 이용 트렌드는 택시 이용 변화를 잘 보여준다. 아래 그림은 카카오 T 택시의 주간 이용량의 변화를 2020년 1월 1주차를 기준으로 나타낸 것이다.

코로나19 이후 택시 이용 변화

카카오 T 택시 주간 이용량



주요 이동 유형별 택시 이용건수 변화



1기. 코로나 감염의 시작

코로나 전보다 전반적으로 소폭 감소했다가, 2월 초순부터 다시 이전수준으로 회복하는 추세를 보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경조사는 1기 전반적으로 거의 코로나 영향을 받지 않았으며, 여가생활은 1기 말 시점인 2월 후반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시기에는 아직 코로나의 심각성에 대한 위기 의식이 강하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2기. 코로나가 감염자 수 급증

코로나 위기경보 단계가 최고단계로 격상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작되며 본격적으로 이동이 위축되었던 시기에 택시는 직격탄을 맞을 수 밖에 없었다. 우선 전국 일평균 운행완료수가 코로나 발생 전 평균대비 30% 이상 감소하였다. 자세히 보면, 재택근무와 개학 연기로 인해 교육기관과 일상적 이동이 가장 많이 영향을 받았다.(코로나 이전 대비 50% 이상 감소). 다음으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병원 방문을 자제하도록 권고하여 의료기관 등으로의 이동도 절반 가까이 감소하였다. 3월 초까지는 사회전반의 공포가 만연하여 감소 추세가 이어지다가 3월 초부터 완만하게 반등하기 시작했다.

3기. 코로나 이후 달라진 일상

이제 코로나와는 공생을 할 수 밖에 없음을 인정하고, 생활에서 최대한 경계하며 조금씩 택시 이동을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3기로 들어서면서, 모든 이동에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 경향이 있었다. 6월 잠시 이태원 클럽과 대형 물류 센터 감염 이후 바이러스 재확산 공포로 인해 회복 추세가 주춤하였다가, 7월 무렵 대부분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추월하였다. 이동 유형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여가 생활은 6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가장 빨리 회복하였고, 그 이후부터 지속 상승하여 7월은 코로나 이전보다 50% 상회하였다. 다음으로 교육기관으로의 이동이 5월 말 경 전국적으로 개학, 개강으로 인해 정상 수준까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코로나에 대한 사회적인 위기 의식이 택시 이동 패턴에 그대로 반영되었으며, 우리 사회가 코로나와 공생하기 시작한 3기 말부터는 택시가 코로나 발생 이전과 다름없이 국민 이동 생활 수단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주요 이동 유형별 일평균 택시 이용건수 변화 | 기준점 : 2020년 1월 1일~1월 20일 일평균, 카카오 T 택시 일평균 운행완료 기준

카카오모빌리티

X
한국관광공사

코로나19 시대의 달라진 여행

"확찐자" 코로나19로 밖에는 안나가고 집에서만 생활하다보니 활동량이 급감해 '살이 확찐자'가 됐다는 웃픈 신조어이다. "상상코로나", "코로나블루", "언택트", "금스크" 코로나19는 수많은 신조어를 만들어낼 만큼 우리의 일상을 변화시켰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일상이 된 요즘, '여행'도 거리두기 대열에 동참했다. '여행'의 고행이 시작된 것이다. 여행이 겪고 있는 고난을 추적하기 위해,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타난 1월부터 확진자가 급증한 3월까지 카카오내비를 사용해 대한민국 방방곡곡 여행지들을 분석해 보았다.

실내 활동은 NO! 여행도 거리두기

여행지 중 가장 많은 수난을 겪고 있는 곳은 '실내' 중심의 여행지였다. 실내활동이 주가 되는 여행지는 코로나19가 등장하기 전과 비교하여 약 36% 감소했다. 분석에 사용된 Top100개 여행지 평균 감소율이 13%라는 점과 비교하면 실내중심 여행지에 대한 사람들의 불안이 느껴지는 수치이다. 실내중심 여행지의 뒤를 이어 가장 많은 감소세를 보이는 여행지는 '부분적으로 야외활동을 할 수 있는 실내중심 여행지'였으며, '부분적으로 실내활동을 할 수 있는 야외중심 여행지', '야외중심 여행지' 순이었다.

여행지 유형별 이동량 변화 (2020년 1월~3월)

순위	여행지 유형	전년대비 이동량 증감률
1	실내중심 여행지	-36%
2	부분 야외, 실내중심 여행지	-33%
3	부분 실내, 야외중심 여행지	-29%
4	야외중심 여행지	-7%
평균		-13%

• 카카오내비 길안내 시작 기준, 분석기간 2020년 1월~3월

코로나 영향이 큰 실내 여행지

여행지 성격에 따라 살펴보면, '모르는 사람들과 더 자주, 더 많이 만나게 되는 여행지' 일수록 고난이 깊어졌다. 그 중 전통시장에 대한 여행 감소는 눈여겨 볼만하다. '그 지역에 가면 그 지역의 시장을 가야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지역 사람들의 삶을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전통시장은 지역사람들과 가깝게 만나며 낯설지만 새로운 여행감성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여행지로 각광받아 왔다. 하지만 이런 낯설은 만남과 경험은 안전에 대한 불안함을 배가할 수 있는 촉매제가 되어 코로나19가 등장하기 전과 비교하면 42%나 이동량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의 위협을 피해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시설들이 잠정휴업 상태에 들어가면서 박물관, 전시관 등 각종문화시설과 수많은 역사유적지의 감소폭이 커다. 반면,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레저활동 및 각종 체험활동과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여행지들은 감소폭이 적었다.

여행지 유형별 이동량 변화 (2020년 1월~3월)

순위	여행지 유형	전년대비 이동량 증감률
1	온천 및 스파리조트	-45%
2	전통시장	-42%
3	전시·문화시설	-41%
4	역사유적	-41%
5	이색거리·마을	-39%
6	테마공원	-33%
7	기타	-23%
8	해수욕장·해변	-20%
9	자연·경관	-15%
10	레저·체험 액티비티	-12%

모두가 찾던 인기 여행지도 발길 뚝 끊겨

코로나19의 위협은 전국의 주요 여행지에 여행자의 발길이 줄어들게 만들었다. 그 중에서도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방문자 감소 폭이 큰 여행지를 살펴보면 지역의 대표여행지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낯선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려는 요즘, 유명한 여행지는 공공의 위험요소가 된 것이다.

동네만의 유니크한 감성으로 인기를 끌었던 '익선동'과 지역의 정체성과 색채를 깊이 간직한 '인천차이나타운' 같은 이색마을은 각각 전년대비 71%, 67%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군산 근대문화유산 보고인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동대문의 심장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같은 문화시설은 각각 67%, 64% 여행자가 감소했다. 뿐만 아니라 부산을 대표하는 부산의 명물 '부산자갈치시장', 수학여행의 성지에서 힙(Hip)한 여행지로 부상한 경주의 '불국사', 대한민국 관광1번지 '경복궁' 또한 각각 64%, 60%, 59% 큰 폭의 감소세를 보였다.

여행지 유형별 이동량 변화 (2020년 1월~3월)

여행지 유형	여행지 유형	전년대비 이동량 증감률
홍천비발디파크	레저·체험 액티비티	-56%
한려수도조망케이블카	레저·체험 액티비티	-54%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전시·문화시설	-67%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전시·문화시설	-64%
천안독립기념관	전시·문화시설	-59%
한국종합무역센터(코엑스)	전시·문화시설	-57%
경주불국사[유네스코세계문화유산]	역사유적	-60%
경복궁	역사유적	-59%
경주동궁과월지	역사유적	-53%
익선동	이색거리·마을	-71%
인천차이나타운	이색거리·마을	-67%
부산감천문화마을	이색거리·마을	-58%
국립생태원(서천)	자연·경관	-62%
대왕암공원	자연·경관	-57%
부산자갈치시장	전통시장	-64%
국제시장	전통시장	-60%
대구서문시장&서문시장야시장	전통시장	-58%
광장시장	전통시장	-58%
롯데월드	테마공원	-60%
에코랜드테마파크	테마공원	-57%
서울랜드	테마공원	-56%
한국민속촌	테마공원	-55%

• 카카오내비 길안내 시작 기준, 분석기간 2020년 1월~3월

• 카카오내비 길안내 시작 기준, 분석기간 2020년 1월~3월

언택트 (Untact) 여행지

코로나블루(Blue), 안전한 언택트 여행으로 블로우(Blo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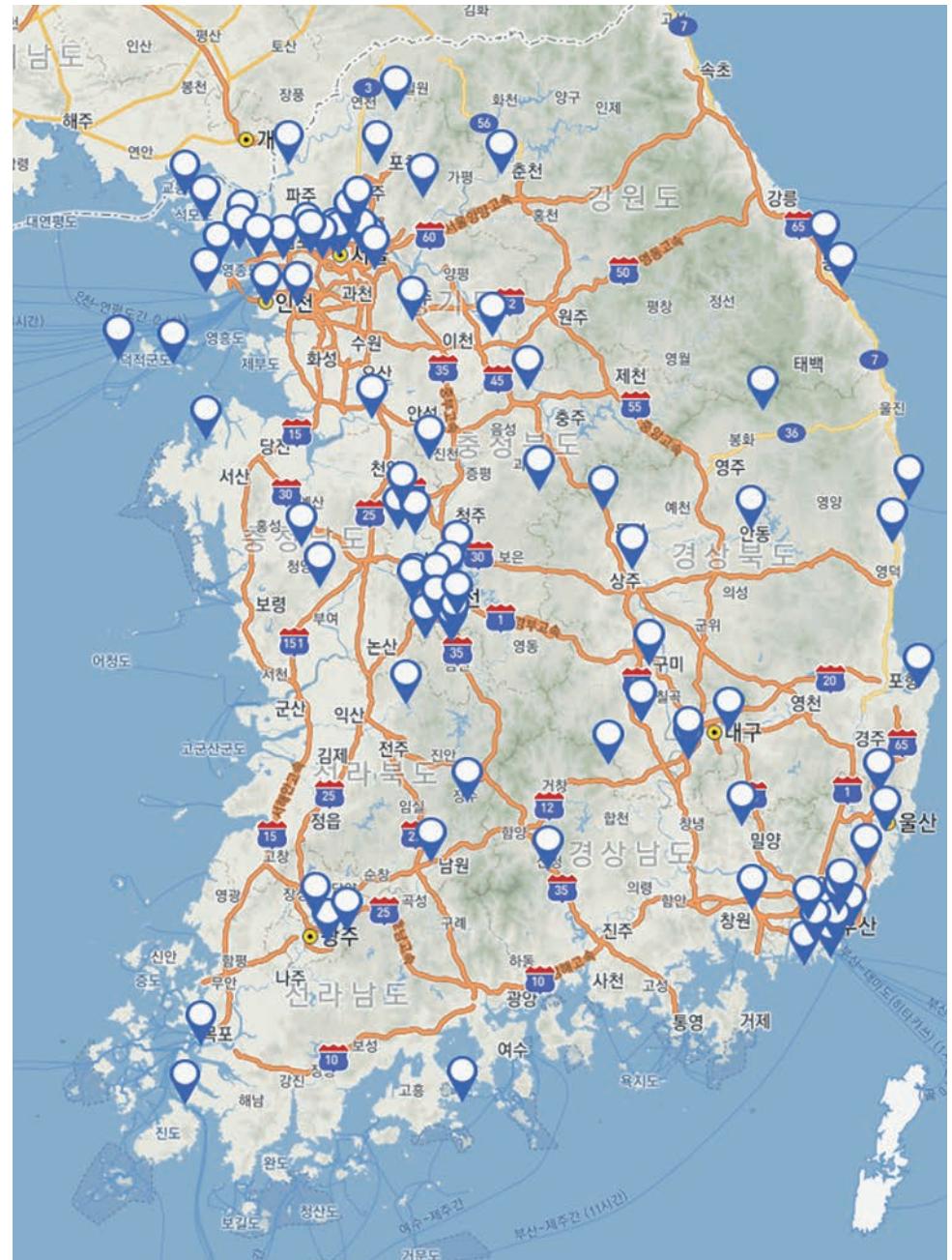
"호모비아토르(Homo Viator)" 여행하는 인간! 프랑스의 철학자 가브리엘 마르셀은 늘 무언가를 향하여 움직이는 인간 본연의 모습을 호모비아토르 라는 말로 설명했다. 인간이 여행을 하는 것은 가장 인간다운 행위이며, 마땅한 권리이다.

하지만 어느날 갑자기 등장한 코로나19는 호모비아토르에게 집콕을 선사했다. 하지만 호모루덴스(놀이하는 인간)인 우리는 슬기로운 집콕생활을 위해 달고나커피도 만들고, 가상여행 체험도 하며 생활 곳곳에서 놀이와 즐거움을 찾았다.

문제는 예상치 못하게 너무 장기화 되는 집콕 생활과 혼자 하는 놀이에 호모루덴스와 호모비아토르들이 지겨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겨움이 겹겹이 쌓여 이제는 코로나블루까지 만들고 있다. '이시국여행'에 두려움이 없진 않지만, 코로나블루를 떨치고 안전하게 호모비아토르가 될 순 없을까?

카카오네비를 통해 살펴본 사람들의 여행패턴은 사람이 봄비는 여행지로 떠나는 것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보다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여행지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호모비아토르를 위해 한국관광공사는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는 언택트 관광지를 소개했다.

언택트 관광지 100선 지도



1

레저 및 체험 액티비티 여행지

울진군 등기산스카이워크, 파란 하늘을 달려



울진군 등기산스카이워크는 울진군 후포면에 위치한 하늘과 바다를 걸으며 즐길 수 있는 여행지로, 바다와 하늘 속을 걷는 새로운 체험을 선사한다. 요즘 세상 멋짐 폭발하는 차박과 캠핑을 즐길 수 있는 구산해수욕장이 인근에 위치해 있다. 하늘과 바다와 캠핑을 즐기면서 초록초록한 자연이 느끼고 싶다면 등기산 공원을 가는 것도 좋은 꿀팁!



새로운 체험이 필요할 때!
하늘과 바람과 바다와 '후포'
등기산스카이워크에 가면
세상 멋짐이 폭발해

코로나19 전후의 등기산스카이워크

코로나19가 발생하기 전 등기산스카이워크는 바다를 즐기기 좋은 계절의 여왕 5월과 화려한 태양이 감싸는 8월에 가장 많은 여행자들이 다녀갔지만 사계절 내내 사랑받는 여행지였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여행인구의 절대적 감소로 등기산 스카이워크도 여행자의 발길이 줄어들었지만 5월 시작과 함께 맞이한 황금연휴 기간에는 여행자가 크게 증가했다.

추천 여행 방법

등기산스카이워크 앞에서 탁트인 동해를 바라보며 코로나19로 답답했던 마음을 훌훌 털어버리고, 아찔한 출렁다리를 지나 언덕을 오르면 등기산 등대공원을 만날 수 있다. 각 나라별 등대와 함께 자리한 포토존은 빼놓을 수 없는 필수코스! 공원을 모두 둘러본 뒤에는 근처 어시장에서 신선한 울진 대게를 다른 지역보다 저렴하게 맛볼 수 있으니 방문하기를 추천한다.

방문하기 좋은 베스트 타이밍

햇살만 좋다면 바다와 태양이 어우러진 등기산스카이워크는 언제든지 대환영! 단, 피부를 생각한다면 한여름 태양이 가장 뜨거운 정오는 피하는 것이 좋겠다. 사람이 몰리지 않는 때를 원한다면 오후 4시 이후를 추천하고, 특히 토요일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등기산스카이워크를 찾는 때이니 염두해두시길.



코로나19 전후의 오대호 아트팩토리
2019년 5월 개관한 오대호 아트팩토리는
꾸준하게 여행자들의 발길을 사로잡던 여행지로
코로나가 발생한 1월 이후부터 확진자가 급증한
3월까지 다소 주춤한 양상을 보이다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전시관람과 체험활동, 충주호와
남한강을 마주한 청정한 자연환경과 더불어
여행자들에게 언택트 여행지로 부상하고 있다.

추천 여행 방법
낮시간에는 오대호 아트팩토리에서 다양한
체험과 전시물을 구경하고, 저녁시간에는 근처
수안보로 이동하는 것을 추천한다. 수안보는
온천으로 유명한 곳으로 곳곳에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족욕길이 조성되어있다. 약 350m 정도로
이어지는 족욕길을 따라 지압, 마사지 등 다양한
족욕시설을 이용하다보면 하루의 피로가 풀리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폐품이 예술이 되는 곳,
예술이 체험이 되는 곳!
아이도, 엄마도, 아빠도,
할머니도, 할아버지도
연인끼리 친구끼리
모두를 위한 팩토리

방문하기 좋은 베스트 타이밍
오대호 아트팩토리는 매주 월요일이 휴무이기
때문에 이 날은 피하는 것이 좋다. 코로나19로
현재는 체험 프로그램이 중단된 상태이지만,
이후 다시 재개된다면 사람이 많이 몰리는
금요일보다는 여유롭게 즐길 수 있는 하루
앞선 목요일 방문을 추천한다. 또한 오픈
시간인 오전 10시에 맞춰서 미리 출발하기
보다는 오전 11시쯤 여유롭게 출발하는 것도
차막힘 없이 방문할 수 있는 베스트 타이밍!

2

전시·문화시설 여행지

오대호 아트팩토리, 버림받은 것들의 유쾌한 반란

충주시 북쪽 끝 양성면에 위치한 오대호
아트팩토리는 폐품을 활용한 리사이클
예술작품을 전시하고 예술체험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폐교된 능암초등학교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 넣어 충주시의 강소형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다. 오대호 아트팩토리가 위치한 양성면은
온천을 즐길 수 있는 웰니스여행지로 우리나라
온천 가운데 원수의 탄산 비율이 가장 높은
비율을 자랑한다.

3

역사유적 여행지

해남 우수영, 명량을 명랑하게

전라남도 해남군 문내면에 위치한 해남
우수영은 명량대첩의 산실로 명량대첩과 관련한
다양한 역사문화시설을 갖고 있다. 1987년
국민관광지도로 선정된 우수영은 자연과
역사유적과 레저액티비티를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여행지로 남해의 청정자연과 명량대첩의
기운을 느낄 수 있다.



코로나19 전후의 해남 우수영

해남 우수영은 코로나 19가 발생한 시점부터
확진자가 급증한 3월까지 다소 여행객들이 줄어든
것으로 보이지만 꾸준히 여행자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우수영의 드넓은 바다와 청정한
기운은 코로나의 위험 속에서도 우수영의 매력을
발산하는 중요 포인트!

추천 여행 방법

해남 우수영 인근에 해남오시아노 관광지와
총무사, 강강술래길 등이 위치해 있다. 우수영의
바다와 역사를 즐겼다면, 해남의 드넓은 들판을
여행하며 오감만족을 느끼는 것도 좋은 방법!
보리밭 사잇길이 유명한 연호마을과 수국이
만개하는 포레스트수목원이 SNS
핫플레이스라는 점은 비밀.

방문하기 좋은 베스트 타이밍

해남 우수영은 다양한 레저액티비티와
아이들과 함께하는 문화체험이 준비되어
있어서 이를 위해 아침 일찍부터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다. 문화체험 보다 기념 전시관과
근처 산책로를 걸으며 관광지를 둘러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오전 10시 이후에
여유롭게 출발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4

이색마을 여행지

성북구 북정마을, 골목길 사이사이 세월이 사뿐사뿐

서울 하늘, 달님과
처음 인사하는 마을
골목 사이사이 세월이
사뿐히 내려앉은
북정마을

코로나19 전후의 성북구 북정마을

성북구 북정마을은 숨겨진 힙플레이스로
알음알음 사람들이 꾸준히 방문하고 있다.
코로나 19 이전과 이후의 비교가 무색할 만큼
북정마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한적한
골목길을 느끼며 북정마을의 정취를 느끼고
있다. 다만 수도권 확진자가 급증한 6월 이후
북정마을을 찾는 여행자의 발길도 뜸해졌다.

추천 여행 방법

북정마을은 하늘길 공원, 한양도성으로 이어지는
산책길이 필수 연계코스이다. 다른 도심구역에서
만나기 힘든 자연과 함께하는 산책길은 계절마다
색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다. 더불어 성북동에 가면
아기자기 예쁜 맛집과 카페들이 자리잡고 있어서
연인과 함께 알찬 데이트코스를 완성할 수 있다.

방문하기 좋은 베스트 타이밍

북정마을은 사진 찍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 서울 야경 출사지이기도 하다.
성북동 맛집에서 이른 저녁을 먹고 오후 7시쯤
나서면 차막힘 없이 여유롭게 움직일 수 있다.
낮에는 산책길을 따라 계절을 즐겼다면, 밤에는
아름답게 빛나는 도심 야경을 내려다보며
새로운 멋을 느껴보시길.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에 자리잡은 북정마을은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라는 애칭이 붙을 정도로
오래된 정취를 간직한 동네이다. 도시재생의
성공사례로도 뽑히는 북정마을은 마을사람들이
만들어내는 다양한 이야기가 마을 곳 곳, 거리
마다 스며들어 북정마을만의 독특함을 유지하고
있다. 북큐레이션이라는 독특한 컨셉을 갖고
있던 독립서점(현재는 다른 지역으로 이전)과
소담스럽지만 정겨운 거리의 모습으로
골목길 여행을 즐기는 젊은이들에게 숨겨진
힙플레이스로 이름을 알리고 있다.

5

자연과 레저가 함께하는 여행지

춘천의암호자전거길, 요즘은 건강이 힙! 낭만은 덤!



강원도 춘천시 스포츠타운길에 위치한
춘천의암호자전거길(물레길)은

'스포츠타운길'이라는 지명과 너무나 찰떡같은
여행지이다. 물레길과 공자천을 잇는 자전거길로
의암호를 바라보며 즐기는 라이딩이 일품이다.
'춘천'과 '의암호'가 너무 90년대 낭만이라고
본다면 오산이다. 요즘 대세는 '건강',
코로나19의 위협 속에 안전과 건강이 최고의
미덕으로 떠오른 지금! 안전하게 건강하게
여행할 수 있는 라이딩이야 말로 최고의
잇템이다. 최고의 잇템을 장착하고 의암호를
바라보며 춘천의 낭만을 즐겨보는 것도
이색적이지 않을까.



코로나 19 전후의 춘천의암호물레길

코로나19 이후 라이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춘천의암호물레길 또한 여행자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라이딩을 즐기기 좋은 4월에는
전년대비 100% 이상 증가한 라이더들이 물레길을
찾았다.

추천 여행 방법

의암호물레길은 카누체험장으로도 유명하다.
자전거로 물레길을 열심히 달려왔다면 잠시
카누를 타고 여유롭게 호수를 가로질러보는
것도 색다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다. 한낮에는
더울 수 있으니 선글라스와 모자는 필수! 주변에
의암호를 바라보고 있는 KT&G 춘천상상마당과
댄싱카페인이 자리잡고 있으니, 짊음과 예술을
느끼며 커피 한 잔을 즐기는 것도 추천한다.

방문하기 좋은 베스트 타이밍

많은 여행지가 그러하듯 일주일 중 가장
여행을 많이 가는 토요일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의암호물레길을 찾는다. 북적이는
것이 싫다면 일요일에 방문하기를 추천하며,
땡볕이 쏟아지는 한 여름을 제외하면
오후 2시쯤 꽉막힌 도로를 피해 여유롭게
이동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코로나 19 특집

/

언택트 시대에 더 빛나는 카카오 T

안전한 이동을 위한 카카오 T 택시의 노력

지하철이 없는 도시는 흔하지만, 택시가 없는 도시는 찾기 힘들다. 최근 들어서는 버스 운영이 힘든 농어촌 도시에 호출에 기반한 '100원 택시'가 대안으로 등장하기도 했다. 카카오 T 택시는 다수의 이용자가 이용하는 데 따르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시민들의 안전한 이동이 가능하도록 카카오 T 택시는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였다.

접촉이 필요 없는 카카오 T 자동결제

카카오 T 택시가 이룬 첫 번째 모빌리티 혁신은 바로 '요금 자동결제'이다. 요금 자동결제란, 말 그대로 택시요금이 자동으로 결제되는 서비스이다. 택시 이용자가 미리 카카오 T 앱에 신용카드를 등록해두면, 하차 시에 등록된 카드를 사용하여 자동으로 결제가 이뤄진다. 거스름돈이 부족해 기사가 당황할 일도, 지갑을 놓고 와서 찔찔매는 경우도 없다. (돈이 부족한 그를 위해 누군가 택시를 대신 불러줄 수도 있다!) 참! 간편하다.

서비스의 편리함을 인지하여, 자동결제 서비스 이용자는 매년 빠르게 증가했다. 택시하면 으레 떠오르던 기사와 택시 이용자가 카드나 현금을 건네는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자동결제 호출 고객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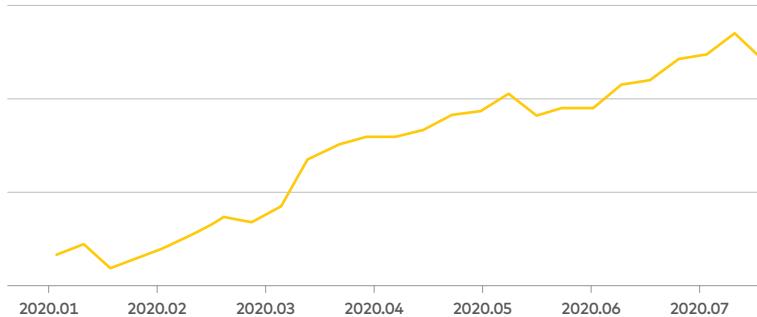
• 자동결제 호출 고객 비율 | 2019년 1월~2020년 7월, 중형 일반 택시의 자동결제 호출 고객 비율

코로나 확산에 점차 늘어난 자동결제 고객

편리한 자동결제 기술은 언택트 시대에 특히 빛을 발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가 피부 표면에서 특히 오래 버틴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요즘 자동결제는 손을 통한 간접 접촉을 줄여 바이러스 확산을 예방하는 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이를 방증하듯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함께 전국적으로 자동결제 호출서비스 이용자 비율(전체 호출 고객 대비)은 코로나 발생 전과 비교시 8%p 증가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심각했던 주요 도시 3곳(대구, 서울, 대전)의 자동결제 호출서비스 이용자 비율을 살펴본 결과, 동기간 급속히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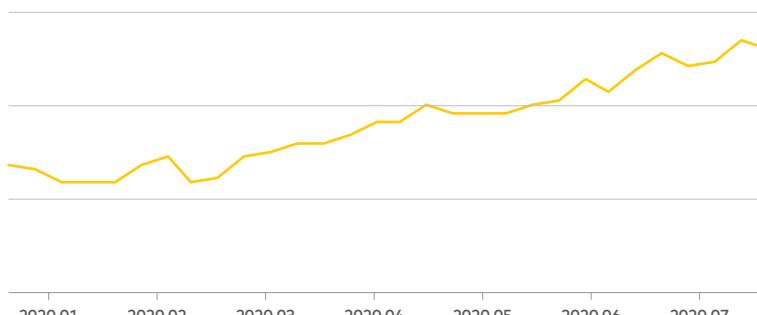
자동결제 고객 비율 | 전국



서울 (수도권)

서울의 자동결제 호출서비스 이용자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초기부터 꾸준히 증가했다. 타 지역에 비해 이미 높은 수준으로 자동결제 호출서비스 이용자 비율을 견인해 나갔던 이 지역은 코로나 발생 전 대비 8%p 정도의 상승세를 보였다. 타 지역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초기인 2월부터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자동결제 고객 비율 | 서울 (수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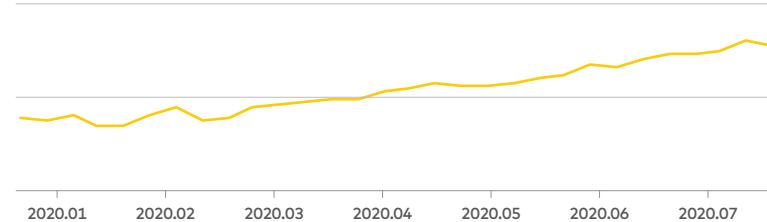


- 코로나 발생 전인 1월 초 대비 7월 말의 전국 자동결제 이용고객 비율 비교
- 서비스 확대로 인한 이용자 증가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중형택시 일반 이용자의 경우만 분석함
- Untact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사람과 접촉하지 않는 경향이나 형태를 일컬음

대구 (경북)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31번째 확진자 발생한 이후 대구/경북 중심으로 확진자가 폭증했고, 정부가 감염병 경보 위기를 최고 수준인 '심각'으로 격상한 2월 말 중심으로 자동결제 이용자 비율이 급증했다. 3월 대구 및 경북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정되면서 계속 증가세가 이어졌다. 코로나 발생 전 대비 6%p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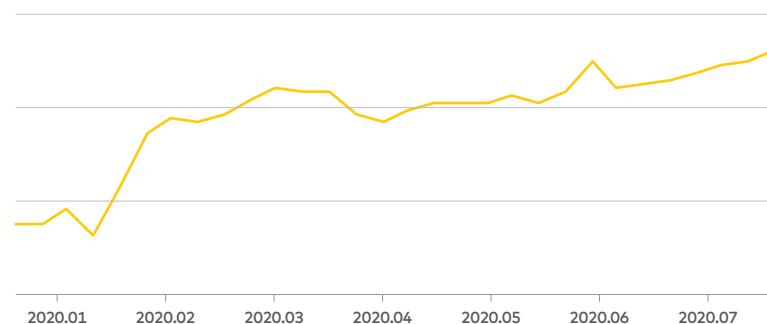
자동결제 고객 비율 | 대구 (경북)



대전 (충남)

대전은 3월 한때 호출서비스 이용자의 급격한 감소와 더불어 자동결제 호출서비스 이용자도 잠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충남 지역의 뒤늦은 확산세와 4월 무렵부터 급속히 증가했다. 코로나 발생 전 대비 최대 6%p 증가했는데, 이 추세는 잠시 완화되었다가 대전시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된 6월 중순부터 다시 증가했다.

자동결제 고객 비율 | 대전 (충남)



시시각각 변화하는 코로나 19에 맞서는 카카오 T 택시의 자세

바이러스가 급격히 확산되며 전 국민이 두려움에 떨던 3월, 카카오 T 택시는 더 이상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전국 800만 명의 카카오 T 특채널 구독자 대상으로 전 국민 안전 이동 수칙과 자동결제 이용 메시지를 전파했다. 또한 메인화면, 호출 중, 탑승 중에도 계속하여 '안전 이동' 배너를 게시하여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봄은 되었지만, 나갈 수 없는.. 그대를 위한'

4월 여느 때처럼 벚꽃은 만개했지만, 확진자 1만명에 육박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는 여느때보다 더 강화되었다. 그런 이용자들의 아쉬움을 달래고자, 카카오 T 택시는 "랜선 꽃놀이"를 선물했다. 이용자들이 카카오 T 앱을 켜면 화면에 벚꽃이 흘날렸고, 앱을 통해 기사를 호출하면 벚꽃잎을 흘날리며 달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작은 변화였지만, 사실 이건 더 큰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일종의 넛지(Nudge)였다. 이용자의 흥미를 끈 후, 카카오 T 택시는 이를 통해 '안전이동수칙'을 더욱 명확하고 적극적으로 알렸다. 더 이상의 피해를 막기 위한 카카오 T 택시의 슬기로운 노력은 계속되었다.

카카오 T 안전이동 캠페인

카카오 T와 함께
메리 크리스마스~

카카오 T의
안전이동 프로젝트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생활방역을 통해
모두의 이동 환경을 지켜나가겠습니다.

카카오 T블루

- 전 차량 손소독제 비치
- 전 차량 전문 방역 및 차량 내 살균 진행
- 살균제 제공 및 이용 방법 전파 교육 진행

카카오 T 대리

- 기사 마스크 착용 캠페인 시행
- 선착순 5만명 마스크 구매금 5천원 지원

카카오 T 바이크

- 핸들, 안장, 브레이크 등 주기적으로 소독
- 자전거 창고, 운영 트릭 등 바이크 운영 거점소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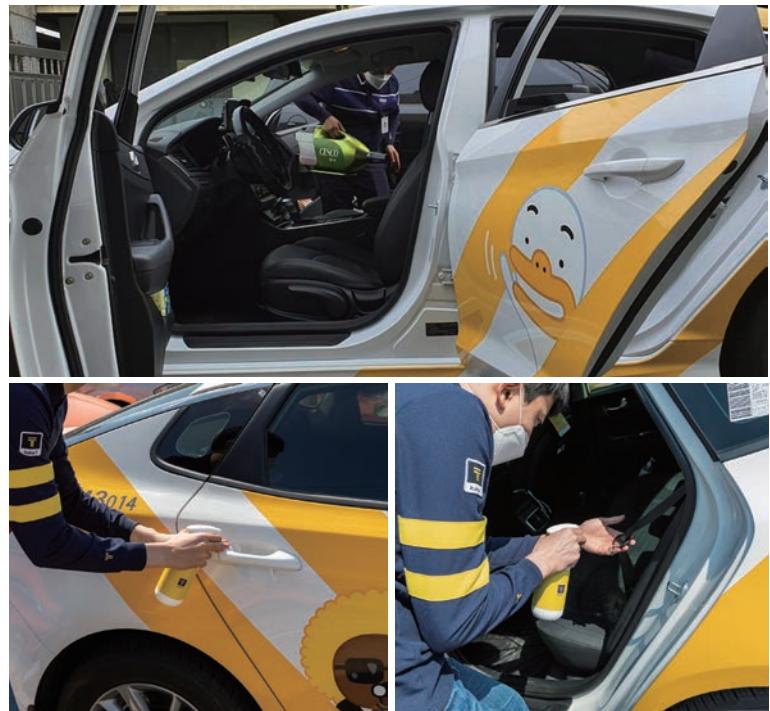
이용자 대상 캠페인

'어느덧 일상이 된 코로나..'

지역사회 내 추가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적 노력에 발맞춰, 카카오 T 택시는 이용자들에게 안전한 이동 생활을 위한 3가지 규칙(마스크 착용/ 자동결제 이용/ 차량 환기)을 분명하게 전달했다. 처음보다 더 많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를 발송했고, 앱 내 배너 뿐 아니라 소셜 컨텐츠를 통해 '안전이동'을 위한 카카오 T의 메시지를 널리 알렸다.

이외에도 모든 카카오 T 블루 전차량에 이용자과 기사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손소독제를 비치했으며,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심각한 대구 지역의 차량의 경우, 전차량 필터를 미세먼지와 바이러스를 걸러주는 HEPA필터로 교체하였다. 또한 카카오 T 블루/벤티/ 블랙 크루(기사) 마스크를 제공하고, 청결을 위한 온라인 교육을 시행했다. 모두의 안전한 택시 이용 생활을 위해, 오늘도 카카오 T 택시는 열심히 달린다.

코로나 19 블루 차량소독 및 기사 교육 영상



위기가 가져온 변화, 카카오 T 주차의 성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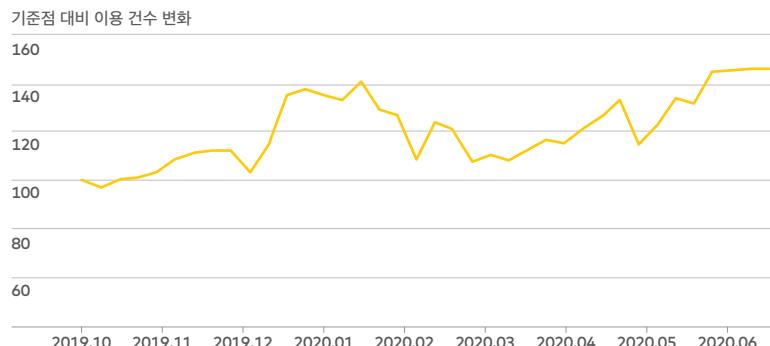
'코로나 19'의 확산은 우리의 이동 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카카오 T 주차 서비스 이용자들의 이용 행태를 통해 코로나 19가 주차장 수요 및 비대면 접촉 결제 수요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자.

코로나19 이후 오히려 이용량이 증가

2020년 2월 이후 카카오 T 주차의 이용 완료, 이용자수 모두 증가했다. 첫 번째 이유는 코로나 19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을 기피하고 자차로 이동하는 수요의 증가로 보여진다. 두 번째는 언택트 결제를 할 수 있는 자동결제에 대한 이용자의 니즈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안전하게 주차할 수 있다는 것 또한 코로나 19로 인해 접촉을 최소화하려는 사람들이 카카오 T 주차를 이용하게 된 요인으로 보여진다.

판교 공영 주차장은 판교 오피스 빌딩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있는 대표적인 공영 주차장으로 주로 출퇴근 차량의 주차 비중이 상당히 높은 주차장이다. 코로나 19 확진자가 급증한 2월 말부터 7월 중순까지 판교 공영 주차장에서 자동결제로 요금을 정산한 이용자는 이전 동기간 대비 약 26% 증가했다. 사람들이 밀집되어 있는 대중교통을 기피하고 자차 이동 수단을 이용한 출퇴근족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주차 요금 결제 시 비대면 모바일 결제를 선택하는 이용자 또한 증가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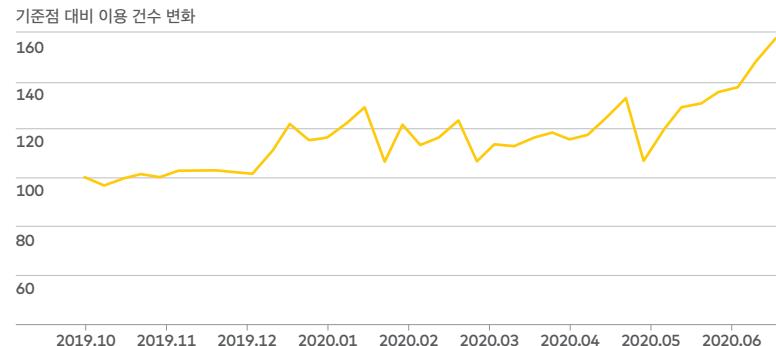
카카오 T 주차 자동정산 이용 건수 추이



카카오 T 전체 제휴 주차장의 사전예약과 자동정산 이용 비율 역시 코로나 19 확진자 급증 이전 대비 약 15% 상승했다. 카카오 T 앱에서 언택트 자동결제를 홍보하고 자차 이동의 증가에 따라 주차 수요도 비례하여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카카오 T 주차로 비대면 모바일 결제를 함으로써 안전하게 주차요금을 결제하는 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기대해본다.

카카오 T 주차 이용완료 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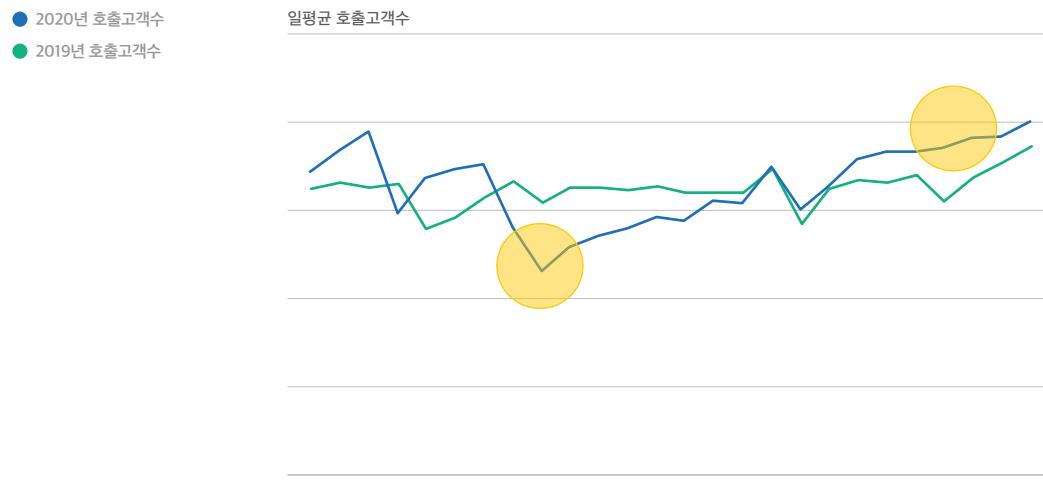


언택트 시대에 부응한 카카오 T 대리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은 대리운전 호출을 크게 감소 시켰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조되면서 사람들의 만남이 크게 감소한 탓이 컸다. 코로나19 대구 지역감염이 확산되던 2월말 카카오 T 대리를 이용한 이용자수는 전년 대비 최대 25%까지 감소하였다. 하지만 코로나19의 장기화 조짐 속에 생활 속 거리두기가 길어지면서 새로운 일상이 재개되었다. 코로나19 전국적 확산 초기의 급격한 패닉처럼 모든 만남을 줄이기보다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유지하며 필요한 만남과 술자리를 가지기 시작하였다.

일상의 재개 속에서 언택트가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면서 카카오 T 대리와 같이 대면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가하였다. 카카오 T 대리는 전화 대리와 달리 출발지와 목적지를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고, 서비스 이용 이후에도 자동결제를 통해서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결과로 4월말 이후 카카오 T 대리 이용자수는 전년도 대비 최대 20% 이상 증가하는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전후 카카오 T 대리 호출 변화



• 코로나19 전후 카카오 T 대리 호출 변화 | 카카오 T 대리 일평균 호출고객수 기준

언택트 시대의 대리운전

카카오 T로
대리타자



차량 탑승 후에도
마스크를 착용해주세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위해
뒷좌석에 앉아주세요



카카오내비 전국 핫플레이스

19년7월 ~ 20년6월, 운행완료 기준

전국 TOP 100

순위	장소	지역	순위변동
1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인천 중구	+0
2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서울 강서구	+0
3	스타필드 하남	경기 하남시	+2
4	광명역	경기 광명시	+0
5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인천 중구	-2
6	강남역 2호선	서울 강남구	+1
7	스타필드 고양	경기 고양시	+1
8	서울역	서울 용산구	+1
9	서울아산병원	서울 송파구	+3
10	서울고속버스터미널(경부)	서울 서초구	+0
11	부산역	부산 동구	+10
12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	경기 김포시	+8
13	수원역 1호선	경기 수원시	-7
14	사당역 2호선	서울 관악구	-1
15	삼성서울병원	서울 강남구	+9
16	합정역 2호선	서울 마포구	-1
17	동서울종합터미널	서울 광진구	+1
18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기흥점	경기 용인시	+17
19	현대백화점 판교점	경기 성남시	-2
20	김해국제공항	부산 강서구	+3
21	제주국제공항	제주 제주시	+9
22	이케아 고양점	경기 고양시	-11
23	홍대입구역 2호선	서울 마포구	-4
24	이케아 광명점	경기 광명시	-10
25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경기 성남시	+0
26	대전역	대전 동구	+3
27	신림역 2호선	서울 관악구	-1
28	을왕리해수욕장	인천 중구	+16
29	잠실역 2호선	서울 송파구	-7
30	소래포구종합어시장	인천 남동구	+3
31	용산역	서울 용산구	-4
32	동대구역	대구 동구	-1
33	수서역 3호선	서울 강남구	+3
34	서울대학교병원	서울 종로구	+9
35	대전복합터미널	대전 동구	-1
36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	경기 시흥시	new
37	수원시청	경기 수원시	+3
38	평택역	경기 평택시	+13
39	영등포역	서울 영등포구	+0
40	속초관광수산시장 주차장	강원 속초시	+41
41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서울 서초구	+16
42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	인천 연수구	-1
43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부산 해운대구	+12
44	오송역	충북 청주시	+9
45	광주송정역	광주 광산구	+9
46	인천국제공항	인천 중구	-30
47	부평역 1호선	인천 부평구	-15
48	대천해수욕장	충남 보령시	+29
49	천안아산역	충남 아산시	-7
50	동탄역	경기 화성시	+13

서울 TOP 50

순위	장소	지역	순위변동
51	건대입구역 2호선	서울 광진구	-14
52	야탑역 분당선	경기 성남시	-14
53	코스트코 공세점	경기 용인시	+13
54	안양역	경기 안양시	-4
55	이케아 기흥점	경기 용인시	new
56	에버랜드	경기 용인시	-10
57	상록수역 4호선	경기 안산시	-12
58	울산역	울산 울주군	+18
59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경기 여주시	new
60	서울남부터미널	서울 서초구	-13
61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이천점	경기 이천시	+6
62	아주대학교병원	경기 수원시	+9
63	인천종합터미널	인천 미추홀구	-3
64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파주점	경기 파주시	+9
65	모란역 8호선	경기 성남시	-3
66	의정부역 1호선	경기 의정부시	-1
67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충북 청주시	+5
68	수원역	경기 수원시	new
69	코스트코 하남점	경기 하남시	new
70	파주 프리미엄 아울렛	경기 파주시	new
71	강서구청	서울 강서구	-2
72	천호역 5호선	서울 송파구	-14
73	서현역 분당선	경기 성남시	-24
74	유스퀘어광주버스터미널	광주 서구	-18
75	미금역 분당선	경기 성남시	+0
76	인덕원역 4호선	경기 안양시	-15
77	천안고속버스터미널	충남 천안시	+5
78	우리집	경기 화성시	+30
79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동부산점	부산 기장군	+38
80	코엑스	서울 강남구	-32
81	정자역 분당선	경기 성남시	-13
82	광안리해수욕장	부산 수영구	+10
83	해운대해수욕장	부산 해운대구	+57
84	부천역 1호선	경기 부천시	-14
85	코스트코 양재점	서울 서초구	+3
86	수원버스터미널	경기 수원시	-3
87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부산 부산진구	+28
88	코스트코 일산점	경기 고양시	+11
89	판교역 신분당선	경기 성남시	-9
90	코스트코 광명점	경기 광명시	+1
91	전주한옥마을	전북 전주시	new
92	선릉역 2호선	서울 강남구	-8
93	월미도	인천 중구	+62
94	신사역 3호선	서울 강남구	-15
95	역삼역 2호선	서울 강남구	-8
96	타임스퀘어	서울 영등포구	+38
97	수지구청	경기 용인시	+9
98	양재역 3호선	서울 서초구	-70
99	하남시청	경기 하남시	+14
100	화성시청	경기 화성시	+14

강원 TOP 25

순위	장소	지역	순위변동
1	속초관광수산시장 주차장	강원 속초시	+1
2	속초해수욕장	강원 속초시	new
3	원주시외버스터미널	강원 원주시	+1
4	강원랜드	강원 정선군	-3
5	안목해변	강원 강릉시	+2
6	강릉중앙시장	강원 강릉시	+10
7	경포대	강원 강릉시	-2
8	주문진수산시장	강원 강릉시	+6
9	경포해변	강원 강릉시	+6
10	주문진항	강원 강릉시	+1
11	강릉시청	강원 강릉시	+1
12	속초관광수산시장	강원 속초시	+5
13	원주시청	강원 원주시	+0
14	대포항	강원 속초시	-4
15	정동진해변	강원 강릉시	+3
16	소노밸 비발디파크	강원 홍천군	new
17	세인트존스경포호텔	강원 강릉시	+31
18	동화가든	강원 강릉시	+16
19	쏠비치 삼척	강원 삼척시	new
20	강릉역	강원 강릉시	+3
21	이마트 속초점	강원 속초시	+1
22	춘천시청	강원 춘천시	+5
23	설악케이블카	강원 속초시	-3
24	용평리조트	강원 평창군	+11
25	강릉카페거리	강원 강릉시	-4

경기 TOP 25

순위	장소	지역	순위변동
1	스타필드 하남	경기 하남시	+1
2	광명역	경기 광명시	-1
3	스타필드 고양	경기 고양시	+1
4	현대프리미엄아울렛 김포점	경기 김포시	+4
5	수원역 1호선	경기 수원시	-2
6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기흥점	경기 용인시	+4
7	현대백화점 판교점	경기 성남시	+0
8	이케아 고양점	경기 고양시	-3
9	이케아 광명점	경기 광명시	-3
10	분당서울대학교병원	경기 성남시	-1
11	시흥 프리미엄 아울렛	경기 시흥시	new
12	수원시청	경기 수원시	+0
13	평택역	경기 평택시	+4
14	동탄역	경기 화성시	+6
15	아트역 분당선	경기 성남시	-4
16	코스트코 공세점	경기 용인시	+6
17	안양역	경기 안양시	-1
18	이케아 기흥점	경기 용인시	new
19	에버랜드	경기 용인시	-5
20	상록수역 4호선	경기 안산시	-7
21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경기 여주시	new
22	롯데프리미엄아울렛 이천점	경기 이천시	+1
23	아주대학교병원	경기 수원시	+3
24	롯데프리미엄아울렛 파주점	경기 파주시	+3
25	모란역 8호선	경기 성남시	-6

경남 TOP 25

순위	장소	지역	순위변동
1	롯데프리미엄아울렛 김해점	경남 김해시	+0
2	양산부산대학교병원	경남 양산시	+0
3	김해시청	경남 김해시	+0
4	창원시청	경남 창원시	+1
5	롯데마트 장유점	경남 김해시	+1
6	중앙전통시장	경남 통영시	+1
7	마산시외버스터미널	경남 창원시	+1
8	진주시청	경남 진주시	+1
9	통도사	경남 양산시	+3
10	마산역	경남 창원시	+6
11	바람의언덕	경남 거제시	+2
12	이마트 양산점	경남 양산시	-1
13	거제시청	경남 거제시	+2
14	한화리조트 거제밸버디어	경남 거제시	+7
15	독일마을	경남 남해군	+7
16	밀양시청	경남 밀양시	+2
17	롯데백화점 창원점	경남 창원시	+8
18	통영시청	경남 통영시	-1
19	창원역	경남 창원시	+4
20	양산시청	경남 양산시	+4
21	통영케이블카	경남 통영시	-17
22	김해센텀도산위브더제니스아파트	경남 김해시	+78
23	진주시외버스터미널	경남 진주시	-9
24	밀양역	경남 밀양시	+7
25	인제대학교 김해캠퍼스	경남 김해시	+1

광주 TOP 25

순위	장소	지역	순위변동
1	광주송정역	광주 광산구	+0
2	유스퀘어광주버스터미널	광주 서구	+0
3	광주광역시청	광주 서구	+0
4	신세계백화점 광주점	광주 서구	+1
5	전남대학교병원	광주 동구	-1
6	드메르웨딩홀	광주 광산구	+3
7	롯데백화점 광주점	광주 동구	-1
8	광주공항	광주 광산구	+0
9	롯데아울렛 광주수원점	광주 광산구	-2
10	NC웨이브 충장점	광주 동구	+0
11	광주역	광주 북구	+0
12	유스퀘어광주종합버스터미널	광주 서구	new
13	광주대학교	광주 남구	-1
14	수완지구대	광주 광산구	+2
15	조선대학교	광주 동구	+66
16	롯데마트 첨단점	광주 광산구	-1
17	첨단종합병원	광주 광산구	-3
18	이마트 봉선점	광주 남구	+2
19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 서구	-6
20	천지장례식장	광주 서구	+7
21	홈플러스 동광주점	광주 북구	-2
22	조선대학교병원	광주 동구	+1
23	광주여자대학교	광주 광산구	-1
24	호남대학교	광주 광산구	-6
25	웨딩그룹위더스 광주	광주 서구	+7

대전 TOP 25

순위	장소	지역	순위변동
1	대전역	대전 동구	+0
2	대전복합터미널	대전 동구	+0
3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	대전 서구	+0
4	국립대전현충원	대전 유성구	+0
5	롯데백화점 대전점	대전 서구	+0
6	대전광역시청	대전 서구	+0
7	충남대학교병원	대전 중구	+1
8	이마트트레이더스 월평점	대전 서구	+7
9	서대전역	대전 중구	+1
10	건양대학교병원	대전 서구	-1
11	신탄진역	대전 대덕구	+1
12	유성IC	대전 유성구	-5
13	코스트코 대전점	대전 중구	-2
14	대전IC	대전 대덕구	+3
15	목원대학교	대전 서구	-1
16	홈플러스 유성점	대전 유성구	+0
17	성심당 본점	대전 중구	-4
18	이마트 둔산점	대전 서구	+1
19	반석역 대전1호선	대전 유성구	-1
20	모다아울렛 대전점	대전 유성구	+4
21	라도무스아트센터	대전 유성구	-1
22	신탄진IC	대전 대덕구	+3
23	대전역 동광장	대전 동구	-1
24	세이백화점	대전 중구	+2
25	대전지방법원	대전 서구	+10

경북 TOP 25

순위	장소	지역	순위변동
1	영일대해수욕장	경북 포항시	+2
2	죽도시장	경북 포항시	-1
3	구미역	경북 구미시	-1
4	황리단길	경북 경주시	+3
5	포항시청	경북 포항시	+0
6	첨성대	경북 경주시	-2
7	호미곶	경북 포항시	+9
8	신경주역	경북 경주시	+1
9	경주시외버스터미널	경북 경주시	-1
10	강구항	경북 영덕군	+3
11	포항역	경북 포항시	+3
12	경주보문관광단지	경북 경주시	-1
13	동궁과월지	경북 경주시	-3
14	경주시청	경북 경주시	+1
15	영남대학교 경산캠퍼스	경북 경산시	-3
16	구미시청	경북 구미시	+1
17	경주역	경북 경주시	+2
18	영천시청	경북 영천시	+5
19	문경시청	경북 문경시	+3
20	포항터미널	경북 포항시	+1
21	김천역	경북 김천시	-1
22	안동시청	경북 안동시	+3
23	김천(구미)역	경북 김천시	+4
24	불국사	경북 경주시	-18
25	경상북도청	경북 안동시	+1

대구 TOP 25

순위	장소	지역	순위변동
1	동대구역	대구 동구	+0
2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대구 동구	+0
3	대구국제공항	대구 동구	+0
4	수성못	대구 수성구	+0
5	현대백화점 대구점	대구 종구	+0
6	대구역	대구 종구	+1
7	칠곡경북대학교병원	대구 북구	+6
8	코스트코 대구점	대구 북구	+2
9	영남대학교병원	대구 남구	+3
10	서문시장	대구 종구	-4
11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대구 달서구	new
12	대구부성경류장	대구 남구	-1
13	코스트코 대구혁신도시점	대구 동구	-5
14	대구광역시청	대구 종구	-5
15	복대구IC	대구 북구	-1
16	경북대학교병원	대구 종구	+0
17	롯데아울렛 이시아폴리스점	대구 동구	+3
18	홈플러스 성사점	대구 달서구	+0
19	이마트트레이더스 비산점	대구 서구	+5
20	수성IC	대구 수성구	+2
21	동대구역 2주차장	대구 동구	+44
22	이마트 월배점	대구 달서구	-1
23	동대구터미널	대구 동구	-6
24	EXCO	대구 북구	-9
25	대구파티마병원	대구 동구	+0

부산 TOP 125

순위	장소	지역	순위변동
1			

세종 TOP 25

순위	장소	지역	순위변동
1	코스트코 세종점	세종특별자치시	+0
2	조치원역	세종특별자치시	+0
3	이마트 세종점	세종특별자치시	+0
4	세종특별자치시청	세종특별자치시	+0
5	홈플러스 세종점	세종특별자치시	+1
6	세종호수공원	세종특별자치시	+1
7	세종고속시외버스터미널	세종특별자치시	-2
8	우리집	세종특별자치시	+1
9	은하수공원 장례식장	세종특별자치시	+1
10	부강역	세종특별자치시	+1
11	CGV 세종점	세종특별자치시	-3
12	가재마을5단지세종엠코타운아파트	세종특별자치시	+0
13	고복저수지	세종특별자치시	+12
14	새샘마을3단지세종모아미래도리버시티	세종특별자치시	+48
15	수루배마을1단지아파트	세종특별자치시	new
16	가온마을3단지아파트	세종특별자치시	new
17	가재마을4단지세종센트레빌아파트	세종특별자치시	+59
18	가재마을9단지아파트	세종특별자치시	-2
19	산장가든	세종특별자치시	+33
20	첫마을7단지래미안아파트	세종특별자치시	-3
21	스타벅스 세종다정DT점	세종특별자치시	new
22	수루배마을4단지아파트	세종특별자치시	new
23	정부세종청사	세종특별자치시	-10
24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세종특별자치시	-9
25	국립세종도서관	세종특별자치시	-11

울산 TOP 25

순위	장소	지역	순위변동
1	울산역	울산 울주군	+0
2	울산광역시청	울산 남구	+0
3	간절곶	울산 울주군	+1
4	울산대학교	울산 남구	-1
5	현대백화점 울산점	울산 남구	+1
6	롯데백화점 울산점	울산 남구	-1
7	울산시외버스터미널	울산 남구	+0
8	울산대학교병원	울산 동구	+0
9	코스트코 울산점	울산 북구	+0
10	일산해수욕장	울산 동구	+0
11	진하해수욕장	울산 울주군	+2
12	이마트 울산점	울산 남구	+0
13	울산공항	울산 북구	-2
14	태화강국가정원 십리대숲	울산 중구	new
15	신복로터리	울산 남구	+0
16	태화강역	울산 남구	+1
17	언양기와집불고기	울산 울주군	-3
18	울산지방법원	울산 남구	+5
19	홈플러스 울산점	울산 중구	+0
20	더골프클럽	울산 울주군	new
21	울산광역시동구청	울산 동구	+0
22	공업탑	울산 남구	+0
23	울산남구청	울산 남구	+15
24	동강병원	울산 중구	+2
25	언양읍행정복지센터	울산 울주군	+4

인천 TOP 25

순위	장소	지역	순위변동
1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인천 중구	+0
2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인천 중구	+0
3	을왕리해수욕장	인천 중구	+4
4	소래포구종합어시장	인천 남동구	+1
5	현대프리미엄아울렛 송도점	인천 연수구	+1
6	인천국제공항	인천 중구	-3
7	부평역 1호선	인천 부평구	-3
8	인천종합터미널	인천 미추홀구	+0
9	월미도	인천 중구	+3
10	주안역 1호선	인천 미추홀구	+0
11	계양구청	인천 계양구	+0
12	검단사거리	인천 서구	+1
13	인천광역시서구청	인천 서구	+5
14	이마트트레이더스 송림점	인천 동구	+3
15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	인천 미추홀구	+61
16	코스트코 송도점	인천 연수구	-2
17	동막해수욕장	인천 강화군	+6
18	인천광역시청	인천 남동구	-2
19	인하대병원	인천 중구	+1
20	인천공항 단기주차장	인천 중구	new
21	부평구청	인천 부평구	+1
22	계산역 인천1호선	인천 계양구	-3
23	인천공항 T1 P1장기주차장	인천 중구	-2
24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인천 부평구	+2
25	인천종합어시장	인천 중구	+14

전북 TOP 25

순위	장소	지역	순위변동
1	전주한옥마을	전북 전주시	+3
2	익산역	전북 익산시	+0
3	전주역	전북 전주시	+0
4	이성당 본관	전북 군산시	+11
5	군산시청	전북 군산시	+1
6	전라북도청	전북 전주시	+1
7	선유도	전북 군산시	+1
8	전주시외버스공용터미널	전북 전주시	-3
9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전북 전주시	+1
10	한국마을1 공영주차장	전북 전주시	new
11	군산시외버스터미널	전북 군산시	+0
12	전북대학교병원	전북 전주시	+2
13	군산대학교	전북 군산시	+0
14	정읍역	전북 정읍시	+5
15	남원시청	전북 남원시	+3
16	전북대학교 전주캠퍼스	전북 전주시	+1
17	롯데마트 군산점	전북 군산시	-1
18	롯데백화점 전주점	전북 전주시	+3
19	선유도해수욕장	전북 군산시	+14
20	전주대학교	전북 전주시	+2
21	이마트 군산점	전북 군산시	+3
22	체육강	전북 부안군	+9
23	원광대학교병원	전북 익산시	+5
24	무주덕유산리조트	전북 무주군	-12
25	전주시청	전북 전주시	-2

충남 TOP 25

순위	장소	지역	순위변동
1	대천해수욕장	충남 보령시	+1
2	천안아산역	충남 아산시	-1
3	천안고속버스터미널	충남 천안시	+0
4	예당호출렁다리	충남 예산군	+4
5	꽃지해수욕장	충남 태안군	+0
6	천안역 1호선	충남 천안시	-2
7	코스트코 천안점	충남 천안시	-1
8	천안시청	충남 천안시	+1
9	당진버스터미널	충남 당진시	-2
10	육군훈련소 입영심사대	충남 논산시	+6
11	신세계백화점 충청점	충남 천안시	-1
12	삼길포항	충남 서산시	+3
13	당진시청	충남 당진시	-1
14	서산공용버스터미널	충남 서산시	-3
15	단국대학교병원	충남 천안시	+4
16	공주종합버스터미널	충남 공주시	+1
17	롯데마트 부여점	충남 부여군	+6
18	만리포해수욕장	충남 태안군	+10
19	독립기념관	충남 천안시	-6
20	행담도휴게소	충남 당진시	+5
21	순천향대학교부속 천안병원	충남 천안시	new
22	온양온천역	충남 아산시	-8
23	논산시청	충남 논산시	+3
24	아산시청	충남 아산시	+0
25	서산시청	충남 서산시	+2

전남 TOP 25

순위	장소	지역	순위변동
1	여수시청	전남 여수시	+0
2	목포역	전남 목포시	+1
3	여수남만포차거리	전남 여수시	-1
4	천사대교	전남 신안군	+7
5	죽녹원	전남 담양군	+0
6	순천역	전남 순천시	+2
7	목포종합버스터미널	전남 목포시	-1
8	순천만국가정원	전남 순천시	+1
9	쓸비치 진도	전남 진도군	new
10	화순전남대학교병원	전남 화순군	+0
11	여수엑스포역	전남 여수시	-7
12	여수해상케이블카	전남 여수시	-5
13	완도연안여객터미널	전남 완도군	+0
14	광양시청	전남 광양시	+1
15	영광백수해안도로	전남 영광군	+6
16	오동도 주차장	전남 여수시	+1
17	목포해상케이블카 북항승강장	전남 목포시	new
18	전라남도청	전남 무안군	+0
19	메타프로방스	전남 담양군	+1
20	순천만습지 주차장	전남 순천시	-8
21	향일암	전남 여수시	-7
22	순천종합버스터미널	전남 순천시	-6
23	순천시청	전남 순천시	-4
24	평화광장	전남 목포시	+4
25	화순군청	전남 화순군	+1

제주 TOP 25

순위	장소	지역	순위변동
1	제주국제공항	제주 제주시	+0
2	동문재래시장	제주 제주시	+1
3	성산일출봉	제주 서귀포시	+1
4	서귀포매일일레시장	제주 서귀포시	-2
5	동문재래시장 공영주차장	제주 제주시	+0
6	함덕해수욕장	제주 제주시	+1
7	협재해수욕장	제주 제주시	-1
8	제주시청	제주 제주시	+2
9	이마트 서귀포점	제주 서귀포시	+2
10	오설록티뮤지엄	제주 서귀포시	-2
11	이마트 신제주점	제주 제주시	+2
12	세빛오름	제주 제주시	+2
13	이호테우해수욕장	제주 제주시	+3
14	월정리해수욕장	제주 제주시	-5
15	우진해장국	제주 제주시	+5
16	매일올레시장 공영주차장	제주 서귀포시	new
17	오는정김밥	제주 서귀포시	+14
18	에코랜드테마파크	제주 제주시	-6
19	용두암	제주 제주시	-2
20	애월해안도로	제주 제주시	+2
21	한화아쿠아플라넷 제주	제주 서귀포시	+4
22	이마트 제주점	제주 제주시	+12
23	심지코지 주차장	제주 서귀포시	-8
24	천지연폭포 주차장	제주 서귀포시	new
25	대포주상절리	제주 서귀포시	-7

충북 TOP 125

순위	장소	지역	순위변동

<tbl_r cells="4" ix="2" maxcspan="1" maxrspan

전국 음식점 TOP 50

순위	장소	지역	순위변동
1	이성당 본관	전북 군산시	+8
2	조양방직	인천 강화군	-1
3	동화가든	강원 강릉시	+1
4	웨이브온커피	부산 기장군	-2
5	더티트링크	경기 파주시	+20
6	송추가마골 본관	경기 양주시	+4
7	춘천통나무집닭갈비	강원 춘천시	+13
8	봉포머리집 본점	강원 속초시	-5
9	성심당 본점	대전 중구	-4
10	정초수물회 속초본점	강원 속초시	+32
11	우진해장국	제주 제주시	+6
12	스타벅스 리버사이드팔당DTR점	경기 남양주시	new
13	엄지네판장마차 본점	강원 강릉시	-6
14	테라로사커피공장	강원 강릉시	new
15	바다정원	강원 고성군	+35
16	멜다방	인천 옹진군	+31
17	투썸플레이스 창원귀산점	경남 창원시	+17
18	카페글린공원 1호점	경기 김포시	+15
19	오는정김밥	제주 서귀포시	+17
20	일산칼국수 본점	경기 고양시	-5
21	만석닭강정 본점	강원 속초시	+1
22	강강술래 늘봄농원점	경기 고양시	-8
23	속시원한대구탕	부산 해운대구	-12
24	마시랑카페	인천 중구	-3
25	봉브레드	강원 속초시	-12
26	카페산	충북 단양군	-10
27	고기리막국수	경기 용인시	+98
28	어로프슬라이스피스	경기 용인시	+3
29	양지말화로구이	강원 흥천군	-3
30	이디야커피랩	서울 강남구	-11
31	본수원갈비 수원점	경기 수원시	+1
32	목향원	경기 남양주시	+7
33	브레드쏭	경기 남양주시	new
34	지린성	전북 군산시	+12
35	가보정 1관	경기 수원시	-7
36	두물머리연학도그	경기 양평군	+60
37	포리데이	경기 남양주시	+4
38	나인블럭 팔당점	경기 남양주시	+38
39	나주곰탕하안집	전남 나주시	+4
40	헤이든	부산 기장군	+0
41	제주김만복 본점	제주 제주시	-23
42	온누리장작구이 팔당본점	경기 남양주시	-4
43	마시안제빵소	인천 중구	new
44	테라로사커피 서종점	경기 양평군	-32
45	몽상드애월	제주 제주시	-22
46	황해해물칼국수 1호점	인천 중구	+26
47	하이엔드제주	제주 제주시	-17
48	비루개	경기 남양주시	+21
49	경남호텔웨딩부페	서울 동대문구	-4
50	팔당원조칼제비칼국수	경기 하남시	+60

전국 관광지 TOP 50

순위	장소	지역	순위변동
1	을왕리해수욕장	인천 중구	+0
2	대천해수욕장	충남 보령시	+2
3	에버랜드	경기 용인시	-1
4	광안리해수욕장	부산 수영구	+1
5	해운대해수욕장	부산 해운대구	+1
6	전주한옥마을	전북 전주시	+13
7	월미도	인천 중구	+0
8	속초해수욕장	강원 속초시	new
9	강원랜드	강원 정선군	-6
10	송정해수욕장	부산 해운대구	+0
11	안목해변	강원 강릉시	+0
12	영일대해수욕장	경북 포항시	+5
13	경포대	강원 강릉시	-5
14	한국민속촌	경기 용인시	-5
15	동막해수욕장	인천 강화군	+3
16	오이도빨강등대	경기 시흥시	+4
17	헤이리예술마을	경기 파주시	-3
18	경포해변	강원 강릉시	+6
19	제부도	경기 화성시	+6
20	대부도	경기 안산시	+11
21	다대포해수욕장	부산 사하구	+20
22	꽃지해수욕장	충남 태안군	+1
23	황리단길	경북 경주시	+6
24	정동진해변	강원 강릉시	+9
25	여수남만포차거리	전남 여수시	-13
26	수성못	대구 수성구	+4
27	물왕저수지	경기 시흥시	+5
28	성산일출봉	제주 서귀포시	-12
29	남이섬	경기 가평군	-14
30	죽녹원	전남 담양군	+7
31	아침고요수목원	경기 가평군	-5
32	첨성대	경북 경주시	-4
33	함덕해수욕장	제주 제주시	+6
34	산정호수	경기 포천시	+11
35	오이도	경기 시흥시	+13
36	선유도	전북 군산시	+0
37	신사동가로수길	서울 강남구	-16
38	호미곶	경북 포항시	+14
39	협재해수욕장	제주 제주시	-4
40	송도해수욕장	부산 서구	+7
41	설악케이블카	강원 속초시	-7
42	순천만국가정원	전남 순천시	+9
43	강릉카페거리	강원 강릉시	-5
44	롯데월드	서울 송파구	-22
45	경주보문관광단지	경북 경주시	-1
46	동궁과월지	경북 경주시	-6
47	마장호수출렁다리	경기 파주시	-1
48	바람의언덕	경남 거제시	+6
49	여수해상케이블카	전남 여수시	-6
50	무의도	인천 중구	new

전국 문화공간 TOP 50

순위	장소	지역	순위변동
1	예술의전당	서울 서초구	+0
2	독립기념관	충남 천안시	+0
3	오설록타뮤지엄	제주 서귀포시	+0
4	한화아쿠아플라넷 제주	제주 서귀포시	+6
5	포천아트밸리	경기 포천시	+9
6	케이슨24	인천 연수구	+23
7	여수예술랜드	전남 여수시	new
8	더베이101	부산 해운대구	-2
9	한화아쿠아플라넷 여수	전남 여수시	+0
10	소리소	경기 남양주시	+5
11	세종문화회관	서울 종로구	+0
12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용산구	+23
13	KT&G상상마당 홍대	서울 마포구	new
14	창원컨벤션센터	경남 창원시	+4
15	한전아트센터	서울 서초구	+4
16	전쟁기념관	서울 용산구	-4
17	경기도어린이박물관	경기 용인시	-9
18	예술의전당 한가람미술관	서울 서초구	-11
19	국립경주박물관	경북 경주시	+14
20	한화아쿠아플라넷 일산	경기 고양시	new
21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서울 종로구	-5
22	한국잡월드	경기 성남시	-1
23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전북 군산시	+7
24	국립해양박물관	부산 영도구	+7
25	SEA LIFE 부산아쿠아리움	부산 해운대구	+7
26	고성공룡박물관	경남 고성군	-2
27	충무아트센터	서울 종로구	-5
28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 동구	+17
29	국립과천과학관	경기 과천시	-16
30	초원사진관	전북 군산시	+14
31	장생포고래박물관	울산 남구	-6
32	아미미술관	충남 당진시	+14
33	롯데월드아쿠아리움	서울 송파구	-13
34	KT&G상상마당	서울 마포구	-29
35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경기 과천시	+20
36	LG아트센터	서울 강남구	+6
37	국립전주박물관	전북 전주시	+33
38	모나무르	충남 아산시	new
39	부산문화회관	부산 남구	+11
40	성남아트센터	경기 성남시	-17
41	국립극장	서울 종로구	-2
42	추억의달동네	경북 경주시	-6
43	박물관은살이있다 제주중문점	제주 서귀포시	+8
44	한국민화박물관	경기 부천시	-18
45	의정부예술의전당	경기 의정부시	+7
46	국립중앙과학관	대전 유성구	+1
47	인천문화예술회관	인천 남동구	+1
48	드림씨어터	부산 남구	+73
49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서울 종로구	-21
50	제주항공우주박물관	제주 서귀포시	+29

전국 쇼핑센터 TOP 50

순위	장소	지역	순위변동
1	스타필드 하남	경기 하남시	+0
2	스타필드 고양	경기 고양시	+0
3	현대백화점 판교점	경기 성남시	+2
4	이케아 고양점	경기 고양시	-1
5	이케아 광명점	경기 광명시	-1
6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서울 서초구	+1
7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부산 해운대구	-1
8	코스트코 공세점	경기 용인시	+0
9	이케아 기흥점	경기 용인시	new
10	코스트코 하남점	경기 하남시	new
11	코스트코 양재점	서울 서초구	-2
12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부산 부산진구	+3
13	코스트코 일산점	경기 고양시	+0
14	코스트코 광명점	경기 광명시	-3
15	타임스퀘어	서울 영등포구	+5
16	롯데백화점 본점	서울 종로구	-6
17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	대전 서구	+9
18	신세계백화점 본점	서울 종로구	+1
19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서울 강남구	-3
20	현대백화점 목동점	서울 양천구	-8
21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경기 용인시	-4
22	이케아 동부산점	부산 기장군	new
23	스타필드시티 위례	경기 하남시	+19
24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대구 동구	-2
25	이마트 시화점	경기 시흥시	-2
26	현대백화점 증동점	경기 부천시	-5
27	코스트코 의정부점	경기 의정부시	+1
28	코스트코 양평점	서울 영등포구	+7
29	이마트트레이더스 송림점	인천 동구	+4
30	롯데백화점 인천터미널점	인천 미추홀구	new
31	코스트코 송도점	인천 연수구	-2
32	코스트코 부산점	부산 수영구	+9
33	코스트코 세종점	세종특별자치시	-6
34	롯데몰 김포공항점	서울 강서구	-16
35	이마트 성수점	서울 성동구	-5
36	스타필드시티 부천	경기 부천시	new
37	신도림테크노마트	서울 구로구	-23
38	코스트코 상봉점	서울 종로구	-13
39	테크노마트	서울 광진구	-7
40	이마트 김포한강점	경기 김포시	-9
41	이마트트레이더스 구성점	경기 용인시	-5
42	이마트 동탄점	경기 화성시	-3
43	가든파이브	서울 송파구	-19
44	갤러리아백화점 WEST점	서울 강남구	+3
45	현대백화점 무역센타점	서울 강남구	-2
46	이마트트레이더스 킨텍스점	경기 고양시	-8
47	홈플러스 영통점	경기 수원시	-13
48	라페스타	경기 고양시	-3
49	이마트트레이더스 월계점	서울 노원구	new
50	현대백화점 킨텍스점	경기 고양시	-13

카카오 T 택시

전국 핫플레이스

19년7월 ~ 20년6월, 장소(POI)검색으로 운행완료 기준

전국 TOP 50

순위	출발지	지역	순위변동
1	미래에셋센터원빌딩	서울 중구	+3
2	이태원역 6호선	서울 용산구	+0
3	강남 파이낸스센터빌딩	서울 강남구	+7
4	유창빌딩	서울 서초구	new
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 서초구	+4
6	이태원119안전센터	서울 용산구	+0
7	이태원역 6호선 4번출구	서울 용산구	new
8	H스퀘어 N동	경기 성남시	+4
9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H3정문	경기 화성시	+21
10	콘래드서울	서울 영등포구	-2
11	중흥S-클래스스카이31오피스텔	광주 서구	+15
12	SK하이닉스 청주제1공장	충북 청주시	+34
13	사당역 2호선 5번출구	서울 관악구	+8
14	종각역 1호선 12번출구	서울 종로구	-1
15	중앙보훈병원역 9호선 3번출구	서울 강동구	new
16	OneFC	서울 영등포구	+6
17	천안아산역	충남 아산시	+0
18	함정역 6호선 8번출구	서울 마포구	+10
19	범내골역한라비발디STUDIO422	부산 부산진구	+31
20	신사역 3호선 8번출구	서울 강남구	+13
21	노보텔앰배서더 서울용산	서울 용산구	+13
22	KT&G상상마당 홍대	서울 마포구	new
23	CGV 강남점	서울 강남구	-5
24	서울스퀘어	서울 종구	+1
25	LG트윈타워	서울 영등포구	-1
26	삼성전자 기숙사	경기 용인시	-7
27	여의도역 5호선 3번출구	서울 영등포구	+11
28	KGIT센터	서울 마포구	+8
29	희망드림아파트	강원 동해시	+11
30	가산디지털단지역 7호선 6번출구	서울 금천구	+2
31	로터스프라자	인천 부평구	+34
32	상암동DMCC디지털큐브	서울 마포구	+26
33	시그니엘서울	서울 송파구	new
34	아크 플레이스	서울 강남구	+72
35	시그니쳐타워	서울 종구	+6
36	D타워	서울 종로구	+55
37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서울 강서구	-30
38	알파돔타워	경기 성남시	new
39	월드프라자	경기 수원시	+13
40	수서역 SRT고속철도 3번출구	서울 강남구	-13
41	라마다프라자체주호텔	제주 제주시	-10
42	NAVER그린팩토리	경기 성남시	+90
43	정자역 분당선	경기 성남시	+10
44	제주국제공항	제주 제주시	-1
45	동탄역	경기 화성시	-16
46	강남역 신분당선 5번출구	서울 서초구	-2
47	태영빌딩	서울 영등포구	+19
48	서경빌딩	서울 송파구	+8
49	동탄역 SRT고속철도 2번출구	경기 화성시	-33
50	유탑유블레스오피스텔	광주 서구	new

순위	도착지	지역	순위변동
1	제주국제공항	제주 제주시	+2
2	유스퀘어광주버스터미널	광주 서구	-1
3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서울 강서구	-1
4	동대구역	대구 동구	+1
5	대전역	대전 동구	-1
6	부산역	부산 동구	+0
7	서울역	서울 용산구	+1
8	광주송정역	광주 광산구	+2
9	광명역	경기 광명시	+0
10	대전복합터미널	대전 동구	+2
11	천안아산역	충남 아산시	+3
12	수원역	경기 수원시	+9
13	청주시외버스터미널	충북 청주시	+2
14	원주시외버스터미널	강원 원주시	-1
15	수서역	서울 강남구	+3
16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	대전 서구	+1
17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인천 중구	-10
18	용산역	서울 용산구	+2
19	구미역	경북 구미시	-3
20	수원역 1호선	경기 수원시	-9
21	오송역	충북 청주시	+4
22	인천종합터미널	인천 미추홀구	+2
23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전북 전주시	-1
24	천안고속버스터미널	충남 천안시	-5
25	익산역	전북 익산시	+6
26	제주시청	제주 제주시	+1
27	수원버스터미널	경기 수원시	-4
28	전주시외버스공용터미널	전북 전주시	+2
29	천안터미널	충남 천안시	+23
30	전주역	전북 전주시	+4
31	평택역	경기 평택시	-2
32	범계역 4호선	경기 안양시	-6
33	서울고속버스터미널(경부)	서울 서초구	-1
34	울산역	울산 울주군	+7
35	신림역 2호선	서울 관악구	+3
36	동서울종합터미널	서울 광진구	-3
37	서대문역	대전 종구	+5
38	강릉시외버스터미널	강원 강릉시	+2
39	홍대입구역 2호선	서울 마포구	-4
40	상록수역 4호선	경기 안산시	+10
41	수서역 SRT고속철도 1번출구	서울 강남구	+4
42	현대백화점 울산점	울산 남구	+5
43	강릉역	강원 강릉시	+22
44	서울아산병원	서울 송파구	+11
45	부평역 1호선	인천 부평구	-8
46	안산버스터미널	경기 안산시	-2
47	천안역	충남 천안시	+6
48	인덕원역 4호선	경기 안양시	-2
49	강남역 2호선	서울 강남구	-10
50	주안역 1호선	인천 미추홀구	+1

서울 TOP 20

순위	출발지	지역	순위변동
1	미래에셋센터원빌딩	서울 중구	+2
2	이태원역 6호선	서울 용산구	-1
3	강남 파이낸스센터빌딩	서울 강남구	+6
4	유창빌딩	서울 서초구	new
5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 서초구	+3
6	이태원119안전센터	서울 용산구	-1
7	이태원역 6호선 4번출구	서울 용산구	+65
8	콘래드서울	서울 영등포구	-1
9	사당역 2호선 5번출구	서울 관악구	+4
10	종각역 1호선 12번출구	서울 종로구	+0
11	중앙보훈병원역 9호선 3번출구	서울 강동구	new
12	OneFC	서울 영등포구	+2
13	합정역 6호선 8번출구	서울 마포구	+6
14	신사역 3호선 8번출구	서울 강남구	+7
15	노보텔앰배서더 서울용산	서울 용산구	+7
16	KT&G상상마당 홍대	서울 마포구	new
17	CGV 강남점	서울 강남구	-5
18	서울스퀘어	서울 중구	-1
19	LG트윈타워	서울 영등포구	-3
20	여의도역 5호선 3번출구	서울 영등포구	+4

광주 TOP 10

순위	출발지	지역	순위변동
1	중흥S-클래스스카이31오피스텔	광주 서구	+0
2	유탑유블레스오피스텔	광주 서구	new
3	상무리체1오피스텔	광주 서구	+0
4	농성유탑유블레스아파트	광주 서구	-2
5	센트럴시티오피스텔	광주 서구	+0
6	골든빌오피스텔	광주 서구	+1
7	랜드피아오피스텔	광주 서구	+1
8	유탑유블레스트원시티오피스텔	광주 서구	new
9	상무리체2차오피스텔	광주 서구	new
10	계림신용협동조합 본점	광주 동구	+2

대구 TOP 10

순위	출발지	지역	순위변동
1	침산태왕아너스로뎀오피스텔	대구 북구	+0
2	화성파크드림시티오피스텔	대구 중구	+39
3	동대구유성푸르나임오피스텔	대구 동구	+15
4	삼덕119안전센터	대구 중구	+1
5	마크팰리스범어오피스텔	대구 수성구	+44
6	인터불고코아시스오피스텔	대구 중구	+3
7	노마즈하우스오피스텔	대구 중구	+17
8	계성고등학교	대구 서구	-6
9	부띠끄시티드라마오피스텔	대구 동구	+88
10	침산화성파크드림아파트 1006동	대구 북구	new

순위	도착지	지역	순위변동
1	동대구역	대구 동구	+0
2	대구국제공항	대구 동구	+0
3	삼덕119안전센터	대구 중구	+0
4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	대구 동구	+1
5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대구 동구	-1
6	현대백화점 대구점	대구 중구	+0
7	대구서부정류장	대구 남구	+0
8	대구역	대구 중구	+1
9	동대구터미널	대구 동구	-1
10	영남대학교병원	대구 남구	+1

순위	도착지	지역	순위변동
1	김포국제공항 국내선	서울 강서구	+0
2	서울역	서울 용산구	+0
3	수서역	서울 강남구	+0
4	용산역	서울 용산구	+0
5	서울고속버스터미널(경부)	서울 서초구	+1
6	신림역 2호선	서울 관악구	+3
7	동서울종합터미널	서울 광진구	+0
8	홍대입구역 2호선	서울 마포구	+0
9	수서역 SRT고속철도 1번출구	서울 강남구	+2
10	서울아산병원	서울 송파구	+3
11	강남역 2호선	서울 강남구	-1
12	영등포역	서울 영등포구	+3
13	김포국제공항 국제선	서울 강서구	-8
14	잠실역 2호선	서울 송파구	-2
15	서울대입구역 2호선	서울 관악구	+1
16	이태원역 6호선	서울 용산구	-2
17	수유역 4호선	서울 강북구	+1
18	건대입구역 2호선	서울 광진구	-1
19	센트럴시티터미널(호남)	서울 서초구	+2
20	삼성서울병원	서울 강남구	+2

대전 TOP 10

순위	출발지	지역	순위변동
1	롯데시티호텔 대전	대전 유성구	+0
2	동기포에비아파트	대전 서구	+2
3	트리플시티9단지 서문상가	대전 유성구	+0
4	역전약국	대전 동구	new
5	트리플시티9단지 정문상가	대전 유성구	+2
6	선화2참좋은아파트	대전 중구	new
7	유성농협하나로마트 궁동점	대전 유성구	+6
8	대전가톨릭사회복지회관	대전 대덕구	+12
9	아너스빌오피스텔	대전 서구	-1
10	비에스타워	대전 유성구	+14

부산 TOP 10

순위	출발지	지역	순위변동
1	범내골역한라비발디STUDIO422	부산 부산진구	+0
2	더블루오피스텔	부산 부산진구	+0
3	서면DS협성엘리시안아파트	부산 부산진구	+0
4	해운대베르나움오피스텔	부산 해운대구	+2
5	파크하얏트 부산	부산 해운대구	-1
6	더샵센텀스타아파트	부산 해운대구	new
7	한일오르뉴오피스텔	부산 해운대구	+7
8	큐브아이오피스텔	부산 연제구	-3
9	연산동웰메이드오피스텔	부산 연제구	new
10	힐튼호텔 부산	부산 기장군	new

울산 TOP 10

순위	출발지	지역	순위변동
1	태화강리버테라스오피스텔	울산 남구	+2
2	현대문화2차아파트	울산 남구	+0
3	삼산로코아루밸리채오피스텔	울산 남구	-2
4	현대문화1차아파트	울산 남구	+1
5	번영로드림파크오피스텔	울산 중구	new
6	동광모닝스카이오피스텔	울산 남구	new
7	태화강엑소디움아파트	울산 중구	-1
8	울산신정동신정지웰아파트	울산 남구	new
9	세븐일레븐 울산삼산코아루점	울산 남구	new
10	호계역	울산 북구	-3

인천 TOP 10

순위	출발지	지역	순위변동
1	로터스프라자	인천 부평구	+2
2	투썸플레이스 부평점	인천 부평구	+4
3	구월아시아드더블루시티오피스텔	인천 남동구	+9
4	부평현대dropt오피스텔	인천 부평구	+10
5	롯데캐슬캐퍼스티운오피스텔 202동	인천 연수구	-1
6	레지던스라이크홈	인천 연수구	-5
7	포스코타워 송도	인천 연수구	+9
8	테크노파크역 인천1호선 3번출구	인천 연수구	-1
9	테크노파크역 인천1호선 2번출구	인천 연수구	-4
10	논현푸르지오시티2차오피스텔	인천 남동구	new

순위	도착지	지역	순위변동
1	대전역	대전 동구	+0
2	대전복합터미널	대전 동구	+0
3	갤러리아백화점 타임월드점	대전 서구	+0
4	서대역	대전 중구	+0
5	유성고속버스터미널	대전 유성구	+1
6	유성시외버스정류소	대전 유성구	-1
7	롯데백화점 대전점	대전 서구	+0
8	신탄진역	대전 대덕구	+1
9	대전역 동광장	대전 동구	+2
10	충남대학교병원	대전 중구	+3

순위	도착지	지역	순위변동
1	부산역	부산 동구	+0
2	김해국제공항	부산 강서구	+0
3	김해국제공항 국내선청사	부산 강서구	+4
4	롯데백화점 부산본점	부산 부산진구	-1
5	부산서부버스터미널	부산 사상구	-1
6	신세계백화점 센텀시티점	부산 해운대구	-1
7	쥬디스타화	부산 부산진구	-1
8	하단역 부산1호선	부산 사하구	+1
9	롯데백화점 광복점	부산 중구	-1
10	NC백화점 서면점	부산 부산진구	+18

순위	도착지	지역	순위변동
1	울산역	울산 울주군	+0
2	현대백화점 울산점	울산 남구	+0
3	울산시외버스터미널	울산 남구	+0
4	롯데백화점 울산점	울산 남구	+0
5			

발행일 2020년 9월 14일

발행인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류금선 Alex

발행처 (주)카카오모빌리티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역로 152 알파돔타워 13층

집필진 총괄
김건우 Gunn, 김정민 Dominic, 이정화 Lia, 최효진 Jane

기획, 집필
김예슬 Hazel, 도상원 Robin, 성윤혜 Yune, 윤성원 Santiago,
이성우 Mark, 이세영 Winnie, 이진원 Bisma

데이터 분석
김동일 Bob, 김미경 Shae, 김상호 Crong, 김수용 Iron,
이진희 Jenny, 하현철 Kai

디자인
우솜이 Cottony